

이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22-OLU-2250006)

개회사

강선화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단장 강선화입니다. <2024 한국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조연설을 흔쾌히 허락하신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님,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책 번역 출판을 허락해주신 조재호 교수님, 몽골 중앙위원회 엠.보잉델르게르 위원님, 오늘 발표해주실 한국, 몽골,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의 열다섯 분의 학자님들, 국내외에서 참여하시는 참가자분들, 특히 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학교 관계자와 경영경제대학 교수님들, 한국학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학 연구, 교육 역량을 갖춘 해외 주요 대학에 지역한국학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인접 한국학 기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한 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역, 투자, 관광, 물류 등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협력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통찰과 발견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강요열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단과 경제경영대학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한국에서 오셔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축사 해주실 박민규 몽골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엠.보잉델르게르 몽골 중앙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1부터 발표 14까지 좋은 발표를 맡아 해주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 우리 대학이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지원하여, 세계에서 3개 대학만이 선정되었는데, 미국과 호주의 1개 대학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가 선발된 것은 큰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러 5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수한 역량을 구현하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의 다방면에 걸친 경제 분야를 연구하여 수준 높은 발표 및 토론을 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들로 채워져 있어서 더욱 고무적인 학술회의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가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아주 유익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발표는 물론 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과 활발한 토론이 오가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최하는 사업단에도 치하와 격려를 드리며, 참석하신 소중한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환영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박민규
(몽골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안녕하십니까.

몽골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박민규입니다.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하는 ‘2024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몽 양국 경제인 및 관련 기관간 교류 협력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 ‘한국과 몽골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국제학술회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990년 수교 체결 당시 217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 규모는 2012년 4억 8700만 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이후 몽골 경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으로 하락세를 거쳐 2023년 5억 4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량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양국간 교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은 한·몽 경제동반자협력(EPA)‘ 체결을 위한 본 협상이 심도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2016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 양국은 2023년 12월 경제동반자협력(EP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 개발 협력, 디지털 등 16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몽 경제동반자협력(EPA)’ 체결은 양국 기업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내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 체결된 ‘몽·일 경제동반자협력(EPA)’ 이후 일본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식품 등의 몽골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모두가 체감했으며, 이는 향후 ‘한·몽 경제동반자협력(EPA)’ 이후를 대비하는 유효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한인상공회의소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양국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몽골상공회의소, 울란바타르상공회의소 등과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기업인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자이자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몽골과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양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haring the Korean Economic Experience
for ‘the Miracle of the Tuul River’**
‘틀강의 기적’을 위한 한국 경제 경험의 공유

Hurr Hee Young(Ph.D)

(Korea Aerospace University)

hyhur@kau.ac.kr

ABSTRAC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over the past 70 years since its liberation in 1945 has been like a drama without a script, achieving high grow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led to the devastation of the majority of South Korea's industrial infrastructure, severely undermining its ability to rebound. Without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ation was in a dire situation where its citizens could not even afford their daily meals. During that period, South Korea's income level ranked among the lowest globally. This study endeavors to illuminate South Korea's journey from post-war devastation to its emergence as one of the world's top 10 economic powers,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despite its scarcity of natural resources. It seeks to highlight insights gained from this journey and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could provide valuable guidance for formulating a developmental roadmap for the Mongolian economy, reminiscent of the pursuit of the "Miracle on the Tuul Ri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0, Mongolia and Korea have steadily enhanced their economic cooperation. Specifically, consolidating the policy proposals advanced through Korea's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since 2010, spanning more than 40 secto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land development, fiscal policy,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will offer an opportunity to affirm the foundational trajectory for Mongolia's economic advancement in the future. The Korean case highlights the significant role of strong governmental leadership and the effective operation of market economy principles in the private sector. To facilitate economic advancement throu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licy initiatives should focus on modernizing the government bond issuance system, upgrading distribution systems,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collateralized debt transactions.

[서론] I.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

1-1. 경제 협력에 대한 상호 인식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4년간 경제, 개발 협력, 인적 교류 등 다방면으로 굳건히 발전해 왔다.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 보완성과 향후 양국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경제, 사회,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전문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몽골을 방문했던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세계 10위권의 자원 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듯이 미·중 공급망 경쟁 속에서 희소금속 확보가 각국의 중요

한 외교 목표가 된 상황에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원 부국인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다. 한국은 지금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용 희토류와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몽골의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도 양국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적인 경제교류를 위해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국제공급망 협력으로 경제 협력의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몽골은 광물 자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과 교육 지원을 추진 중이다.

1-2. 교역 동향

몽골과 한국은 1990년대부터 무역 교류를 시작했으며, 2012년 양국간 교역액이 4억87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였으나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몽골 경제가 2021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며, 광물 수출 확대 및 외환 보유고 증대로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들 또한 몽골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는 몽골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5.5%, ADB와 WB는 각각 6.1%와 6.3%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몽골의 제4위 교역국으로 성장했으며, 최근까지 무역 규모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몽골의 2023년 교역규모는 사상 최고치로 약49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몽골의 한국에 대한 상품 수요 증대 및 각종 부문 프랜차이즈 진출 확대에 따른 효과로 해석된다. 몽골에는 이마트, CU, GS25 등 유통업 프랜차이즈 외에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이 이뤄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당분간 늘어날 것이다.

몽골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광물이며, 한국의 몽골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소비재로 요약됨. 몽골은 금속 및 비금속광물, 의류 등의 품목으로 한국의 수입액 중 약 50% 이상을 광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양국이 희소금속연구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향후 광물 무역은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연초류, 화장품,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등 소비재 및 수송기기 품목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화장품, 음료, 주류, 면류 등 품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망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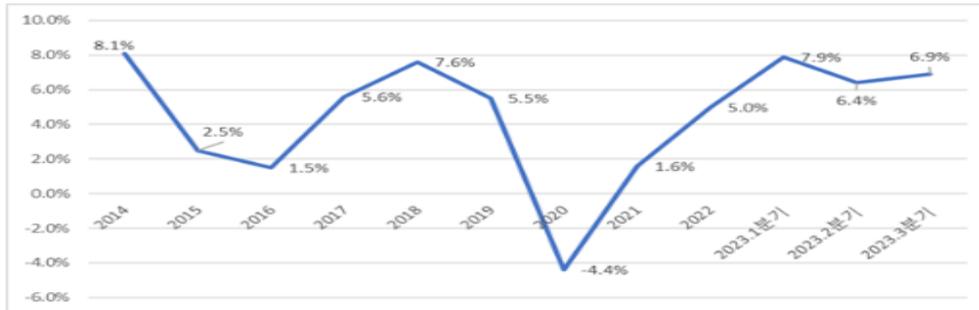
<2013.~2023.10. 한-몽 교역 추이>
(단위: US\$ 천,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교역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9	291,073	-5.4	32,595	21.2	258,477	323,668
2020	271,157	-6.8	20,535	-37.0	250,662	291,692
2021	384,715	41.9	24,948	21.5	359,766	409,663
2022	426,344	10.8	38,240	53.3	388,104	464,584
2023.10.	404,018	8.8	50,339	57.7	353,678	454,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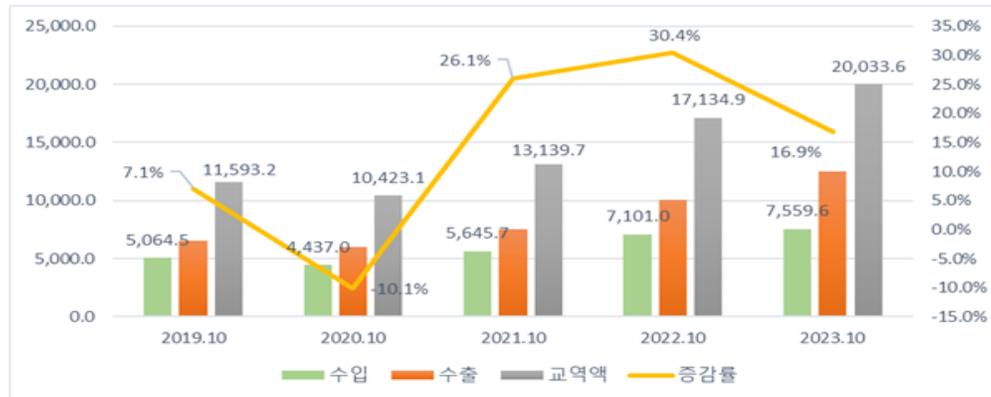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10년간 몽골 경제성장률>



[자료: 몽골 통계청]

<최근 5개년 교역 추이>
(단위: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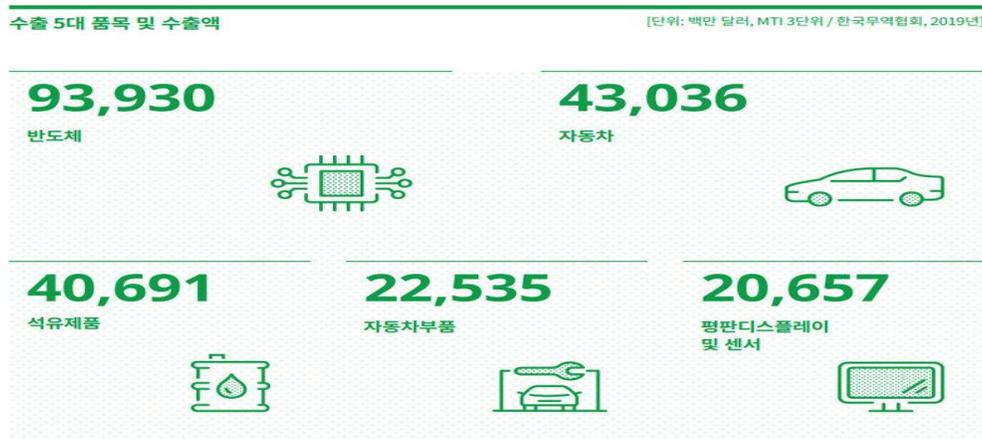
[자료: 몽골 통계청]

II. 한국경제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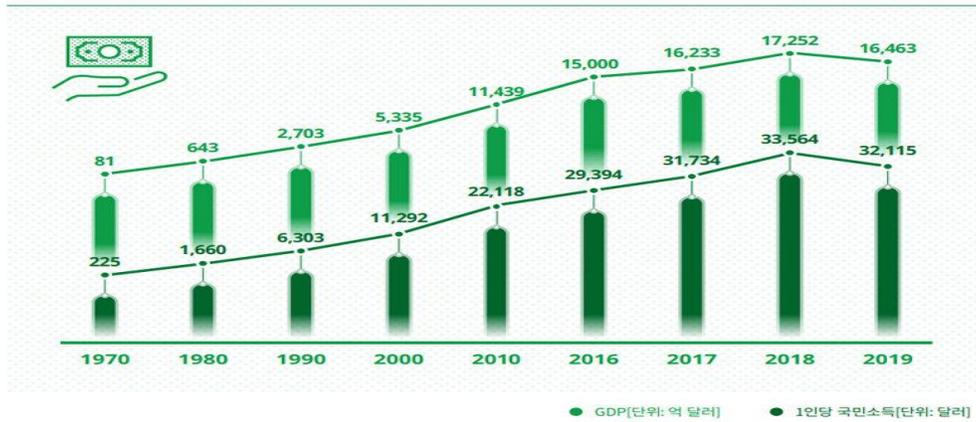
2-1. 시장경제 체제와 ‘한강의 기적’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존중하며, 그러므로 얻은 개인과 기업의 이득과 재산을 모두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무제한 보장하지 않으며, 헌법은 자본을 지나치게 남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 중 하나이다.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여건에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뤄낸 경제성장을 세계는 ‘한강의 기적(Miracle on the Han River)’으로 불리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처음에는 원자재나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한 경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다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 중공업 제품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 언론은 한국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비유했으며, 1996년 12월에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계 29번째로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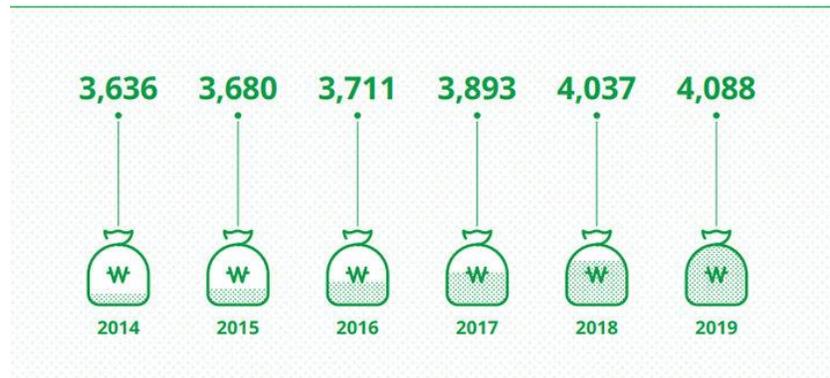


수출 실적은 1960년 3,282만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5,422억 달러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수립 무렵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32,115달러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집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탄생시켰다. 즉, 대기업 집단이 생기고,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대외 경제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1997년 1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외환 위기를 맞았다. 고도 경제성장 후에 처음 닦친 시련이었다. 그러나 과감하게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해 2년만에 성장률과 물가를 정상으로 돌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IMF로부터 빌린 외환을 갚기 위해 국민 350만 명이 집에 보관하던 227t의 금을 모아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채 갚기에 나선 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3년만에 외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동안 한국은 국제화된 경제·금융제도를 도입하는 부수 효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으나,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한국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계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5,046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3배가 넘는 1조 6,463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이는 세계 12위의 규모다.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4~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2008년, 2009년과 세계 경제가 위기 중인 2010년에도 6.3%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은 국제적으로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textbook recovery)로 평가된다.





한국은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한데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실적을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주춤했지만 2017년에는 1조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2019년 4,088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 외채 비율은 32.9%로 G20 가운데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2.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며, 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해외자본투자에 각종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금융허브와 물류기지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 완전히 개방되었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7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 FTA에 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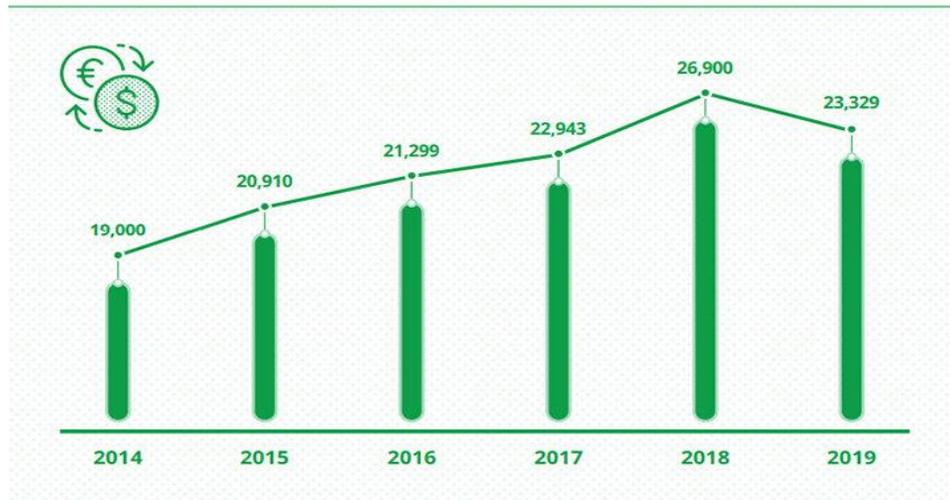
2-3.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시스템

한국은 시장 개방과 동시에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뜻한다. 이 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

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33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익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본사 및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신고 제도를 통합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와 중국, 중동 등 신흥 자본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IR 행사인 외국인 투자주간(FIW) 개최 및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레드 카펫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전국 항만 물동량 및 환적 변동 추이



2.4 동북아 물류 허브 투자

한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중이며,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하역 설비를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물류 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배후단지를 늘리고, 화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276만 t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항공화물은 중량 기준으로 수출입 물량은 0.2~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고,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항공 물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 예약에서 추적까지 가능한 최첨단 항공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8년 1월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인천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450만 t에서 580만 t으로 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포항, 동해 등 무역항이 발달했다. 2019년 항만의 화물 처리 실적은 16억 4,397만 t(RT)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Ⅲ. 브랜드 및 글로벌 전략

3-1. 브랜드 전략과 코리아 스탠더드

한국 정부는 매년 '세계 일류 상품'을 선정하여 수출 품목의 다양화, 고급화를 도모하고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120개 품목, 140개 기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2019년 817개 품목, 917개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이들의 수출 비중도 최근 5년간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중이 2001년 37%에서 2019년 76%로 증가하며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세계시장 진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강점은 정보기술, 즉 IT산업이다. 이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멀티 미디어·통신 기기 등은 물론, 경영혁신·행정쇄신 등 정보화에 필요한 유형·무형 기술을 아우르는 분야다. 잘 갖춰진 통신기반시설을 바탕으로 4세대(4G) 이동통신은 전국망을 갖추었으며,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19년 ICT 수출액은 1,7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휴대전화,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IT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3,951만 대로 세계 자동차 생산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철강, 화학 등의 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K-POP, 방송프로그램, 게임산업으로 대표되는 문화상품 수출국이 되었다.



[사진은 부산에서 개최된 ‘지스타(G★) 2017’ 게임 장면]

최근 한류의 인기를 반영하듯 문화 콘텐츠의 수출액은 2008년 23억 달러에서 2018년 96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문화 콘텐츠에는 출판, 음악, 게임, 캐릭터, 방송, 영화, 웹툰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관심을 쏟는 분야가 게임 산업, 게임 콘텐츠이며, 게임 산업은 영상, 아이디어, 컴퓨터 기술이 결합한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게임 산업에서 약 14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출에서도 약 64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북미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창업 국가’라는 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ICT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하고, 규제 개혁과 기초 연구, 인력 양성과 미래산업 전략 투자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할 전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2020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며 2012년 이후 9년 연속 Top 3를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의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3-2.글로벌 전략

한국은 글로벌 경제구조로 전환 중이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통한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 문제를 협의로 풀어내기 위해 동반성장 위원회를 설립하여 산업계의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기업의 동반 성장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별 갈등 요인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도 이런 맥락이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위주의 G7 회의는 한계가 있고, 주요 신흥국도 포함하는 국제 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배경이다.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 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크게 늘었으나 국제 금융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장관 차원의 회의를 정상급회의로 상향한 것이 G20 정상회의이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했으므로 국제 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개발 콘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다년간 개발행동 계획(Multi-year Action Plan)’,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3개 부속서를 발표하였다. 서울 선언은 주요 국가 간 환율 전쟁을 끝내고 선진국 중심의 IMF를 개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빈곤 국가에 대한 경제 개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선언은 국제 경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론] IV. 경제발전 경험의 공유

4-1. 한국의 경제개발 60주년과 ‘한강의 기적’

2023년 5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 한국경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한강의 기적'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까지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온 역대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경제개발의 성과와 국제개발 협력, 미래 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에 대해 현재 몽골을 비롯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강의 기적'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몽골은 2010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40개의 정책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는데, 2010년에는 인프라 투자, 2017년은 금융시장 육성 방안, 2021년에는 국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한국의 조언을 통해 작년 증권 시장 규모가 2018년 대비 2.4배 커졌으며, 1962년 한국은 가장 가난한 국가였지만 2020년 공식적으로 원조국(donor country)이 되었다. 한국의 사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다.”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자브홀란 볼드 몽골 재무장관).



[서울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역대 부총리들과 해외 내빈]
*사진 출처 : 2023.05.25. / 뉴시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가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공유사업’이다. 2009년에는 KSP를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Sharing the Future with Korea)’으로 브랜드화하고, 기존에 1년간 실시하던 전문분야별 정책자문 방식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3년간 실시하는 중점지원국 제도를 전환했다. 한국은 KSP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87개국 대상으로 1,300여 개 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해 왔다. 몽골과의 KSP 사업은 2010년 개시 이래 현재까지 거시·금융, 국토개발, 재정 및 산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 48개 세부 주제별 연구와 정책 자문을 하였다.

4-2. 경제발전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제언

몽골과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제는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문화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은 다양한 경제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몽골 정책 부서의 관점에서 그 세부 사항을 잘 파악하고 반영하여 몽골의 경제사회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몽골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30년이 지나 사람으로 비유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야 실질적인 사회생활 경험을 쌓는 사회 초년생으로 볼 수 있어 아직 발전의 여지가 아주 많다. 특히 자본시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한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의 정책경험을 공유 받아 시사점을 얻기를 기대한다. 몽골은 최근까지 지난 몇 년간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채 발행 중단, 결제주기 변경 등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 선진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KSP와 같은 협력사업이나 한국의 예탁결제원과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분야별로 몽골과 한국의 전문 연구자들과 정책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2022년 10월에 종료된 KSP 사업의 보고서는 몽골 경제의 발전 방향에 기본지침이 될 수 있다. 향후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시스템의 선진화,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국제 담보부 거래 도입기반의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몽골의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문 요약

한국의 경제 발전은 1945년 해방 이후 70여년간 각본 없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남한에 있던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재기의 여력마저 잃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으면 국민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은 세계 최하위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존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조명해 보고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툴강의 기적’을 모색하는 몽골경제의 발전 로드맵 구축에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2010년부터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금융제도와 국토개발, 재정 및 산업과 무역정책 등 40여 개의 부문에 대해 추진된 정책 제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향후 몽골의 경제적 도약에 기본방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민간 부문에 잘 정착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로 요약된다.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특히 국채 발행 시스템의 선진화,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국제담보부 거래 도입 기반의 마련 등에 대한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KOTRA, 통계자료 2023.
2. 이재영(2010), 21세기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 (내년 6% 경제성장 꿈꾸는 몽골 경제)
4.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KSP(몽골) 보고서, 2022.

[참고 사이트]

1.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2.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mn-ko/index.do>
3.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www.kotra.or.kr/index.do>
5.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main/main.do>
6. 통계청 <https://kostat.go.kr/ansk/>
7.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
8.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index.do>

Recent economic Trends in Korea and Mongolia

한강의 기적과 톨강의 기적

Cho Jae Ho(Ph.D)

(University of Ulsan)

jhcho@ulsan.ac.kr

ABSTRACT

Mongolia is the world's 10th largest resource-rich country and has important potential in the global supply chain in the future. Mongolia's economy is growing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consumption and mineral exports, but there are many obstacles to its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a narrow domestic market, a weak manufacturing base, and a geographical location surrounded by Russia and China. In this paper, while pointing out the recent weakness of the financial and labor markets, the national industries achieved by the founder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Korean economy, were introduced to suggest ways to develop the Mongolian economy. Finally, it argued that the accumulation of quality human capital and the active emergence of government and private entrepreneurships were also essential.

I. 서론

몽골은 세계 10 위 자원 부국으로 구리, 석탄뿐만 아니라 형석, 희토류 등 매장량이 풍부하여,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몽골 경제는 최근 소비와 광물 수출 증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협소한 내수시장, 취약한 제조업 기반,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광물 시세에 연동되는 불안정한 경제구조 등 경제성장에 많은 장애요소가 있다.

최근 몽골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사 경제 용어들이 혼재되어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10 대 자원부국, 젊은이들의 나라, 1 인당 GDP 4,500 달러, 총인구 340 만명의 유목국가, 3C(Copper, coal, china), GDP 25%수준의 광업, Oyu Tolgoi 광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소득의 양극화, National Wealth Fund(NWF), 캐시미어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한강의 기적’을 소개하고 그 과정을 몽골 경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총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국가 부의 창출 과정을 설명하고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World Bank 및 기타 몽골 경제 자료를 이용하여 몽골 경제의 현황과 금융 및 노동시장의 특징을 확인한다. 제 4 장에서는 한국 경제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창업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몽골 경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부의 창출과 기업가정신

경제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의 부를 축적 시킬 수 있는 과학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인 처방이란 용도에 맞게 inputs 을 넣으면 일정하게 output 이 발생한다고 기대한다. 이를 총체적 생산함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Y = AF(K, L, h) = AF(K, hL)$ 여기서 Y, K, L, h 는 국내총생산(GDP), 자본량, 노동량, 1인당 인적자본을 나타내며, hL 은 인적자본 부가적(human capital-augmented)노동량을 나타낸다. A 는 총요소생산성으로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생산함수(GDP)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는 지리적 여건(부존자원 등), 문화, 운 등이 있다. 이들 변수들은 물적, 인적 자본과 반응하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및 제도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택된 제도와 경제정책은 다시금 기업가 정신 발현에 영향을 주고 생산성 향상과 부존자원 개발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생산함수에 포함되는 부존자원, 물적 자본, 인적자본, 교육, 투자, 수출, 연구개발투자 등 생산요소(inputs)는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들 생산요소들이 기업가 정신과 반응할 때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이 끊임없이 발생할 때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어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의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다. 국가 간의 소득의 차이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정도에 따라서 발생한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경제개발정책과 베트남 파병, 중동 건설시장 참여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개척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정부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인들의 은근과 끈기로 뭉쳐진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한편 제 4 장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창업자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이룩한 국가산업들도 소개한다.

III. 몽골 경제의 현황

1. 몽골 경제

World Bank 는 2023 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을 5.8%로 예측하였다. 한편 2023 년 하반기부터는 석탄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로 2024년에는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광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농업 생산도 회복되고, 민간 소비 증가에 따라 서비스 부문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긴축 통화 정책과 국제 시장에서의 식료품 및 연료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지속적인 재정 확대 속)으로 인해 수요 압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에는 평균 9.1%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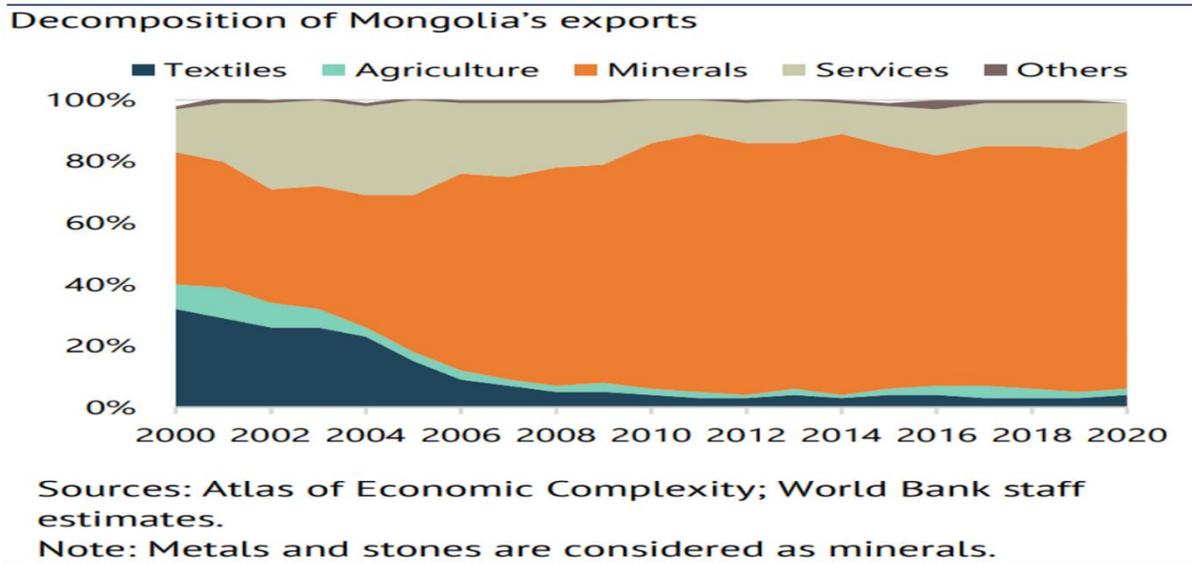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수입수요 증대 그리고 수입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GDP 의 13.7%로 예측되었으며 해외자본 유입 저조 등으로 해외 부채는 2024년 GDP 의 52%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몽골의 GDP 구성을 보면 2000년부터 농 목축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보다는 축산업의 비중이 큰 구조 (농업: 14%, 축산업: 86%)이다. 반면 광업은 2000년대

비중이 몽골 GDP 의 10% 수준이었으나 2010 년 22%, 2021 년 25%까지 증가하는 등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업의 규모가 산업 생산의 65%, 전체 수출의 84%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0 년대 도 소매업의 비중은 15%이었으나 2021 년 현재까지 그 비중은 변화가 없다. 제조업의 비중은 8.5% 수준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자료, Kotra 2022).

몽골의 자원의존도는 <그림 1>의 수출구조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2020 년 전체 수출에서 광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이른다. 그 외 제조품의 수출비중은 약 4%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수출구조를 보여준다. 몽골의 최대 교역 대상 국가는 중국으로 2022 년도 1~10 월 기준 몽골 수출의 84%, 수입의 34%를 중국이 차지하며 특히 광물의 약 96%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자료, 몽골 관세청, 2023). 향후 중국으로의 광물 특히 석탄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몽골의 대중국 수출비중 및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몽골의 수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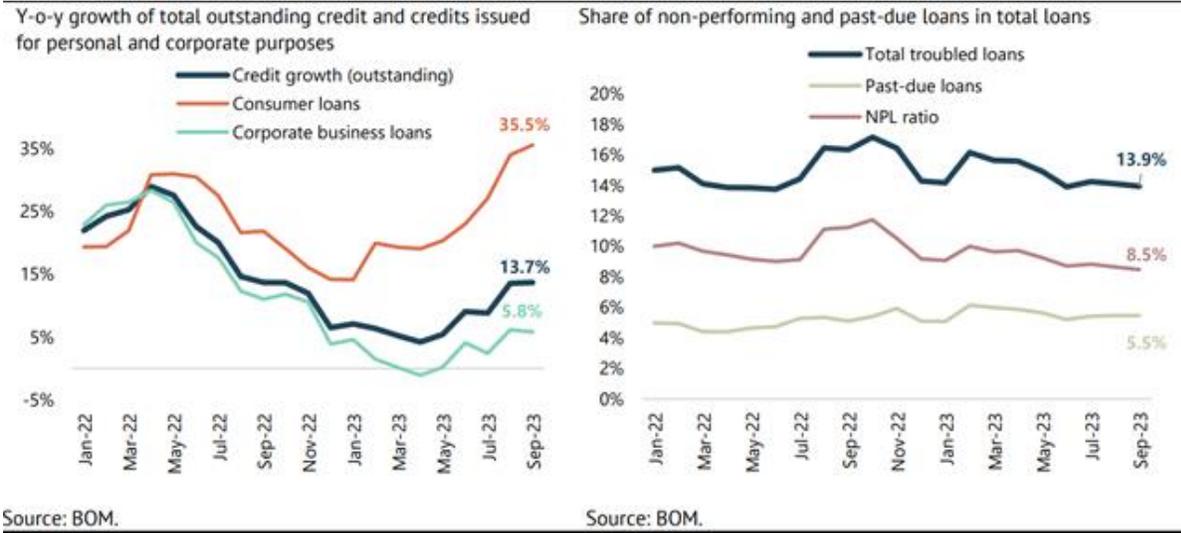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2023

2. 금융시장, 노동시장과 기업 환경

최근 몽골 금융과 노동시장 자료를 보면서 GDP 확장 가능성과 기업가 정신이 출현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확인한다. 먼저 몽골 금융시장을 살펴보자. <그림 2>에 따르면 2023 년 9 월 금융기관이 빌려준 자금의 상당부분이 소비자 대출(35.5%)로 구성되었으며, 기업대출은 5.8% 수준으로 소비자금융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13.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금융 대출보다 소비자금융 대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생산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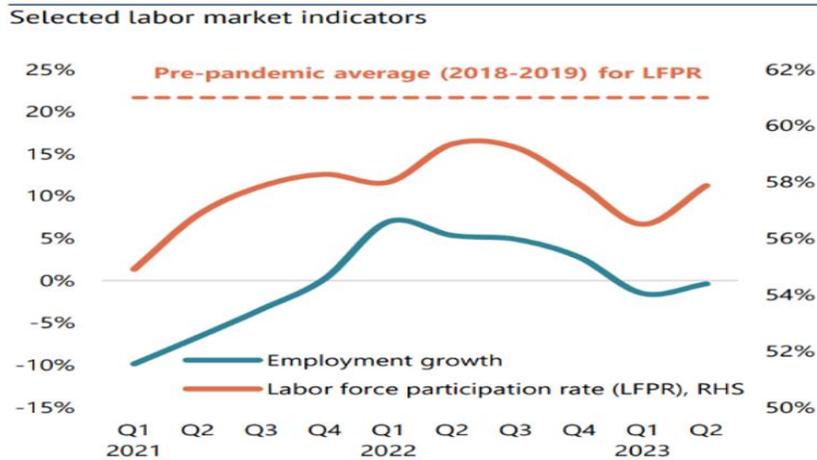
<그림 2> 몽골 금융시장 현황



출처: World Bank 2023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2023 년도 고용증가율과 노동 참여율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2023 년도 노동참여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 년도 고용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 년 2 분기는 0% 수준으로 회복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림 3> 몽골의 취업률과 노동 참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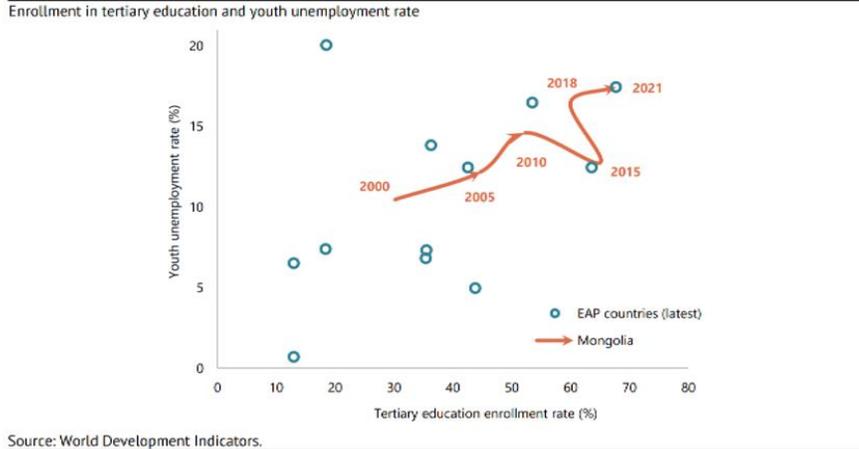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2023

<그림 4>는 고등교육(최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등록률과 젊은 층 실업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고등교육 등록율은 2000 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약 10% 포인트정도 확대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젊은 층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2018 년 수준의 높은 실업률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즉, 같은 기간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등록률 상승 의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실업률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 몽골의 청년실업률과 고등교육등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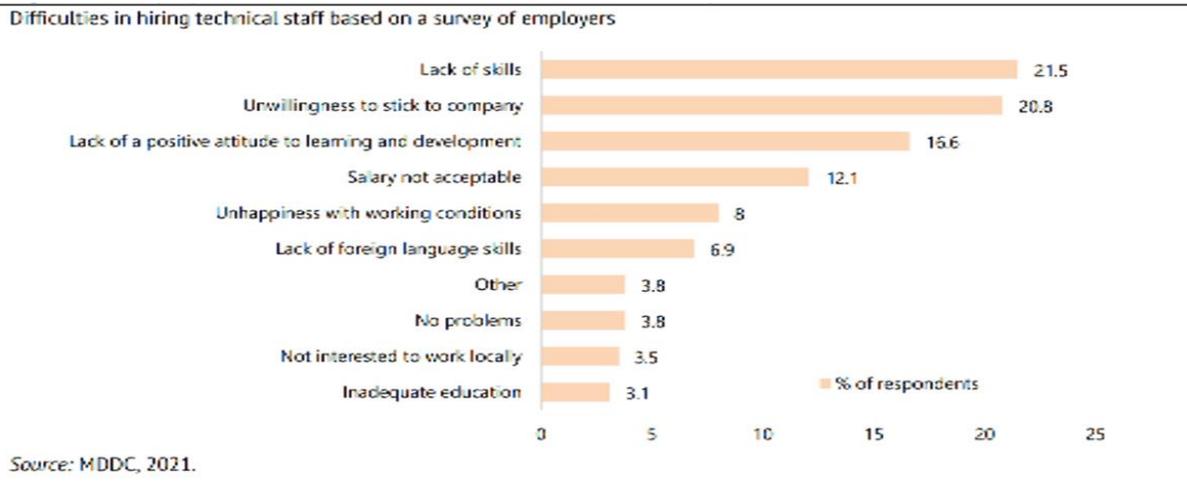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출처: World Bank 2023

고등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파악한 노동자의 근무 질적 수준을 나타낸 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능력 부족’ 응답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이직률’ 그리고 ‘낮은 도전정신’ 등으로 사업 현장에 공급되는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몽골 경제가 겪고 있는 협소한 내수시장, 민간 및 외국인투자의 불안정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노동공급(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 몽골 근로자 질적 수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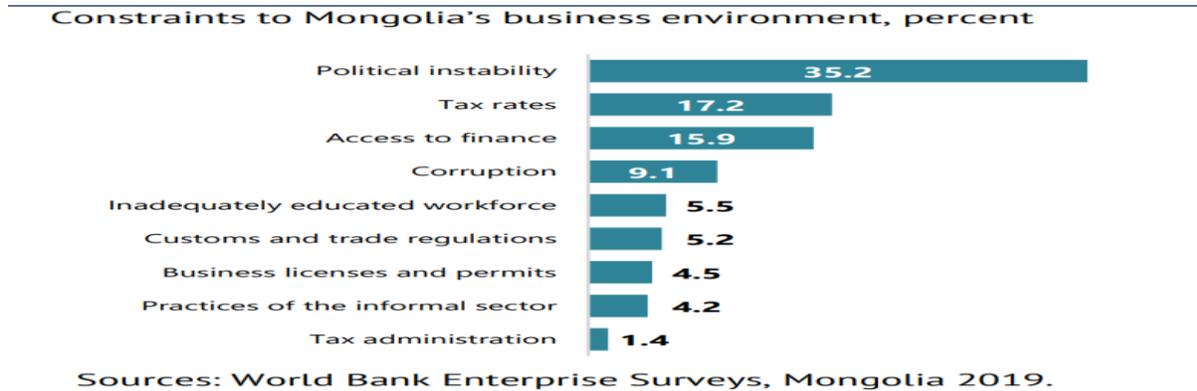


Source: MDDC, 2021.

출처: World Bank 2023

몽골 기업환경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2019 년 조사 자료와 2023 년 자료를 소개한다. 2019 년도 World Bank 기업 환경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그림 6>에서 보듯이, 우려되는 기업환경 장애는 ‘정치적 불안정’ 응답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왜곡된 세금’, ‘신용에 대한 접근 부족’ 및 ‘부정 부패’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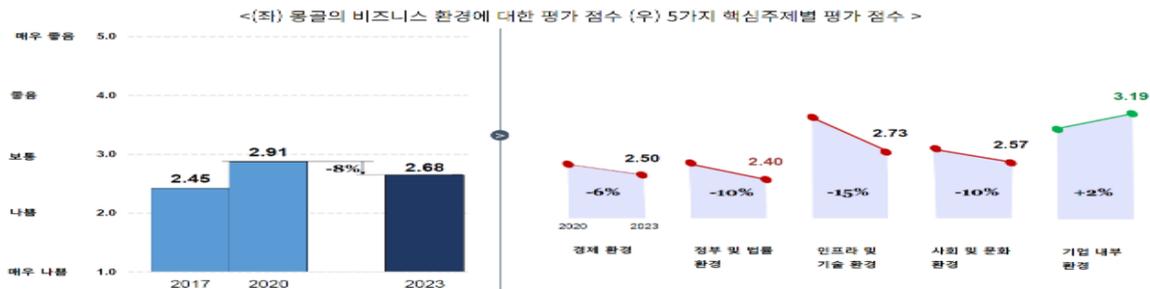
<그림 6> 2019 년 몽골 비즈니스 환경조사 결과



출처: World Bank, 2023

2023 년 몽골 비즈니스 환경 조사(12 월 6 일 몽골 상공회의소와 몽골 국립대학교 경영대학은 공동으로 몽골 전역 3800 여 개 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2023 년 비즈니스 환경이 2020 년 조사결과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핵심 5 가지 지표 중에 기업 내부 환경이 3.19 점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하였지만, 앞에서 설명한 <그림 6>의 결과와 유사하게, 정부 및 법률 환경이 2.5 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 몽골 비즈니스 환경에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금융 분야에 해당되는 환율 변동 영향, 인플레이션, 저금리대출 확보 가능성 등이 다수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구매력, 생활 수준도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투자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투명하고 효과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료, Amarsanaa, 2024).

<그림 7> 2023 년 몽골 비즈니스 환경조사 결과



[자료: 몽골 상공회의소]

출처: Amarsanaa, 2024

이상 제한적이지만 몽골의 금융제도와 노동시장의 자료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들 시장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가정신이 발현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근 몽골의 높은 경제성장률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IV. 한강의 기적과 툭강의 기적

현실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 및 금융제도를 완비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없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사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능력 있는 기업가들도 없으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산업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가 몽골경제발전 전략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산업화 역사를 요약해서 서술한다.

1. '한강의 기적'(요약)

세계 경제학자들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개발도상국 중 자국이 생산한 자동차 및 핸드폰을 미국 시장에 수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환호하였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짧은 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앞으로도 그 사례가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초기 조건은 열악하였다.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천연자원도 없으며, 있는 것이라고는 비숙련 인적 자원뿐이었다. 1960년대 수립한 제3공화국은 빈곤으로부터 해방, 조국의 근대화라는 의지에서 체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철도, 항만, 도로, 발전시설과 같은 사회간접 자본투자가 필요하였다.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외부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국내자본이 축적될 기회가 없었다. 가발, 야생동물, 오줌까지도 수출해 보았으나, 곧 경공업 수출로는 3,000만 인구의 큰 경제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기술개발이 가능하면서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산업 발전을 구상하였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외 차관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월남전 파병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경비, 원조 및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 미국의 도움으로 수출은 증대되고 해외 차관 도입도 원활해졌다. 기업가를 동원해서 중화학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미 획득한 자본으로 수립한 중화학공업정책에 몰두할 수 있었다. 몇몇의 저력 있는 기업가에게 산업발전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외국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정부는 국민에게 '조국근대화'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제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율, 1인당 국민소득, 수출목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수출 목표 1억 달러(1964), 10억 달러(1970), 100억 달러(1980, 1977년에 목표 달성)가 제시되었다. 경제개발 계획은 단순하고 명료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과 기간 설비 확충이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은 식량

자급자족과 공업화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1972~1976)은 경제자립과 중화학공장 건설이었다.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를 5년 단위로 나누었다는 것은 경제개발 목표와 현실과의 연결 사다리를 만들어 이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연결 사다리라는 것은 다소 요원해 보이는 궁극적인 장기 목표를 몇 개의 순차적인 단기 목표로 세분하여, 한 기간의 목표 달성이 다음 기간의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삼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세분화함으로써 종합적인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달성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성장은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높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제도의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전문적인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경제기획원 조직을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주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을 분석 평가하고 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월례수출확대회의 등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목표 관리를 하였다. 이 회의는 정부의 수출정책 방향 설정, 제도 확충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1979년 서거 때까지 15년 동안 단지 5차례를 제외하고는 매월 수출확대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각계 계층의 전문가들이 수출확대회의에 참여하니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회의 자체가 전문가 회의가 되면서 박정희대통령은 어떤 실무 담당자보다도 수출과 경제 상황에 조예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수출에 관한 제도적 장애가 하나 둘 제거되면서 기업가들이 생산적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끔 제도가 정비되었다.

절대 권력을 지닌 지도자가 직접 기업가와 접촉, 수출활동을 주도하면서 관료들도 수출업자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일반대출 이자율이 25%였던 1968년의 당시 수출 기업인에 대한 이자율은 6%였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는 세금을 전액 면제했다. 또 수출소득에 대해서는 8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었다. 그 당시 엄격히 규제하던 해외여행도 수출업자에게는 예외였다.

정부는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허락하였고 국내 소비를 위한 소비재의 수입은 제한하였다.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투기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수출확대에 공헌한 사람에게는 애국자적 활동이라며 칭송하였다. 수출의 날을 제정하고 수출 공로자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는 포상정책까지 동원되었다.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해 수출활동에 집중시키는 인센티브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하다. 한국은 외환위기(1997), 글로벌 위기(2008)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2020)을 맞이하였다. 위기를 차례차례 극복했던 한국은 이전의 개발도상국이 아니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국가들은 내부적 갈등 등으로 경제회복이 지체되었지만, 이 국가는 짧은 시간 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 기업, 근로자의 긴밀하고 민첩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위기극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체질이 개선되었다. 이전부터 시행한 전 산업의 수출화 전략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경제위기의 위험을 민첩하게 분산시킬 수 있었다. 세 번에 걸친 위기극복을 통하여 지혜가 쌓여지면서 웬만한 경제위기는 쉽게 회복하는 저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이다. (자료, 조재호 2021)

2. 개발도상국의 창업 사례들

개발도상국들이 생산하여 성공한 수출상품을 몇 가지 소개한다. 이들 상품들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제약을 넘어서 전문화(specialization)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례 뒷면에는 비교우위설로 설명 못하는 정부와 창업자의 도전과 집념으로 뭉쳐진 기업가 정신이 있다.¹

인도는 농업국가로서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지식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이 1980년대부터 발달하여 현재 400만명 젊은 인재가 IT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Infosys & Wipo의 창업자인 Narayana Murthy는 동업자 6명과 함께 250달러로 창업해서 미국과 인도간의 시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실험 삼아 시도한 소프트웨어 사업(월급 계산 업무와 콜센터 서비스 등)이 성공하였다. 이 회사의 기술이 지역의 다른 기업에게 전수되고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전문화되면서 중요한 수출 자원이 되고 있다. 2020년 인도의 IT 산업은 GDP의 8%를 기여하고 있고 IT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AI(인공지능) 산업발전으로 향후 인도의 IT 산업은 더욱더 급속한 발전이 예상된다. 인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없고, 숙련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가정신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이다.

콜롬비아는 미국인 기업가 Thomas Kehler가 화훼산업(cut flower)을 일으켜 세계적인 Floramerica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콜롬비아에서는 Floramerica로부터 know-how를 전수받아 1990년까지 250개의 수출업자가 생겨났다. 2021년 콜롬비아는 173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훼 수출국이 되었다. 화훼(cut flower) 수출의 주요 목적지는 미국(135억 달러)이고 화훼 농가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약 60%로, 화훼 산업은 일자리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성차별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칠레의 연어 양식사업(salmon farming industry)은 정부의 비영리 벤처사업(Fundacion Chile)으로 시작되었다. 칠레는 지리적으로 연어가 회귀하지 않는다. 정부의 벤처사업에 많은 민간 기업들이 연어 양식에 참여하면서 칠레는 세계 2위의 양식 생산국이 되었다. 2020년 연어 수출은 칠레 총 수출의 6.1%, 칠레의 주요 연어 수출국은 미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중국이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대우 실업과 합작한 'Desh 회사'의 성공으로 섬유산업이 국가 산업이 되었다. 대우는 1967년도에 설립한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 수출 기업이었다.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힘입어 섬유제품을 수출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급성장한 대우는 제 1차 석유파동 이후인 1974년부터 선진국들의 섬유 수출 쿼터 규제를 받게 되었다. 대우는 선진국 섬유규제를 받지 않고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을 생산기지로 선정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의 전직 관리였던 Noorul Quader와 접촉되었고, 그는 1978년에 'Desh Garment Company'를 설립하고 대우와 합작생산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5년간 'Desh'회사에서 생산된 의류의 공장도 가격의 3%를 로열티로, 그리고 해외 판매에 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대우는 'Desh'회사를 위해 공장의 제조 설비 공급과 라인 구축을

¹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 생산을 특화하여 자유무역을 한다면 무역에 참여한 국가가 무역이익을 본다는 비교우위설(comparative theory)이 있다.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 상품을 특화하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 상품을 특화 생산하여 교역한다면 상대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최근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부존자원 조건과 상관 없는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이 고도성장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책임지는 한편, ‘Desh’회사 노동자들을 부산 공장에서 1979년 4월 1일부터 7개월간 교육시켰다. 총 130명의 연수생은 관리자(4명)와 생산 감독(97명), 생산직(2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대우는 방글라데시 현지 생산을 위하여 15명의 대우그룹 선임 엔지니어를 투입해 품질관리를 지도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생산에 투입시킨 사례는 대우가 유일할 것이다. 의류 수출로 기업을 확장한 대우는 해외 마케팅, 인사관리, 노무관리, 심지어는 신용장 개설 방법까지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방글라데시는 의류 제조, 해외 마케팅 등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 대우는 ‘Desh’회사에게 섬유제품 생산, 수출, 판매 기술 등을 제공하였다.

무역은 다양한 금융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시도된 신용장을 이용하는 금융기법 및 보세가공제도 등이 소개되었다. ‘Desh’회사의 창업자는 전직 고위 관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로비를 하였다. ‘Desh’회사는 1년 반 만에 국제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되자 대우와의 계약을 파기하였다. 대우측의 기술협력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Desh’회사는 이후 6년 동안 매년 90%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대우와 계약이 파기되면서 한국 연수를 갔다 왔던 간부 대부분(130명 중 115명)은 독립하거나 ‘Desh’회사를 모방하려는 신생기업으로 전직했다. 대우로부터 전수된 지식을 ‘Desh’회사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들을 통해 지식이 유출되어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이 형성된 것이다.

대우와 합작을 시작하였던 1979년 이전에는 방글라데시에는 섬유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Desh’회사가 1979-1980년도에 처음으로 기성복 43,000벌(\$56,000)을 수출하였다. 1983년 180개에 불과했던 봉제공장이 2022년 8월 기준 약 5,000개로 급증했다.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은 국가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고용 400만 명에 직간접 연결 인구만 2,000만 명에 이르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의류 수출의 90% 이상이 미국과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갖는다. 첫째, 여성 취업기회의 확대이다.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종사자의 90%가 여성이다. 여성 취업기회의 확대는 자녀교육 기회의 확대로 연결된다. 여성이 취업하여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남녀 구분 없이 자녀들의 교육지수가 높아지며, 남성만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여성 자녀의 교육지수가 낮아진다(자료, 조재호 2021).

3. ‘틀강의 기적’

앞에서 설명한 인도의 IT 산업, 콜롬비아의 화훼산업, 칠레의 양식 연어 산업,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 발전 과정들이 몽골 경제 발전 방안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² 특히 한국의 수출 무역 관련 제도와 기술을 흡수한 Desh 회사의 성공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섬유산업 이외에도 1970년대 창업자가 선택한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여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따라서 몽골은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² 기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자는 자신이 직접 비용탐색(cost discovery)에 참여하면서 자국 현실에 적합한 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비용탐색은 창업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체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선정되는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선정된다 하더라도 자국의 힘만으로 기술자립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의 우수한 기술을 습득하여 자국의 기술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자료, 조재호, 2021).

경험들을 수입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한국의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도전과 집념을 분석하여 몽골 현실에 접목시키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톨강의 기적’에 도달하는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하여 반드시 부유한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자원 수출은 해당 국가의 기초적인 부를 축적하게 해주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때로는 정치적 포퓰리즘 유혹에³ 빠져 자원수출을 통해 확보된 자본을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에만 쓰인다면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저하를 유발시켜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

몽골 정부는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재정안정기금(Fiscal Stability Fund, FSF), 미래유산자금(Future Heritage Fund, FHF)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050 국가개발프로그램(National Development Program, NDP)초안에서 국가기금(National Wealth Fund, NWF)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Zagdbazar, 2020).

광물자원 수출로 인하여 몽골 경제가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환의 절대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몽골 정부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외환으로 향후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는 정부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구축된 국부펀드를 인프라 구축,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자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과감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참고로 1950년대 초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정부 세입의 10%를 교육에 투자하였다. 당시 정부의 과감한 교육 투자가 문맹률을 낮췄으며,⁴ 이를 통해 축적된 인적 자본이 민간의 기업가 정신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2000년대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투자 성공사례는 국부펀드를 활용하려는 몽골 정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³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자금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자원 수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로 유입된 통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자국 화폐가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는 국내로 유입된 외환이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에만 쓰인다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흔히 말하는 복지병에 걸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자원수출이 그 산업의 주류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오히려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결과 더더욱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연구 개발 능력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참조, 이창수·송백훈, 2013).

⁴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부터 문맹퇴치 5개년 사업 등을 진행하여 문맹률을 1945년 78%에서 1958년 4.1%로 급감시켰다. 1954년부터 취학률을 70% 수준에서 9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초등 의무 교육 완성 6개년계획’을 실시하고 교육예산 약 80%를 의무교육비에 배정할 정도로 주력했다. 총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1957년 90%를 넘겼고, 1959년에는 96% 목표를 달성하였다(Wikipedia). 교육정책으로 길러진 인적자원들이 이후 200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가 경제를 호수로 비유한다면 저수량이 많은 호수를 부자 국가로, 저수량이 적은 호수를 가난한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호수에 담겨있는 물의 양으로 비유된다. 호수의 물 수위가 평형을 이루는 순간은 드물다. 호수의 수면은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며 항상 변한다. 물을 풍부히 저장한 국가는 다른 나라 경제를 지배하든가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물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경제력에 의지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몽골은 한국과 같이 개방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풍부한 부존자원, 편중된 산업과 무역구조를 개선하면서 한국경제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의 경제개발 의지, 시장경제 체제하의 제도 확립, 그리고 정부 및 민간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경제가 참조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창업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것들이 국가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몽골은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경험한 정부, 기업가, 노동자들의 밀접한 협력관계에 대한 know-how 를 수입해서 몽골 경제에 적용해 보는 것도 ‘튐강의 기적’에 도달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의 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 하는 경제주체는 기업가들이다. 몽골 정부는 지속 가능한 몽골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친 기업환경을 만들고, 교육에도 집중투자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축적된 양질의 인적 자본과 민간 기업가 정신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몽골 부의 창출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Kotra, 2023 몽골진출전략, 2022.
Manlaibaatar Zagdbazar, 몽골의 국부펀드 현황, KIEP, 2020.
Nandintsatsral Amarsanaa, 기업들이 체감하는 몽골 비즈니스 환경, 어떻게 달라졌을까?
Kotra, 2024.
World Bank, Mongolia Economic Update, 2023
이창수·송백훈,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 분석 및 사례연구, KIEP, 2013
조재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가 정신』, 울산대학교 출판부, 2021.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한·몽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과 경제 협력

Lee Pyung Rae(Ph.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ongollee@naver.com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n March 26, 1990, Korea-Mongolia relations have literally developed by leaps and bounds.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expanded across all fields, including traditional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s well as national defense and religion. When evaluating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over the 34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ere has been so much progress that it can be said that it was too hasty. Immediate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in 1990, the number of Koreans visiting Mongolia was only a few dozen per year, but 33 years later, in 2023, the number increased to 141,000. In addition, the number of Mongolians residing in Korea, which was only a few hundred at the time, increased to well over 50,000. Nevertheless, there is a feeling that the curren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not reached the level that the people of the first two countries expected. Korean companies' expansion into Mongolia and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lso been stuck in a box range for a long time, unable to break out of a certain range. With this in mind, the presenter looked at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Mongolia relations and presented several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which can be considered a pending iss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1990년 3월 26일 수교 이후 한몽 관계는 말 그대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통적 국제협력 분야는 물론, 국방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 전 범위에 걸쳐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었다. 34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두 나라 교류가 전면적으로 확대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수교 초창기 몽골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현실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념적인 이유로 갈 수 없었던 곳에 대한 호기심이 몽골에 관한 관심을 부추겼다. 몽골은 1921년 혁명 이후 옛 소련의 가장 충직한 위성국으로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까지 소련과 동구(東歐)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를 빼고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갈 수 없는 나라였고, 그런 만큼 이제 막 문이 열린 몽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10여 년 동안에 나타난 몽골에 관한 관심

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유행한 동유럽과 옛 소련에 관한 관심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몽 간 수교 직후부터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북방외교의 확대와 북한 문제⁵ 등을 염두에 두고 대몽골 외교를 중시했고, 사업가들은 자연 자원을 비롯한 원자재 확보와 시베리아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몽골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과 몽골인 그리고 우리말과 몽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따라서 먼 옛날부터 역사를 공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집단정서, 이른바 동류의식(同類意識)⁶ 또한 수교 초창기 양국 국민을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⁷

더욱 흥미로운 것은 두 나라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집단정서가 지금도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축트바타르(D. Tsogtbaatar) 전 몽골 외교부 장관은 2020년 3월 26일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언론 인터뷰에서 “한몽관계사는 먼 옛날부터 흔적이 남아 있고, 양국 국민은 오래전부터 교류해 왔습니다. (한국인과 몽골인은) 언어, 문화, 관습에서도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민족입니다”⁸라고 이 점을 애써 강조하였다. 이어 홍 전 주몽골 한국대사 역시 수교 30주년 기념 언론 인터뷰에서 “한몽 관계를 얘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은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관계와 교류입니다. 우리 (한국인과 몽골인)은 언어와 문화의 많은 공통점에 의거하여 민중의 교류를 심화시켜 왔습니다”⁹라고 비슷한 말을 반복하였다. 두 사람의 발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동류의식이라는 집단정서가 현재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를 확인해 준 것이 양국 국민의 외모의 유사성이다.

수교 직후부터 학술 분야뿐 아니라 공적 및 사적 분야를 막론하고 양국의 교류가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과 공공기관은 몽골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다. 우리 정부의 ODA 사업과 NGO의 국제 협력사업도 몽골이 빠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국 학자들 사이의 학술교류 역시 수교 초창기의 언어, 민속, 역사, 문화 분야를 넘어 의학, 공학, 경제, 농축산, 복지, 교육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적은 인구(2023년 12월 말 기준 350만 4천 471명)와 몽골의 경제 규모 및 한국과의 교역량(2023년 12월 말 기준 7억 210만 달러)에 비하면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형제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 초기부터 중소상공인들이 대거 몽골로 몰려간 것도 기독교와 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종교 관계자들이 몽골에 진출한 것도 동류의식과 외모의 유사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⁵북한과 몽골은 1948년 수교 이후 현재까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몽골과 북한의 유대는 과거 사회주의국가 연대라는 것 외에도 한민족과 몽골족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동류의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⁶ 필자는 오래전 동류의식(이평래, 「한·몽 문화교류를 보는 시각」,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1999) 문제를 학술적으로 상세하게 논의했다.

⁷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이슈 심층 분석, 한-몽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제안, <https://www.emerics.org:446>(검색일: 2024. 3.23)

⁸ “ДЦОГТБААТАР: ЭНЭ 30 ЖИЛД ИТГЭЛЦЛИЙГ БЭХЖҮҮЛЖ, ХАРИЛЦААНЫ ЭРХ ЗҮЙН ҮНДСИЙГ БҮРДҮҮЛСЭН”, <https://www.montsame.mn/mn/read/220164>(검색일: 2024.3.23).

⁹ “ЛИ Ё ХУН: Айл хүний амь нэг, саахалт айлын санаа нэг”, <http://unuudur.mn/ли-ё-хун-айл-хүний-амь-нэг-саахалт-айлын-санаа-нэг/>(검색일: 2024.3.23).

한국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갖고 살갑게 대하기는 몽골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수교 이후 한몽 관련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남긴 자료를 보면 몽골인들의 환대와 그들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한 정서를 특기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물론 두 나라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이와 함께 양자 간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면서 몽골인들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그들의 우호적 정서는 부인할 수 없다. 축트바타르 전 외교부 장관의 말대로 몽골인에게 한국은 자기들과 언어와 문화 및 관습이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된 나라이다. 따라서 현재 양국 관계의 실제상황과 관계없이 몽골인들은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몽골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전통적인 몽골인 거주지, 즉 몽골국, 러시아연방의 부랴트 공화국과 칼미크공화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서 몽골국 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54,549명이다. 절대적 수치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2023년 말 말 기준 몽골의 총인구가 350여 만 명을 고려하면 인구의 1.5%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니 결코 적은 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세계적 지식 사이트인 Wikipedia에는 아예 ‘Mongolians in South Korea’¹⁰라는 항목이 있다. 오래전에 나온 간단한 자료지만, 이는 한국 거주 몽골인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례이다. 특히 전통적 몽골인 거주지 외에 몽골국 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특이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800여 년 전 시작된 한국과 몽골 교류의 출발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침략으로 시작된 한몽의 첫 만남

한몽의 첫 공식적인 만남은 1218년 12월 몽골군이 고려 땅을 밟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때 두 만강 유역에는 여진의 장수 포선만노(蒲鮮萬奴)가 세운 동진국(東眞國)이 있었다. 몽골군은 요동(遼東) 경략의 일환으로 이들을 복속시키고 고려 땅으로 진입했다. 명분은 1216년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들어와 한반도 중북부 일대를 유린하고 평양 부근의 강동성에 웅거하고 있던 거란족을 소탕한다는 것이었다. 몽골군의 진입에 당황한 고려 조정은 몽골의 제의를 수용하고, 1219년 1월 공동으로 강동성의 거란족을 궤멸시켰다. 이때 고려와 몽골은 형제의 맹약을 맺음과 함께 고려는 매년 몽골에 공납을 바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맹약 후 몽골의 무리한 공납 요구는 고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압록강 너머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국의 불안한 관계는 파탄 나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231년 몽골군의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고려 정부가 사실상 몽골에 항복한 1259년까지 6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이 이어졌다. 고려는 그 후 14세기 중반 공민왕이 반(反)원 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약 1세기 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수십 년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과 1세기에 걸친 몽골의 지배는 고려 역사에 깊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물론 몽골의 고려지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즉 그들은 이 시기를 고구려 이후 대외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보고, 고려가 세계 제

¹⁰ “Mongolians in South Korea”, https://en.wikipedia.org/wiki/Mongolians_in_South_Korea(검색일: 2024.3.23).

국인 몽골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려 왕후가 된 몽골 공주와 원 황제의 비빈이나 귀족의 부인이 된 고려 여인을 예로 들어 양국의 특수관계를 부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향후 연구에 의하여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국토가 수십 년 동안 몽골군 의하여 유린당한 것만으로도 양국의 만남을 정상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 지배기 이후 한몽 관계

널리 알려진 것처럼 1368년 몽골제국의 종가(宗家)인 원나라가 멸망한 후 1948년 몽골과 북한의 국교 수립 그리고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외교관계를 맺을 때까지 두 지역의 공식 관계는 단절되었다. 물론 조선 정부와 일부 관리들이 몽골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이 자료상으로 확인되나 구체적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몽골어가 우리말에 차용되고, 의식주에서 이른바 몽고풍(蒙古風)이 생겨나고, 몽골어가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의 학습 과목의 하나로 채택되는 등 몽골의 지배가 남긴 정치 및 사회문화적 영향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밖에도 조선시대 한몽 간에는 크고 작은 인적 또는 물적 교류도 있었음이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그 후 기록상 두 나라 국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초기이다. 그 흔적은 몽골 중앙 공문서보관소와 외교부 공문서보관소 등에 남아 있다. 이들 공문서보관소에는 1920-30년대 몽골 땅에서 살았던 한인들의 생활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 있다. 1920년대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던 시기이다. 그 시절 한인들이 나라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인의 이주는 19세기 중반경부터 시작되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령 연해주와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나타난 것도 이 시기이다. 한인의 이주는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후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한반도를 빠져나간 사람은 크게 세 부류이다. 이전 시대처럼 생계를 위해 나간 사람, 독립운동을 위해 고향을 떠난 사람, 징병이나 징용 등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당시 한반도 인구의 약 1/4에 해당되는 500만 정도가 국외로 나갔다고 하니 나라의 형편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된다.

일제강점기 한인의 몽골 이주

한인의 해외 이주는 만주와 상하이, 연해주, 일본 등 한반도 인접 지역이나 미주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일제강점기 국외 이주라고 하면 주로 이 지역들로 이해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한인의 이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민 물결은 멀리 시베리아를 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그리고 몽골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적지 않은 한인들이 몽골로 이주했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광복회 회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이강훈도 1910년대에 몽골을 다녀온 사람이다. 당시 몽골의 후레(현재의 울란바타르)에는 한인 애국지사 이태준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¹¹ 이용은 그곳에서 몇 달간 기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독립운동가 40-50명이 매일 숙식을 같이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 무렵 후레에 있었던 사람으로 김규식을 빼놓을 수 없다.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김규식은 1910년대 전반 몽골에 독립군 군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하였다.¹² 이태준이 몽골에 가게 된 것도

¹¹ 반병률, 「의사(醫師) 이태준(李泰俊, 1883-1921)의 항일민족운동과 몽골」, □역사문화연구□ 박성래교수정년 기념특별호, 2005.

¹² 장석홍, 「1910-20년대 몽골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2002.

김규식 때문이었다. 1921년 몽골혁명 이후에는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의 한몽 연대가 논의되고 여운형과 계봉우 등 독립지사들이 몽골에 체류하고 기록을 남겼다.

독립운동가뿐 아니다. 호구지책으로 몽골에 간 사람도 많았다. 그중에는 광산을 운영하거나 몽골 정부에 취직하여 안정된 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공장, 광산 노동자, 양치기 등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갔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 각지를 떠돌다가 살길을 찾아 몽골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몽골 공문서보관소에는 1920-1930년대 몽골에 체류했거나 영구이주를 청원한 한인들의 청원서가 남아 있다.¹³ 또한 일제강점기 일제의 만주와 몽골지역으로의 이주 정책에 따라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이 여러 이유로 내몽골 동부지역으로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주나 몽골인과의 접촉은 사적이었고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몽골과 북한의 교류

그 후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한반도 소재 국가와 몽골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몽골과 북한은 1948년 10월 15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 원나라 멸망(1368)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600년 만에 한반도 소재 국가와 몽골 사이에 공식 관계가 수립된 것이다.

사회주의 시절 몽골은 북한의 가까운 우방이었다. 한국전쟁 기간은 물론, 전후의 복구과정에서도 몽골은 총력을 기울여 북한을 지원하였다. 양국의 우호 관계에 걸맞게 김일성은 두 차례(1956년, 1988년)나 몽골을 방문하였다. 1956년 방문은 6·25 및 전후 복구과정에서 몽골의 물자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한 방문이고, 후자는 88올림픽을 염두에 둔 정치적 성격의 방문이었다. 사회주의 시절 몽골인민혁명당 서기장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는 북한 고위층 거의 모두가 몽골을 방문하였다. 지금도 몽골 정부 관리와 학자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이다. 이는 사회주의 시기부터 이어져 온 우호 관계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한민족에 대한 몽골인들의 특별한 감정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몽골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척 신경을 쓰는 한반도 정책을 펴고 있다. 비록 자국의 외교적 역량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해도, 몽골은 남북 동시 수교국으로서 북한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또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평화적 해결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한몽 경제협력 사업에도 북한의 참여를 바라는 입장이다. 몽골 정부와 국책연구소의 학자들은 가능하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몽골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북아 국가(한, 중, 일, 미, 러)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자국이라는 점을 들어, 한때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¹⁴

수교 이후 34년 동안 진행된 한몽의 교류와 협력을 평가해 보면 너무 급했다고 할 만큼 외형적인 발전이 있었다.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직후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한 해에 수

¹³ 이평래, 「몽골 외무부 소장 1920년대 한국 관련 자료」, □중양아시아연구□ 8, 2003; 바트트루 지음/현대몽골 연구원 옮김, □20세기 한국 몽골 관계사□(KM미디어, 2011), pp.125-153.

¹⁴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김홍진 교수의 논문[김홍진, 「몽골의 미래성과 한·몽골 경제협력 과제」, □한몽 역사, 기억과 미래□(2023년 한국몽골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pp.30-46]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십 명에 불과했지만 30여 년 세월이 흐른 후 2023년 기준으로 14만 1천 명으로 늘어났다. 또 당시 수백에 불과했던 한국에 상주하는 몽골인은 그사이에 5만 명을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 간 협력은 처음 두 나라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기업의 몽골진출과 양국 간 교역량도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2021년 9월 한몽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비단 정치와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통상과 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등 양국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고, 새로운 한몽 협력관계 30년을 열어 가는데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양국이 상호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몽골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몽 협력관계의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관점에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몽골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전망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IMF는 몽골이 풍부한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간 5~6%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⁵ 몽골은 최근 인구증가율이 2018~2022년도에 연평균 1.5%로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⁶

둘째, 몽골의 국제적 위상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은 1990년대 초기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WTO 가입 등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수평적 정권 교체를 여러 차례 이루면서 민주화를 원만히 달성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남북의 두 이웃(중국, 러시아)은 물론이고, 제3의 이웃(미국, 일본, 한국, EU)과의 활발한 정치 외교 및 경제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 외모와 문화적 유사성 및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54,549명(2024년 1월 기준)의 재한 몽골인들이 한국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재몽골 한인사회도 차츰 성장하고 있다. 정서적 친근성과 이로 인한 우호적 감정은 양국 미래 협력의 기초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한몽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2021년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왜 그런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아래 표에서 보듯이 팬데믹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대폭 늘어났다.

몽골의 대 한국 무역추이(백만 달러)

	2010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무역	212.3	520.4	325.3	209.3	283.6	294.8	257.2	532.0	702.1

¹⁵ IMF, *Mongolia: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23/348, October, p.46, Table 2. 2022년 성장률은 5%이며(몽골정부 통계는 4.8%) 2023년 성장률은 5.5%로 전망하고 있다.

¹⁶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22*, 2023, p.48.

수출	30.5	13.0	66.6	11.6	21.2	27.8	21.4	223.3	277.4
수입	181.8	507.4	258.7	197.7	262.4	267.0	235.8	308.7	424.6
무역수지	-	-	-	-	-	-	-	-85.4	-
	151.3	494.4	192.1	186.1	241.2	239.2	214.4		147.2

자료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22, pp.490-493

이 추세가 계속될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한몽 양국은 지난 30여 년을 이어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열어갈 새로운 30년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은 활발한 경제협력을 위해 ‘포용적 동반성장’을 공동의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몽골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공유하는 것은 몽골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 ‘포용적’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것은 한국이 투자협력과 기술지원 등 일정 영역에서 몽골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포괄적 경제협력의 틀로서 양국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대한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 관세 인하와 투자자 보호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의 활발한 대(對)몽골진출과 투자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증대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자원개발에 참여하되 대규모 광물 개발보다는 희소금속과 광업의 하류 산업(downstream industry)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희소금속은 오늘날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국경제의 자원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2023년부터 몽골에 희소금속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몽골에 매장되어 있는 희소금속의 가치와 경제성을 평가하는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¹⁷ 이러한 연구는 몽골경제에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차 이를 수입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자원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한몽 간 산업 협력은 가급적 몽골의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친환경산업, 에너지산업, 정보통신산업, 전통산업으로 섬유 및 식품산업, 몽골의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문화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몽골의 유기농 식품산업 육성과 관광 서비스 증진 및 관광인프라 개선 등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몽골의 전통산업인 목축업과 섬유산업, 제조업 등과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가칭 적정기술 이전센터를 설립하여, 적정기술 이전과 스타트업 지원 등 경제협력과 산업 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한국기업이 기술을 전수하면서 몽골 내 협력기업을 설립하거나 수출 상품 개발에 도움을 준다면, 실질적 경제협력의 틀로서 EPA의 유용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적정기술 지원은 몽골의 광대한 지역에 산재한 지방기업 발전에도 분명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¹⁷ 전호석. 2023. 「첨단산업 핵심 전략광물 확보전략 및 협력방안(몽골)」, KIEP 전문가포럼 발표자료, 2023년 4월 19일. 2023~2025년 기간 동안 약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의 ODA 사업으로 진행된다.

향후 30년의 한몽 협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몽골은 여전히 우리의 이익 추구보다 우리의 지원이 더 필요한 나라라는 것,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충분한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경제 협력 문제를 다룰 때도 상호주의 원칙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양보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현재 몽골의 위치가 여전히 외국의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보는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있어 왔고 이러한 관행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김홍진, 「몽골의 미래성장 과 한·몽골 경제협력 과제」, □한몽 역사, 기억과 미래□(2023년 한국몽골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이슈 심층 분석, 한-몽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https://www.emerics.org:446>.
- 바트트루 지음/현대몽골연구원 옮김, □20세기 한국 몽골 관계사□, KM미디어, 2011.
- 반병률, 「의사(醫師) 이태준(李泰俊, 1883-1921)의 항일민족운동과 몽골」, □역사문화연구 □ 박성래교수정년기념특별호, 2005.
- 이평래, 「한·몽 문화교류를 보는 시각」,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1999.
- 이평래, 「몽골 외무부 소장 1920년대 한국 관련 자료」, □중앙아시아연구□ 8, 2003.
- 장석홍, 「1910-20년대 몽골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2002.
- “Д. ЦОГТБААТАР: ЭНЭ 30 ЖИЛД ИТГЭЛЦЛИЙГ БЭХЖҮҮЛЖ, ХАРИЛЦААНЫ ЭРХ ЗҮЙН ҮНДСИЙГ БҮРДҮҮЛСЭН”, <https://www.montsame.mn/mn/read/220164>.
- “ЛИ Ё ХУН: Айл хүний амь нэг, саахалт айлын санаа нэг”, <http://unuudur.mn/ли-ё-хун-айл-хүний-амь-нэг-саахалт-айлын-санаа-нэг/>.
- IMF, *Mongolia: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23/348, October.
- “Mongolians in South Korea”, https://en.wikipedia.org/wiki/Mongolians_in_South_Korea.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22*.

Reflection on Industrialization and Discovery of Cultural Power

산업화에 대한 반성과 문화적 힘의 발견

Lee Na Mi(Ph.D)

(Kyung Hee Cyber University)

nami1964@naver.com

ABSTRACT

While Korea is known as a country that has achiev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remarkable economic growth,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ide effects it has brought about.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was achieved through privileged support for a few conglomerates. As a result, gaps between classes, regions, industries, and cities and rural areas have grown and imbalances have occurred. Some people believe that the dictatorship of the military government was inevitable to overcome poverty and disorder, but several studies have already shown that this is not true. Several comparative figures showing the economic situation at the time show that the economy grew 'despite the dictatorship' rather than 'because of' it. And above all, Korea's economic growth was due to the sacrifices of its citizens, including workers and farmers. Currently, Korea is lov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for cultural aspects such as music, drama, movies, and food, and this is becoming an economic power. And behind such cultural phenomena are Korea's long historical roots. A desirable model for the Korean economy must be found in these cultural forces. Additionally, the excessive competition brought about by blind growthism and the widespread sense of frustration and defeat among Koreans must be overcome by recovering these cultural assets.

1. 머리말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는 반면, 그것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소수 재벌에 대한 특권적 지원을 통한 고도성장이었다. 그로 인해 계층 간, 지역 간, 산업 간, 도시·농촌 간의 격차가 커지고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어떤 이들은 군사정부의 독재가 가난과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비교 수치는 '독재 때문'이 아니라 '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이영재 2016).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희생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은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것이 경제적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의 오랜 역사적 뿌리가 있다.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모델은 이러한 문화적 힘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맹목적 성장주의가 가져온 과도한 경쟁과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좌절과 패배감은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회복함으로써 극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부작용과 우리 문화의 뿌리는 무엇이었는지 고찰하려는 것이다.

2. 경제성장의 그늘

1) 불평등의 심화와 인권 탄압

박정희 군사정부의 성장일변도의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당시 함석헌은 정부가 ‘서민을 외면한 정치’를 하고 있으며, “도시 중심, 특권 계급 중심, 선전 효과를 노리는 걸치레의 경제”이지, “나라의 주인인 민중을 길러내지는 경제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의 ‘3불’ 즉 ‘부정, 불안, 불신’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빛을 얻어다가 생산적인 산업에 쓰지 않고 정치선전과 부정 사업가들의 가로챘에 내맡겨 두었기 때문에 외양으로는 건설이 된 듯하나 속으로는 비게 됐다”는 것이다(함석헌 1983). 1972년 유인호는 급격히 추진된 공업화정책으로 인해 농업낙후를 가져와 대규모적인 식량부족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분배구조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킨 결과 국민경제가 불균형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유인호 1991).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은 탄압으로 잠재웠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화 시기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다. 당시 사회는 철저히 통제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없는 보장을 수정하여 검열제도를 부활시켰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집회는 금지됐다. 정보기관이 항시적인 정보활동과 사찰을 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했다. 국민교육헌장의 낭독으로 시작해 재건체조로 마무리되는 학교의 애국 조회, 사열과 분열행진으로 이어지는 교련 조회,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등이 그 사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군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고한 시민을 체포, 고문, 처형한 점이다. 여성의 인권도 경제성장의 논리 앞에 짓밟혔다. 여성은 국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주로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생관광’이 국가 경제정책의 하나로 장려되어 현대판 위안부 정책이 추진되었다(박경서·이나미 2010).

2) 노동자의 희생

한국 경제성장을 위해 특히 노동자의 희생이 컸으며 이는 박정희 군사정부의 출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제헌헌법 중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조항을 폐기했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개발정책은 최악의 노동 상황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동반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임금에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산업재해의 급증과 임금체불, 실업의 위협으로 노동자의 고통은 매우 컸으나, 정작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운동은 극히 미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유신체제가 세운 어용 노조는 안보제일주의, 고도성장주의, 노사협조주의를 주장하며 사용자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자 자신을 희생한 인물이 전태일이다. 그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으나 허사에 그치고 말자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시작은 전태일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의 가혹한 노동 탄압은 결국 박정희 유신정권의 종말의 신호탄이 된 YH 사건을 발생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김경숙이라는 여성노동자가 희생되었다. 그녀는 글에서, 철야작업으로 끊임없이 코피가 났고 몸이 허약해졌지만, 3개월치 봉급을 받지 못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헐벗고 굶주리며 풀빵 5원짜리 30원어치로 추위에 허덕이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이라도 해버리려고까지 마음먹었으나 고향이 그 길을 막았다. (...) 혼탁한 먼지 속에 웅웅대는 기계소리를 들으며 어언 8년 동안 공장생활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남은 것은 병밖에 없다.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마음만은 상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리라 다짐한다. (...)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련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이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일상이었다. 1974년 11월 19일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30명의 근로자가 죽어야 했고 800여건의 산재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근로자의 도살장은 성장의 표본으로 되었고, 근로자는 도구시되고” 있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당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연간 국민소득이 800 불선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77년 10월에 정부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나라 납세자 중 월 100만원 이상 그 상한선이 높은 고소득자는 0.3%임에 비해 월 1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88.6%”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으로 인한 과세 미달자는 75년에 55.8%였는데 76년에는 59.2%로 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월 2,3만원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소년 노동자의 수는 이른바 수출공업단지 노동자의 태반을 이루고 있”고 “수출 100억불은 이 청소년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서 생긴 거대한 재화는 0.3%의 사람들에게로 가고 말아도 좋은 것인가?”고 반문했다(기쁨과희망사목연구소 1997; 박경서·이나미 2010).

3) 농촌 공동체 파괴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저곡가 정책은 대량 이농을 초래했고 농촌에서는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대대적으로 농약, 화학비료, 기계화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다시 농촌에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이들이 다시 도시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농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한다. 즉 국가에 의해 농촌이 가난해졌는데 이를 농민의 게으름, 자력 갱생 의지 부족 등 근거 없는 정신적·도덕적 문제로 환원시킨 것이다(김종철 2019). 새마을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가동원체제와 유사한 국민운동으로, 재건체조, 신생활복, 국민가요 등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조차, “재건체조는 일제 말기의 ‘라디어(보건) 체조’를, 신생활복은 국민복을, 재건순보는 후보를, 국민가요는 그대로 국민가요를 연상케 하니 좀 더 참신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던가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썼다(공제욱 2008).

새마을운동의 동원 방식은 주로 마을 청년을 포섭한 것으로, 이들을 체제의 자발적 동조자로 만드는 파시즘의 대중 동원과 유사하다(김영미 2009). 또한 관 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지방행정기관과 밀착되어 결코 자치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농촌 마을에는 중등교육을 받고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이 마을 연장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정부가 이 청년들을 새마을운동의 자발적 주도 세력으로 만들어 유신체제를 마을에 이식하게 만들었다(한겨레 2009.6.10.). 또한 기존의 농촌사회를 ‘노인중심 사회’라는 용어로 공격했으며, 미신, 보수, 의타심, 개인주의의 죄를 모두 노인중심 사회의 것으로 몰았다(고원 2008). 이렇듯 새마을운동은 세대간 갈등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마을간 공동체적 성격도 약화시켰다. 성과를 더 낸 마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마을간 경쟁을 부추겼는데 이는 각 마을을 개별적으로 고립시킨 후 국가에 수직적으로 통합시켜 마을 간 수평적 연계를 약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전재호 2000). 김종철은 박정희가 몰락시킨 전통 농촌공동체에 다음과 같이 평한다.

“농촌공동체 시절의 마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꼴은 다 비슷했어요. 물론 한 마을에 논 서른 마지기 가진 사람도 있고 두 마지기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가진 것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사는 꼴이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다들 비슷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면, 가난했다고 하는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도 그래요. 가령 마을에 대소사를 의논하는 동회를 하면요, 하루면 끝날 수도 있지만 현안이 해결 안되면 일주일도 끌고 가고 한 달도 끌고 간다고요. 전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밑바닥, 풀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나는 갈수록 이 사회가 민주주의와는 멀어진다고 생각해요.”(김중철 2019).

4) 환경문제 악화

농촌 공동체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도 고통받았다. <새마을노래>의 가사는 “초가집도 없애고”라고 하여 친환경적인 짚으로 된 지붕을 없애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추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다.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농민의 가장 큰 문제는 농약 중독이었다. DDT, BHC 등의 농약은 잔류성이 문제가 되어 미국에서 1970-1971년에 걸쳐 사용이 규제되었고 일본에서도 1971년에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1979년에서야 생산이 전면 중지된다. 이로 인해 농민의 82%가 농약 중독을 경험했으며 32.8%가 요양 치료를 요할 만큼 중증을 앓았다. 당시 한국의 농약 중독자는 10만 명당 25.4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0배에 달했다. 토질 악화도 심각해졌다(환경과공해연구회 1991).

경제 성장과 수출에만 주력한 정부는 공업화를 앞세워 환경 문제에 눈감았다. ‘공해’란 말도 공업화의 추진과 함께 등장했다. 공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 대상 기관에 미리 연락을 하고 출동에 나서기도 했다. 유엔환경계획기구는 GNP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투자 비율을 선진국은 1-2%, 개발도상국은 0.5-1%로 권장했으나 한국은 당시 0.05%에 불과했다. 중화학공업단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용수, 전력, 교통, 통신 등의 공공시설과 노동력 확보, 땅값 등의 문제만 고려했지 환경보전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공업용수 등 사회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농업이나 어업 중심지가 선정되었다. 그 결과 곡창 지역인 4대강 유역이나 수자원 보고인 광양만, 마산의 진해만, 영일의 울산만, 온산만 등 임해 지역에 공단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1차산업의 피해가 커졌고 토양, 해양, 하천 등의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었다(환경과공해연구회 1991).

1952년 스모그 참사로 유명했던 런던보다 서울의 공기 질이 나빴는데, 이는 가정과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이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공장지대의 공해가 심각했다. 울산공업센터 지역의 평야, 과수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농민들이 반발했다.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아 과수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고, 공장 오물이 바다에 흘러 동해안 어장이 오염되어 폐쇄됐다(고태우 2021; 고태우 2023). 당시 언론들도 공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동아일보는 1966년 “공해는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기사에서 “우리의 자랑인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지키는 일은 어떤 근대화작업보다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썼다(동아일보 1966.12.13.; 신재준 2021). 경향신문은 “무분별한 중화학공업의 급진적인 추진 과정에서 공해화는 이미 자연오염의 초기적 단계를 지나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고 보도했다(경향신문 1979.7.9.; 고태우 2021). 1970년대 말엽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고통을 토로했다. 한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거나, ‘거대한 하수구’로 변해가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고 토양오염이 심해 음식에 수은, 납,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공해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해외 공해 기업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해 기업은 미약한 규제, 풍부한 노동력, 저임금, 저렴한 지가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왔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울산공단, 온산공단 등에는 일본에서 금지된 공해산업이 합작 형태로 대거 진출했다. 비중격친공증을 일으키는 6가크롬 생산시설과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인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폐광석을 생성하는 아연 제련시설은 그 대표적 예다. 암을 유발하는 석면산업도 일본, 독일,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었다. 군사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에 의한 공해병으로 많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오래도록 고통받았다(김상현 2020).

3. 대안의 경제론 대두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산업화와 경제성장 추진이 가져온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장준하는 “외자에 의탁된 수출경제, 특권경제를 해체하고 근로자, 농어민 그리고 소시민의 생계와 교육, 의료,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함석헌도 “서민층이 튼튼해야 한 민족이 자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민 계급이 튼튼히 서면 각층의 사람이 제 기능에 따라 활동하고 그러면 국민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함석헌 1983).

이 시기 대안적 경제정책을 제시한 대표적 인물로 김대중이 있다. 그는 1966년 3월 한 논문을 통해 대중자본주의를 주장했다. 대중자본주의는 민주사회의 안정적 발전의 기반으로 중산층을 중시하며, 효율적 생산보다 효율적 고용이 긴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육성강화가 바람직하고, 불평등과 차별의 축소를 지향하는 '평등자본주의'를 목표로 삼는 것이었다. 그는 자본축적과 균등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방법으로, 국영과 민영의 대기업의 주식을 대중화하고, 신규시설에 있어 대규모 자본 조성방식보다는 중소기업에 주력하며, 국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 및 농촌경제의 병행발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경제론은 노동, 자본, 기술의 3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동하고 노동자와 기술자도 이윤 분배에 참여하는 산업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의 제도화, 종업원 특수제도, 노동조합 결성의 완전 보장 등을 제시했다(정상호 2017).

또 다른 대표적 경제이론가인 박현채는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자율적 재생산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평등주의적 혼합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중소기업과 국가 자본주의 부문이 두 축이 되고, 시장적 조절과 계획적 조절이 결합되며, 분업 구조 및 분배 구조 양면에서 국내 시장이 심화되는 ‘내포적 발전’의 모델이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대안을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이병천 2007). 이 이론은 수출주도적

성장체제의 성공으로 인해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여겨졌지만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재조명되기도 했다. 즉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수출과 내수 간의 심각한 분리와 격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 그리고 수출편향 및 외국자본 의존적 불균형성장의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이덕재 2007).

4. 한국 문화의 힘 재발견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은 오래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문을 넓혀가며 더 확산되고 있다. 한류는 또 다른 큰 경제적 자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적 잠재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었다.

1) 한류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산업화는 불평등 심화, 노동자 탄압, 농민공동체 붕괴, 환경파괴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수출주도 중심의 경제는 내수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대외 환경 변화 시 안정성을 잃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한류를 주목할 만하다. 현재 세계에서 한국은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등 한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류의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7~2021년 5년간 한류로 인한 국내 생산금액이 약 37 조원에 달했으며 이 기간 약 16 만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김지현 2023).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커졌다. 2018년부터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5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톱 10에 진입한 BTS, 2021년 방영돼 94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급신장했다. 미국 U.S News와 와튼스쿨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은 2017년 80개국 중 31위였으나 2022년 85개국 중 7위로, 24계단 상승했다. 화장품과 식품의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김지현 2023).

2) 쉬운 문자와 소통 능력

한국 영화 및 드라마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인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에도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다. 사실 외국인의 한글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조선을 방문한 보티에(Claire Vautier)와 프랑탱(Hippolyte Frandrin)은,

조선 왕조가 “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격 높은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문학적 천성도 두드러졌”으며 “역대 군주들 가운데 한 왕은 국민들의 문자를 통한 일상적 의사 소통을 돕기 위해 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하기도 했다”고 썼다(보티에·프랑탱 2002). 헐버트는, “이 문자는 그 구조상의 간편함으로 보나 발음상이 탁월함으로 보나 가히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썼다(헐버트 2006). 새비지 랜도어도, 한글이 가장 실용적이고 쉬운 표음 방식의 문자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영어보다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다(새비지 랜도어 1999). 스콧(Elspeet Keith Robertson Scott)은 조선과 달리 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우 일단 문자가 배우기가 매우 어려워 일반 대중이 대부분 문맹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안 좋은 경우로, 귀족은 수준 높은 문화를 논하지만 대중은 소문, 귀동냥, 미신만 믿으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조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이들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갖고 있었다고 평했다. 따라서 남녀노소, 빈부격차, 직업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키스·스콧 2006; 이나미 2014).

쉬운 문자는 이야기의 전승과 소통을 보다 빠르고 세밀하고 넓게 퍼지게 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 영화 및 드라마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소통 능력이 유난히 탁월하다고 보았다. 알렌(Horace Newton Allen)은 자신이 자전거에 바람을 넣거나 수리할 때 군중이 모여드는 데 그럴 때면 자진해서 한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전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또한 가마로 몇시간씩 가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가마꾼 중 한 명 쫓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끼여 있어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지루함을 잊게 하고 가끔 폭소가 터져 나오게도 하며,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목적지까지 간다고 했다(알렌 1999; 이나미 2014).

심지어 싸움을 할 때도 소통은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보았다. 한국인들은 훌륭하고 당당한 입씨름꾼들로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기 보다는 주로 말로 싸운다는 것이다. 싸움이 심각해지면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군중 속에서 나와 난폭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지한다. 혹시 그가 말리는데 실패하게 되더라도 당사자들이 코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품은 뒷공론이나 음모를 꾸미기 좋아하는 성품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알렌은 여인들이 다듬이질을 같이 하려고 모였다가 끝내면 남의 뒷 얘기를 한다고 한다. 조선 여인들처럼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흥을 보는 것이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보았다(알렌 1999; 이나미 2014).

그리피스는 천주교가 빨리 전파된 이유도 조선인들의 소통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천주교가 이토록 빨리 전파된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달레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풍습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조선의 가옥을 보면, 어느 집이건 간에 거리를 향해 앉은 방이 있고 그 방안에서는 친구든 손님이든, 구면이든 초면이든 간에 모여 앉아 세상 소식을 말하고 듣고 또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비밀이 없다. 또 조선은 남의 얘기를 잘하고 빈들거리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여서 어떤 사건에 관한 소식이나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면 초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간다. 천주교와 같이 그토록 놀라우리만큼 새로운 교리가 더구나 이미 학식이

높기로 이름난 사람들의 입으로 설교되자 이 교리는 즉시 민중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들의 혀를 바쁘게 만드는 동시에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다.”(그리피스 1999).

새비지 랜도어도 조선인의 지적 호기심과 언어 능력의 탁월함에 주목했다. 그는 조선인들이 “무엇을 알려고만 마음먹으면 그것을 알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면서도 전에 전혀 들은 바도 없는 것까지 쉽고 빠르게 이해”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언어를 손쉽게 익혔는데, 외국어 발음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고 뛰어났다.”고 말했다(새비지 랜도어 1999). 비숍 역시 “한국인들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으로 “외국인 교사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한국인들의 능숙하고 기민한 인지 능력과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탁월한 재능, 나아가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더 좋은 억양으로 더 유창하게 말한다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보티에·프랑델 2002). 그리피스는 “조선 사람들은 우물 안의 물고기처럼 외계와는 두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박한 지혜들을 많이 짜내어 일상 언어에서 막히지 않고 표현한다”고 했다. 이들의 “속담은 그 어원을 나타내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을 여실하게 반영해 준다”고 보았다(그리피스 1999). 스콧은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언어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을 가보지도 못한 한국인이 일본말을 너무 잘해 그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이다(키스·스콧 2006; 이나미 2014).

3) 예술에 대한 사랑

BTS와 같은 스타가 배출된 배경에는 한국 연예산업의 특별한 기획능력과 관리체계가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그와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특별히 노래와 춤에 관심이 많았다. 1653년 하멜일행이 제주도에 상륙하여 왕인 효종을 알현했을 때 한국인들의 요구로 서양의 춤과 노래를 하고 그 댓가로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이후에도 그들은 고관대작의 집에 불려다니면서 춤과 노래를 해야 했다. 하멜이 보기에 조선은 감당해야 할 전쟁을 회피하고 용맹한 군인이 모멸을 당하는 나라였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총포와 도검을 녹여 농기구로 썼다. 똑같은 난파선을 받아들인 일본은 선원들로부터 조총 기술, 조선술, 항해술을 배워 이것이 이후 조선 침략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신복룡 2002).

뒤 알드 역시 한국인들이 음악을 무척 즐기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보았다. 화가인 새비지 랜도어는 한국 여성의 의상이 고대 로마 비너스 조각상보다 더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집 저집 초대받아 그림을 그려주었다고 했다. 이 시기 서구인들은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거나 재주를 보여주면서 돈을 벌었다. 블랭크 선장은 자신의 의치를 뺏다 꺾다 하는 공연을 통해 돈을 벌었다(신복룡 2002).

헐버트는 역시 한국이 중국처럼 장사를 못하고, 일본처럼 전쟁을 못하지만, 문화적 유산이 뛰어난 나라라고 소개하면서 왜 이러한 동방의 아일랜드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하나고 안타까워했다.

4)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많이 칭찬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이 치안 면에서 안전하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며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조선시대부터 외국인들이 주목해온 부분이다.

언더우드, 조선 사람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 선뜻 헌금했다고 칭송했다. 또한 콜레라 병을 고치는 것을 돕기 위해 찾아온 남자들은 학자와 양반이었는데도 헌신적으로 봉사했다고 했다(언더우드 1999). 헐버트는, “한국인들은 의로운 일이라면 돈을 우습게 알고 쾌척하는 성질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점에 대하여는 우리도 칭송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뒤 알드는 한국인이 매우 도덕적이며 착하여 다른 민족의 모범이 된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생활 규범은 매우 엄격하여 “도적질과 간통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밤에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다”고 했다(매켄지 1999). 그리피스에 의하면, “화재나 홍수 또는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마을 안의 어느 집이 무너지면 이웃 사람들은 이를 보수하는 데에 손을 빌려주는 것을 의무로 삼는다.” 또한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짓는 일을 항상 도와준다고 칭찬했다(그리피스 1999). 새비지 랜도어는 자신이 호랑이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뒤흔치지 않게 항상 주의했던 점을 상기했다(새비지 랜도어 1999). 헐버트는 조선인들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정스럽다’는 점을 꼽았다. 그에 의하면 조선인은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거짓말쟁이라든가 난봉꾼이라고 욕을 해 주면 그들은 일소에 부치지만 인색하다고 욕을 해 준다면 그것은” 큰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것이다(헐버트 2006: 이나미 2014).

그리피스는 조선에 공용 건물이 부족한 것에 대해 그것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많은 주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인간미가 넘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정은 가장 성스러운 의무로 여겨진다.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기를 부탁할 경우 그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그에게 한 끼의 식사를 거절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심지어 길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과객에게 자기의 보잘것없는 음식을 나누어준다. 잔치가 있으면 그 이웃 사람들은 으레 초대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원근을 쫓아다니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임무로 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세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지팡이, 담배 그리고 옷가지가 들어 있는 보따리가 어깨에 걸리고 주머니가 있다면 그 속에 엽전 몇 닢만 넣으면 그의 행장은 완전하다. 밤이 되면

숙박료를 들고 여관을 찾아가는 대신 민가를 찾아간다. 그 집에는 어떤 손님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사랑채가 준비되어 있다. 그곳에서 그는 음식을 대접받고 그 밤을 쉬어 갈 것이 확실하다.”(그리피스 1999).

또한 한국인은 특별히 평화를 사랑한다고 평가되었다. 하멜(Hendrik Hamel) 일행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회피하고 있었고 용감한 군인들이 모멸을 당하는 나라였다. 따라서 반전주의의 나라로 생각했으며 전쟁 기술을 위해 자신들이 쓰이기를 바랐으나 허사였다고 쓰고 있다(신복룡 2002). 게일은 “평화롭지 못할 때에도 인사말 대신에 평화, 평화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조선을 소개하는 묘사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게일 1999)라고 말한다. 험버트는, “한국인은 매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패싸움으로 변하여 난투극을 벌이는 예란 거의 없다”고 했다. 한국인은 화가 나면 본 정신이 아닌 것 같으나 “다소간이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서 다투는 일이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나는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험버트 2006). 배질 홀(Basil Hall)도 “이 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이제까지의 유서 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선량한 민족”이라고 나폴레옹에게 설명했다(신복룡 2002).

5. 맺음말

한국은 현재 한류로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을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1998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이래 한 두 차례 빼고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출생률 역시 전세계에서 제일 낮아 가장 빠르게 사라질 민족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인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이유는 아닐까? 모든 한국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고 남들 눈에 우수해보여야 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은 그만큼 한국 문화가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저에는 경제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 성장 위주의 경제관념도 한 몫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본래 갖고 있던 사회적, 문화적 자산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힘이 지속되려면 맹목적 성장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낳은 경제성장의 믿음도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J. S. 게일. 신복룡 역. 1999.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경향신문 1979.7.9

고원. 2008. “새마을운동의 농민동원과 ‘국민 만들기’ <국가와 일상>. 한울.

고태우. 2021. “1970년대 한국의 공해 상황과 재난 인식” <개념과 소통> 28 호.

고태우. 2023. “20세기 한국 환경오염사 서설” <생태환경과 역사> 10 호.

공제욱. 2008. “서론: 박정희 시대 일상생활 연구의 의미” <국가와 일상>. 한울.

W. E. 그리피스, 신복룡 역. 1999.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기쁨과희망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햇불> 3.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김상현. “공해수출국 한국,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일보> 2020.8.14.

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김종철. 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녹색평론사.

김지현. 2023. “‘효자 한류’ 5년간 경제적 효과 37 조” <헤럴드경제> 2023.7.10.

끌라르 보티에 · 이쁘리트 프랑델, 김상희 · 김성언 역. 2002.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태학사.

동아일보. 1966.12.13.

F. A. 매켄지., 신복룡 역. 1999. <대한제국의 비극>. 집문당.

박경서 · 이나미. 2010. <WCC 창으로 본 70년대 한국민주화인식>. 지식산업사.

A. H. 새비지 랜도어. 신복룡 역. 199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신복룡. 2002.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풀빛.

신재준. 2021. “1970년대 전후 공해의 일상화와 환경권 인식의 씨앗” <역사문제연구> 45 호

H. N. 알렌. 신복룡 역. 1999. <조선견문기>. 집문당.

L. H. 언더우드. 신복룡 역. 1999. <상투의 나라>. 집문당. 1999.

엘리자베스 키스·엘스펫 K. 로버트슨 스콧. 송영달 역. 2006.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책과함께.

유인호. 1991. <나의 경제학>., 양서원.

이나미. 2014. “서양인이 본 근대 한국의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13 권 1 호.

이덕재. 2007. “민족경제론의 공동체성과 현재적 의의,” <동향과 전망> 72 호.

이병천.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 <사회경제평론> 29(2).

이영재, 2016. <공장과 신화> 학민사.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정상호. 2017. <한국시민사회사: 산업화기 1961~1986>. 학민사.

<한겨레> 2009.6.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2, 3 권.

함석헌. 1983, <함석헌 전집>, 한길사.

H. B. 헐버트. 신복룡 역. 2006.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환경과공해연구회. 1991. <공해 문제와 공해대책>. 한길사.

Lessons from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How it can be implemented in Kazakhstan

Bauyrzhan Yedgenov(Ph.D)

(Suleyman Demirel University)

bauyrzhan.yedgenov@sdu.edu.kz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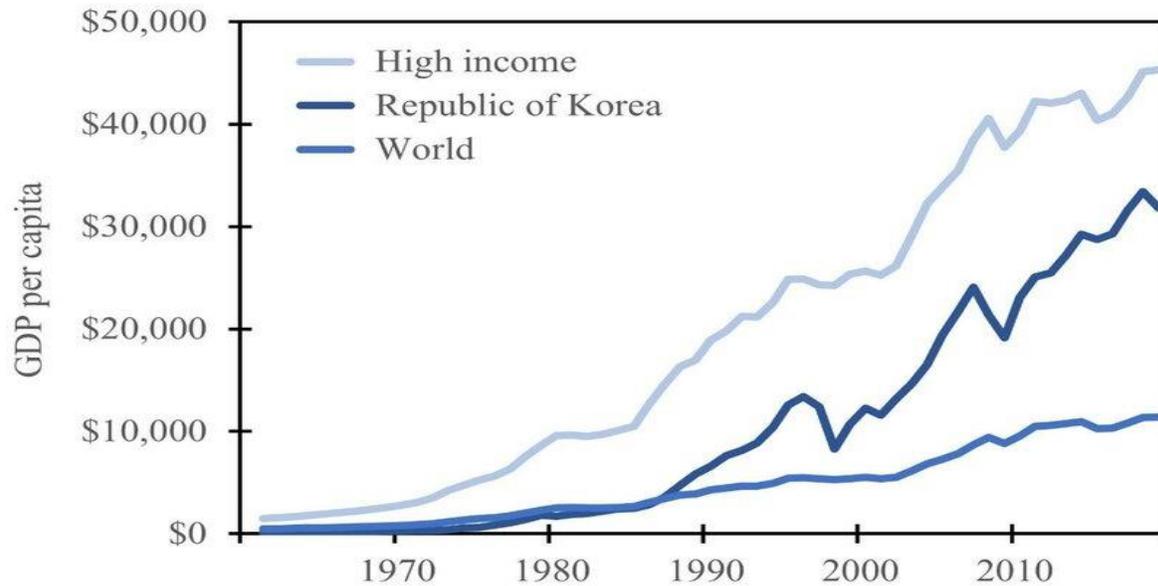
This paper delves into Korea's "Economic Miracle," tracing its trajectory from post-war recovery to global economic prominence. Emphasizing education,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Korea's model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Kazakhstan's development. By prioritizing education to cultivate a skilled workforce, fostering innovation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investing in modern infrastructure for connectivity, Kazakhstan can emulate Korea's success. This comparative analys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trategic economic policies tailored to each country's context, providing a roadmap for Kazakhstan's aspirations of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troduction

Korea's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often referred to as the "Korean Economic Miracle,"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from economists and policymakers around the world. The country's transformation from a war-torn, impoverished nation to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within a short period is nothing short of extraordinary. In examining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is astonishing growth, valuable insights and lessons emerge, which can potentially be applied to other countries seeking to emulate Korea's success. In this regard, Kazakhstan, with its own aspirations for economic advancement, can draw inspiration from Korea's experiences and strategie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key factors and lessons from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how they can be adapted and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Kazakhstan.

The history of the Korean economic model is a fascinating journey marked by rapid transformation and remarkable development. Following the devastation of the Korean War in the early 1950s, South Korea embarked on a path of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under the leadership of visionary leaders and strategic policies (Choe, 2003). One of the pivotal moments came in the 1960s with the initiation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focusing on industrialization and export-oriented growth (KDI, 2020). This perio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untry's industrial sector, includ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which became critical drivers of economic expansion.

Figure 1. GDP per capita in Korea, High Income countries and the World, 1960-2020



Source: Lee et al. 2023

The 1970s witnessed further strides in the Korean economic model, characterized by the rise of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s and a shift toward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and automobiles (Hwang, 2015). Government interventions and support, coupled with strategic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propelled South Korea into a global economic player by the 1980s (Lee, 2010). The export-led growth strategy, often term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showcased the resilience and adaptability of the Korean economy, leveraging global markets and fostering innovation in key sectors.

In the late 20th and early 21st centuries, the Korean economic model evolved into a knowledge-based economy, emphasiz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ark, 2018). The country's success in industries like semiconductors, tele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Korean Wave) further underscored its economic prowess and global influence (Kim, 2021). However, challenges such as income inequality, corporate governance issues within chaebols, and geopolitical tensions have also shaped the ongoing narrative of the Korean economic model, highlighting the need for continued adaptation and strategic planning to sustain long-term growth and prosperity.

Main lessons of Korean economic miracle

Korea's focus on education played a pivotal role in its economic transformation. The country made substantial investments in education, emphasizing both access to education and the quality of its educational institutions. This commitment to knowledge and skill development helped create a highly educated and skilled workforce, which ultimately became a driving force behind Korea's economic success. In the case of Kazakhstan, prioritizing education and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could similarly contribute to the country's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nother crucial factor in Korea's economic miracle was its emphasis on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country established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innovation, fostering a culture that encouraged research and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and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This allowed Korean industries to stay ahead of the curve and compete in the global marketplace. For Kazakhstan, embracing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could be a key step in diversifying its economy and reducing its reliance on traditional sectors. By fostering innovation and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s, Kazakhstan can position itself as a hub for cutting-edge industries, paving the way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o education and innovation, a third factor that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was its focus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country invested heavily in building modern infrastructure, including transportation networks, communication systems, and energy facilities. This investment not only facilitated the efficient movement of goods and people within the country, but also enhanced its connectivity with the global economy. For Kazakhstan, prioritiz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transportation, energy, and digital connectivity, could lay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y improving infrastructure, Kazakhstan can attract more investments, enhance productivity, and better integrate into regional and global markets, thus fostering economic development in various sectors.

When other countries adapted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the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ir economic growth strategies. For instance, Singapore, following in Korea's footsteps,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skill development, leading to the creation of a highly educated and skilled workforce. Thi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has been instrumental in Singapore's transformation into a knowledge-based economy.

Moreover, the adoption of Korea's focus on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can be seen in the case of Malaysia. Malaysia has actively promoted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leading to the growth of high-technology industries and the emergence of a vibrant startup eco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A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Vietnam provides a compelling example of a country that has followed the Korean model. Vietnam has prioritized investments in modern infrastructure, including transportation networks and energy facilities, to enhance its connectivity and facilitate economic development. This approach has strengthened Vietnam's position a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ment and trade, similar to the impact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Korea.

By examining these example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essential factor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model have been successfully adapted and implemented by other countries, resulting in tangible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mpetitiveness. These example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Kazakhstan as it seeks to implement the lessons from Korea's economic miracle in its own development journey.

Case of Kazakhstan: What can be adapted

Since gaining independence in 1991, Kazakhstan has undergone significant economic development, transitioning from a centrally planned economy to a market-oriented system. The country's vast reserves of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oil, gas, and mineral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driving economic growth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UNDP Kazakhstan, 2020). The government implemented ambitious economic reforms, including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deregulation of markets, and improvements in infrastructure, aiming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business and investment.

Kazakhstan's economic diversification efforts have also been notable, with a focus on developing non-oil sectors such as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s. The country has leveraged its strategic geographical location, serving as a key transit hub for trade and transport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through initiatives like the "Nurly Zho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 (World Bank Kazakhstan, 2021). Additionally, Kazakhstan'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artnerships, such as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Belt and Road Initiative, has further enhanced its economic connectivity and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Table 1. Comparison of economies of Korea in 2000 and Kazakhstan in 2022

Indicator	South Korea (2000)	Kazakhstan (2022)
Gross Domestic Product (GDP)	\$479 billion	\$179.3 billion
GDP Growth Rate (5-year avg.)	5.7%	2.9%
GDP per Capita	\$10,000	\$9,800
Income Tax Rate	28%	10%
Inflation Rate	2.8%	6%
Economic Freedom Index	Higher	Lower
Life Expectancy	74.6 years	73 years
Exports (2022)	\$705 billion	\$98.7 billion
Economic Complexity Index	1.71	-0.35

Source: World Bank

Kazakhstan can draw valuable lessons from Korea's economic development model, particularly in three key areas that have been instrumental in Korea's success story. First and foremost is the emphasis on education,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transforming Korea's economy. By making significant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ensuring both access to education and the qual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Korea cultivated a highly educated and skilled workforce. Kazakhstan can similarly prioritize education and invest in human capital development to fuel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 focus on knowledge and skill development can equip Kazakhstan's workforce with the capabilities needed to drive innovation, productivity, and industry diversification.

Another critical lesson from Korea's economic miracle is its strong emphasis on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Korea created a supportive ecosystem for innovation by encourag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ostering entrepreneurship, and embracing new technologies. This proactive approach allowed Korean industries to stay ahead of global trends and compete effectively. Kazakhstan can emulate this by embracing innovation and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echnological progress.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ing startups and entrepreneurship, and adopting new technologies across sectors, Kazakhstan can diversify its economy, reduce reliance on traditional sectors, and position itself as a leader in cutting-edge indust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was also a cornerstone of Korea's economic success. The country made substantial investments in modern infrastructure, including transportation networks, communication

systems, and energy facilities. This investment not only enhanced domestic connectivity and efficiency but also improved Korea'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Kazakhstan can leverage this lesson by prioritiz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especially in critical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energy, and digital connectivity. By improving infrastructure, Kazakhstan can attract more investments, boost productivity, facilitate trade and logistics, and enhance its connectivity with regional and global markets.

Moreover, Kazakhstan can benefit from adopting Korea's holistic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which integrated education,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as key pillars of growth. By aligning policies and strategies to foster a skilled workforce, promote innovation, and build modern infrastructure, Kazakhstan can create a conduciv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cross sectors. Learning from Korea's experiences and adapting these lessons to its own context can propel Kazakhstan towards becoming a dynamic and competitive economy in the global arena.

References

Choe, S. (2003). *The Economic History of Korea*. Routledge.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0).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 Postwar Success Story*.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Hwang, J. (2015). *The Role of Chaebols in the Korean Economy: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Springer.

Lee, H. (2010). *Economic Policies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A Case of Chaebol-Led Industrialization*. Routledge.

Lee, J. D., Eum, W., Shin, K., Kim, Y., & Lee, H. J. (2023). Revisiting South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olicies: from implementation capability to design capability.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31(3), 625-656.

Park, C. (2018). *The Korean Economy: From a Miraculous Past to a Sustainable Future*. Springer.

Kim, S. (2021). *The Korean Wave: Hallyu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ntertainment Industry*. Palgrave Macmillan.

UNDP Kazakhstan. (2020). *Kazakhstan's Economic Development: Achievements and Challenge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orld Bank Kazakhstan. (2021). *Kazakhstan Economic Update: Building Resilience Amid Uncertainty*. World Bank Group.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0). *Republic of Kazakhstan: Selected Issues Paper*. IMF Country Report No. 20/296.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19). *Kazakhstan: Economic Performance and Prospects*. ADB Country Diagnostic Study Seri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2021). *Kazakhstan: Economic Outlook*. EBRD Transition Report.

South Korea's tax and financial incentives for export promotion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арга барил

D.Myagmar(M.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demyagmar@gmail.com

ABSTRACT

South Korean industrial and export development has passed through several stages of historical development since the 1960s. At these stages, the government has effectively implemented financial and tax arrangements to support exports within a specific purpose. It supported manufacturing and exports through credit with easy terms, credit guarantees, trade insurance, tax relief, exemptions and reinstatements. The study will outline how financial and tax incentives have been used from government of the ROK, what have been achieved and how they are being used in the current way.

Key words: South Korea, industry, export, tax reduction, financial incentives

Хураангуй: БНСУ-ын аж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ын хөгжил нь 1960-аад оноос хойш түүхэн хөгжлийн хэд хэдэн үе шатыг дамжин өнөөг хүрчээ. Эдгээр үе шатуудад тус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тодорхой зорилгын хүрээнд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зохицуулалтыг үр ашигтайгаар хэрэгжүүлж иржээ. Тухайлбал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 чөлөөлөлт болон буцаан олголтоор дамжуулан үйлдвэрлэл боло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ж байв. Уг судалгаа нь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дэмжлэгүүдийг хэрхэн хэрэглэж ирсэн, ямар үр дүнд хүрсэн,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яаж ашиглаж байгаа тухай өгүүлэх болно.

Түлхүүр үгс: БНСУ, аж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 санхүүгийн дэмжлэг

Оршил

Экспорт нь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ын нэмүү өртөг шингээн үйлдвэрлэсэн эцс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гадаад зах зээлд борлуулж орлого олох тухай ойлголт юм. Аж үйлдвэрлэл боло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салбар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дүнд экспорт хөгждөг байна. Экспортын хөгжилд төрийн институц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чанар шууд нөлөөлдөг нь судалгаагаар тогтоогдсон¹⁸. Дэлхийн аж үйлдвэржсэн улс орнууд юу үйлдвэрлэдгээс үл хамааран төрийн институци нь аж ахуйн нэгжүүдэд үйлдвэрлэл, худалдааны таатай орчин бүрдүүлж өгч байгаагаараа нийтлэг байна. Өөрөөр

¹⁸ [UNCTAD/DITC/TAB/2005/1](http://unctad.org/Trade/Trade/2005/1)

хэлбэл төрийн институцын бүтэц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нь бага зэрэг ялгаатай байж болох ч зорилго нь бизнес эрхлэгчдэд худалдаа,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хэд тулгардаг нийтлэг саад бэрхшээлүүдийг хөнгөвчилж, боломж гаргаж өгч байгаагаараа ижил юм /үйлчилгээний экспортод суурилс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эц өөр хэлбэртэй байж болно/. Тиймээс манай улс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экспортлогч болохоор зорьж байгаа бол энэ замыг туулж амжилт олсон улсуудын туршлагаас судлах нь зүйтэй.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г түүхий эдийн экспортын хараат байдлаас гаргахын тулд улс орны онцлог, давуу тал, нөөц боломжид тулгуурлан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шаардлагатай. Манай улс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аж үйлдвэрлэл,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 дэмжих нэгдсэн тууштай бодлогогүй, хариуцсан удирдах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уялдаа холбоо сул, бодлого хэрэгжүүлэх мэргэшсэн байгууллага цөө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хөтөлбөр, арга хэрэгсэл дутмаг байна.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арга барил нь үндсэндээ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болон зарим төрлийн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 сургалт төдийхнөөр хязгаарлагдаж байна. Эдгээр сул талуудаа нөхөж,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уудаа шийдвэрлэхэд аж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ж эдийн засгийн өндөр амжилтад хүрсэн улс орнуудын туршлагаас суралцах нь ихээхэн тустай.

Бидний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 БНСУ нь төрийн зохицуулалттайгаар харьцангуй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хүнд болон хөнгө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сний дүнд эдүгээ дэлхийн томоохон экспортлогч орон болж чадс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эхэн үед төрийн оролцоо асар их байсан бол 1980-аад оноос төрийн оролцоог аажмаар багасгаж либералчлахыг зорих болжээ. Өнөөгийн төрийн институци нь тус улсын бизнес эрхлэгчдийн экспорт хийхэд тулгардаг бүх төрлийн саад бэрхшээлийг олон төрлийн аргаар хөнгөвчилж өгч байна. Тус улсын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 хүчирхэг эдийн засгийг бий болгосон арга туршлагаас суралцах зүйл бидэнд олон байгаа юм. Энэ хүрээнд тус улсын урьд өмнө хэрэгжүүлж байсан болон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хэрэгжүүлж буй аж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арга хэрэгслүүдийг тоймлон судаллаа.

1. БНСУ-ы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арга барил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хөтөлбөр, арга хэрэгслүүдийг тус улсын судлаачид санхүүгийн, маркетинг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гэж гурав ангилах нь түгээмэл. Маркетингийн дэмжлэг нь үйлдвэрлэсэ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гадаад зах зээлд борлуулахад чиглэгддэг. КОТРА, Солонгосын худалдааны хороо зэрэг мэргэшсэн агентлагууд нь гадаад дахь салбаруудаар дамжуулан энэ төрлийн хөтөлбөр, үйлчилгээг хэрэгжүүлдэг. Технологийн дэмжлэгт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 инновацийг дэмжих замаар экспортыг нэмэгдүүлэхэд чиглэсэн хөтөлбөр үйлчилгээнүүдийг хамруулан авч үздэг. Туршилт судалгаа,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лт, технолог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худалдан авалтыг дэмжих зэрэг олон төрлийн хөтөлбөр, үйлчилгээг Технологийн баталгааны сан, Техн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ны хүрээлэ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ассоциаци зэрэг байгууллагууд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хүргэдэг. Санхүүгийн дэмжлэгт экспорт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 гаргах зэрэг үйлчилгээг хамруулан авч үздэг байна.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ын корпораци, Зээлийн батлан даалтын сан, Экспорт импортын банк зэрэг төрийн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санхүүгийн үйлчилгээг хэрэгжүүлдэг мэргэшсэ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байдаг. Татаас болон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 чөлөөлөлт нь захиргааны шинжтэй нэг төрлийн санхүүгийн дэмжлэг юм. Төлөвлөлт сангийн яам, Татварын ерөнхий газар зэрэг байгууллагууд энэ төрлийн үйлчилгээг голлон хэрэгжүүлдэг.

Зураг 1. БНСУ-ы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үндсэн аргууд

Санхүүгийн	<ul style="list-style-type: none">•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Экспортын санхүүжилт•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
Маркетингийн	<ul style="list-style-type: none">• Судалгаа• Зуучлал• Сурталчилгаа• Сургалт
Технологийн	<ul style="list-style-type: none">• Технологи хөгжүүлэлт• Технологийн туршилт• Технологи солилцоо• Сургалт судалгаа
Төрийн захиргааны	<ul style="list-style-type: none">• Татвар• Татаас• Төрийн худалдан авалт• Түүхий эдийн нөөц бэлтгэх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аас хойшхи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өгжлийн үе шатуудад төрийн институцийн бүтэц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уялдуулан дээрх 3 төрлий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эд чиглэсэн арга хэрэгслүүдийг дагнасан, хосолсон зэрэг олон арга хэлбэрээр авч хэрэгжүүлж ирсэн байдаг.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ж эхэлсэн 1960-аад он нь дайны дараах санхүүгийн хямрал арилаагүй, дотоодын эдийн засаг валютын хомсдолтой байсан үе юм. Тиймээс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өгжлийн эхэн үеийн дийлэнх бодлого хөтөлбөрүүд нь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г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механизмаар дэмжихэд чиглэж байв. Аж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ын хөгжил тодорхой түвшинд хүрэхтэй зэрэгцэн маркетингийн болон технологийн дэмжлэг, хөтөлбөрүүдийг төлөвлөн хэрэгжүүлж эхэлжээ. Өнөөгий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дээрх 3 төрлийн арга хэрэгслийг мэрэгшсэн агентлагуудаар дамжуулан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шууд, мөн зорилтот хөтөлбөр хэрэгжүүлэх замаар хөнгөлөлттэй нөхцлөөр тус тус хүргэж байна. Аж үйлдвэрлэл,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 хариуцсан Үйлдвэрлэл худалдаа нөөцийн яам¹⁹ болон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лэл, гарааны бизнесийн яамд²⁰ нь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хөтөлбөрөө харьяа агентлагууд, орон нутгийн удирдах болон бусад олон байгууллагаар дамжуулан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2.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өгжлийн үе шатууд дахь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дэмжлэг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өөр ахлуулс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лтийн хороо нь 1960-аад оны эхэн үеэс аж үйлдвэрлэл боло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бодлогыг 5 жилээр төлөвлөн хэрэгжүүлж эхэлжээ.

¹⁹ [산업통상자원부 \(motie.go.kr\)](http://motie.go.kr)

²⁰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http://mss.go.kr)

Уг цогц төлөвлөгөөнд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зорилтот хөтөлбөрүүдийг багтаан хэрэгжүүлсэн байдаг. 1962-1992 оны хооронд харилцан уялдаатай хэрэгжүүлсэн 6 удаагийн 5 жилийн төлөвлөгөөний үр дүнд тус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аг өндөр хурдацтай өссөн бөгөөд нэг хүнд ноогдох ДНБ-ий хэмжээ 1961 онд 83 ам доллар байсан бол 1992 онд 6479 ам доллар болж 80 дахин өсжээ. Мөн аж үйлдвэрлэл нь бүтцийн хувьд нэгдүгээр шатны үйлдвэрлэлээс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д шилжсэн. Хүчирхэг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ааз суурийг бий болгосон БНСУ нь 1990-ээд оноос технологи, инноваци, боловсролыг дэмжихэд анхаарах болсон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аас хойшхи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түүхэн үе шатуудад төрийн бодлого зохицуулалтаар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дэмжлэгийг эрчимжүүлэх, бууруулах, зогсоох зэрэг олон хувилбараар иржээ. Энэхүү түүхэн өөрчлөлтийн үе шатуудыг дараах байдлаар ангилан авч үзлээ. Үүнд:

1.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1960-1970 он
2.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1970-1980 он
3. Тооноос илүү чанарын өсөлтөд анхаарах болсон 1980-аад оны сүүлээс өнөөг хүртэл

БНСУ-ы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өгжлийн замнал: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барааны үйлдвэрлэл →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барааны экспорт, завср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лдвэрлэлийн процессоор дамжиж эцс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болдог төмөр, гурил зэрэг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двэрлэл → завсрын бүтээгдэхүүн болон технолог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экспорт*²¹.

Олон тооны хямд ажиллах хүч, Хятад, Япон, Энэтхэг, Австрали зэрэг томоохон зах зээлүүдтэй далайн тэврээр шууд холбогдох боломж бүхий газарзүйн онц таатай байршил нь экспортын хөгжлийн томоохон хүчин зүйл болж байв. Мөн хөгжлийн эхэн үед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орон нутгийн дэд бүтэц сайтай газруудад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үс байгуулах шийдвэр гарган,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тухайн бүс дэх газрыг хөнгөлөлттэй үнээр олгодог байсан нь оновчтой шийдвэр байв²².

2.1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1960-1970 он

1960-аад оноос импортыг орлох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бараа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төрийн бодлогоор дэмжиж эхэлжээ. 1965 онд торго, нэхмэл даавуу, зүймэл модон хавтан, савхи, гар урлалын бүтээгдэхүүн, шаазан эдлэл, резин бүтээгдэхүүн, радио болон цахилгаан хэрэгсэл, төмөр лааз, модон эдлэл, бэлэн хувцас зэрэг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ын экспортыг төрөөс онцгойлон дэмжиж эхэлсэн. Үүний зэрэгцээ энэ төрл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импортын ижил төрийн бараанаас тарифын болон тарифын бус зохицуулалтын аргаар хамгаалах бодлого барьжээ. 1960-аад оны сүүлээс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арааны экспорт, ялангуяа нэхмэл даавууны экспорт дорвитой нэмэгдэх болов. 1968 онд тус улсын нийт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арааны экспортод эзлэх нэхмэл даавууны хэмжээ 30 орчим хувьд хүрчээ.

Засгийн газар хөнгөн үйлдвэр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уг салбарыг татвар болон санхүүгийн аргаар дэмжиж эхэлжээ. 1960 онд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 чөлөөлөлтийн тухай хуулийг

²¹ [경제개발 5개년계획\(한국\) \(naver.com\)](http://naver.com)

²² Lee, Jaymin,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and Korea’s Industrial Policy”, p. 64 in Park and Wilkinson (1995).

баталж, 1964 оноос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ашгийн татварыг 80 хүртэл хувиар хөнгөлж эхлэв. 1961 оноос экспортын санхүүжилтийг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олгож эхэлжээ. Үйлдвэрлэгч нь экспортын гэрээнд үндэслэн банкнаас зээл авах замаар импортлогч талаас шилжүүлэх төлбөрийг хүлээхгүйгээр санхүүгийн асуудлаа шийдвэрлэх, үйлдвэрлэлээ хэвийн явуулахад уг үйлчилгээ тусалдаг байна. Экспортын санхүүжилт нь 1961 оноос өнөөг хүртэл хэрэгжиж буй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санхүүгийн гол арга хэрэгслүүдийн нэг юм. Экспортын санхүүжилтийн хүү нь тухайн үеийн банкны зээлийн хүүгээс хавьгүй бага байснаараа, мөн валютын ханшийн зөрүүнээс багагүй өгөөж өгдгөөрөө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ашигтай байв.

Засгийн газар 1969 онд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эрсдэлийг буур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ын тухай хуулийг баталж,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 байгуулснаар уг үйлчилгээ хэрэгжиж эхэлжээ. Гэвч тухайн үед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хэрэглээ тун бага байв. 1968-1972 оны хооронд нийт экспортын дүнгийн нэг хүрэхгүй хувь нь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д хамрагдаж байв²³. Мө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татаас олгох зэргээр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ж байжээ.

2.2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1970-1990 он

1970-аад оноос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төрийн бодлогоор дэмжиж эхэлсэн. Цалингийн зардлын эрчимтэй өсөлт нь ажиллах хүч их зарцуулдаг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аас илүү өндөр үр өгөөжтэй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ыг дэмжихэд хүргэжээ.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ган төмөр, зэвэрдэггүй метал, усан онгоц, электроник болон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гол салбараар сонгон хөгжүүлсэн²⁴. 1970-аад онд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ын дийлэнх хувийг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 эзэлдэг байсан бол 2008 он гэхэд 83.5 хувийг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 16.5 хувийг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 эзлэх болжээ²⁵. Ийнхүү тус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ол зүтгүүр нь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 болсон байна.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маш өргөн хүрээнд олон төрлийн аргаар эрчимтэй дэмжжээ.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потенциал нэмэгдэхтэй зэрэгцэн 1970-аад оны сүүлийн хагасаас Төвлөрсөн худалдаа эрхлэгч (종합무역상사 제도) зэрэг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дэд бүтэц, гадаад зах зээлийн орон зай бий болгоход чиглэсэн экспортын маркетингийн бодлого хөтөлбөрүүдийг төлөвлөн хэрэгжүүлж эхэлсэн²⁶.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 чөлөөлөлтийн тухай хуулийн дагуу 1973 оноос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гчдийг эхний 3 жилд ашгийн татвараас бүрэн чөлөөлж, дараагийн 2 жилд 50 хувийг хөнгөлж байв. Мөн экспортын зориулалттай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үүхий эдийг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аас чөлөөлөх тухай хуулийг 1975 оноос батлан хэрэгжүүлж эхэлжээ. Уг хуулинд зааснаар гадаадаас

²³ KEIC, Annual Report and Monthly Export Insurance, various issues; K-sure, Annual Report 2009, 2010 (2010b)

²⁴ [경제개발계획 \(naver.com\)](http://naver.com)

²⁵ [중화학공업 \(naver.com\)](http://naver.com)

²⁶ Д.Мягмар,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үндэсний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оо дэмжиж буй хэлбэрүүд”, х.50-51, Олон улс судлал сэтгүүл, №16, 2023 он.

импортолсон түүхий эдийг 13 сарын дотор үйлдвэрлэлийн процессоор дамжуулан экспортод гаргасан бол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ыг буцаан олгодог байв.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ын буцаан олголтын хэмжээ 1975 онд 0.1 ихнаяд вон байсан бол 1990 онд 3.2 ихнаяд вон болон нэмэгджээ. Уг хууль өнөөг хүртэл хүчинтэй хэрэгжиж байна.

1960-1988 оны хооронд ихэнх зээлийн хүүг төрөөс зохицуулдаг байжээ.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Солонгосын хөгжлийн банкаар дамжуулан стратегийн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бусдаас бага хүүтэй зээл олгох замаар дэмжиж байв. Стратегийн үйлдвэрлэгчид буюу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гчдэд төрийн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дотоодын банк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бага хүүтэй зээл олгохын хажуугаар зээлийн шимтгэлд ихээхэн хөнгөлөлт үзүүлж байсан аж. Үүгээр тогтохгүй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гадаадын банк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ас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санхүүжилт авах боломжийг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гчдэд олгожээ.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ын үндсэн хэсэг болох “Гадаадын зээлийг дэмжих журам”-ын хүрээнд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нэр заасан тодорхой салбарын үйлдвэрлэгчид гадаадаас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авах тохиолдолд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г Засгийн газар гаргаж өгдөг байв. Төрийн баталгаа бүхий гадаадын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ийн жилийн хүү нь дунджаар 9 хувь буюу дотоодын банкныхаас (зээлийн хүү 20 орчим хувь байсан) хавьгүй бага, эргэн төлөх хугацаа урт байсан нь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үлэмж давуу тал олгожээ.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сан компани нь зээлийн гэрээний нарийвчилсан нөхцөл болон зарцуулалтаа Засгийн газарт тайлагнадаг,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эргээд хяналт тавьдаг журамтай байв.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гадаадын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ээр дэмжих бодлогод хийсэн Чой Жэду, А.Левченко нарын судалгаагаар уг зээлд хамрагдсан компаниудын дараагийн 30 жилийн борлуулалт нь хамрагдаагүй компаниудтай харьцуулахад үлэмж өндөр дүнтэй гарсан байна²⁷.

Экспортын санхүүжилтийг хэрэгжүүлдэг мэрэгшсэн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Солонгосын эксим банк 1976 онд, Зээлийн батлан даалтын сан 1974 онд тус тус байгуулагджээ. Солонгосын Эксим банк²⁸ нь экспортын санхүүжилтийг олгодог бол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г Зээлийн батлан даалтын сангаас²⁹ гаргаж иржээ. Энэ үүднээс авч үзвэл экспортын санхүүжилтийн үйлчилгээ нь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той зэрэгцэн мэргэжлийн түвшинд хүрч, илүү өргөн хүрээг хамрах болжээ. Экспортын санхүүжилтийн маш бага хүүгийн түвшин нь 1960-1980 оны хооронд экспортлогчдод асар өндөр өгөөжтэй байв³⁰.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 нь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дэмжих санхүүгийн нэг төрлийн арга хэрэгсэл байсан боловч хамрагдагсдын тоо дорвитой нэмэгдэхгүй байв. 1968-1990 онуудад нийт экспортын 4 хүрэхгүй хувь нь даатгалд хамрагдаж байжээ.

2.3 Тооноос илүү чанарын өсөлтөд: 1980-аад оны сүүлээс өнөөг хүртэл

²⁷ Jaedo Choi, Andrei A. Levchenko, The long-term effects of industrial policy, NBER Working paper 29263, 2022.

²⁸ [Home : Korea Eximbank](#)

²⁹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³⁰ Mah, Jai S., “Export Promo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Journal of World Trade, February 2006.

Газрын тосны хямралын нөлөө арилж, дэлхийн зах зээл дэх америк доллар болон нефтийн ханш буурч эхлэхтэй зэрэгцэн 1980-аад оны сүүлээс тус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тэнцэл өндөр ашигтай гарч, эдийн засаг эрчимтэй өсч эхэлсэн. Энэ үеэс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үнд аж үйлдвэрлэлд чиглэсэн дэмжлэгээ бууруулж, эдийн засгийг төрөлжүүлэх, тооноос илүү чанарыг дэмжих үүднээс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ийн болон ур чадварын экспортод /хилийн чанадад томоохо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н төсөл хэрэгжүүлэх.../ түлхүү анхаарч эхэлсэн. М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 инновацийн судалгаа хөгжүүлэлтэд анхаарах болж, эдийн засаг дахь төрийн оролцоогоо аажмаар бууруулж эхэлжээ.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Төвлөрсөн худалдаа эрхлэгч зэрэг хөтөлбөр нь үндэсний томоохон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г далайцтай дэмжсэний дүнд Самсунг Хэндэ зэрэг томоохон корпорацууд дэлхийн хэмжээний үйлдвэрлэгч болж тус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ол зүтгүүр болсон. Гэвч нөгөө талаар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лэл (ЖДҮ) эрхлэгчид зах зээлээс шахагдах, орлого тэгш бусаар хуваарилагдах зэрэг сөрөг үр дагаварууд гарах болсон учир Засгийн газар 1990-ээд оны сүүлээс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тэнцвэрийг хангах үүднээс уг салбарыг бодлогоор дэмжих болсон. Энэ үүднээс Үйлдвэрлэл худалдаа, нөөцийн яамны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лэл хариуцсан газрыг 2017 оноос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 гарааны бизнесийн яам болгон дэвжүүлжээ. Өнөө цагий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хөтөлбөрүүд нь экспорт хийдгүй ЖДҮ эрхлэгчдийг экспортлогч болгох, экспорт хийдэг ЖДҮ эрхлэгчдийн экспортын потенциалыг дээшлүүлэхэд чиглэж байна. Мөн улс орны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ыг дээшлүүлэх үүднээс шинэ технологи, инноваци бүхий гарааны бизнес,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лжээ.

Өнөөгийн төрийн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дийлэнх арга хэрэгслүүд нь ЖДҮ эрхлэгчдийг дэмжихэд чиглэ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 гарааны бизнесийн яам нь 2023 онд 4,2 их наяд воны бодлогын санхүүжилт зарласан³¹. Бодлогын санхүүжилтийн хүү нь төв банкны бодлогын хүүгээс бага байдаг онцлогтой. Энэхүү онцгой хөнгөлөлттэй нөхцөл бүхий зээлд хамрагдах хүсэлтэй аж ахуйн нэгжүүд (ААН) олон байдаг. Тиймээс зээлийн нөхцөл шалгуураар дамжуула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зарим төрлийн дэмжлэг, хязгаарлалтын зохицуулалт хийх нь түгээмэл. Тухайлбал 2023 онд эрчим хүчний өндөр хэмнэлттэй, хорт хаягдал бага ялгаруулдаг үйлдвэрлэлийг маш бага хүүтэй зээлээр дэмжсэн.

2009 оноос Зээлийн батлан даалтын сан нь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гчдийн экспортын зориулалтаар арилжааны банкнаас авах зээлд баталгаа гаргаж эхэлжээ. Уг байгууллага нь ЖДҮ эрхлэгчдийн экспортын гэрээ, шинэ технологи, өсөх ирээдүйтэй бизнес төлөвлөгөө зэрэгт үндэслэн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 (зээл авах эрх) гаргаж өгдөг. Энэ нь барьцаа хөрөнгөгүй ААН үүдэд үйлдвэрлэлээ тасралтгүй явуулах боломж олгох бөгөөд, шинээр эхэлж буй бизнест эргэлтийн хөрөнгө болж өгдөг байна. Хүсэлт гаргасан ААН-ийн бодит үнэ цэн, санхүүгийн чадвар, технологийн түвшин, бизнесийн ирээдүй, хүний нөөцийн чадвар зэргийг үнэлж, зээлжих зэрэглэлийг тогтоосны үндсэн дээр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 гаргадаг. ААН нь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нд үндэслэн арилжааны банкнаас зээл авч үйлдвэрлэлээ хэвийн явуулах боломж бүрддэг байна. 2023 оны 3 дугаар улирлын байдлаар тус байгууллага 10.000 ААН-ийн 4 их наяд воны зээлд баталгаа гаргажээ³².

³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http://kosmes.or.kr)

³² [문서뷰어 \(kodit.co.kr\)](http://kodit.co.kr)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ын үйлчилгээ 1990-ээд оноос дорвитой нэмэгджээ. БНСУ дэлхийн худалдааны байгууллагад элсэж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тус улсын хувьд харьцангуй нээлттэй болохын өмнө буюу 1992 онд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эрсдэлийг бууруулж,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ын үйлчилгээг өргөжүүлэх үүднээс төрийн өмчийн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ын корпорацийг байгуулжээ³³. Ийнхүү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аас үүдэн гарах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өндөр эрсдэлийг төр үүрэх болов. Тухайлбал даатгал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алдагдал 1992-1994 онд 187%, 2003-2004 онд 325% хүрч байв.

Хүснэгт 1. БНСУ-ын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ын мэдээлэл

years	export values (A)	insured amount (B)	premium received (C)	claims paid (D)	recoveries (E)	utilization ratio (B/A:%)	loss ratio (D/C:%)
1974-1976	182.5	1.5	0.01	0.01	0.00	0.8	41.4
1983-1985	1,053.9	42.5	0.28	0.06	0.01	4.0	22.1
1989-1991	2,115.2	49.6	0.14	1.55	0.02	2.3	1,082.9
1992-1994	2,705.8	118.2	0.77	1.45	0.11	4.4	187.9
2003-2004	4,481.2	970.4	2.12	6.90	1.75	21.7	325.2
2008-2009	8,065.0	2,444.1	5.94	7.14	2.57	30.3	122.2

Эх сурвалж: Mah, Jai S., “Export Promo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Journal of World Trade*, February 2006.

1968-1990 онуудад нийт экспортын 4 хүрэхгүй хувь нь даатгалд хамрагдаж байсан бол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ын корпораци байгуулагдсанаас хойш энэ тоо өсч 2009 он гэхэд 30 хувьд хүрчээ. Уг байгууллага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нь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 импортын даатгал, валютын ханшийн өөрчлөлтийн эрсдлээс сэргийлэх даатгал,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эрсдлийн даатгалаас гадна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аар зорьж буйг гадаад компанийн санхүүгийн чадварыг судлах зэрэг үйлчилгээг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үзүүлж байна. Тус байгууллага 2022 онд 238 ихнаяд воны худалдаанд даатгалы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жээ³⁴.

Эдийн засгийн огцом өсөлтөөс үүдэн экспортод чиглэсэн үйлдвэрлэлд үзүүлж ирсэн татварын ялгавартай дэмжлэгээ 1990-ээд оноос огцом бууруулжээ. 1995 оноос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ийн үйлдвэрлэл болон энэ чиглэлийн судалгаа хөгжүүлэлтийг татвараар дэмжиж эхлэв. 2005 оноос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үс дэх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тай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г эхний 10 жилд орлого болон ашгийн татвараас чөлөөлөх болов³⁵. Өнөө цагт БНСУ-д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г аливаа нэг татвараас бүрэн чөлөөлөх явдал үгүй болсон боловч Татварын тусгай хуулийн /조세특례제한법/ дагуу

³³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or.kr\)](http://ksure.or.kr)

³⁴ [Annual Report 2022.pdf](#)

³⁵ Finance Forum, “Updating the Tax Regulations”, Korea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Seoul, 2003.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 үзүүлж байна. Уг хуулийн дийлэнх зүйл заалт нь ЖДҮ эрхлэгчдийг дэмжихэд чиглэдэг. Тухайн аж ахуйн нэгж ЖДҮ эрхлэгчийн ангилалд хамрагдах эсэхийг тодорхойлсны үндсэн дээр шалгуур хангасан компанид Татварын ерөнхий газраас³⁶ холбогдох хөнгөлөлтийг үзүүлдэг байна.

Татварын тусгай хуульд ЖДҮ эрхлэгчдийг орлогын болон хуулийн этгээд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аас хөнгөлөх нөхцлүүдийг тусгаж өгчээ. Тухайлбал шинээр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цагаас хойш 5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орлого олоогүй ААН-ийг орлого олж эхэлсэн цагаас эхлэн 4 жилийн турш орлогын татварыг 50 хувь хөнгөлдөг байна³⁷.

Уг хууль хувь хүн болон ААН-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хөгжүүлэлтийг 3 үндсэн хэлбэрээр татвараар дэмждэг. Эхний хэсэг болох энг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дэмжих журмын дагуу шинээр зохиож патентжуулсан, мөн зохих журмын дагуу бусдаас дамжуулж авсан технологийг ашиглан үйлдвэрлэл эрхэлж олсон орлогын татварыг ЖДҮ эрхлэгчид 50 хүртэл, том үйлдвэрлэгчид 40 хүртэл, корпорацид 25 хүртэл хувиар тус тус хөнгөлдөг байна. Хоёрдахь буюу орчин үеийн дэвшилтэт технологийг дэмжих журмын дагуу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 эрүүл мэнд, эрчим хүч, байгаль орчин гэх мэт 14 салбарын 270 төр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үйлдвэрлэлд, гуравдахь буюу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заасан стратег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дэмжих журамд хагас дамжуулагч, батерей, вакцин, хавтгай дэлгэц зэрэг 7 салбарын 66 төр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үйлдвэрлэлд тус тус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 үзүүлж байна³⁸.

Орон нутгийн татварын тусгай хуулийн дагуу хүн амын нягтрал багатай орон нутагт бүртгүүлсэн ЖДҮ эрхлэгч нь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цагаас хойш 4 жилийн дотор худалдан авсан бизнесийн зориулалттай хөрөнгийн худалдан авалтын татварыг 75 хувь, 3 жилийн дотор хөрөнгийн татварыг 50 хувь тус тус хөнгөлдөг байна.

Экспортын зориулалттай түүхий эдийн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ыг буцаан олгох тухай хууль³⁹ нь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хүчинтэй үйлчилж байна. Уг хуулинд физик, химийн урвалын үр дүнд бүтэц найрлага, хэв шинж нь өөрчлөгдөн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д орсон бүх төрлийн түүхий эд, экспорты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ид орсон түүхий эд, тэдгээрийн сав баглаа боодол зэргийн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ыг буцаан олгож байна.

3.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явцад төрийн үүрсэн эрсдэл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явдал нь төрөөс ихээхэн зардал мөнгө, идэвхи санаачилга, хүчин чармайлт, хариуцлага шаарддаг басхүү ихээхэн эрсдэл дагуулдаг үйл ажиллагаа юм. Ялангуяа өсөлтийн шатандаа яваа, бие дааж амжаагүй шинэ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г экспортлогч болгож дэлхийн зах зээлд гаргана гэдэг нь өндөр эрсдэлтэй, нэг удаагийн арга хэмжээгээр үр дүн нь гарахгүй, үе шат

³⁶ [국세청 \(nts.go.kr\)](http://nts.go.kr)

³⁷ [조세특례제한법 \(law.go.kr\)](http://law.go.kr)

³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law.go.kr\)](http://law.go.kr)

³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http://law.go.kr)

дамжин хэрэгждэг, нарийн түвэгтэй ажил байдаг аж. БНСУ-ы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зоримог шийдэмгий бодлого хөтөлбөрүүдийн ард ихээхэн өндөр эрсдэл нуугдаж байв.

Тухайлбал их хэмжээний татварын дэмжлэг нь төсвийн орлогыг бууруулна. Ингэснээр Засгийн газар зардлаа танах шаардлага гарна. 1960-аад онд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гчдийн татвараас ихээхэн хөнгөлөлт үзүүлж байв. Гадаад валютын хомсдолтой, санхүүгийн хувьд хүндхэн байсан 1960-аад онд энэ нь тийм амар шийдвэр байгаагүй нь тодорхой.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гадаадаас авах зээлд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аталгаа гаргаж өгдөг байсан. Зээлийн хэмжээ асар өндөр дүнтэйн дээр гадаад валютын зээл нь ханшийн өөрчлөлтөөс үүдэн алдагдал хүлээх магадлал өндөр байжээ. Засгийн газар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санхүүгийн эрсдэлийг үүрснээрээ тэдэнд өндөр итгэл үзүүлж байж.

Төрийн өмчит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ын корпорац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нь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эрсдэлийг төр хариуцаж байсны том жишээ юм. Хувийн хэвшлээс хэрэгжүүлэх боломжгүй өндөр эрсдэл бүхий уг салбарт төр манлайлан оролцож үйлдвэрлэгчдэд экспортын боломжийг олгосон байна.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явцад ижил төрл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импортыг тарифын болон тарифын бус аргаар хязгаарлаж байв. Энэ нь шинэхэн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г хамгаалах зорилготой боловч нөгөө талаар тэдний гадаад зах зээл дээр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ыг бууруулдаг аж.

Экспортын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г тусгайлан өндөр зардлаар дэмжсэнээр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гчид орхигдох,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 эрүүл мэнд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чанар муудах зэрэг дотооды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ил хойш тавигддаг байна.

Төрийн зүгээс эдгээр олон төрлийн эрсдэл үүрч, золиос гарган, тууштай, идэвхи санаачлагатай ажилласны үр өгөөж нь өнөөдөр бий болсон БНСУ-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ндөр хөгжил, технологийн дэвшил, иргэдийн сайн сайхан амьдрал юм.

Дүгнэлт

БНСУ нь 1960-аад оноос хойшхи аж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хөтөлбөрүүдээр дамжуулан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хэд хэдэн төрлийн дэмжлэгийг туйлын үр ашигтай хэрэгжүүлж иржээ.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хэрэгжүүлэх үед санхүүгийн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төрийн мэрэгшсэн институцын тогтолцоо хараахан бүрдээгүй байсан учир харьцангуй цөөн төрлийн санхүүгийн дэмжлэг үзүүлж байв.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ийг энэ үеэс хэрэгжүүлж эхэлжээ.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той зэрэгцэн Солонгосын Эксим банк, Зээлийн батлан даалтын сан зэрэг мэрэгшсэ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даж санхүүгийн дэмжлэг өргөн цар хүрээг хамрах болж үр өгөөж нэмэгджээ. Энэ үед хүнд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гчдийг дотоодын болон гадаадын таатай нөхцөл бүхий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 экспортын даатгал зэрэг олон төрлийн аргаар тун дорвитой дэмжжээ.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үед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ашгийн татварт хөнгөлөлт үзүүлдэг байсан бол энэ үед тодорхой хугацаанд ашгийн татвараас бүрэн чөлөөлөх болсон, мөн экспортын зориулалттай түүхий эдийн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ыг буцаан олгож эхэлсэн байна. Эдгээр өргөн далайцтай, эрчимтэй дэмжлэгийн дүнд тус

улсы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үтэц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ээс хүнд аж үйлдвэрлэлд шилжиж, экспортын хэмжээ огцом хурдтай өссөн.

1980-аад оны дундаас тус улс тооноос илүү чанарын өсөлтийг эрхэмлэх болж,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дэмжлэг нь хүнд аж үйлдвэрлэлээс илүүтэй оюуны бүтээмж бүхий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эхэд чиглэж эхлэв. Өнөөгий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санхүү, татварын дийлэнх дэмжлэг нь ЖДҮ эрхлэгчид, мөн техн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хөгжүүлэлтийг дэмжихэд чиглэгдэж байна. Санхүүгийн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төрийн мэрэгшсэн агентлагууд асар их туршлага хуримтлуулж, салбартаа мэрэгшиж тус улсын экспортод го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х болжээ. Зээлийн баталгаа, худалдааны даатгал зэрэг үйлчилгээгээр дамжуулан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зарим төрлийн санхүүгийн эрсдэлийг төр хариуцаж байгааг онцлох хэрэгтэй.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ийн механизм нь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нэр заан тогтоосон орчин үеийн дэвшилтэт техн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хөгжүүлэлт,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эд чиглэжээ. Энэ хүрээнд ЖДҮ эрхлэгчдэд тусгайлан таатай, давуу нөхцөл олгож байна. Мөн экспортын үйлдвэрлэлд орсон түүхий эдийн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ыг буцаан олгох журам хэвээр үйлчилж байна.

Эх сурвалж

1. Lee, Jaymin,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and Korea’s Industrial Policy”, p. 64 in Park and Wilkinson (1995).
2. [경제개발 5개년계획\(한국\) \(naver.com\)](#)
3. KEIC, Annual Report and Monthly Export Insurance, various issues; K-sure, Annual Report 2009, 2010 (2010b)
4. [경제개발계획 \(naver.com\)](#)
5. [중화학공업 \(naver.com\)](#)
6. Д.Мягмар,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үндэсний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оо дэмжиж буй хэлбэрүүд”, х.50-51, Олон улс судлал сэтгүүл, №16, 2023 он.
7. Jaedo Choi, Andrei A. Levchenko, The long-term effects of industrial policy, NBER Working paper 29263, 2022.
8. [Home : Korea Eximbank](#)
9.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10. Mah, Jai S., “Export Promo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Journal of World Trade, February 2006.
11. Finance Forum, “Updating the Tax Regulations”, Korea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Seoul, 2003.
12.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or.kr\)](#)
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14. [문서뷰어 \(kodit.co.kr\)](#)
15. [Annual_Report_2022.pdf](#)
16. [국세청 \(nts.go.kr\)](#)
17. [조세특례제한법 \(law.go.kr\)](#)

Implementing South Korean industrial technologies in Mongolia

Солонгосын технологийг Монголын зах зээлд нэвтрүүлэх нь

S.Delgermaa(M.A)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delgermaa.s@ulaanbaatar.edu.mn

ABSTRACT

Technology plays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any country. This is because the process of development encompasses inevitable changes in society,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oper utilization of resources. The higher level success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the economy is said to define the result of development, and this ultimately becomes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development. Thus, this research examined how developing countries facilitate sustainable growth by effectively implementing technology and the impact of Yanmal LLC, a company successfully introducing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on the Mongolian society and economy.

Хураангуй:

Технологи нь аливаа улс орны хөгжлийн үндэс суурь болдог. Учир нь хөгжлийн явц нь нийгэмд зайлшгүй гарах өөрчлөлтүүдийг агуулж байдаг ба энэ нь нөөцийг зөв ашиглахтай холбоотой. Хөгжлийн үр дүнг хүмүүс,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арьцангуй өндөр түвшний чадамжуудын амжилтаар тодорхойлдог бөгөөд энэ нь үйлдвэрлэх гол хүч болж байна. Ийнхүү судалгааны ажлаар хөгжиж буй улс орнуу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тогтвортой өсөлтөө хангахын тулд технологийг хэрхэн нэвтрүүлэх болон БНСУ-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амжилттай нэвтрүүлж буй Янмал ХХК-н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агт үзүүлж буй нөлөөллийг судалсан.

Түлхүүр үг: технологи, улс орны хөгжил,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нэмүү өртөг,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лт, ноу хау

I. Удиртгал

Улс орнуудын хөгжил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цийн шилжилттэй холбоотой ойлголт бөгөөд бүтцийн шилжилт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г төрөлжүүлэх,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чилгээний боловсруулалтыг нэмэгдүүлэх, нөөцүүдийг (хөдөлмөр, капитал зэрэг) эдийн засгийн өндөр бүтээмжтэй үйл ажиллагаануудад шилжүүлэх зэрэгтэй хамааралтай.

Хөгжлийн үйл явцыг хэрхэн хурдасгах вэ? гэдэг нь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ын бодлогын гол асуудал бөгөөд аж үйлдвэржилтийн бодлого үүнд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дэг. Тухайлбал, аж үйлдвэржилтийн

бодлого нь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оролцоо (дэмжлэг, тусламж, зохицуулалт зэрэг)-оор дамжуулан тодорхой зорилгын хүрээн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үчин зүйлс, технологи, бүтээгдэхүүн, аж үйлдвэрүүд, бизнес эрхлэгчд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нөлөөлөх замаар хөгжлийг хурдасгадаг (Alessio, Ancil, & Monika, 2022).

Өөрөөр хэлбэ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багтаамж ихтэй,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йг бий болгох, хөгжингүй улс орнуудын технологийг дамжуулах замаар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ийг тогтвортой хангаж улс орныхоо хөгжлийг хурдацгах боломж бүрдэнэ

Дэлхийн бусад улс орнуудын хувь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өө хурдасгахын тулд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сэн аж үйлдвэрийн бодлогын өмнөх үеийн туршлагыг судалж, тэдгээрт үндэслэн үйлдвэржилтийн бодлогоо тодорхойлсон байдаг. Үүнд, 18-р зуун болон 19-р зууны эхэн үед Их Британи улсын аж үйлдвэржилтийн бодлогоос АНУ, Герман улс, 19-р зууны сүүл үед Герман улсын бодлого, институтээс Япон улс, 20-р зуунд Япон улсын аж үйлдвэржилтийн бодлогын туршлагаас БНСУ болон БНХАУ суралцжээ (Ha-Joon, Dr, & Ming, 2013).

Мөн хөгжиж буй болон буурай хөгжилтэй улс орнууд 1930-аад оны сүүлээр Японы эдийн засагч Канаме Акамацугийн боловсруулсан технологийн “Галуу цувааны онол” Америкийн эрдэмтэн Р.Верноны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онол”-ыг үндэслэн технолог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онол, Оросын эрдэмтэн В.И.Мухопад “Технологы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онол” зэргийг зохистой ашиглаж чадсанаар улс орны хөгжил илүү хурдасан аж үйлдвэржиж чадсан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нь бага-дунд орлоготой, далайд гарцгүй, байгалийн баялгийн арвин их нөөцтэй, шилжилтийн шатанд яваа нээлттэй эдийн засаг бүхий улс билээ. Өнгөрсөн 30 гаруй жилд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аг хурдацтай өсөж,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олон үзүүлэлтүүд сайжирсан хэдий ч байгалийн баялгийн оновчтой бус ашиглалт, технологийн шинэчлэлт, татвар болон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аатай бус орчин зэрэг асуудлуу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г хойш татаж байгаад анхааран бусад улс орны аж үйлдвэржилт болон технологийн туршлагыг судалж, оновчтой арга хэмжээг авч хэрэгж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өргөн байна.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ажлаар хөгжлийн суурь болсон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лтын онол арга зүйн үндэслэл, Монгол-БНСУ-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нөөгийн төлөв байдал,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лтыг нэвтрүүлснээр манай улсы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үр нөлөөлөл зэргийг тодруулахыг зорилоо.

I. Судалгааны онол арга зүйн үндэслэл:

...Технологи гэдэг нь түүхий эд, хагас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урьдаас төлөвлөсөн нөхцөл, шаардлагын дагуу боловсруулах арга, үйлдвэрлэлийн ажиллагааг хэрхэн явуулах мэдэгдэхүүнүүдийн нэгдэл мөн.

Оросын эрдэмтэн А.Д.Бондаренко “Технологи нь байгалийн түүхий эдийг боловсруул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эрэгсэл ба хэрэглээний зүйлийг бий болгох арга, үйл явц (процесс)-ыг судалдаг шинжлэх ухаан болно” гэж тодорхойлон *агуулгын хувьд* өргөн хүрээнд авч үзсэн.

Эрдэмтэн Ю.П.Долгушев “Технологи бол төрөл бүрийн зүйлсийг үйлдвэрлэх үйл явц, процессыг судлах шинжлэх ухаан мөн” гэснээр *аргыг* судлахыг голчлон авч үзсэн байна.

Харин Америкийн судлаач Дж.Мартино “...технологийн мөн чанар нь түүнийг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д, хэлбэр нь уг аргыг биежүүлэх хэрэгслэлд оршино” гэж тодорхойлон *технологийн диалетик холбоо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авч үзсэн.

Монголын эрдэмтэн профессор Г. Гомбо технологийн хөгжлийн мөн чанарыг тандан судлаад “Технологи нь бүтээхүйн ур ухаан, шинжлэхүйн ухаан мөн” гэж тодорхойлсон байдаг. Бүтээхүйн ур ухаан нь өнөөдөр хөгжл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үйлдвэрлэх хүч” болж байна.

Ер нь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мэдлэг, чадвар эзэмшсэн “хүн” технологийн хөгжлийн “хөдөлгөгч хүч” гэдгийг онцгойлон авч үзэх ёстой. Үүнтэй уялдуулан “технологи” гэдэг ухагдахуун нь агуулга, бүрэлдэхүүний талаас:



Зураг-1. Технологи, түүний агуулга/мөн чанар/ ба бүрэлдэхүү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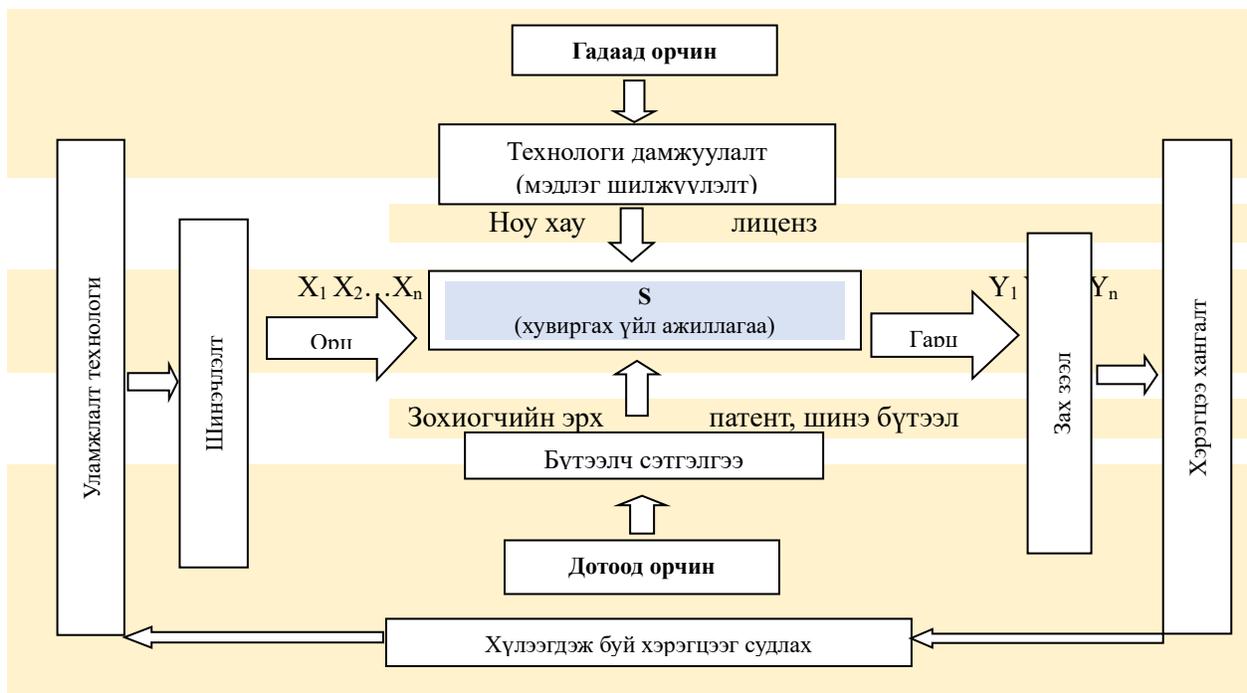
Технологи бол хөгжлийн үндэс суурь болдог. Учир нь хөгжлийн явц нь нийгэмд зайлшгүй гарах өөрчлөлтүүдийг агуулж байдаг ба энэ нь нөөцийг зөв ашиглахтай холбоотой. Хөгжлийн үр дүнг хүмүүс,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арьцангуй өндөр түвшний чадамжуудын амжилтаар тодорхойлдог. Хөгжлийн суурь технологийг бий болгохдоо дараах 4 үндсэн иж бүрдлийг эх үүсвэрээ болгон ав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үздэг. Үүнд:

1.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рчин үеийн хэрэгслүүд
2. Техникийн чадамж, хүмүүсийн ур чадвар
3. Мэдлэгийн ашиглалт, цар хүрээ
4.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болон удирдлагын чадвар

Технологийг хэрхэ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өцүүдтэй харилцан уялдуулж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ийг бий болгон хөгжлийн суурь болохыг судлаачид авч үзсэн байна.

ТЕХНОЛОГИ Б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ИСТЕМ

Эдийн засаг ба технологийн агуулга, бүрэлдэхүүн нь хоорондоо нягт уялдан шүтэлцэж, бие биенээ нөхөн бүрдүүлж, дэмжин хөгжүүлж байдаг зүй тогтолтой. Энэ утгаараа-технологи, түүний дэвшлийн мөн чанар нь юуны өмнө оюун ухаан соёлын ба тухайн нийгмийн үйлдвэрлэ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илтэй шууд хамааралтай байна.



Зураг -2. Технологи б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истем

Америкийн эрдэмтэн Р.Верноны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онол”-ыг үндэслээд, технолог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хэрхэн өөрчлөгддөгийг тодорхойлсо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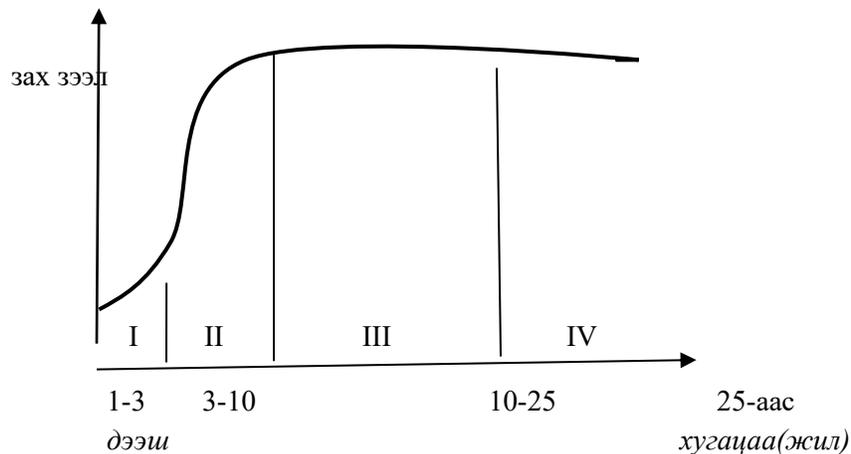
Нэг дэх үе шат. Шинэ технологийг бүтээж, үйлдвэрлэлд нэвтрүүлнэ. Уг технологийг хэрэглэснээр шинэ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үйлдвэрлэж, үйлдвэрлэгч нь монополь өндөр ашиг олно. Шинэ бүтээгдэхүүн харьцангуй ховор учраас түүний үнэ нь өндөр байдаг. Ийм ашигтай технологийг өмчлөгч пүүсүүд аль болох гадагш нь худалддаггүй.

Хоёр дахь үе шат. Уг технологи аажмаар тархаж туха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үйлдвэрлэдэг хэд хэдэн пүүсийн “олигополь” бий болж, тэдгээрийн хооронд өрсөлдөөн үүснэ. Улмаар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нэ буурч эхлэх бөгөөд зардлаа хэмнэхийн тулд пүүсүү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эмжээгээ эрс нэмэх болно. Ийм нөхцөлд дан дотоод зах зээл нэмэгдсэн таваарыг шингээж чадахгүй учраас түүнийг гадаадын зах зээлд худалдах болно. Ихэвчлэн 2-р үе шатанд технологи гадаадад шилжих, юуны өмнө технологийн багтаамж ихтэй, хөгжсөн орнуудын зах зээлд нэвтэрнэ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гээр авч үзвэл юуны өмнө хөгжсөн орнууд руу шилжиж байгаа технологийн хугацаа нь дунджаар 3-8 жил байдаг).

Гурав дахь үе шат. Тухайн таваарын зах зээл хангагдаж, өрсөлдөгч пүүсүүд капиталын зардлаа бууруулах нөөцөө дуусгана. Иймд үйлдвэрлэлээ ажиллах хүч хямд байдаг орнууд руу шилжүүлж болно. Энэ үед уг технологи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 руу нэвтэрнэ (Хугацаа нь дунджаар 10-25 жил байдаг).

Технологийн таваарын өвөрмөц шинжийг дээрх байдлаас авч үзвэл таваарын ашигт чанарыг, юуны өмнө, ховор шинж тодорхойлдог бөгөөд ховор шинж нь хугацаанаас хамаардаг байна.

Сүүлийн үед бид гадаадаас технологи авах талаар нэлээд их бичдэг болсон болохоор “тэргүүний”, “орчин үеийн”, “цоо шинэ” технологи гэдэг ойлголтын ялгааг 3-р зургаас харах боломжтой.



Зураг-3.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I үе – Шинэ санаа технологийн инкубаторт бойжих үе

II үе – Зах зээлд нэвтэрч,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 өсөх үе

III үе – Зах зээлд танил болж, хэрэглээ тогтворжсон үе

IV үе – Хэрэглээ хуучирч, зах зээлээс хумигдах үе (Энэ үед тухайн технологийг буурай хөгжилтэй,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ад шилжүүлн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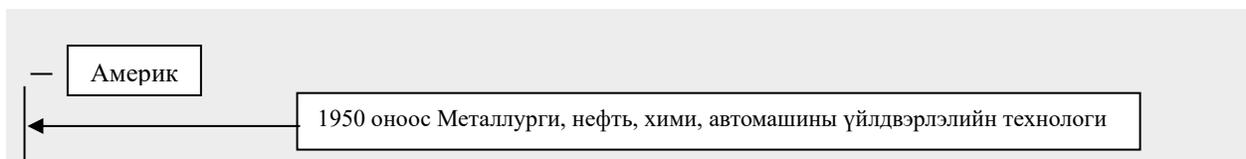
Орчин үеийн тэргүүний гэгдэж байгаа орнуудыг нэгдүгээрт «Түрүү хөгжсөн», хоёрдугаарт «Хожуу үйлдвэржсэн» гэж томъёолж бай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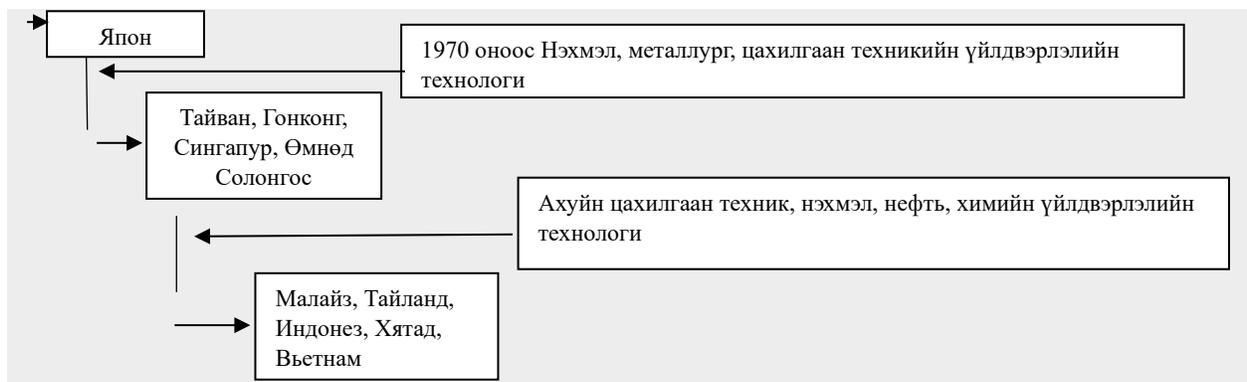
- Түрүү хөгжсөн Англи, АНУ, Герман зэрэг орнуудад «шинэ технологи»-ийг бий болгоход түлхүү анхаарал тавьж иржээ.
- Хожуу үйлдвэржсэн Япо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Сингапур зэрэг орнууд технологи өндөр хөгжсөн орны бэлэн технологийг дамжуулан, мэдлэгийг шилжүүлэн авч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гож чадсанаараа амжилтанд хүрч хөгжингүй улс орнууд болж чадсан байна.

Азийн орнуу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эрчимтэй хөгжлийн нууцад олон хүчин зүйл нөлөөлсөн боловч дараах 3 үндсэн хүчин зүйл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айсан гэж үзсэн. Үүнд:

1. Эдийн засгийн цаашдын хөгжилд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тэргүүний технологийг гадаадаас импортлох замаар нэвтрүүлсэн явдал.
2. Төрийн зохицуулалт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айсан явдал.
3. Тус бус нутгийн ард түмний нөр их хичээнгүй хөдөлмөрлөх чадвар төвшсөн байдал.

Азийн орнуудын Технологийн импорт





Зураг -4. Технологийн импорт

1970-аад оноос Тайван, Гонконг,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Сингапур зэрэг орнууд нэхмэл металлурги, цахилгаан техник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Японоос импортолж эхэлсэн. Харин тэд 1980-аад он гэхэд технологи экспортологч орнууд болсон байна. Эдгээр орнуудын ахуйн цахилгаан техник, нэхмэл нефть,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Малайз, Индонез, Филиппин, Хятад, Вьетнамд нэвтрүүлж эхэлсэн.

Ийнхүү тэргүүний технологийг амжилттай нэвтрүүлэхэд:

- Шинэ технологийг нэвтрүүлж чадахуйц боловсролтой ажиллах хүч байсан.
- Ижил төстэй соёл, газар нутгийн ойр дөт байдал
-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дыг татах чадвар зэрэг нь шийдвэрлэх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гэж үздэг.

Манай улс дэлхий тэргүүний технологийг шилжүүлэн хэрэглэх материал техникийн суурь,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чадвар, боломж нөхцөл зарим салбарт бүрэлдэж байгааг хэдий ч тийм хангалттай биш байна. Иймд юуны өмнө хямд, чанартай дундаж түвшний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таваарын технологийг дамжуулан авч, дотоодын зах зээлээ хангах, импортыг орл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чадавхийг өсгөх замаар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өө нэмэгдүүлэн хөгжих боломжтой юм.

Судалгааны дараагийн хэсэгт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ерөнхий дүр төрх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ад БНСУ-н технологийг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элбэрээр нэвтрүүлэн нутагшуулан ажиллаж буй “ЯНМАЛ” ХХК ний Монголын улсын зах зээлд хэрхэн амжилттай ажиллаж байгаа талаар судалсан.

II.-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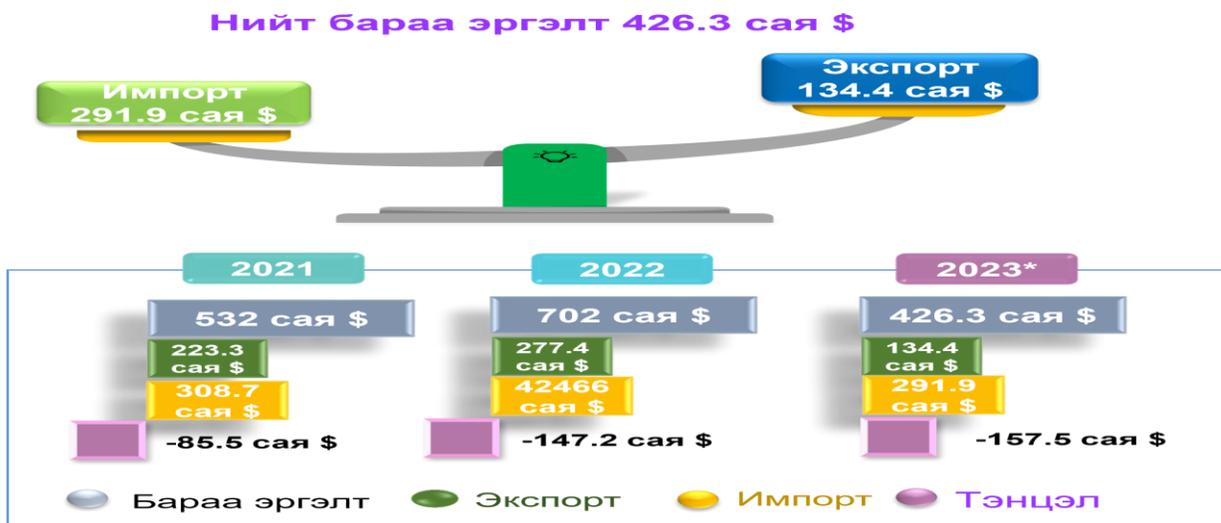
Монгол Улс 1990 онд БНСУ-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бөгөөд тус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1993-2018 онд манай улсад 130 сая гаруй ам.долларын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 200 сая гаруй ам.долларын буцалтгүй тусламж олгожээ

БНСУ-д одоогоор манай улсын 51 мянган иргэн амьдарч байгаагаас 37.7 мянга нь хөдөлмөр эрхэлдэг. Манай улс үйлдвэрлэж буй барааныхаа 2 хувийг БНСУ-д экспортолдог бол гадаадаас импортолдог барааны 4 хувийг тус улсаас авчээ. Харин БНСУ-ын 1816 иргэн манай улсад ажиллаж байна. Манай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НСУ-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Монгол Улсаас тус улсад гэрээгээ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иргэдийг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уулах эрх зүйн орчныг бүрдүүлж байгаа. Тухайлбал, манай улсын 36467 иргэн 2004-2018 онд БНСУ-д E9 буюу хөдөлмөрийн визээр ажиллаж

байсан бол одоо 4444 иргэ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ж байна.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ээр ажиллуулах иргэдийн квотыг нэмснээр өнгөрсөн онд 2400 гаруй хүн БНСУ-ыг зорьжэ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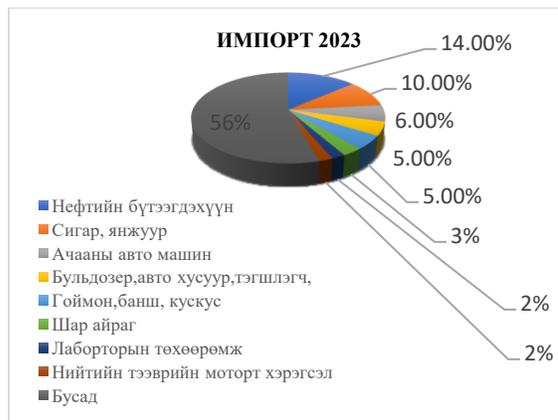
Монгол иргэд БНСУ-д ажиллах нь хөдөлмөр эрхэлж орлоготой болохоос гадна тус улсы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ын туршлага, арга барилыг суралцаж буйгаараа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УДАЛДААНЫ НИЙТ БАРАА ЭРГЭЛТ (2023 эхний 9 сар)



Зураг-5 Худалдааны бараа эргэлт

Хоёр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эргэлт 2021 онд 532 сая, 2022 онд 702 сая гаруй ам.долларт хүрсэн байсан. Харин 2023 онд эхний 9 сарын байлаар 426.3сая ам долларт хүрсэн байна. Гадаад худалааны тэнцлээс харахад экспортонд уул уурха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31,23%ийг эзэлж байхад импортод нефт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болон суудлын болон том оврын автомашин, бульдозер,авто хусуур, тэгшлэгч зэрэг машин механизм 25%ийг эзэлж бай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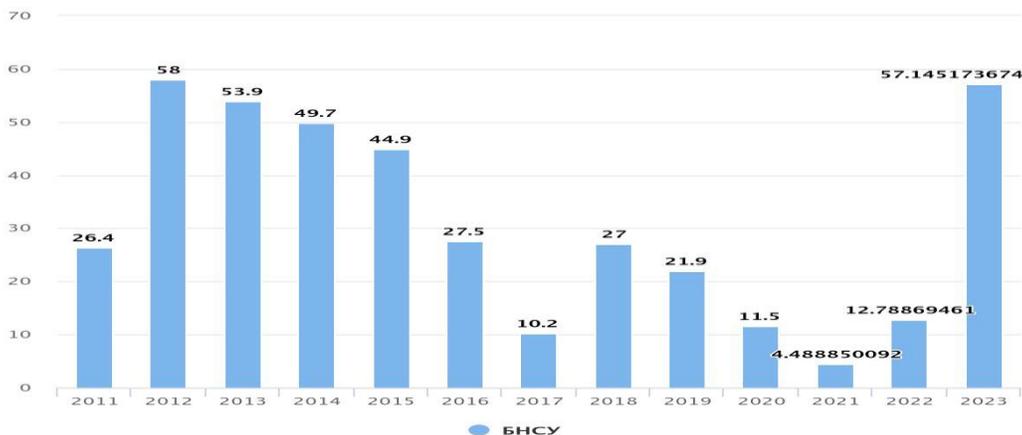


Зураг-6. Экспорт, импорт-2023

БНСУ нь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раа Монгол Улсад чухал байр суурь эзэлдэг бөгөөд Монгол Улсад 2023 оны байдлаар 57.14517 сая ам доллар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хийсэн нь манай

улсын нийт гадаад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2%-ийг эзэлж байна. Өнгөрсөн онд БНСУ-аас худалдаа, нийтийн хоол,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т 18 сая ам.доллар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сан нь манай улсын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0.7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гаа юм.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оруулса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сая ам.доллар)



Эх сурвалж: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ллийн нэгдсэн сан. (www.1212.mn)

БНСУ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нь 2012 онд 56 сая ам долларт хүрч 2013 оноос буурсан нь дэлх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ол үзүүлэлт болох инфляцийн түвшин, нийт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эрэлт, нийлүүлэлт, бизнесийн орчны тогтворгүй байдал зэрэг голлох нөлөө үзүүлсэн боловч 2023 онд эргээд 57 сая ам долларт хүрсэн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олон ажлыг эрчимтэй явуулсаны үр дүн юм.



Зураг-7. Солонгос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салбараар нь авч үзвэ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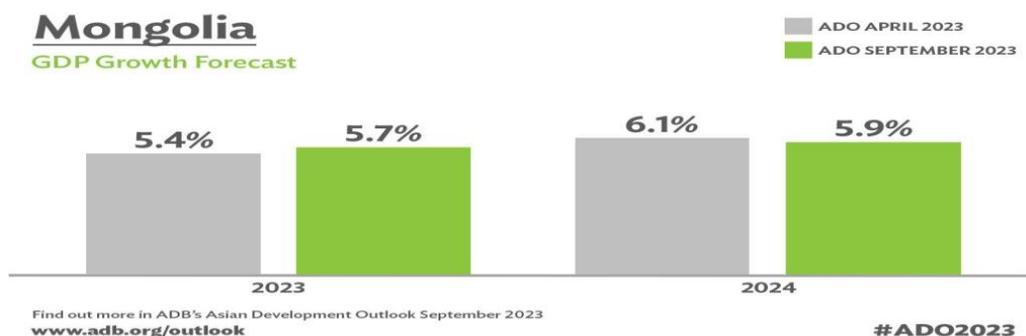
26,2%-г уул уурхайн салбарт, 12,8% барилгын салбарт 5,2% нь үйлдвэрлэлд буюу ний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44,2% нь бодит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хийгдсэн байна. Харин 17,2% бөөний болон жижиглэнгийн худалдаанд, 5,10% эрүүл мэндийн салбарт буй ний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28,3%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т хийгдсэн байна. Мө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11,8% үл хөрөнгийн салбарт хийгдсэн нь үйлдвэрлэл үйлчилгээний газар болон объект худалдан авах түрээслэх,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оруулж ирэх зэрэг бизнес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зарцуулагдсан байна.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лтанд мэдлэгийн менежментийг нутагшуулах явдал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г БНСУ-с МУ-д мэргэжил, ШУ техникийн үйлчилгээ зэрэг 3.9%ий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с харж болно.

Ийнхүү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н Монгол улсын хөгжилд ихээхэн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өгөөд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ийг тогворжуулахад бодит хувь нэмэр болно.

III. БНСУ-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МОНГОЛ УЛСАД НУТАГШУУЛЖ БУЙ ТУРШЛАГА

Монгол улс нь бага-дунд орлоготой, далайд гарцгүй, байгалийн баялгийн арвин их нөөцтэй, шилжилтийн шатанд яваа нээлттэй эдийн засаг бүхий улс билээ. Өнгөрсөн 30 гаруй жилд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аг хурдацтай өсөж,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олон үзүүлэлтүүд сайжирсан . Монгол Улсад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ийг 2023-2024 онд хадгалагдана гэж АХБ үзэж байна



Зураг-8.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сэргэлт энэ онд үргэлжилж, дотоодын нийт бүтээгдэхүүн (ДНБ)-ий өсөлт ойрын хугацаанд хадгалагдахаар байгааг Азийн Хөгжлийн Банк, Дэлхийн банкууд шинэ тайланд онцолжээ.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ийг гадаад эрэлт, экспортын сэргэлт, дотоод эрэлт дэмжихээр байгаа хэдий ч, өндөр инфляц, түүний эсрэг мөнгөний хатуу бодлого, дотоод санхүүжилтийн нөхцөл чангарсан зэрэг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г ялимгүй буурахад нөлөөлөн гэж үзсэн байна.

Манай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аг хурдацтай өсөж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олон үзүүлэлт сайжирахад Төрөөс явуулж буй “Үндэсний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бодлого” нь ДНБ-ийн өсөлтийг хангахад үндэсний үйлдвэрлэгчид чухал байр суурь эзэлдэг. Тэдний нэг БНСУ-с Монгол Улсад анх удаа оймс үйлдвэрлэх технологийг оруулж ирсэн “ЯНМАЛ”ХХК-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агт оруулж буй үр дүнгийн талаар авч үзье.

БНСУ-н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Монгол улсад нэвтрүүлсэн “ЯНМАЛ” ХХК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ч Д.Лхагважав, Ц.Энхжаргал нар 1997-2005 оны хооронд БНСУ-д ажиллаж, хуримтлуулсан туршлагадаа үндэслэн Монголын анхны оймс үйлдвэрлэгч ”Янмал”ХХК-ийг 2005 онд даавуун болон ноосон оймсыг үйлдвэрлэн импортыг орлох үндэсний брендийг бий болгосон.

Анх БНСУ-с хоёр сүлжих машин, дагалдах жижиг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ийг 20 гаруй мянган ам.доллараар худалдаж 50.000 ам доллар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ийж үйлдвэрээ нийт 5 ажилчинтай, түүхий эдийнхээ 90 хувийг БНСУ, 10 хувийг БНХАУ-аас авч ажлын гараагаа эхэлсэн бай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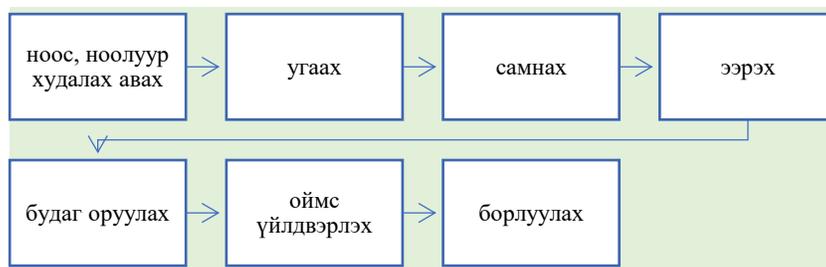


Зураг-9. Янмал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

Янмал ХХК нь технологи иновацийн өөрчлөлт шинэчилэлтийг тасралгүй хийж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 жилээс жилд өргөжүүлэн ажиллаж байна.

- 2005 онд-Янмал ХХК
- 2008 онд Монгол Оймс ХХК
- 2011 онд Тод Оймс ХХК
- 2017 онд Анхны экспортын гэрээ
- 2019 онд Ноос бэлтгэл сүлжиж 100тн ус цэвэршүүлэх АГИ ЦАГАА үйлдвэр
- 2021 онд WWX ХХК лаборатори
- 2022 он Сүүний фер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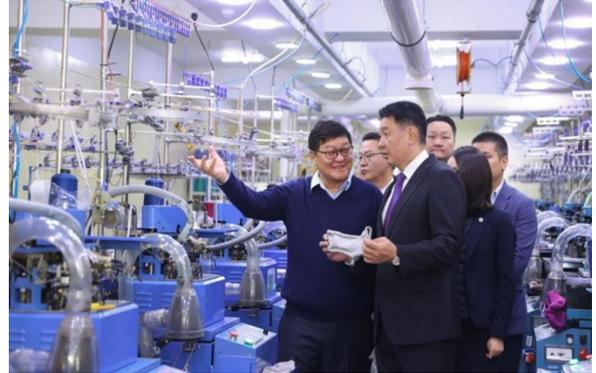
ХАА-н нэмүү өртгийн сүлжээг бий болгож каластр үйлдвэрүүдийг байгуулсан. Энэ нь нэмүү өртөг шинэгсэн бүтээгдэхүүн бий болох ба ДНБ-ний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асралгүй бүрэн дүүрэн явуулах үндсэн нөхцөл болж байна. Ноос угаах үйлдвэр, ноос самнах үйлдвэр, самнасан ноосоороо утас ээрэх үйлдвэр, будаг оруулах үйлдвэр, оймс үйлдвэрлэх үйлдвэр гэх 5 кластер үйлдвэрийг шат дараалалтай байгуулан ажиллаж байна.



Схем-1. Үйлдвэрлэлийн үе шат

“Янмал” ХХК нь малчдын гар дээрээс түүхий ноос авч, угаах, самнах, ээрэх, будах дамжлагын үйлдвэрүүддээ эцс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болгодог бөгөөд өдөрт үндсэн 6 төрлөөс салаалсан 1000 нэр төрлийн 20 мянган хос цэвэр давуун, ноосон оймс, эдлэл үйлдвэрлэх хүчин чадалтай оймсны зах зээлийн 60 орчим хувийг хангадаг томоохон үйлдвэрлэгч болсон байна.

Одоо бол анх үүссэн янмал брендийн ажлын байр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үе шат бүр маш их ялгаатай болсон байна.



Зураг-10. Оёдлын үйлдвэр

Ноос угаах үйлдвэр: 2019 онд ашиглалтанд оруулсан. Тус үйлдвэр нь 1 га талбайтай ба өдөрт 7 тонн ноос угаах хүчин чадалтай эмээлтэд байрладаг.



Зураг-11. Ноос угаах үйлдвэр

Оймсны үйлдвэр: 2015 оноос Бэлхэд өөрсдийн 2500м² хэмжээтэй үйлдвэрийн байраа барьж өргөжин одоогоор өдөртөө 1000 нэр төрлийн 20 000- 30 000 хос оймс үйлвэрлэх хүчин чадалтай, 88 сүлжих машин, 15 битүүлж оёх машин, 1 индүүний бүтэн систем, Трико болон оёдолын 8 машинтайгаар 150 хүнийг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ж, 24 цаг тасралтгүй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 явуулж байна.



Зураг-12. Оёдлын үйлдвэр

Ээрэх үйлдвэр: АХБ-ны санхүүжилтээр Ноос ээрэх, самнах үйлдвэрийн төслийг хэрэгжүүлж, 2018 оны 10 сард ашиглалтанд оруулсан. Самнасан ноосоороо утас ээрэх үйлдвэр 2800м² хэмжээтэй. Ноос самнах Польш машин 2 шугам, Италийн ээрэх машин 2 ш, утас ороох 36 толгой бүхий машинууд, холигч систем 1 ш, чийгшүүлэгчийн бүтэн систем, лаборатори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үүдтэй, 13 хүний бүрэлдэхүүнтэйгээр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на. Тус үйлдвэрийн 24 цагын хүчин чадал нь 600 кг утас гаргах чадвартай.



Зураг-13. Ээрэх үйлдвэр

Самнах үйлдвэр: Мөн АХБ-ны санхүүжилтээр 2017 оноос барилгын ажил эхэлж 2018 он 8 сард ашиглалтанд орсон. Ноос самнах үйлдвэр нь 2800м² хэмжээтэй ба нийт 56 самнах машин зэрэг ажилладаг. Хялгас ялгах 4 шугам, 2 холигчын системтэй, чийгшүүлэгч системтэй, 10 хүний бүрэлдэхүүнтэйгээр ажиллаж байна. Хоногт буюу 24 цагын хүчин чадал 460 кг самнасан ноос гаргах хүчин чадалтай

Үндэсний том үйлдвэр Янмал бренд маань оймсны түүхий эдээ өөрсдөө боловсруулдаг гэдгээрээ маш том давуу талтай.

Цэвэр Монгол хонины ноосон болон тэмээний ноос, сарлагын хөөвөр, Солонгос даавуун утсаар хэрэглэгчиддээ зориулан чанар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двэрлэж байна. 2018 оноос өөрсдөө шинээр ГИЗА брэндийг нэвтрүүлсэн бөгөөд дотоод хувцасны брэндүүд, загварын оймсны TWN socks, Socks factory зэрэг брэндүүдтэ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байна. Гадаад зах зээл рүү Орос, Казахстан, Герман, Франц, Япон, Солонгос, Польш, Чех, Канад зэрэг улсууд руу сүүлийн 5 жилд 4.149.968.969 төг экспорт хийсэн.



Зураг-14. Бэлэн бүтээгдэхүүн

2023 оны 1 сарын байдлаар нийт 15-н салбар худалдааны цэгтэйгээр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на. Мөн И-март, Миний дэлгүүр, CU, GS25, IZI онлайн дэлгүүр, MGL-shopping дэлгүүр, Wellmart дэлгүүр, Oresh дэлгүүр, Наран март зэрэг сүлжээ дэлгүүрүүдтэ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байна. Мөн Янмал оймсыг борлуулж буюу хувиараа эрхэлэгчид гэрээ-95, гэрээт бус 1000 байна.

Янмал оймсны үйлдвэр нь БНСУ-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нутагшуулсна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аг бодит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ж чадсан байна. Үүнд.

- Нийт хүн амын оймсний хэрэгцээний 60 гаруй хувийг дангаараа хангаж байна.
- Жилд 369.696.615 төгрөгийн татвар төлсөн. /2023 оны байдлаар/
- Жилд 383.424.200 төгрөгийн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шимтгэлийг татан төвлөрүүлсэн
- Шинээр 220 ажлын байрыг бий болгосон.
- Хөнгөн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ын сүлжмэл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лдвэрлэлийн 2% үйлвэрлэж байна.

Манай улс жилдээ 30 мянган тонн ноос ашигладаг бөгөөд тус үйлдвэр нь ХАА нэмүү өригийн сүлжээг бий болгосноор ноос бэлтгэх, нийлүүлэх, боловсруулах, эцс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двэрлэх, борлуулах асуудлыг цогцоор нь шийдэж чадсан байна.

Дүгнэлт:

Өнөөдөр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ын хөгжлийн үндэс суурь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ийг хангахуйц шинэ техник технологи, инновацийг бий болг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өцөө зөв оновчтой ашиглан нийгмийн хэрэгцээг бүрэн дүүрэн хангах явдал юм.

Ийм үед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ын хувьд хөгжингүй улс орнуудын аж үйлдвэрийн бодлогын туршлагыг судлан хөгжлийн түлхүүр болсон технологийн асуудалд анхаарлаа хандуулж технологийн мөн чанар, технологийн бүрдэлдэхүүн, технологийн үе шат, технологийн тархац зэргийг нарийвчлан судлан нутагшуулах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г хангах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Монгол улс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тогтвортой өсөлтийг хангахад чиглэсэн олон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ийг авч хэрэгжүүлсний үр дүнд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харьцангуй тогтвортой байгааг Дэлхийн банкны тайлан мэдээнд дурьдсан байсан. Гэвч бид тайвирч болохгүй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хөгжилтэй хөл нийлэхийн тул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г байнгын тасралтгүй сайжруулалт хийж байх нь чухал билээ.

Монгол улс нь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тай улс төр,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 өргөжүүлэн тэлж олон талт арга хэмжээ авч байгаагийн нэг томоохон ажлын нэг бол 2023 он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тухай Монгол-БНСУ хооронд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ны багийн санал гаргасан бөгөөд уг саналд манай орны гол 4 үндсэн салбарт технологийн олон ажлуудыг хийх саналыг тусгасан нь байна. Үүнд:

- А.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
- Б. Эрчим хүчний салбар
- В. Мэдээлэл, технологи,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салбар
- Г.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

Судалгаанд дурьдсан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ын туршлага, бодлого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их нь тухайн улсы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байгалийн баялгийн нөөц, хүмүүн капиталын чадавх зэрэгтэй салшгүй холбоотой асуудал юм.

Бид өөрсдийн давуу талаа ашиглан Аж үйлдвэр тэр дундаа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ноу хау, технологийн импорт хийж нэмүү өртөг шингээсэ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чилгээг бий болгон улс оныхоо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эмд бодит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ж байгааг үндэсний үйлдвэрлэгч Янмал ХХК жишээнээс харж болно.

Ашигласан маериал:

1. Robert C.Megantz Technology management 2002
2. Shukla P,R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y”1992
3. David A, “ The Techology of transition” 1997
4. Д.Ган-Очир. (2020).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лт, аж үйлдвэрийн бодлого: Бусад орны туршлагаас суралцахуй.
5. (www.koreaexim.go.kr) Солонгосын Эксим банк.
6. www.mfa.gov.mn
7. www.1212.mn
8. yanmal.info@gmail.com

Economic Policy and Legacy of Mongolian and Korean Presidents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өв ба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о: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J.Battur(Ph.D)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battur_j@num.edu.m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d contrasted the features of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p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with their respective development initiatives and programmes.

Furthermore, some case studies were employed to explore how South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may be applied to Mongolia's own development.

Mongolia's economic problems can be overcome by taking a cue from South Korea. And for thi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play a crucial role in this process. The five-year plan of South Korea, as well as government policies and economic planning, could be utilized.

Түлхүүр үг: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о, төлөвлөлт, төлөвлөгөө, туршлага,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

Эхлэл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 нарын намтрыг уншиж судлах явцад тухайн үеийн ерөнхийлөгч нарын дотооддоо болон гадаад руу чиглүүлэн явуулсан, хэрэгжүүлсэн бодлогуудын дотор эдийн засгаа хөгжүүлэх,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 дахь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 экспортоо дэмжих өргөжүүл бодлого асар том байр суурийг эзэлсээр ирсэн байна. Мөн энэх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ыг хэр үр дүнтэй амжилттай явуулснаар тус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нэр хүнд, ард иргэдийн аж амьдрал, ажлын байр нэмэгдсэн эсэх нь төдийгүй тус улсын олон улсын нэр хүнд, соёл урлаг, эрүүл мэнд, боловсрол гэх мэт бусад салбаруудыг хөгжил ч шууд хамааралтай ирсэн нь тодорхой харагддаг.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вьд ч мөн адил ерөнхийлөгч бүр эдийн засгийн талаар хувь нэмрээ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д оруулсаар иржээ.

Монгол улс бол 1920-иод оноос 1990 он хүртэл нийгмийн социалист коммунист тогтолцоонд байсан тул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о нь ч социализм байгуулах үзэл баримтлалтай байсан гэдгийг бид мэднэ. Харин 1990 оноос эхлэн ардчилал, зах зээлийн тогтоолцоонд шилжсэнээр Шилжилтийн үе эхлэсэн.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ын хамгийн том ялгаа энд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БНСУ бол коммунист социалист нийгмийн замналыг замнаж байгаагүй харин 1948 он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цагаасаа эхлэн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уюу капиталист системийн хүрээнд хөгжиж ирсэнд нь оршино.

Гэхдээ аль алинд нь төлөвлөсөн төлөвлөгөөт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стэй шинжүүд байсныг дурдах хэрэгтэй.

Олон улсын ангиллаараа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аг нь “Холимог эдийн засагтай” гэсэн ангилалд ордог. Холимон эдийн засагтай орнуудын онцлогт дараах гурван шинж байдаг гэж үздэг.

Нэгд, чөлөөт зах зээл, төрийн хөндлөнгийн оролцоо холилдсон

Хоёрт, хувийн өмчийн болон төрийн өмчийн компаниуд зэрэгцэн оршдог.

Гуравт, Зах зээл болн төлөвлөлт зэрэгцэн оршдог.

Монгол улс мөн холимог маягийн эдийн засагтай ч Шилжилтийн эдийн засагтай ч гэж үздэг.

Арга зүй

БНСУ нь түүхийн харьцангуй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өндөр өсөлттэй байж, хөгжингүй орон болж чадсаныг бид мэднэ. Тиймээс чухам ямар арга замаар ийм амжилтанд хүрэв, ямар ямар хүчин зүйлс нөлөөлөв, гэхчилэн олон асуулт урган гарч судлаачид энэ чиглэлээр багагүй судалгаа хийсээр ирсэн борино-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илд үе үеий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үүдийн гүйцэтгэхээс үүргийг үүссэнээрээ онол арга зүйгээр авч үзжээ.

1. Хөгжлийн онол (Development Concept)
2. Шинэ Инститүүцийн онол (New Institutionalism)
3. Соёлын үнэ цэний дэг сургууль (Cultural school of Value)
4. Түүхэн замналын онол (Historical Trajectories Theory)
5.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онол (IR Theory)

Ийнхүү наанадаж таваас доошгүй онолд суурилан авч үздэг. Эхний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болох “Хөгжлийн онол”-д хэд хэдэн хүчин зүйлийг ихээхэн нухацтай авч үздэг. Үүнд:

Юуны түрүүнд, БНСУ-ын хөгжлийн нууцыг Пак Жөн Хый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засаглалын үеэс (1961-1979) эхлэлтэй бөгөөд түүний манлайлал голлох хүчиг зүйл болсон гэж үздэг. Өөрөөр хэлбэл тэр үед БНСУ хөгжилд голлон анхаарсан төрийн тогтолцоог үр өгөөжтэй нийтийн бодлогуудтай⁴⁰ уялдуулсан нь хөгжлийн хурдаа авахад нөлөөлсөн гэж үздэг байна. Энэ онолоор төрийн хүчтэй, идэвхитэй оролцоо,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одлогууд болон албан хаагчдын хүчин зүтгэл чармайлтыг улс орноо аж үйлдвэржүүлэхэд ихээхэн төвлөрүүлсэн нь БНСУ-ын хөгжилд онцгойлон хувь нэмэр болсон гэж үзэж чухалчилдаг. Түүнчлэн ард иргэдийн уйгагүй хөдөлмөрч зан чанар, хандлагууд, Күнзийн сургаальд суурилсан соёл, мэдээллийн сүлжээний ач холбогдлыг дурддаг.

Гэхдээ эдгээрээс дутахгүйгээр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хүчирхэг манлайлал хийгээд тухайн үедээ ч, одоо ч ач холбогдлыг нь яаж ч бичсэн хэтрүүлсэнд орохгүй Пак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дэмжин зүтгэсэн “Экспортод чиглэсэн аж үйлдвэржилтийн бодлого” нь хөгжлийн онолд чухал байр суурь эзэлдэг. Мөн үүнтэй зэрэгцээд тухайн үеийн улс төрийн харьцангуй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г оруулдаг. Тухайн цаг үед улс төр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амаргүй байсан ч том утгаараа бизнесийн орчин, аж үйлдвэржилт,

⁴⁰ Public policies

түүний дотор экспортод чиглэсэ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двэрлэхийг туйлаас дэмжиж ажилласан уг бодлого өндөр амжилтанд хүрэхэд нөлөөлсөн байна.

Харин Шинэ институтийн онолыг баримтлагчид үзэхдээ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нь тус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засаглалын өвөрмөц бүтэц, институтийн шинэчлэл, инновацтай холбож үздэг юм.

Дээр тодорхойлсон онцлогууд нь гүйлгээний зардлуудыг⁴¹ бууруулж, худалдаа, зах зээлийг нь өргөжүүлж үүний ачаар эдийн засагт илүү их боломж ч буй болж үр өгөөж ч бенефит олж авахад хүргэсэн гэж үздэг⁴². Үүн дээр заавал онцлон нэг байгууллагын дурдаж жишээ татдаг. Тэр нь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шууд харъяанд бас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удирдаж байс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лтийн Хороо” хэмээх байгууллаг юм. Энэ Хороо нь хүчирхэг төрийн байнгын институтуудийг байгуулсан, улмаар төрийн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механизм нь үр дүнтэй ажилладаг байсны жишээ болдог.

Гуравдах онол нь, Солонгосын хөгжлийн үндэс нь Күнзийн үзэл сургаалийн соёлын болон нийгмийн үнэ цэнээс үүдэлтэй гэж үздэг үзэл баримтлал юм. Өрнөдөд дэлгэрсэн ардчилал, хүний эрх, эрх чөлөөний үзэл санаанаас ялгаатай нь Күнзийн сургааль нь уламжлалаа дээдлэдэг, улс төрийн шаталсан дэглэмтэй орнуудад төр засаг нь иргэнээс илүү том агуулгыг тээхийн зэрэгцээ автортари үзэл⁴³ нь ардчилалаас илүү голлох шинжтэй байдаг. Соёлын хандлагыг голчилдог ийм үзэл хандлага нь Күнзийн уламжлал болон бие хүний зан төлөвийн үнэ цэнийг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гийн институтуудээс илүүд үздэг. Энэ үзэл санааг баримтлан олон улсад алдаршсан хүн бол Сингапур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асан Ли Куан Юү/Lee Kenan Yew/ юм. Гэхдээ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асан Ким Дэ Жүн энэ үзэл баримтлалыг шүүмжилсэн нь сонирхолтой.

Дараагийн нэг онол нь “Түүхэн Замнал”⁴⁴-ын гэх үзэл баримтлал юм. Энэ онол дараах үзэл санааг чухалчилдаг. Үүнд, Аливаа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дэвшлийг ямар нэг түүхэн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түүхэн хаалттай үйл явдлаас хайх бус харин илүү өргөн хүрээнд түүхийн урт удаан хугацааны хөгжил дунд авч үзэх ёстой гэдэг. Энэ онолын талыг баримтлагса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аг хөгжсөн, Солонгосын хөгжлийг түүчээлсэн төр засаг нь буюу бүр тодруулбал Солонгосын хөгжингүй улс нь Японы колончлолы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ы бүтэц,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ын үргэлжлэл, өргөжсөн хэлбэр, үгүйдээ л Японы хөгжлийн туршлагаас ихээхэн суралцсан, орчин үеийн Японоос ихээхэн нөлөө авсан гэж үздэг. Өөрөөр хэлбэл Солонгосын хөгжлийн эх сурвалж нь Японы бодлоготой холбоотой. Түүнчлэн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ы дараагаас АНУ-ын тусламж, зөвлөгөө зааварчилгаа голлох үүрэгтэй байсныг тэмдэглэдэг. Солонгосын макро эдийн засгийн тогтворжуулалт, үнэ чөлөөлөлт болон аж үйлдвэржүүлэлтийн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стратеги шилжсэн зэрэг нь бүгд шахуу АНУ-ын зөвлөхүүд,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нөлөө заавар зөвлөгөөгөөр хийгдсэн

⁴¹ Энэ нь “Transaction cost” гэсэн үг. Энэ нь төлөвлөлт, шийдвэр, төлөвлөгөөнд гарсан өөрчлөлтүүд, маргаан, борлуулалтын дараах зардлуудыг нийтэд нь хэлдэг.

⁴² Норт Д. Институты,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экономики.

М., 1997

⁴³ Улс төрийн төвлөрсөн эрх мэдэл

⁴⁴ Historical Trajectory

гэж үздэг.⁴⁵ Мөн энэ онолтой холбоотой нэг үзэл нь БНСУ Хүйтэн дайны цаг үе, коммунист болон капиталист тогтолцооны өрсөлдөөн, тэр үеий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дахин давтагдашгүй цаг үетэй холбодог, тухайн үеийнхээ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систем, үйл явдлуудтай холбон авч үздэг онол юм. Эдгээр ажлууд дээр нэмэгдээд өөр үзлүүд бий. Тэдгээрт БНСУ-д Христийн шашны сургаалын дэлгэрэлтэй холбон үздэг судлагаанууд болон хүн капитал гэсэн ойлголт дээр тулгуурла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ажлуудыг ч дурдаж болно.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өвөөс суралцах нь

Юуны түрүүнд Монгол улсад нэн тэргүүнд хэрэгж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туршлага бол улс орныхоо эдийн засгийг судалгаа, тооцоонд тулгуурлан хамгийн зохистойгоор, тухайн үед гарч ирсэн боломжуудыг туйлын дээд хэмжээнд ашиглан, бас тухайн үеийнхээ онцлогт тулгуурлан байж болох хамгийн зөв төлөвлөлт хийж уг төлөвлөгөөг заасан тодорхой хугацаанд бүрэн дүүрэн хэрэгжүүлэх үүдийг нээдэ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лтийн Зөвлөл”-ийг байгуулах хэрэгцээ байна. Аливаа хувь хүн, байгууллага, компани хэрвээ үйл ажлаа төлөвлөхгүй урсгалаараа явах юм бол яваандаа эмх замбараагүй, үр дүнгүй байдалд хүрэх нь гарцаагүй. Үүнтэй адил улс орон ч гэсэн зөвхөн янз бүрийн зорилго дэвшүүлээд байх биш тодорхой зорилтууд дэвшүүлэхдээ түүнийгээ байж болох хэмжээнд төлөвлөгөө лүгээ холбож уяж, уг төлөвлөсө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уудаа санхүү, хэрэгжүүлэлт, цаг хугацаа, хүний хүчин зүйлс, мэргэжл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ирээдүйн үр ашиг, экспортонд гаргах боломжуудыг нэн сайн төлөвлөж, хэрэгжүүлбэл уг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 бодитой ажил хэрэг болдог.

БНСУ-д байгуулсан энэх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лтийн Зөвлөл” нь ийм зорилгоор байгуулагдаж үүргээ ч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үүлсэн Агентлаг юм. Анх 1961 онд тухайн үеийн ядуурлаас гарах, хөгжлийн төлөвлөгөө боловср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байгуулагдсан. Анх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дахдаа 3 үндсэн зорилготой байв. Үүнд:

1.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төлөвлөгөө боловсруулах;
2.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жил бүрийн төсвийг хянах;
3.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татах.

Тус агентлаг нь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 явцад голлох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юм. Энэ Зөвлөл нь нь Ерөнхий Төлөвлөлтийн хороо, Төсвийн хороо, Материал нөөцийн хороо боло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гэсэн 4 хороо, 19 хэлтэс, 228 ажилтантай байв.⁴⁶

1963 оноос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лтийн сайдын албыг буй болгосон бөгөөд Шадар сайдын статустай байжээ. Түүнчлэ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о, хэрэгжилтийг янз бүрийн түвшинд зохицуулах үүрэгтэй байв. Дээр нь дотоод болон гадаа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хцөл бодолд дүн шинжилгээ хийнэ.

⁴⁵ Haggard S. Pathway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ation Countries.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⁴⁶<https://www.kdi.re.kr/>

Дэргэд нь KDI буюу Солонгосын хөгжлийн Хүрээлэн хэмээх судалгааны томоохон байгууллага байсан нь хүний нөөц, тооцоо судлагааны арвин нөөц болж байв.

Уг хүрээлэн нь судалгаа тооцоо хийхээс гадна Засгийн газартай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ыг боловсруулж үүгээрээ БНСУ-ын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мийн хөгжилд шууд тус нэмэр болж байв.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татах ажлыг энэ байгууллага бас хариуцдаг байв. Сар тутм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төлвийг ч боловсруулж гаргаж байжээ.

Амжилтанд хүрсэн шалтгаанууд

1. Юуны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хараа, шийдвэр, тавьсан зорилтыг нийт зөвлөл болон холбогдох ажилтнуудад хурдан шуурхай хүргэдэг тогтолцоо.
2. Бодлогын зорилтыг нэн тодорхой дэвшүүлж тодорхой арга замуудыг заавал хавсаргана.
3. Уг Зөвлөл нь чадварлаг хүний нөөцөөс гадна, санхүүгийн, мэдээллийн гэх мэт олон нөөц боломжуудаар дэмжигдэж байв.
4. Ерөнхийлөгч уг Зөвлөлийг удирдаж байсан тул удирдлага нь тогтвортой, хариуцлагатай ажиллахыг бүх ажилтнаас шаарддаг байв.
5. Хөгжлийн стратегийг боловсруулсны дараа нийт иргэд, компаниудад сурталчилах, таниулах ажл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на.
6. KDI байсан нь мэдлэг, оюуны нөөцөөр байнга сэлбэгдэх боломж нээгдсэн.⁴⁷

5 жилийн төлөвлөгөө

Хуучин БНМАУ гэж байх үед манай улс 5,5 жилээр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гөө хөгжүүлж байв. Өмнө өгүүлсэн БНСУ-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гөөт зорилт уг 5 жилүүдийн төлөвлөгөөг боловсруулж баталсан байдлаар товч харуулбал дараах мэт:

1-р 5 жил 1962-1966 он

Гол зорилт: цахилгаан эрчим хүч, бордооны үйлдвэрлэл, газрын тос боловсруулах, цемент нийлэг мяндас.

2-р 5 жил 1967-1971 он.

Төмөрлөг, машин, хими, аж үйлдвэрийн модернизаци

3-р 5 жил 1972-1976

Төмөрлөг болон гангийн үйлдвэрлэл, машин, усан онгоц, нефть хими, электроник

4-р 5 жил 1977-1981 он

Ган төмөрлөг, машин, усан онгоц, нефть хими, электроник төмөрлөг бус металл

5-р 5 жил 1982-1986 он

Суурь машин, электроник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йн үйлдвэрлэл

⁴⁷ https://www.kdi.re.kr/eng/research/reportView?pub_no=13671

6-р 5 жил 1987-1991 он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 судалгаа хөгжүүлж, ажиллах хүчнээ дахин сургах

7-р 5 жил 1992-1996 он

Микроэлектроник, Био инженерчлэл, Агаарын болон сансарын хөлгийн үйлдвэрлэл, Fine chemicals (эмийн бол уураг стойд гэх мэт).⁴⁸

Тэргүүн туршлагаас суралцах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вьд гадаадын түүний дотор өндөр хөгжсөн орнуудын туршлагаас суралцахыг чухалчилсаар ирсэн. Хуучин ЗХУ-ын үед Зөвлөлтийн тэргүүн туршлагаас суралцахыг улс орны хэмжээнд өрнүүлж иржээ. Өнөөдөр ч энэ санаа хуучраагүй бөгөөд энэ тохиолдолд БНСУ-ын туршлагаас суралцах бүрэн боломжтой юм. Гадаадын бодлогын тэргүүн туршлагаас суралцахыг “Benchmarking” гэдэг. Энэ нь тухайн салбараа хөгжүүлсэн арга зам, ялангуяа хэмжээс метрикеүүдэд тулгуурлан чиглэл, аргазүйгээ тогтоодог бөгөөд бидний хэлж заншсанаар туршлага судлах үйл ажиллагаа юм. Монгол улс хөгжиж буй орны хувьд БНСУ-ын хөгжлийн замналаас суралцах хэрэгтэй бөгөөд ингэснээр цаг хугацаа, хөрөнгө санхүү, алдаанаас сэргийлж зөв замаар зөв арга замаар хөгжинө гэсэн үг юм.

Доор БНСУ-ын хөгжлийн туршлагаас жишээ болгож хэд хэдэн кэйсийг авсан бөгөөд мөн Монголын онцлогоос жишээ авав.

Кэйс 1

Агуулга :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эх тухай захирамж

БНСУ-ын хувьд эдийн засгаа макро түвшинд төлөвлөхөөс гадн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уудаа нэгбүрчлэн авч үзээд тухайн салбарыг хөгжүүлэх ерөнхий төлөвлөгөө, бодлого, чиглэлээ тогтдог байжээ. Энд өгүүлж буй жишээ бол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эхдээ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гчид хэрхэн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байсны жишээг харуулах баримт юм.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 бол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ган төмөрлөг,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 зэрэг бусад салбарт ихээхэн нөлөө бүхий хүнд үйлдвэрлэл бөгөөд бидний зорилгод ажил болох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ийг хөгжүүлэхэд тэргүүлэх үүрэг гүйцэтгэх салбар юм.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сэнээр цаашид хүнд болон химийн аж үйлдвэржилтэд шаардлагатай тээврийн хэрэгслийг бүрэн хангаад зогсохгүй холбогдох үйлдвэрлэлүүд хөгжлийг түргэтгэж, цаашилбал 1980-аад онд эдийн засаг эрчимтэй хөгжих үндсэн нөхцөлийг бүрдүүлж байгаа хэрэг юм.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 нь үйлдвэрийн байгууламжид асар их хэмжээний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мэргэжлийн нар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шаарддаг тул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хөрөнгөө үр ашигтай хувиарлаж, үйлдвэрийн байгууламжийг давхардуулахгүй байх ёстой. Түүнчлэн холбогдох салбаруудыг татан оролцуулж хуучирсан технологиос татгалзан, аль болох орчин үеийн эдийн

⁴⁸Young-lob Chung, “South Korea in the Fast Lane: Economic Development and Capital 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засгийн үр ашигтай тогтолцоог нэвтрүүлэх, олон улсад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 бүхий үйлдвэрлэл болгон хөгжүүлэхэд анхаарах хэрэгтэй.

Манай улс өнгөрсөжн арван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нутагшуулалт, технологи талаас ихээхэн амжилтад хүрсэн боловч шийдэх ёстой асуудлууд цөөнгүй байгаа тул уг салбарын онцлог ач холбогдлыг харгалзан дор дурдсан ажлуудыг хэрэгжүүлэхэд бүх хүчээ дайчлан ажиллана уу.

1.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1975 оны эцэс гэхэд бүрэн нутагшуулахад зорилт тавьд, үүнд шаардалагатай хөгжлийн бодит төлөвлөгөөг боловсруулж хэрэгжүүлэх.

2. Автомашины төрөл, загвары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төлөвлөгөөнд нийцүүлж аль болох цөөн нэр төрлийн болгох. Автомашины улмаас жил ирэх тусам нэмэгдэж буй шатахуун тосны хэрэглээнд хэмнэлт гаргах, үр ашиг багатай автомашины ашиглалтыг хязгаарлах, системтэйгээр хөгжүүлэх тогтолцоог бий болгож, загвар төрөлд ойр ойрхон өөрчлөлт гарахгүй байхуйц үр ашиг бүхий автомашиныг үйлдвэрлэх.

3.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сэлбэгийн үйлдвэрлэл болон угсрах үйлдвэрлэл гэж ангилан хөгжүүлнэ. Угсрах үйлдвэргийн хувьд цаашид гадны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р хамтрах эсвэл шинээр байгуулах явдлыг зогсоож, одоо байгаа үйлдвэрийг голлонх хөгжүүлэх, үйлдвэрлэлд зохистой шинэчлэл хийх арга замыг хайх.

4. Сэлбэг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угсрах үйлдвэртэй уялдуулан байгуулах, тухайн угсрах үйлдвэрийн хэрэгцээт сэлбэгийг олон улсын стандартад нийцүүлэн дагнан үйлдвэрлэж чадахуйц гадаадын компанитай хамтрах, хамтра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ийх, гадаадын экспортын түвшний са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двэрлэх. Үйлдвэрийн газрыг сонгохдоо аль болох Чанво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парк дотор байгуулахыг зорих.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захирамжид үндэслэн боловсруулсан :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амгын газрын дарга.

Хэнд : Ерөнхий сайд, Эдийн засаг, Төлөвлөлтийн хорооны сайд, Сангийн сайд, Худалдаа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йд

Хуулбар хүргүүлэх газар: Эдийн засгийн 1-р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газар⁴⁹

Дээрх захирамжаас Пак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эх стратеги,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 зам нь маш тодорхой байсныг харж болно. 3-р хэсэгт гэхэд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элбэгийг болон угсрах гэж ангилан хөгжүүлэхийг заасан байна. Хүснэгт VI -2-ыг харвал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анааг бүр сайн ойлгох боломжтой. Угсрах үйлдвэр болон сэлбэгийн үйлдвэрийг параллель харьцаатайгаар төрөлжүүлж, цаашид угсрах үйлдвэр шинээр байгуулалгүй, одоо байгааг нь дэмжин хөгжүүлэхийг тушаасан байна. 4-р хэсэгт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эхдээ сэлбэгийн үйлдвэрлэлд түлхүү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ах, тэр дундаа олон улсын стандартад

⁴⁹ О Вончөл, Пак Жөнхый: Солонгосын сэргэн мандалт, Орч. Ж. Баттөр, Л. Долгормаа, Б. Ганцэцэг, НЭПКО Пабблишинг, 2013, 468-р тал.

нийцүүлэн, экспортод гаргахыг зорих Сэлбэгийн үйлдвэрийг замбараагүй байгуулалгүй, аль болох Чанвонь аж үйлдвэрийн паркад төвлөрүүлэх, төрөөс үүнийг дэмжих ёстойг зааварласан байна.

Тухайн үед автомашин үйлдвэрлэдэг Хёндэ, Дэу, Киа, Асиа гэх дөрвө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сан юм. Fiat компаниар гүйцэтгүүлж байсан армийн зориулалтай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г Асиа автомашин ХК -нд шилжүүлж улмаар уг компаний удирдлагыг нь Киа автомашин ХК-ий харьяанд өгснөөр дөрвөн үйлдвэрлэгч байсныг гурав болгон өөрчлөлт хийсэн билээ.

Энэхүү бодлогын үр дүнд дотоодын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 1976 оноос огцом өсч, экспортод гаргах болов. Хүснэгт VI-3-т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 хэрхэн өссөнийг тодорхой харуулсан байна.

1977 онд 85,210 ширхэг автомашин (72%), 1978 онд 158,958 ширхэг автомашин (86,5%, 1979 онд 28,6% -иар өсч 204,447 ширхэг автомашин үйлдвэрлэв. Гурван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дунджаар 62,4% иар өссөн байна. Нэг үгээр дотоодын автомашины үйлдвэрлэл алтан үетэйгээ золгож, энэ эрчээрээ авбал 2-3 жилийн дараа гэхэд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унхагласан 500 мянган автомашин үйлдвэрлэх зорилт биелэхэд ойрхон болчихсон байв. Гэтэл яг энэ үед ерөнхийлөгч таалал төгссөн билээ. 1976.10.26.⁵⁰

Кэйс 2

Инчоны олон улсын нисэх онгоцны буудал

БНСУ-ын 6 дахь Ерөнхийлөгч Но Тэү нь 1988-1993 оны хооронд уг албыг хашсан. Тэрбээр тус улсын орчин үеийн түүхэнд ардчилсан сонгуулиар сонгогдсон анхны ерөнхийлөгч билээ. Но Тэү ерөнхийлөгч хожим нь Авлига, улсын хөрөнгө завшсан хэргээр шоронд сууж байсан ч албан дээр байх үедээ улс орныхоо ирээдүйн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тэнд нэн тус нэмэр болсо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турш үр өгөөжээ өгөх, томоохо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г эхлүүлж, хөдөлгөсөн. Үүнд: Үндэсний хэмжээний бодит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г эхлүүлсэн жишээнд Инчоний олон улсын нисэх онгоцны буудал болон Солонгос даяарх өндөр хурдны галт тэрэгний тогтолцоо болно. Мөн хөдөө орон нутгийн өрийг цуцалсан, 2 сая гаруй орон сууц бариулсан, “Олон нийтийн газрын өмчлөл” хэмээх журмыг бий болгосон зэргийг дурдах ёстой. Энэ жишээнд юуны түрүүнд Инчоны олон улсын нисэх онгоцны буудлы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 орно.

БНСУ 1988 онд Сөүлийн зуны Олимпы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Хэдийгээр энэ Олимп ихээхэн амжилттай болж тавьсан зорилгодоо хүрсэн ч Солонгосын удирдагч нарт нэг том дутагдал харагдсан нь тухайн үеийн Кимпо Олон улсын нисэх онгоцны буудлын хүлээн авах хүчин чадал яваандаа доголдох нь тодорхой болсон явдал байв. Тиймээс олон улсын нисэх онгоцны шинэ буудал барихаар шийдсэн бөгөөд хамгийн гол нь БНСУ-ын хувьд том байгууламж барих газар, онгоцны нислэгийн төвлөрөл, замын түгжрэл,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цаашид улам шинэчлэх, өргөтгөх, нийслэлээ хэт холгүй байдал, ложистик хөгжүүлэх боломж, дагуул хот барих боломж, ачаа тээврийн төв болох ирээдүй зэргээр хангагдсан байх ёстой байв.

Ингээд 2-3 газар барихад төвлөсөн ч хэд хол, эсвэл өргөтгөх боломж тааруу гэх мэт хүндрэлүүдээс болоод зогсоож, харин Инчоньд байгуулахаар тогтсон. Гэхдээ Ёнжён, Еньюү гэсэн

⁵⁰ О Вончөл, Пак Жөнхый: Солонгосын сэргэн мандалт, Орч. Ж. Баттөр, Л. Долгормаа, Б. Ганцэцэг, НЭПКО Паблицинг, 2013, 469-р тал.

хоёр арлын хооронд орших газрыг хатааж, шороогоор дүүргээд бэхжүүлж энэ онгоцны буудлыг барихаар тогтсо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н хугацаа нь 8 жил байсан бөгөөд 1997 онд Азийн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ямралаас болж хойшлогдоод 2001 оны 3 сарын 21-нд албан ёсоор нээлтээ хийсэн байна. Уг буудал нь “Сөүл хотоос 48 км зайтай. Зүүн хойд Азидаа хамгийн том, дэлхийн хамгийн том хамгийн их зорчигч дамжин эсвэл онгоцны буудал болсон.

Ро Тэү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улс төрийн шийдвэр гаргаж эхлүүлсэн дараагий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 бол КТХ (Korea Train Express) буюу Солонгосын хурдны галт тэрэгний байгууламж юм. Солонгос даяар сүлжсэн энэхүү хурдан галт тэрэгний сүлжээ нь нийгмийн хөгжилд ихээхэн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ж байна.

Кэйс 3

“Дэлхийн Солонгос” хөтөлбөр

Түүний мөрийн хөтөлбөрт БНСУ-ын нэр хүндийг дэлхийн тавцанд өргөж,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жин нөлөөг нэмэгдүүлэх “Дэлхийн Солонгос” (Global Korea) хэмээх стратеги төлөвлөгөө тусгагдсан байв. “Дэлхийн Солонгос” стратегийн баримт бичиг нь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о,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г төдийгү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асуудлуудыг хамарсан ихээхэн нарийвчилсан 20 орчим зорилт болон 100 зорилгыг багтаасан төлөвлөгөө байв.⁵¹ БНСУ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эрчимтэй хөгжлийг бий болгож чадсан бүс нутгийн “Дунд зэргийн гүрний” (middle power) хувьд дээрх стратеги төлөвлөгөө нь дэлхий дахинаа нэр хүнд, нөлөөллөө нэмэгдүүлэх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одлого байсан юм.

Ерөнхийлөгч И Мён Баг 2009 онд НҮБ-ын Ерөнхий Ассемблейн 64-р чуулганд хандаж хэлсэн үгэндээ “Бид “Дэлхийн Солонгос” болж, дэлхийн бусад улс орнуудтай ашиг сонирхлоо нэгтгэж, хүн төрөлхтний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т, сайн сайхан байдал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ахаар хичээж байна” хэмээн цохон тэмдэглэсэн . Олон улсын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т танилцуулсан энэхүү бодлогоо хэрэгжүүлэхдээ БНСУ зөвхөн идэвхтэ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дэмжих төдийгүй, ардчилал, чөлөөт зах зээлийг хөгжүүлэхэд хүчин чармайлт гаргаж, дэлхий дахинд тулгарч буй нийтлэг асуудлыг шийдвэрлэхэд үр дүнтэй бодлогын хувилбар санал болгон, илүү “Манлайлагч”-ийн үүрэгтэйгээр оролцох амбицтай буйгаа тайлбарлав. Дээрх зорилгоо биелүүлэхийн тулд хэд хэдэн зорилт дэвшүүлсэн байдаг. Үүнд:

1. Хоёр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д: Хойд Солонгостой харилцахдаа харилцан ашигта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эх боломжийг эрэлхийлэх;
2.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Дипломат сүлжээ: АНУ-БНСУ-ын Холбоотны харилцааг улам бэхжүүлж, бүс нутгийн болон дэлхийн нийт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ах;
3. Иж бүрэн гадаад бодлого: Эрчим хүчний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нуудад оролцох,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ийн сүлжээг өргөжүүлэх, олон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д БНСУ-ын эзлэх хувь хэмжээг нэмэгдүүлэх;

⁵¹ Global Korea: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Cheong Wad ae, 2009), http://englsih.president.go.kr/governmnet/globalkorea/globalkore_eng.pdf>

4. Батлан хамгаалах салбарын шинэчлэл: Ирээдүйд учирч болзошгүй эрсдэлээс хамгаалахын тулд,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дэвшилтэд арга тактикийг боловсруулж, хэрэгжүүлэх зорилт тавьсан.⁵²

БНСУ нэгэнт хүчирхэг эдийн засагтай, дэлх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ол тоглогчдын нэг болсон тул “Дэлхийн Солонгос”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ад зээл, тусламж олгох, хөгжлийн туршлагаа хуваалцах “ёс суртахууны” үүрэг хүлээсэн улс болсон хэмээн өөрсдийгөө тодорхойлсон. Энэ хүрээнд 2011 онд ЭЗХАХБ-ын (OECD) Хөгжлийн Тусламжийн Хорооны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ыг Бусан хотноо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олон улсын хөгжлийн хөтөлбөрүүдийнхээ цар хүрээг нэмэгдүүлэх амлалт өгсөн байдаг.

“Дэлхийн Солонгос” бодлого н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Дипломат сүлжээ”-г өргөжүүлэх зорилтын хүрээнд хоёр том амжилтад хүрсэн. Үүнд:

Нэгд, Эдийн засгийн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2008 оны Дэлхийн санхүүгийн хямралыг даван туулахад “20-ийн Бүлэг”-ийн гишүүний хувьд манлайлал үзүүлсэн, БНСУ-ЕХ, БНСУ-АНУ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үүдийг байгуулсан. ЕХ-той тааламж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ын тулд АНУ-тай тогтоосон сайн харилцаагаа хөшүүрэг болгон ашиглаж чадсан байдаг.

Хоёрт, Эрчим хүчний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Ногоон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ыг дэвшүүлсэн нь олон улсын анхаарлын төвд орсон бөгөөд АНЭУ-д атомын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 барих тендерт ялалт байгуулж, БНСУ-д зураг төслийг нь зохиосон дөрвөн АЦС-ыг барихаар болсон бөгөөд АНЭУ-тай байгуулсан хэлэлцээрийг АЦС-ын экспортын салбарт өөрийн жин нөлөөг нэмэгдүүлэхэд ашигласан юм.

Бизнесийн салбараас улс төрд орж ирсэн Ерөнхийлөгч И Мён Баг Дэлхийн санхүүгийн хямралын үед санаачилгыг гартаа авч, 20-ийн Бүлгийн уулзалтыг БНСУ-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дэлхийн санхүүгийн институцуудад шинэчлэл хи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гааг сануулж, хэрэгжүүлэхэд гар бие оролцсон билээ.⁵³ Түүнчлэн 2011 он гэхэд ЕХ-ны 27 улс, АСЕАН-ы 10 улс болон АНУ-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ж чадсан нь БНСУ-ы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дэлх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61%-д татваргүй нэвтрэх үүд хаалгыг нээж өгсөн юм.

Бүс нутгийн хэмжээний хүчирхэг тоглогч БНСУ нь И Мён Баг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үед олон улсын түвшинд эзлэх жин нөлөөгөө нэмэгдүүлэх амбицтай гадаад бодлого баримтлах болж, АНУ-тай тогтоосон холбоотны харилцаагаа ашиглаж өрнө, дорнын томоохон тоглогчидто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ж, стратегийн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эрчим хүчний салбарт танигдаж, давуу байдал олж авч чадсан билээ. Товчхондоо, “Глобал Солонгос” бодлого нь БНСУ-ыг дэлхий дахинд нээлттэй улс бөгөөд дэлхийн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ыг шийдвэрлэхэд голлох нөлөөтэй тоглогчийн нэг болсон хэмээх утгыг илэрхийлэх болов.

Кэйс 4

⁵² Address by H.E. Mr.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64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Retrieved from (UNGA,2009.) https://gadebate.un.org/sites/default/files/gastatements/64/64_kr_en_24.pdf

⁵³ Snyder, S. A. (2018).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Columbia University Press.

“Ногоон Өсөлт” (Green Growth) Стратеги

НҮБ-ий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Зорилтод оруулж буй БНСУ-ын үүрэг, оролцоог нэмэгдүүлэхээр тулд И Мён Баг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ас дэвшүүлсэн “Ногоон Өсөлтийн Стратеги”-д зайлшгүй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юм. Ерөнхийлөгч И Мён Баг бизнесийн төлөөллүүдтэ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замаар нүүрс хүчлийн хийн ялгаруулалтыг бууруулж уур амьсгалын өөрчлөлтөд хариу арга хэмжээ авах “Ногоон Өсөлтийн Стратеги”-ийг боловсруулсан. Энэ хүрээнд:

Нэгд, Дэлхийн Ногоон Хөгжлийн Институтийг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в. Дэлхийн Ногоон Хөгжлийн Институт (GGGI) олон улсын байгууллагыг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хад Ерөнхийлөгч И-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бөгөөд энэхүү институт нь Ногоон өсөлтийн стратегийг үндэсний хөгжлийн төлөвлөгөөнд тусгаж,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г дэмжих зорилготой байсан билээ.

Хоёрт, НҮБ-ын Ногоон Уур амьсгалын Санг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лцсан. Ерөнхийлөгч И-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ы үед БНСУ нь НҮБ-ын Ногоон Уур амьсгал Сангийн хүлээн авагч улс болсон бөгөөд НҮБ-ын Ногоон Уур амьсгал сан нь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ад өрнөж буй уур амьсгалын өөрчлөлтийг бууруулах, дасан зохицох хүчин чармайлтыг дэмжих зорилготой санхүүгийн механизм юм.

НҮБ-ы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Зорилт-2030”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хөгжлийн дунд хугацааны бодлогын баримт бичиг батлагдахаас өмнө БНСУ эдгээр санаачилгыг дэвшүүлж, идэвх зүтгэл гаргах болсон нь И Мён Баг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хувийн туршлага, итгэл үнэмшилтэй холбоотой болохыг онцлох нь зүйтэй. Тэрээр аж үйлдвэр өндөр хөгжсөн орнууд хүлэмжийн хийн ялгаруулалтад хамгийн өндөр хувь эзэлж байгааг онцолж, эдгээр орнууд уур амьсгалын өөрчлөлттэй тэмцэхэд манлайллын үүрэгтэй оролцох ёстойг онцолсон. Бизнесийн салбараас улс төрд орж ирсэн хүний хувьд Ерөнхийлөгч И, төрийн бодлого, стратегиар хангаж өгсөн тохиолдолд бизнесийн салбарынхан уур амьсгалын өөрчлөлттэй тэмцэх үр дүнтэй шийдлийг боловсруулж чадна гэх хатуу итгэл үнэмшил түүнд байсан юм. Түүний таамаг ёсоор төрийн оролцоо, дэмжлэгтэйгээр бизнес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нүүрсхүчлийн хийн ялгаруулалтыг арилгах инновацлаг шийдлийг олноор танилцуулсан жишээ БНСУ-д олон бий. “Глобал Солонгос” бодлогод тусгагдсан “Эрчим хүчний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зорилтын хүрээнд БНСУ арилжааны зорилготой Цөмийн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 барих дэлхийд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гдсөн технологийг бий болгож чадсан.⁵⁴ 2009 онд АНЭУ-ын зарласан Цөмийн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 барих, засвар үйлчилгээг гүйцэтгэх 40 тэрбум ам.долларын тендерт БНСУ-ын Эрчим хүчний Корпораци ялалт байгуулж, төслөө ажилттай хэрэгжүүлж чадсан. Өдгөө БНСУ 24 цөмийн эрчим хүчний реактораар дотоодын эрчим хүчний хэрэглээнийхээ 27,4 хувийг хангаж байна.⁵⁵

Олон улсын нөхцөл байдал ширүүн өрсөлдөөн дунд өрнөж буй өнөө цаг үед БНСУ эрчим хүчний салбарт гол тоглогчийн үүрэг гүйцэтгэж байгаа нь Ерөнхийлөгч И-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ы үед дэвшүүлсэн “эрчим хүчний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зарим талаараа холбогдохыг онцлох нь зүйтэй.

⁵⁴ “World Nuclear News”, 2023.

⁵⁵ “South Korean Nuclear Policy”, 2023

Тийнхүү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 И Мён Багийн засаглалын үед бүс нутгийн хэмжээний гүрэн болж хүчирхэгжсэн улсаа дэлхий дахинд таниулан сурталчлах зорилготой “Глобал Кореа” бодлого болон “Ногоон Өсөлтийн Стратеги” зэрэг санаачилгатай алхмууд нь улсынхаа нэр хүндийг өсгөх үүргээ биелүүлснээс гадна дэлхий нийтэд тулгарч буй сорилтуудыг шийдвэрлэхэд олон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эрчимжүүлэх, үр дүнтэй механизмыг бий болгоход давхар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байна. “Ногоон Өсөлтийн Стратеги” баталсан нь НҮБ-ын бодлогын баримт бичиг батлагдахаас өмнө уур амьсгалын асуудалд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ж, үндэсний хэмжээний бодлогоо тодорхойлсон анхдагч улсуудын тоонд БНСУ-ыг зүй ёсоор оруулж байна.

Дэлхийн эрчим хүчний салбар шатах ашигт малтмалаас (fossil fuel) цэвэр эрчим хүчний технологид асар хурдтай шилжилт хийх шаардлагатайг ухамсарлаж, стратегийн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салбарт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ж, төр, хувийн хэвшл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уялдуулах стратегийг боловсруулж чадсанаар БНСУ өдгөө цэвэр эрчим хүчний эх үүсвэрт шилжих шилжилтэд оройлон оролцож байна. НҮБ-ын Ногоон Уур Амьсгалын Санг Инчеон хотын Сонгдо дүүрэгт байгуулж, 2013 онд 100 сая ам.долларын хандив өгч, 2020-2023 онд 200 сая ам.долларын хандив өгсөн бол, 2023 онд нэмэлтээр 300 сая ам.долларын хандив өгөх болсноо Шинэ Дели хотод болсон 20-ийн Бүлгий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ын үеэр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 Юн Сог Ёл мэдэгдэв.⁵⁶ Ерөнхийлөгч И Мён Багийн манлайлал дор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НҮБ-ын Ногоон Уур Амьсгалыг Сангийн хөрөнгө өдгөө 11.9 тэрбум ам долларт хүрээд байна. Тус санд хуримтлагдсан хөрөнгийг уур амьсгалын өөрчлөлтөд нэн өртөмтгий байгаа буурай хөгжилтэй болон, аж үйлдвэржиж байгаа улсуудад гамшгийн эрсдэлийг бууруулах төсөл хөтөлбөрүүдийг санхүүжүүлэхэд зарцуулна.

Монголын байдал төлөв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өрчлөлтийн талаар гадаад дотоодын цөөнгүй судалгаа бий. Тухайлбал Т.Намжил “Хэдийгээр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урдацтай өөрчлөлтүүд өрнөсөн ч зах зээлийн үр өгөөжтэй механизмд хараахан бүрэлдээгүй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дийн засаг хямралд оршсоор байна. Нийгмийн санаа зовоосон олон асуудлууд байна. Хүн ам цөөнгүй хэсэг ядуурлын хавханд байна” гэж үзсэн.⁵⁷ Түүнчлэн Монголын шилжилт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үеийн шинэ либераль үзэлд суурилсан “Цочир эмчилгээ” бодлогын талаар Ш.Энхбаяр нэлээд нарийвчилсан судлажээ. Түүний дүгнэлтээр:

1.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реформ, шилжилтэнд сайтар боловсруулсан хөтөлбөр байгаагүй бөгөөд бодлогын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ийг байнга урьдчилан тайлбарлаж байгаагүй олон нийтээр хэлэлцүүлээгүй.
2. Үүнээс болоод нийгмийн доод түвшиндээ хүртэл олон нийтийн ойлголцол болон дэмжлэгээ алдсаар ирсэн.
3. Шинээр гарч ирсэн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гчид өмнөх үеийнхнийхээ үнэ цэнэ, дэмжлэгийг хүлээн зөвшөөрч чаддаггүй.

⁵⁶ Yonhap News, 2023.

⁵⁷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үхэн гурван цаг үед 2000/а/ 1-р боть

4. Мөн өмнөх 70 гаруй жилийн туршид бүтээн байгуулсан, хөгжүүлсэн зүйлсээ бараг бүгдийг нь байнга үл тоомсорлосоор ирсэн.

5. Ийм үйлдлүүд нь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гчдын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механизмууд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х туршлагагүй байдал, мэдлэгийн дутагш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6. Үүнээс улбаалан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гчид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 хэрхэн ажиллаж ирсэн талаарх гүнзгий сайн мэдлэггүй гадаадын зөвлөхүүдийн дэвшүүлсэн санааг дагахаас өөр сонголтгүй байлаа” гэж дүгнэсэн.⁵⁸

Үүний зэрэгцээ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т гарсан эерэг талуудыг дурдсан. Үүнд :

1. Эдийн засгийн суурь нь төрөлжсөн,,
2. Дэлх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интеграцид орсон,
3. Хамгийн чухал нь олон нийтийн чөлөөт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алаархи ойлгомжтой болсон нь тэмдэглэжээ.⁵⁹

Гэхдээ хамгийн чухал бас нэг дүгнэлт нь хэрвээ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тохирсон стратеггүй л яваад байх юм бол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илүү гүнзгий асуудлууд нийгмийн түншүүдтэй байдал руу чиглэх болно гэсэн.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 ялангуяа Шилжилт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ын талаар Өрнөдийн орнуудаас судласан эрдэмтэн бол Эрик С. Райнерт хэмээх эдийн засагч юм. Түүний бичсэн “Баян орнууд яаж баяжиж бас ядуу орнуул яагаад ядуу чигээрээ үлдсэн бэ” хэмээх бүтээлд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реформ хийхдээ гаргасан алдааг дурдаж, өмнөх үед бүтээсэ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ууд, буй болгосон бүтцээ нурааж, давуу талуудаа үгүйсгэснийг цохон тэмдэглэсэн.⁶⁰

Кэйс 1

Мянганы зам

Энэхүү төсөл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бүх аймаг, хотын төвийг нийслэл Улаанбаатартай холбох, нийт 7 мянга гаруй км үргэлжилсэн хатуу хучилттай авто зам бүхий томоохон төсөл байсан юм. Уг төслийн ерөнхийлөгч Н. Энхбаяр байсан агаад тухайн үедээ “Мянгуужингийн зам” гэхчилэн нэлээд шүүмжлэлд өртөж байлаа.

Кэйс 2

Алсын хараа 2050

Уг баримт бичиг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ээдүйн 30 жилийн төсөөлөл, хүрэх зорилт юм. 1990 онд дэлхий дахинд коммунист тогтолцоо нуран унаж, Монгол улс ч манж Чин гүрний ноёрхол дор 200

⁵⁸ Enkhbayar Shagdar, “Neo-liberal “Shock therapy” policy during the Mongolian Economic Transition”. Erine Discussion paper № 0703e April 2007. Niigata Japan p.13-14

⁵⁹Ibid. p.14

⁶⁰ Эрик С. Райнерт, “Как богатые страны стали богатыми, и почему бедные страны остаются бедными”. 5-е изд.Пер. с англ. под науч. ред. В. С. Автономо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ШЭ”.

гаруй жил, ЗХУ-ын нөлөөн дор 70 жил оршин тогтносны эцэст бүрэн утгаараа бие даасан, хараат бус улс болсон. Энэ үеэс манай улс Ардчилсан тогтолцоонд шилжсэн. Ингээд 2020 онд Ардчиллын замаар замнан хөгжсөний 30 жил болж байна гэсэн үг. 2020 оноос цаашхи 30 жилээ тэгвэл хэрхэн харж, хэрхэн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вэ гэсэн асуулт урган гарна. Алсын хараа-2050 нь энэхүү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 өгсө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илийн баримт бичиг юм.

Өнгөрсөн 20-р зуунд Монгол улс хөгжилийн бодлогын цөөнгүй баримт бичиг боловсруулж байсан туршлагатай улс. Тухайлбал бүр 1911 онд үндэсний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оо тунхагласны дараахнаас анхын хөгжлийн баримт бичиг гаргаж байсан бол, 1924 онд тухайн үеийн Санх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нэлээд боловсронгуй хөгжи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боловсруулж байжээ. 1924 оноос эхлээд Монгол улс коммунист, социалист улс болсон. Коммунист орнуудын нэг онцлог нь таван жилийн төлөвлөгөө боловсруулан баталж, түүнийгээ биелүүлэхээр зүтгэдэг байдал юм.

Монгол улс ч найман удаагийн 5 жилийн төлөвлөгөө баталж, хэрэгжүүлж байсан түүхэн туршлагатай улс. Таван жилийн төлөвлөгөө батлана гэдэг нь улс орны салбар, нэгж бүрийг уг төлөвлөгөөтэй уялдуулан хөгжүүлэнэ гэсэн үг. Тиймээс урд өмнөх туршлага,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үеийн туршлагыг хослуулсан баримт бичиг юм.

Сайшаал ба шүүмжлэл

Уг баримт бичгийг батлах үед мэдээж олон хүн дэмжиж байсан. Ямар ч байсан хаа хүрэхээ мэдэхгүй явж байснаас ядаж очих газраа мэдэж явах нь дээр. Гэхдээ ялгаагүй олон эрдэмтэд судлаачид шүүмжилсэн. Тухайлбал: Монгол улс маш хурдтай өснө гэдэгт эргэлзэж байгаагаа илэрхийлж байв. Учир нь уг баримт бичигт ДНБ-ийг 6.1 дахин өсгөж аз жаргалын индексээр дэлхийн эхний 10 орны тоонд багтах зорилт тавьсан.

-Монгол улс маш эрс тэс уур амьсгалтай, далайд гарцгүй, дотоодын тээврийн зардал өндөр тул аргагүй нөхцөл байдлаа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х ёстой,

-Үндэсний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ие даасан байдлыг нэн тэргүүнд тавиагүй.

-хөгжлийн урьдач нөхцөл, суурь хүчин зүйлийг уламжлалт ёс зан заншил, нүүдлийн соёл иргэншил, түүх дээр тулгуурласан "Үндэсний нэгдмэл үнэт зүйлийн гүн ухамсар" гэсэн нь,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хөд хэцүү, шуудхан хэлэхэд онол-арга зүйн хувьд алдаатай юм.⁶¹

“Алсын хараа 2050” нь сүүлийн 100 гаруй жилийн үйл явцад танин мэдэхүйн шинжтэй үнэлгээ өгсөн, ирэх 30 жилд дэвшүүлж болох зорилтуудыг тусгасан зөвлөмжийн чанартай баримт бичиг гэж үзвэл зохилтой.⁶²

I үе шат (2021-2030):

2.Гуравдагч хөршид хүрсэн эдийн засаг бий болсон байна.

3.Монгол Улс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аг, худалдааны интеграцад нэгдэж, худалдааг хөнгөвчилнө.

⁶¹Ж. Гөлгөө: “Алсын Хараа 2050”-ыг шинжихүй. “Үндэсний шуудан” сонин. 2020 оны 4 сарын 9-ний дугаар.

⁶² Мөн тэнд

II үе шат (2031-2040): Хөрш орнууд болон гуравдагч хөрш улсуудтай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энцвэртэй хөгжлийн түвшнийг хангах үе.

1. Дэлхийн түвшинд нэр хүнд бүхий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тай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гол төв болсон байна.

III үе шат (2041-2050): Ази-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 нутаг дахь эдийн засаг, худалдааны интеграцад идэвхтэй оролцож,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 замаар, худалдааг нэмэгдүүлэх үе.

1.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идэвхтэй оролцогч болсон байна.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тай худалдааны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хүрээг өргөтгөж техноло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элбэрт шилжүүлнэ.⁶³

Кэйс 3

Хүнсний хувьсгал

2022 онд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анаачилгаар “Хүнсний хувьсгал” хэмээх хөтөлбөрийг 21 аймаг, 330 сум, нийслэлийн 9 дүүрэгт эхлүүлсэн. Үүнийг мөн “Хүнсний хувьсгал” Үндэсний хөдөлгөөн гэж нэрлэдэг.⁶⁴

Дүгнэлт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нар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ыг нэгэн өгүүлэлд бичих боломжгүй. Тиймээс аргагүй болон кэйс судлагаанд тулгуурлаж энэ илтгэлийг бэлдсэн болно.

Хоёр орны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од хэд хэдэн чанарын ялгаа байна. Энэ нь юуны түрүүнд БНСУ бол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засаглалтай бол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вьд Үндсэн хуулийн 3-р бүлгийн 20-р зүйлд зааснаар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ал бол төрийн эрх барих дээд байгууллага мөн бөгөөд хууль тогтоох эрх мэдлийг гагцхүү Улсын Их Хуралд хадгална” гэжээ. Эндээс харахад төрийн дээд эрх мэдлийг Улсын их хурал барьж байна. Үүгээрээ Монгол улсыг парламентийн засаглалтай ч гэж бичдэг. Нэгэнт УИХ төрийн дээд эрх мэдлийг барина гэхээр Ерөнхий сайдын эрх мэдэл ямар байх нь ойлгомжтой юм. Ерөнхийдөө сайд бол сайд нараараа дамжуулаад бүхий салбарыг түүний дотор эдийн засгаа ерөнхийдөө удирддаг. Тиймээс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н хувьд Ерөнхий сайд илүү эрх мэдэлтэ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 нар эдийн засгийн алдаа оноо, амжилт ололт дутагдал бэрхшээлтэй нэр нь илүү шууд холбогддог бол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вьд гол хариуцагч эзэн нь Ерөнхий сайд байгаа юм.

Тиймээс хэрэв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г илүү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үүлнэ гэвэл Ерөнхий сайдын тууштай чиглүүлгээс гадна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анхаарал санаачлага бас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х гэсэн логик дүгнэлт урган гарч байна. Үүнээс улбаал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омоохон бүтээн

⁶³ “Төрийн мэдээлэл” сэтгүүл. 2020 оны 7-р сарын 1. Дугаар 25/1127/ 1245-1420-р талаас тодруулан үзнэ үү.

http://www.ncs.cd.gov.mn/wp-content/uploads/2020/07/2020_25.pdf

⁶⁴ <http://jijigdund.mn/r/427>

байгуулалт хийхэд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дэмжлэг туйлаас чухал байж болох юм. Монголд өмнө нь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сэн томоохо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ууд нь Ерөнхий сайдын зүтгэлээс гадна,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дэмжлэг чухал үүрэгтэй байжээ.

Нөгөөтэйгүүр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н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ихэ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лөвлөлтийн Зөвлөл” туйлын чухал байгаа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БНСУ-ын хувьд энэ зөвлөл нь үнэлж баршгүй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сан байна.

Цаашид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вьд аливаа томоох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г хийхдээ Ерөнхийлөгч, Ерөнхий сайд гэсэн энэ хоёр институт харилцан дэмжиж,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нь уг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г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үүлэх нэгэн чухал хүчин зүйл болохыг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жишээнээс харж болно.

БНСУ-ын таван жилийн төлөвлөгөө нь Монгол улсад авч ашиглах хэрэгтэй туршлага гэж үзэж байна. БНСУ-ын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үүлсэн туршлагаудаас суралцах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хөгжил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на гэж үзлээ.

Ашигласан материал

А. Монгол хэлээр

1. Ж. Гөлгөө: “Алсын Хараа 2050”-ыг шинжихүй. “Үндэсний шуудан” сонин. 2020 оны 4 сарын 9-ний дугаар.
2.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https://legalinfo.mn/api/front/cons-detail-1992.html>
3. О Вончөл, Пак Жөнхый: Солонгосын сэргэн мандалт, Орч. Ж. Баттөр, Л. Долгормаа, Б. Ганцэцэг, НЭПКО Пабблишинг, 2013,
4. Т. Намжим,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үхэн гурван цаг үед 2000/а/ 1-р боть.
5. “Төрийн мэдээлэл”сэтгүүл.2020 оны 7-р сарын 1. Дугаар 25/1127/ 1245-1420-р талаас тодруулан үзнэ үү.
6. http://www.ncs.cd.gov.mn/wp-content/uploads/2020/07/2020_25.pdf
7. <http://jijigdund.mn/r/427>

Б. Гадаад хэлээр

8. Address by H.E. Mr.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64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Retrieved from (UNGA,2009.) https://gadebate.un.org/sites/default/files/gastatements/64/64_kr_en_24.pdf
9. Enkhbayar Shagdar, “Neo-liberal “Shock therapy” policy during the Mongolian Economic Transition”. Erine Discussion paper № 0703e April 2007. Niigata Japan pp.13-14.
10. Эрик С. Райнерт, “Как богатые страны стали богатыми, и почему бедные страны остаются бедными”. 5-е изд. Пер. с англ. под науч. ред. В. С. Автономо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ШЭ”. 2017.
11. Global Korea: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Cheong Wad ae, 2009), http://englsih.president.go.kr/governmnet/globalkorea/globalkore_eng.pdf

12. Норт Д. Институты,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экономики. М., 1997.
13. Haggard S. Pathway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ation Countries.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14. https://www.kdi.re.kr/eng/research/reportView?pub_no=13671
15. Snyder, S. A.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16. “South Korean Nuclear Policy”, 2023
17. Young-Iob Chung, “South Korea in the Fast Lane: Economic Development and Capital 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8. “World Nuclear News”, 2023.

The Korean Digital Economic Development Trends and Mongolian Opportunities

БНСУ-ын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чиг хандлага ба Монголын боломж

D.Ulambayar(Sc.D)

(University of the Humanities)

ulambayar@humanities.mn

ABSTRACT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re was a lot of talk and writing about the irreversible globalization based on interdependence, but now I am writing about the irreversible digitization in all fields of the world and its impact on humanity. Digitalization has brought enormous savings to the economy and turned our stereotypes of space-time upside down.

In South Korea, the digital process has become an irreversible process, covering all socio-economic sectors. Today's South Korea is a country with great material and spiritual potential to make unprecedented progr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ew millennium. It is emphasized again that South Korea ranks highest in the world in term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igh-tech infrastructure, high-speed internet per capita, and integration and innovation between key economic structures.

One of the important directions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digital sector, and cooperation in this direction will be deepened.

Keywords: digitization, cyber space, internet, digital revolution, e-society, online trade, soft infrastructure, etc.,

I. Дижитал хувьсгал,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аг

XX зууны сүүлчийн улиралд хүн төрөлхтний хамгийн том нээлт нь өөрсдийн амьдрах оронзай, цаг хугацаагаа цоо шинээр, гэхдээ хязгааргүй “тэлсэн” явдал юм. *Cyber space* хэмээх хүний оюуны бүтээл болсон тулааны энэ шинэ оронзай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амьдралд язгуур өөрчлөлт гаргаж, цаашид ч олон суурь өөрчлөлт, шинэ зүйлсийг буй болгох нь тодорхой болов. Дижитал үйл явц эдийн засагт асар их хэмнэлт буй болгож, цаг хугацааны алдагдалыг үлэмж бууруулж байна. Нөгөө талд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н хурдацтай хөгжлийн үр дагавараар дэлхий нийт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улам эмзэг болж, кибер орон зай дахь сөрөг үйлдлээс санамсаргүй байдлаар өчүүхэн зүйлээс ч асар их хор хөнөөл

учирч болзошгүй байдал үүсээд буй. Кибе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хангах нь мэдээлл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аас огт өөр, шинэ ойлголт болно.

Дубайн World Government Summit дээр хүний тархи болон түүний дижитал хувилбар хоёрын хооронд мэдээлэл солилцох хурдны тухай, тэдгээрийн нэгдлийн тухай, хүний оюун ухааныг нүүлгэн шилжүүлэх өргөн хүрээтэй хэлэлцүүлэг өрнөх болов. *Хүн ертөнцийн мөнх бусыг үзүүлсэн ч түүний бүх мэдээлэл, дижитал хуулбар амьдралаа цааш нь үргэлжлүүлэ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х гэнэ.*

Дижитал оюун ухааны хөгжилд cognitive neuroscience нэн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ж байгаа боловч квант компьютерын хөгжил түүнийг орвонгоор нь өөрчлөхөөр байна.

Blockchain технологи хөгжлийн шинэ боломжийг нээсэн хэдий ч квант компьютерын хөгжил түүний схемийг бусниулж, итгэхэд нэн бэрх квант орны цоо шинэ нөхцөл байдлыг буй болгохоор байна. *Blockchain* сайтын мэдээлснээр биткойны 90 хувийг нэгэнт олборлож, нээлттэй зах зээлд арилжаалагд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урьдчилсан тооцооллоор үлдсэн сүүлчийн 10 хувийг өндөр хүчин чадалтай супер компьютер ашигласан ч 2140 оны 2 дугаар сар хүртэл олборлож, зах зээлд нийлүүлэхээр байгаа ажээ. Өөрөөр хэлбэл 100 илүү жил шаардагдаж байна. Тэгвэл квант компьютер энэ асуудлыг хоромхон зуур шийдвэрлэж чадах ажээ. *Квант компьютерын үйлдэл нь бурханд хамгийн ойрхон дөхөж очих шийдэл болно гэж мэргэжилтнүүд нь тэмдэглэх болжээ.*

Ухаалаг төхөөрөмжүүд (smart objects) өндөр хурдны интернет сүлжээний суурь бүтэц (infrastructure), ложистикоор интеграцчлагдаж, объектуудыг алсаас мэдрэх, удирдах, хянах боломжтой (Internet of Things-IoT) болж, 6G хэрэглээнд нэвтэрч эхлэв.

Metaverse бидний паралелль ертөнц буюу хоёрдахь амьдрал болохоор байна. Амьдралын нэн чухал зүйлс бүгд дижитал хэлбэр рүү шилжиж, тийнхүү дижитал амьдрал бидний бодит амьдралаас илүү үнэ цэнэтэй орчин болох ажгуу.

OpenAI-ийн эхлүүлсэн ChatGPT нь дижитал оюун ухааны салбарт хурдацтай, урьд өмнө байгаагүй их хэмжээний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хийж эхэлсэн нь цоо шинэ нөхцөл байдлыг буй болгож байна.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 урьдаас төсөөлж байгаагүй зүйлсийг бие даан хийж эхлэх л юм бол бид амьдралын цоо шинэ хэлбэртэй нүүр тулсан гэж ойлгох хэрэгтэй болж байна.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аг гэдэг нь бизнесийн цоо шинэ модель бөгөөд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г ашиглан cyber орчинд цоо шинэ нэмэгдсэн өртөг буй болгох явдал бөгөөд цоо шинэ хэрэглээг санал болгодог.

Эдүгээ үндэсний эдийн засаг дэлхийн зах зээлийн хуулиар зохицуулагдаж, үндэсний баялаг, түүхий эдийн нөөцөө захиран зарцуулах нь нэг улсын эрх мэдэл, хил хязгаараас шалтгаалахгүй болж, гадаад, дотоод бодлогын зааг ялгаа багасч байна. Цахим ертөнц ганцхан мэдээлэл солилцох хэрэгсэл байхаа хэдийнээ больж, хил хязгааргүй эдийн засгийн нэгдсэн нэг орон зай болон хувирав.

Гадаад, дотоод бодлогын зааг ялгаа багасч, даяаршил, дижитал үйл явц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шийдвэрлэхүйц хүчин зүйл болов. Их гүрнүүд гадаад бодлогоо тодорхойлохдоо: *economics of power* буюу хүчний эдийн засаг, *power of economics* буюу 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ч гэсэн 2 зарчмийг баримталж байгаа нь бүхэлдээ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т суурилж байна.

Бүр 1989 онд Солонгос гаралтай Японы судлаач Т.В.Канын бичсэн «Солонгос дараагийн Япон мөн үү?: Америкийн дараагийн өрсөлдөгчийн бүтэц, стратеги, тактикийг ойлгох нь»⁶⁵ нэртэй бүтээл Нью-Йорк хотноо хэвлэгдэн гарсан нь нилээд дуулиан тарьсан билээ.

⁶⁵ T.W.Kang. Is Korea the next Japa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Strategy, and Tactics of America's Next Competitor. Free Pres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N.Y.: 1989

Азийн «шинээр аж үйлдвэржсэн» БНСУ нийтлэг шинж бүхий хөгжлийн тодорхой үе шатуудыг дамжиж иржээ. Энэ нь нэгд: 1960-аад онд импортыг орл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г бүх талаар хөхиүлэн дэмжих, хоёрт, 1970-аад он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үтцийг өөрчлөн хүнд үйлдвэр, экспортын чиг баримтласа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түлхүү хөгжүүлэх, гуравт, 1980-90-аад оноос оюуны багтаамжтай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 цахим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н хөгжүүлэхэд чиглэгдэж иржээ. Дөрөвт, XXI зууны хоёрдахь арван жилээс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т дэлхийд тэргүүлэх байр суурь эзлэх бодлого явуулж байна гэж үзэж болохоор байна.

II. БНСУ-ын дижитал үйл явц

Өнөөгийн БНСУ нь шинжлэх ухаан-технологийн урьд үзэгдээгүй ахиц, дэвшлийг Шинэ мянганд гаргах материаллаг болон оюун санааны үлэмж чадавхтай орон юм. БНСУ нь мэдээлэл,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технологи,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йн суурь буюу дээд бүтэц (infrastructure), нэг хүнд оногдох нийтийг хамарсан өндөр хурдны интернетийн сүлжээ, гол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цүүдийн хоорондох интеграцлал, инновацчлалаар дэлхийд хамгийн өндөрт орж байна. 2021 оны «*The Economist*» сэтгүүлийн судалгаагаар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өрсөлдөх чадавхиар дэлхийд 3 дугаарт, e-бизнесээр 10 дугаарт, e-засаглалаар 6 дугаарт орж байсан нь хуучирсан тоо болов. 2024 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Forbs*” судалгаагаар дэлхийд өндөр хурдны интернет хэрэглэгчид 5.3 тэрбум, e-бизнесийн нийт үнийн дүн 5.8 их наяд ам. доллараар хэмжигдэж, 2.5 тэрбум хүн ажил, амьдралаа явуулж буй ажээ.⁶⁶

2021 оны 7 дугаар сард Женев дэх НҮБ-ын Худалдаа, хөгжлийн бага хурал байгууллагын 68 дахь чуулг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аж, БНСУ-ыг хөгжингүй орон болсныг зарлаж, статусыг нь шинэчилж санал нэгтгэйгээр тус улсыг хөгжингүй орны гишүүнчлэлд оруулсан байна.⁶⁷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нь олон жилийн турш НҮБ-ын донор гол орнуудын нэгээр явж иржээ. Тус агентлаг 1964 онд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дсанаасаа хойш анх удаа хөгжиж буй орны бүлгээс аль нэг улсын статусыг хөгжингүй болгон өөрчилсөн нь энэ удаагийн чуулган байв.

2017 онд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дэргэд Аж үйлдвэрийн IV хувьсгалын хороог байгуулжээ. Энэ хороо 2017 оны 11 дугаар сард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ивээл дор «*e-Korea: Towards Digitization*» сэдэвт олон улсын томоохон арга хэмжээ анх удаагаа болж өнгөрөв. Энэ үеэр шинээр эмхлэ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Шинжлэх ухаан, мэдээлэл, харилцаа-холбооны технологи, ирээдүй төлөвлөлтийн сайд Юү овогтын (Yu Yeong-min) тэмдэглэснээр: “Дэлхий ертөнц дижитал хувьсгалын үр дүн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өдөлгөгч хүч, хуваарилалт болон кибер ертөнцийн үйл явцыг хувирган өөрчлөөд зогсохгүй хүмүүсийн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ын чанар, хэв маягийг ч үндсээр нь өөрчилж байна” гэжээ.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үйлдвэр, эрчим хүчний сайд Пэйк овогт (Paik Ungyu) хэлэхдээ: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аг, үйлдвэрлэлийг үндсээр нь өөрчилж буй гол хүчин зүйл, динамик нь **e-revolution** болж байна” гэжээ. Тэрбээр цааш нь хэлэхдээ: “Бидний ирээдүйг чиглэсэн шинэ үйлдвэрлэл бол ИТ (information technology), NT (nano-technology), BT(bio-technology), NPM (new and precision materials буюу метал, шингэн, хий, хатуу нягт бодисыг шинэ технологийн инновацчлалын

⁶⁶ 35 E-Commerce Statistics of 2024. March 28, 2024

<https://www.forbes.com/advisor/business/ecommerce-statistics/>

⁶⁷ UN agency upgrades Korea's status to developed economy

July 5, 2021 <https://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200509>

туслалцаатайгаар хослуулж цоо шинэ үеийн материал гаргаж авах), ET (environment and new energy technology), Optical sectors (гэрлийн энерги, долгионы хурд, уртын онцлогийг ашигласан технологийг машин, механизм, үйлдвэрийн эд ангиуд, системийн үйлдвэрлэл, лазерийн үйлдвэрлэл, роботчлол, хараазүйн судлал), Aerospace technology юм. Тиймээс ирэх жилүүдэд R&D (Research and Development) чиглэлд үлэмж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ийнэ” гэсэн байна. Rockwell International группын тэргүүн бөгөөд CEO солонгос гаралтай америк Davis Dong тэмдэглэн хэлэхдээ: “*e-manufacturing* гэдэг нь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д суурилсан е-бизнесийн моделиар жолоодон тухайлбал, үлэмж том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ч энэхүү хувьсгалын үр дүнд кибер орчинд буй болгосон цагт, үлэмж том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одит бүтээмжийг дараагийн түвшинд буй болгох болно”⁶⁸ гэсэн байна. Энэ бол *internet economics* буюу *digital economy* ажээ.

“Korea Telecom”-ын мэдээлснээр өндөр хурдны сүлжээний үйлчилгээнд тулгуурласан мэдээллийн суурь бүтэц (infrastructure) цогц бүрдсэн нь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амьдралын чанарыг үндсээр нь өөрчилж байгаа ажээ. Өндөр хурдны сүлжээний үйлчилгээнд интеграцлагдсан 50 мянган төрийн институци *e-government*-ийг нэгэнт буй болгож, энэ нь солонгосчуудад хамгийн хурдан шуурхай засаглалын үйлчилгээг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Өндөр хурдны сүлжээний үйлчилгээнд холбогдсон 13 мянга гаруй дунд,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өндөр зэрэглэлийн чанартай *e-education* тогтолцоог буй болгожээ. 3.5 сая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лэгчид дижиталчлагдсан системд холбогдон *e-commerce*-г суурилсан *B-to-B*-гийн (*Business-2-Business*) гарцтай болсон байна.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д үндэслэсэн бизнесийн хувьсгал ажлын байрны зах зээлийг эрс өргөжүүлж, нэмэгдсэн өртөг илүү өндөр шингээсэн бизнесийг буй болгов. Өндөр хурдны сүлжээнд суурилсан *on-line* эмнэлгийн үйлчилгээ амьдралын чанарыг эрхгүй өөрчилж буй ажээ. Энэ бүгдийн үр дүнд Шинэ мянганы эрин үеийн эхнээс Солонгос нь *e-Society*-г байгуулж байгаа ажээ.⁶⁹

Өмнөд хөрш БНХАУ 2017 оны 7 дугаар сард «Дараа үеийн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ы хөгжлийн төлөвлөгөө-2030»⁷⁰, хойд хөрш ОХУ 2019 оны 10 дугаар сард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ыг хөгжүүлэх Үндэсний стратеги-2030»⁷¹ баримт бичгийг тус тус батлан гаргажээ.

Өнөөдөр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аас үүдэлтэй асар том өөрчлөлттэй тулгарч байна.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2019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ын 17-нд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ы үндэсний стратегийг баталсан.⁷² БНСУ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ос цааш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тай дэлхийн удирдагчийн зүгт” (Toward AI World Leader beyond IT) гэсэн алсын хараагаар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г эрс эрчимжүүлэхийг зорьж байна. 2030 он гэхэд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ы эдийн засгийн асар их үр нөлөөг бий болгож, хүмүүсийн амьдралын чанарыг сайжруулна гэж үзэж байгаа ажээ.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ы

⁶⁸ *e-World: Towards Digitization*. Ang Byong-yub speech. “The Korea Times” 2017.11.09

⁶⁹ “[Korea Communication Market Data](#)”. Netmanias. 30 May 2021.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5 August 2022. R

⁷⁰ China’s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Issued Plan* by State Council. China’s Strengths Creates Innovation Miracle.

<https://www.newamerica.org/cybersecurity-initiative/digichina/blog/full-translation-chinas-new-generation-artificial-intelligence-development-plan-2017/>

⁷¹ Russian “*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period until 2030*”. Moscow 11 October, 2019 <https://tass.com/economy/1082644>

⁷²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eng&nttSeqNo=9&bbsSeqNo=46&mId=10&mPic=9>

гурван чиглэлээр 9 стратегийн хүрээнд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эмжээнд хэрэгжүүлэх 100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зорилт түүний дотор экосистем,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ы хэрэглээ, хүн төвтэй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аас бүрдэж байна.⁷³

АНУ, ЕХ, БНСУ, Хятадын тэргүүлэх их сургуулиуд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ы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ын түвш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мэргэжл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нэгэнт хэрэгжүүлж эхлээд байна.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т зах зээлийн судалгаа хийж, дүн шинжилгээ гаргах, мэргэжлийн өндөр зэрэглэлийн зөвлөгөө үзүүлдэг Global Brands magazine зэрэг олон улсын нэр хүндтэй сэтгүүлийн 2023 оны чансааны үнэлгээгээр дэлхийн хөдөлгөөнт холбооны топ 10 компаний тэргүүнд Samsung Electronics, *хоёрт*, Apple Inc, *гурв*, Хятадын Xiaomi, *дөрөвт*, Хятадын Oppo, *тавд*, Хятадын Vivo Communication Technology, *зургаад*, Хятадын Huawei, *долоод*, Хятадын Realme, *наймд*, АНУ-ын Google, *ес*, АНУ-ын Motorola Mobile, *аравт*, Хятадын OnePlus Technology компаниуд орж байна.⁷⁴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LG зэрэг бусад үндэстэн дамнасан корпорациуд мөн дээгүүрт ордог.

Дэлхийн хөдөлгөөнт холбооны зах зээл дээр Samsung Electronics-ийу андронд үйлдлийн системтэй Galaxy S загварын гар утас багтай байр сууриа нэгэнт эзлэв. Samsung групп «хатуу диск уншигч» (DHN) үйлдвэрлэгч АНУ-ын Seagate technology хэмээх дэлхийн хамгийн том компанийн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йн үйлдвэрлэл, Rolls-Royce Airbus A380 онгоцны Trent 900 загварын хөдөлгүүр, Boeing 787 Dreamliner-ийн төсөлд го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ж байгаа ажээ.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biopharmaceuticals*-ын салбарын хөгжил дэлхийд тэргүүлэх байранд гарч ирэв.

2024 оны 1 дүгээр сард Samsung Electronics хамгийн сүүлийн үеийн шинэ бренд “Galaxy S24 Ultra”, “S24 Plus” ухаалаг гар утсаа танилцуулав. Samsung Electronics нь Galaxy хамгийн сүүлийн үеийн загваруудад хиймэл оюун ухааны системийг суулгажээ. Тухайлбал, утсаар ярих үед шууд орчуулах функцтэйгээс гадна камерын үзүүлэлтүүдийг үлэмж сайжруулсан байна.⁷⁵

Мэдээж гол асуудал нь *cyber* ертөнцөд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найдвартай хангах тухай юм. Тиймээс 2002 онд «Кибер орон зайг террорист халдлагаас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ийг хууль тогтоох дээд байгууллага Үндэсний Ассамблейгаас батлан гаргасан байна.

Мэдээлэл,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технологийн үсрэнгүй хөгжил уламжлалт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цийг өөрчилж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г шинээр буй болгож байна. Тиймээс хүн төрөлхтөн дэлхийн дулаарал, цаг уурын өөрчлөлтөд дасан зохицоос гадна дижитал ертөнцөд дасан зохи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ов.

ДНБ-тэй холбоотой шинэ судалгаанд оруулса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эмжээгээр БНСУ тэргүүлж байгаа юм. R&D-д хэ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ийж байна, тэнд *digital revolution* явагдаж байна. 2022 онд БНСУ-ын хувийн хэвшил боло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судалгаа, хөгжилд (R&D) оруулса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эмжээ ₩112.64 их наяд (85.46 тэрбум ам.доллар) болсон нь өмнөх оныхоос ₩10.51 их наяд буюу 10.3 хувиар өссөн үзүүлэлт болсон байна.⁷⁶

⁷³ *Ibid*,

⁷⁴ Top 10 Mobile Brands in the World 2023. <https://www.globalbrandsmagazine.com/top-10-mobile-brands-in-the-world-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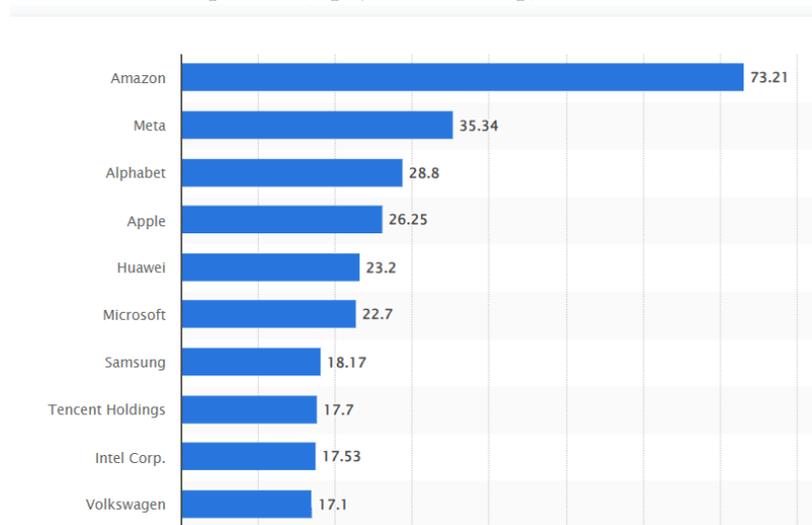
⁷⁵ Samsung PH sees record pre-orders with Galaxy S24 Series. 1/01/2024 <https://news.samsung.com/ph/samsung-ph-sees-record-pre-orders-with-galaxy-s24-series>

⁷⁶ “Private sector accounts for 80% of Korean R&D investment in 2022” 2023.12.11 https://www.investkorea.org/ik-en/bbs/i-465/detail.do?ntt_sn=492385#:~:text=

Монгол Улс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хөгжилд ДНБ-ийн 0.12 хувийг зарцуулж байгаа нь гайхмаар доогуур үзүүлэлт болно.⁷⁷ Монгол Улс 2019 оны Дижитал өрсөлдөгч чадавхийн үнэлгээгээр 63 орноос 62-т,⁷⁸ 2019 оны Мэдээлэл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технологийн хөгжлийн индексээр 176 орноос 91-д,⁷⁹ Монгол Улсын ДНБ-д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жин 2,1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⁸⁰

2022 оны 4 дүгээр сард ДНБ-тэй холбоотой шинэ судалгаа, төслүүдэд оруулса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увь хэмжээгээр БНСУ дэлхийд тэргүүлжээ. Энэ тухай тус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 мэдээлэл, харилцаа-холбооны технологи, ирээдүй төлөвлөлтийн яам 2021 оны мэдээлэлд хийсэн дүн шинжилгээнд үндэслэн мэдээлсэн байна. Тус яамны мэдээллээр, ДНБ-тэй холбоотой шинжлэх ухаан-судалгааны болон туршилт-загвар бүтээх ажлын эрчимтэй байдлын үзүүлэлт БНСУ-д 4.55 хувьтай гарчээ. Тус улсын дараагаар Израиль 4.54 хувьтайгаар орсон байна. 2000 он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энэ үзүүлэлт 2.18 хувьтай, харин Израиль улсынх 3.94 хувьтай байжээ. OECD-ын талаарх дундаж үзүүлэлт 2.37 хувьтай байсан нь 2016 оныхоос бага зэрэг өссөн үзүүлэлт байжээ. Энэ нь БНСУ, АНУ, Японтой холбоотой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нэмэгдсэнтэй холбоотой байна. Жагсаалтын гуравдугаарт, Швейцарь улс орж, тус улсын дараагаар Швед, Япон, Австри, Дани, Герман, АНУ болон Франц улс бичигдэж байв.⁸¹

График 1. 2022 онд дэлхий даяар судалгаа, хөгжилд хамгийн их мөнгө зарцуулсан компаниудын зэрэглэл (тэрбум ам. доллар)



Source: © Statista 2024

⁷⁷ ДНБ-ий 1 хувийг эрдэм судлалын ажилд зарцуулах хэрэгтэй. 2019.09.27 <https://president.mn/11094/>

⁷⁸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Klaus Schwab. 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⁷⁹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The NRI 2019 Countries. <https://networkreadinessindex.org/2019/nri-2019-countries/>

⁸⁰ Ibid,

⁸¹ Ranking of the companies with the highest spend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worldwide in 2022 (in billion U.S. dollar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5645/ranking-of-the-20-companies-with-the-highest-spending-on-research-and-development/>

2019 оны 6 дугаар сард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зургаадугаар үеийн 6G сүлжээний үндсэн технологийг хөгжүүлэх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г нээсэн тухайгаа “Samsung” компани мэдэгдэв.⁸² “Samsung Research” судалгаа, боловсруулалтын байгууллага нь гар утасны сүүлийн үеийн технологи,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дараагийн үеийн сүлжээг хөгжүүлэх чиглэл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ах юм. “5G” сүлжээ эхний зах зээлүүддээ нэвтэрч, дэлхийн олон орны гар утасны сүлжээнд “4G LTE” сүлжээг ашиглаж буй энэ үед “6G” сүлжээг хөгжүүлэх нь “Samsung” компанийн урт хугацааны бизнес төлөвлөгөөний нэгээхэн хэсэг ажээ. “Samsung” компани өнгөрсөн дөрөвдүгээр сарын эхээр дэлхийн анхны “5G” сүлжээг дэмждэг “Galaxy S10 5G” ухаалаг гар утсыг худалдаанд гаргасан юм. Дашрамд дурдахад, БНСУ-ын цахилгаан хэрэгсэл үйлдвэрлэгч “LG” компани Солонго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тэй хамтран “6G” технологийг хөгжүүлэх лабораторийг Тэжон хотод 2019 нэгдүгээр сард нээсэн билээ.

2024 оны 2 дугаар сард 10 гүрэн 6G сүлжээг хөгжүүлэх үндсэн зарчмуудын талаар тохиролцож, тусгай тунхаглал баталсныг Испанийн Барселон хотноо зохиогдсон “Mobile World Congress” үзэсгэлэн нээгдсэн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зарлажээ. Тусгай Тунхаглалд Австрали, Их Британи, Япон, Канад, БНСУ, Франц, Швед, Чех болон АНУ нэгдсэн байна.⁸³

Хагас дамжуулагч буюу чипний үйлдвэрлэл бол БНСУ-ын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н дэлхийд тэргүүлэх салбар билээ.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хагас дамжуулагч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үүх 1965 оноос эхэлжээ.⁸⁴ 1983 онд БНСУ нь АНУ, Японы дараа 64K DRAM хөгжүүлсэн дэлхийн гурав дахь орон болсон бол 1992 онд БНСУ DRAM зах зээлд тэргүүлжээ. Харин 2013 онд дэлхийн анхны 3D V-NAND флаш санах ойг худалдаанд гаргажээ. Тийнхүү БНСУ-д 1980-аад оноос хойш хагас дамжуулагчийг компьютер болон бусад төхөөрөмжид их хэмжээгээр ашигласнаар хагас дамжуулагчийн үйлдвэрлэл эдүгээ эрчимтэй үргэлжлэн хөгжиж байна. Өмнөд Солонгос 2022 онд дэлхийн хагас дамжуулагчийн зах зээлийн 17.7 хувийг эзэмшиж, 2013 оноос хойш 10 дахь жилдээ дараалан дэлхийд хоёрт бичигдсэн хэвээр байна.⁸⁵

Тус улс дэлхийн санах ойн хагас дамжуулагчийн зах зээлийн 60.5 хувийг эзэлж, DRAM-ын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зах зээлийн 70.5 хувийг, NAND-ын (not and) зах зээлийн 52.6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БНСУ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аа хадгалахын тулд судалгаа, боловсруулал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д тасралтгүй анхаарч байгаа юм. Өөр нэг дурдаха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нь хэт нарийн боловсруулалтын (ultra-fine processing) технологид суурилсан цутгамал үйлдвэрийн зах зээлд (foundry market) эзлэх хувийг өргөжүүлэхээр ажиллаж байна. Тус улс дэлхийн цутгамал үйлдвэрийн зах зээлийн 17.3 хувийг эзэлдэг.⁸⁶

Бүдүүвч 1. БНСУ-ын чипний үйлдвэрлэл 2022

⁸² Samsung opens research center to begin initial work on 6G. May 4, 2019 <https://www.techspot.com/news/80382-samsung-opens-research-center-begin-initial-work-6g.html>

⁸³ Korea joins 10-nation statement on endorsing 6G principles. 2024-02-27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4/04/129_369590.html

⁸⁴ “The rise of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KBS WORLD*. July 10, 2017.

⁸⁵ “South Korea invests big in becoming a global chip leader”. *DW News*. January 24, 2024.

⁸⁶ “South Korea's Semiconductor Output Rises by Most in 14 Years”. *Bloomberg*. March 29,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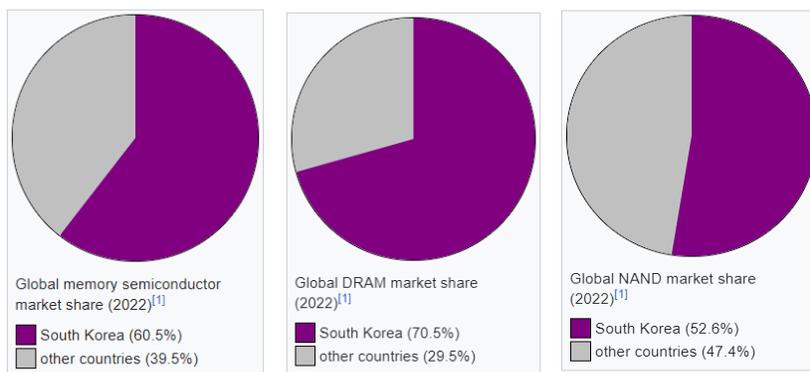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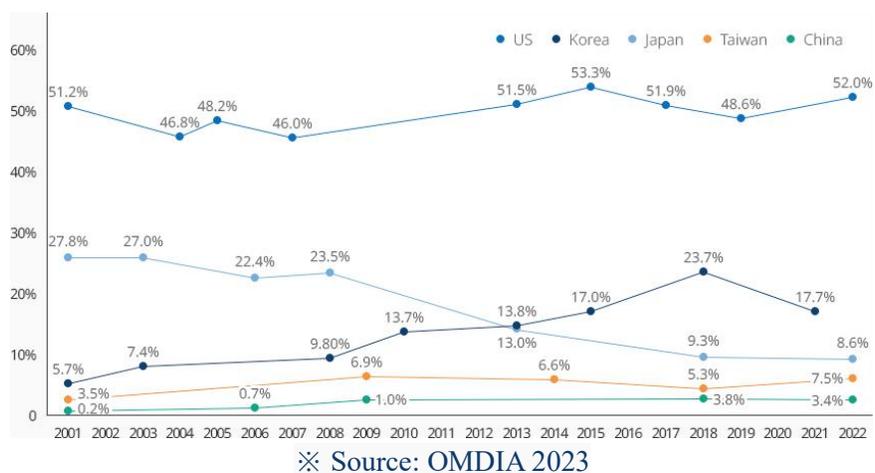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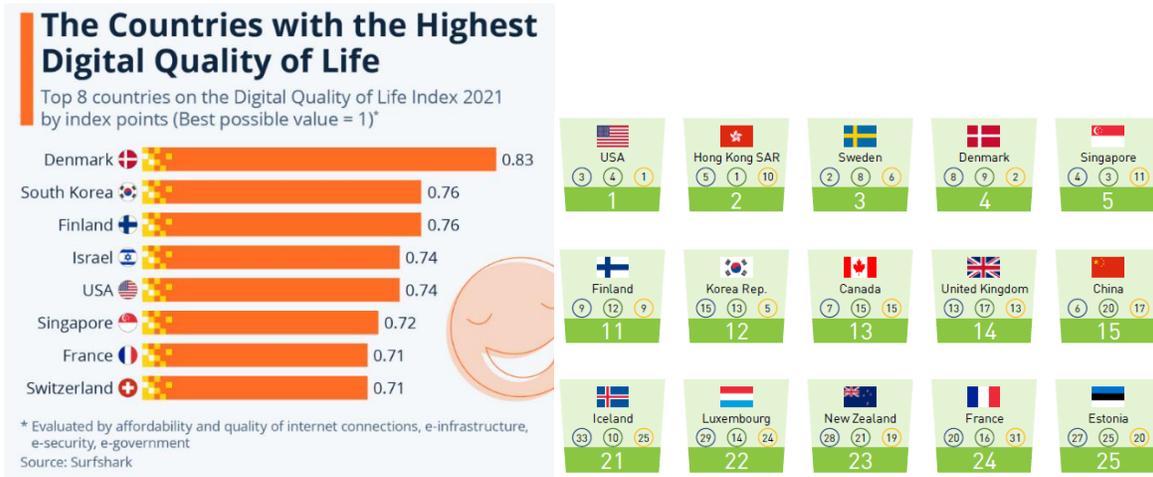
График 2. Semiconductor Market Shares of Major Producers (200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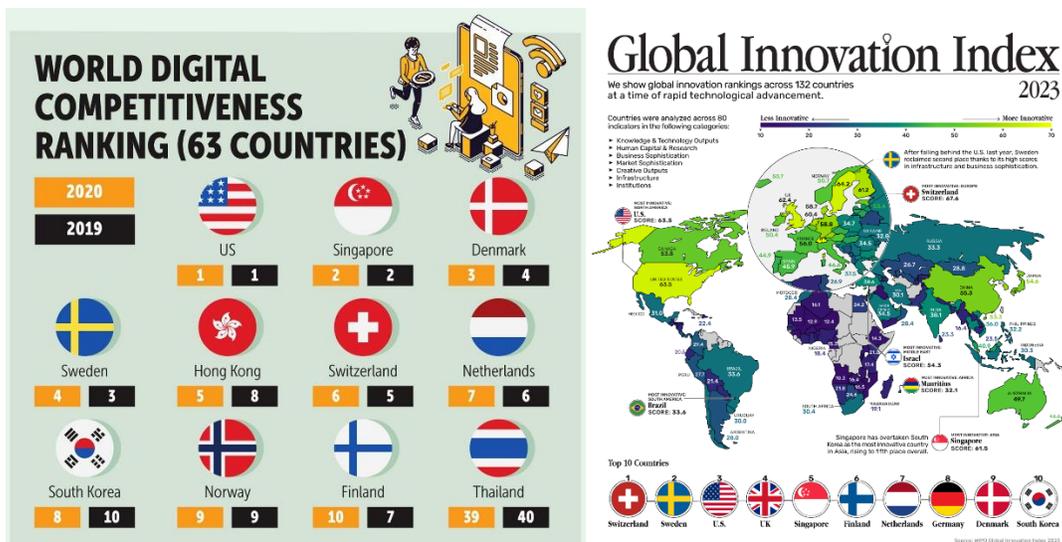
Бүдүүвч 2. БНСУ-ын дижитал хөгжлийн чиглэл



График 3. Амьдралын дижитал өндөр чанартай,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тай



Бүдүүвч 3. Дэлхийн дижитал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ын эрэмбэ, Глобал инновацийн индекс



Ranked: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in 2023

https://www.visualcapitalist.com/most-innovative-countries-in-2023/#google_vignette November 14, 2023

Дижитал үйл явц эдийн засагт асар их хэмнэлт буй болгож, орон зай-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 бидний *stereotype*-ийг үндсээр нь өөрчилж байгаа билээ.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гийн эхний үе шат нь халбага үйлдвэрлэж байгаад сэрээ, эсвэл савх үйлдвэрлэхээр бол зүгээр л программыг нь өөрчлөөд **“enter”** товчлуурыг дарахад л хангалттай. Энэ бол программчлалын хүч юм.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дараагийн үе шатанд интернетэд холбогдсон кибер орон зайд *big data*, ухаалаг төхөөрөмжүүдийн холболтоор үнэ цэнэтэй цоо шинэ өртөг буй болгох үйл явц юм. Энэ бол бизнесийн цоо шинэ моделийг угсарч буй хэрэг даруй мөн. Тиймээс энэ бол цахим эдийн засаг биш, мөн тоон технологи ч биш юм.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аг гэдэг нь нэгд, интернет сүлжээн дээр

суурилна, *хоёрт*, программ хангамж дээр суурилсан эдийн засаг юм, *гуравт*, аппликашн, платформ дээр суурилж байна. *Дөрөвт*, кибер хязгааргүй орон зайд ажиллах эдгээр болно.

Тиймээс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г хөгжлүүлэхийн тулд технологийн суурь байгууламж буюу soft & hard дээд бүтэц, ложистик, инновацийг дэмжсэн бодлого, мэдлэг болон мэдээлжсэн нийгмийн нөхцөл бүрдсэн байх явдал болно.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аг нь төр засгийн дэмжих бодлого, нийгэм, мэдлэгийн хүлээж авах бэлэн байдал, зөөлөн болон хатуу суурь байгууламж (soft & hard infrastructure), үйлчилгээний суурь буюу дээд бүтцээс бүрддэг.

Уур амьсгалийн өөрчлөлтөд “тэсвэртэй эдийн засаг”-ийг (climate-resilient economy) цогцлоох тухай өргөн хүрээнд хэлэлцэгдэж байна. Түүнчлэн ного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цөм болсон сэргээгдэх эрчим хүчний хөгжил тодорхой сорилтуудтай тулгарсаар байна. Дэлхийн дулаарал, уур амьсгалын өөрчлөл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гол мөрний ус татарснаар усан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 салхин станцуудад асуудал үүсч байгаа ажээ.

БНСУ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д суурилсан халуун цөмийн гинжин урвалын реакторыг бүтээж, наран дээрх эрчим хүчийг гарган авах мөч хаяанд иржээ. Үүнийг “artificial sun” гэж нэрлэж байна.⁸⁷ Ус төрөгчийн бөмбөгийн дэлбэрэлт нь нарны өдөр тутмын ердийн амьдрал билээ. Энэ бол эрчим хүчний шавхагдашгүй эх сурвалж мөн. Халуун цөмийн реактор нь бүрэн төгс аюулгүй бөгөөд учир нь, түүн дотор дэлбэрэх зүйл огт байхгүй гэдэг нь хамгийн гол онцлог ажээ. Дулааны болон атомын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уудаас ялгаатай нь халуун цөмийн гинжин урвалын реактор нь хүлэмжийн хийгээр агаар мандлыг бохирдуулахгүй, цацраг идэвхт хорт хог хаягдал ялгаруулахгүй ажээ.⁸⁸ Энэхүү мега төсөл бол цоо шинэ үеийн технологит суурилсан дэлхийн эрчим хүч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хангах тухай асуудал болж байна. БНСУ-ын эрдэмтэд цөмийн нэгдлийн туршилт явуулж нарны цөмөөс долоо дахин их буюу 100 сая хэмийн температурыг үүсгэн дэлхий дээд амжилтыг тогтоов.⁸⁹ Энэхүү туршилт нь ирээдүйн энергийн эх үүсвэрт хүрэх чанарын цоо шинэ алхам болно гэж эрдэмтэд онцолжээ. “Өндөр температур болон өндөр нягтралшилтай плазма нь ирээдүйн цөмийн нэгдлийн дээд амжилтуудыг дахин тогтооход гол үүрэгтэй” гэж туршилтыг амжилттайгаар явуулсан “Fusion Energy” хүрээлэнгийн (KFE) дэргэдэх “KSTAR”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н захирал Си-Бу Юн (Si-Woo Yoon) мэдэгджээ.

“KFE”-ийн “хиймэл нар” гэгддэг хайлуулах судалгааны төхөөрөмж “KSTAR” нь 2023 оны арванхоёрдугаар сараас 2024 оны хоёрдугаар сарын хооронд хийсэн туршилтын явцад плазмыг 100 сая градусын температурт 48 секундийн турш барьж чадсан байна. Энэхүү амжилт нь 2021 онд тогтоосон 30 секундийн өмнөх рекордыг ахиулсан юм.

Цөмийн нэгдэл нь нар болон бусад оддын гэрэлтүүлэх урвалыг давтаж, хоёр атомыг нийлүүлснээр хязгааргүй их эрчим хүч ялгаруулах явдал бөгөөд ба нэг элементийн хоёр атомыг нэгтгэж гурав дахь, илүү хүнд элементийн атомыг үүсгэдэг явц ажээ. Реакторын түүхий эд нь uranium 235 биш, харин байгальд элбэг байдаг устөрөгчийн изотопууд болох дейтерий (deuterium) ба тритий (tritium) (хэдэн грамм) ажээ. Тиймээс цацраг идэвхит бодис ялгаруулна гэсэн ойлголт байхгүй юм. Цэвэр эрчим

⁸⁷ ITER: *World's largest nuclear fusion project begins assembly*. 28 July 2020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53573294>

⁸⁸ ITER: *Ceremony marks start of the assembly phase*. 28 July 2020, Brussels Energy

https://ec.europa.eu/info/news/iter-ceremony-marks-start-assembly-phase-2020-jul-28_en

⁸⁹ ‘Artificial sun’ sets record for time at 100 million degrees in latest advance for nuclear fusion

<https://edition.cnn.com/2024/04/01/climate/nuclear-fusion-record-korea-climate-intl/index.html>

хүчний шийдлийн “ариун дагшин” гэгддэг энэхүү цөмийн нэгдэх явц нь нүүрстөрөгчийг огт ялгаруулахгүйгээр эрчим хүчний шавхагдашгүй эх үүсвэрийг бий болгоход оршино.

Дижитал худалдаа, санхүүгийн технологийг (FinTech) эдүгээ олон нийт өргөн хүрээнд ашигладаг өдөр тутмын энгийн зүйл болов. Финтек гэдэг нь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д суурилсан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буюу блокчейн технологийн санхүүгийн салбар дахь access гэж томъёолж болно. Өнөөдөр online худалдаа,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загварыг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н хөгжүүлэлтийг ашиглан өөрчилж буй шинэ салбар юм.⁹⁰ *Нөгөө талд хөгжлийн чухал тренд нь банк,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 үүрэн телефоны компаниуд хоорондын интеграци гэж нэрлэж болно.* Өнөөдөр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хэмжээнд гүйлгээнд буй мөнгөний 90 хувь нь цахим хэлбэрт, 10 хувь нь бэлнээр хийгдэж байгаа бол АНУ-д 30 долларын 29 нь цахим хэлбэрт 1 доллар нь бэлнээр хэрэглэгдэж байгаа ажээ.

Их өгөгдөл буюу *big data* нь шинэ стратеги, багцыг бий болгох, хэрэглэгчийн зарцуулалтын зуршилд дүн шинжилгээ хийх, залилангийн илрүүлэлтийг сайжруулах, маркетингийн стратегийг бий болгохын тулд үйлчлүүлэгчий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болон зах зээлийн өөрчлөлтийг урьдчилан таамагл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гож байгаа ажээ.⁹¹

III.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дижитал хөгжлийн эрхзүйн орчин

Хууль эрхзүйн орчин: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Инновац, цахим бодлогын байнгын хорооны хурлын үеэр мэдээллээр Монгол Улсын хүн ам цөөн ч 2022 оны 7 дугаар сарын байдлаар гар утас хэрэглэгчийн тоо 4.3 саяд хүрчээ. Үүний 3.4 сая ухаалаг гар утас хэрэглэгч байгаагаас 64 хувь нь 4G өндөр хурдны интернэт хэрэглэдэг байна. Нийт ухаалагч гар утас хэрэглэгчдийн 93 орчим хувь нь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данстай бөгөөд 22 орчим хувь нь уг дансаа гар утсаараа дамжуулан удирддаг байна. Ухаалагч гар утас хэрэглэгчдийн дийлэнх хувь буюу 2.5 сая хэрэглэгч нийгмийн сүлжээнд идэвхтэй оролцдог. Нийт 96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160 орчим мянган оюутан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гийн 2.3 хувь нь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ын чиглэлээр суралцдаг.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 ДНБ-ий 2.3 хувийг бүрдүүлдэг. Монгол Улсад нийт 3,500 орчим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 мэдээллийг технологийн компани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гаагаас 33 хувь нь санхүүгийн, 30 хувь нь боловсролын, 14 хувь нь бусад салбарын чиглэлээр ажилладаг байна.⁹²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н орчинд 5G сүлжээнд шилжих бэлтгэлийг Univision эхлүүллээ.

2022 оны II улирлын байдлаар интернет хэрэглэгч 4.1 сая болж, өмнөх оны мөн үеийнхээс 3.4 хувь, кабелийн телевиз хэрэглэгч 975.7 мянга болж, өмнөх оны мөн үеэс 3.5 хувиар тус тус өссөн байна.⁹³ Дээрх тоон үзүүлэлтээс харахад Монгол Улсад финтек хөгжих боломж хэдийн бүрдсэн гэж дүгнэж болохоор байна

УИХ-ын Инновац, цахим бодлогын байнгын хорооноос Монгол Улсад цахим шилжилт хийх хууль, эрхзүйн орчныг бүрдүүлэв. УИХ-ын 2021 оны намрын ээлжит чуулганы хугацаанд Инновац, цахим бодлогын байнгын хороо дангаараа болон Хууль зүй,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болон

⁹⁰ Schüffel, Patrick (2016). Taming the Beast: A Scientific Definition of Fintech.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pp. 32–54

⁹¹ Xu, Lei; Gao, Runpeng; Xie, Yu; Du, Peng (January 2019). [“To Be or Not to Be? Big Data Business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the Supply Chain”](#). Sustainability. 11 (8): 2298. doi:10.3390/su11082298.

⁹² УИХ-ын Инновац, цахим бодлогын байнгын хорооноос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ын байгууллага, мэргэжилтэн, судлаачдын хамтарсан “Цахим шилжилтэд анхаарах асуудал” сэдэвт анхдугаар уулзалт, хэлэлцүүлэг. 2022.07.19 <http://www.parliament.mn/n/1y4yn>

⁹³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ны мэдээлэл. 2022.08.17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йнгын хороотой хамтран хэлэлцэж УИХ-ын нэгдсэн чуулган *Нийтийн мэдээллийн ил тод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Хүний хувийн мэдээлэл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хууль, Виртуал хөрөнгий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эгчийн тухай хууль, Кибе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анхдагч хууль зэрэг таван хуулийг* баталснаар Монгол Улс дэлхий дахинаа өрнөж буй аж үйлдвэрийн IV хувьсгалд суурилсан дижитал үйл явцтай хөл нийлүүлэн алхаж, цахим шилжилт хийх хууль, эрхзүйн орчин бүрдэж байгаа юм.⁹⁴

Дэлхий дахинд өргөн тархаж буй блокчэйн технологид суурилса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чилгээ Монгол Улсад ч өргөн дэлгэрч ялангуяа 2021-2022 онд виртуал хөрөнгийн арилжааны платформын тоо ихээр нэмэгдэж, койн, токен гаргах нь олширч, олон нийтээс хөрөнгө татахын зэрэгцээ иргэд, олон нийт эдгээр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х сонирхол нь өсөн нэмэгдсээр байгаа юм.

Энэ хууль батлагдсанаар төвлөрсөн бус тархмал систем (блокчэйн), дэвшилтэт технологи дээр суурилсан санхүүг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чилгээ, виртуал хөрөнгийг хүлээн зөвшөөрдөг, цахим шилжилтийг дэмжсэн, Виртуал хөрөнгий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эгчийн холбогдох харилцааг зохицуулсан эрхзүйн орчинтой улс орон албан ёсоор болсноор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дын сонирхлыг татах, цааши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эргэлт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суурь нөхцөл бүрдэж байна.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шгүй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болсон финтех хэмээх хүртээмжтэй санхүүгийн цоо шинэ үйлчилгээ, дижитал худалдаа Монгол Улсад ч хөгжлийн шинэ тренд болов.

IV. Төгсгөл

XX зууны сүүлч, XXI зууны эхнээс харилцан хамааралд суурилсан *globalization* эргэлт буцалтгүй болж байгаа тухай ихээхэн ярьж бичиж байсан, харин эдүгээ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хэмжээнд бүх салбарт *digitization* эргэлт буцалтгүй болж буй тухай, түүний хүн төрлөхтөнд үзүүлж буй нөлөөллийн тухай ярьж бичиж байна. Дижиталчлал эдийн засагт асар их хэмнэлт буй болгож, орон зай-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 бидний *stereotype*-ийг орвонгоор нь өөрчлөв.

БНСУ-д дижитал үйл явц нийгэм-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х салбарыг хамарч, эргэлт буцалтгүй үйл явц болов. Өнөөгий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нь шинжлэх ухаан-технологийн урьд үзэгдээгүй ахиц, дэвшлийг Шинэ мянганд гаргах материаллаг болон оюун санааны үлэмж чадавхтай орон юм. БНСУ нь мэдээлэл,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технологи, өндөр технологийн суурь буюу дээд бүтэц (infrastructure), нэг хүнд оногдох нийтийг хамарсан өндөр хурдны интернетийн сүлжээ, гол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цүүдийн хоорондох интеграцлал, инновацчлалаар дэлхийд хамгийн өндөрт орж байгааг дахин онцолж байна.

БНСУ дижитал худалдааны сүлжээгээ өргөжүүлэхийн тулд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элэлцээрт нэгдэхийг зөвшөөрчээ. БНСУ тийнхүү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ч орнууд болох Чили, Шинэ Зеланд, Сингапуртай нэгдэн 4 гишүүнтэй эвсэл байгуулав.⁹⁵ ЭЗХАХБ буюу OECD-нау Сайд нарын зөвлөлийн хурлын үеэр Парист анхны гишүүдтэй БНСУ хэлэлцээ хийжээ. Энэ нь дижитал худалдааны асуудалд шинэ хандлаг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уй болгосон дэлхийн анхны үндэстэн дамнасан дижитал гэрээ юм. Хэлэлцээрийн дагуу БНСУ дижитал худалдаанд суурилсан экспортыг

⁹⁴ “ИЦББХ: Монгол Улсад цахим шилжилт хийх хууль эрх зүйн орчныг бүрдүүллээ”

<http://parliament.mn/n/ic3yn>

⁹⁵ [#SouthKore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igital trade network](#). Jun 9, 2023

[#SouthKorea #digital content #Arirang News](#)

нэмэгдүүлж, дижитал контент, үйлчилгээг гадаадад өргөж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гаагаа мэдэгдэв. Засгийн газар гишүүнчлэлээ 2023 оны эцэст дуусгасан юм.

2023 оны 5 дугаар сард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ноо Монгол Улс, АНУ, БНСУ-ын гурван тал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шинэ форматаг үндэс суурь тавигдав. Анх удаа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уулзалтад ГХЯ-ны Бодлого, төлөвлөлтийн газрын захирал Г.Бямбасүрэн, БНСУ-ын талыг тус улсын Гадаад хэргийн яамны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газрын захирал Чой Ён-жун, АНУ-ын талыг Төрийн департаментын Туслах Төрийн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ын орлогч Марк Ламберт нар тэргүүлэн оролцсон байна. Анхдугаар уулзалтаар талууд бүс нутаг болон олон улсы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харилцан сонирхсон өргөн хүрээний асуудлаар санал солилцож, тээвэр ложистикийн сүлжээ, эрчим хүч, эрдэс баялаг, хүн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уур амьсгалын өөрчлөлт, хөгжл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чиглэлээ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аар тогтсон байна. Талууд гурван талт уулзалтын механизмыг цаашид тогтмол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аар тохиролцож, Хамтарсан хэвлэлийн Мэдээ гаргав.⁹⁶ Хэвлэлийн мэдээнд “...Эрчим хүч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нөөц, уур амьсгалын өөрчлөлттэй тэмцэх, тээвэр, нийлүүлэлтийн сүлжээ, хүн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оюуны өмчийн эрх, түүнчлэн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боломж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замаар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г гүнзгийрүүлэх хүсэлтэй байгаагаа талууд онцлон тэмдэглэв. Гурван тал энэ зорилгоор янз бүрийн түвшинд, тэр дундаа дэлхийн эрдэс баялгийн нийлүүлэлтийн сүлжээнд Монгол Улсын гүйцэтгэх үүрэг зэрэг асуудлаар өндөр түвшний яриа хэлэлцээг үргэлжлүүлэхээр шийдэв.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цэвэр эрчим хүчний шилжилтийн дэлхийн ханган нийлүүлэлтийн сүлжээг бэхжүүлэхэ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ах хүсэлтэй байгаагаа илэрхийлж, АНУ,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г 2023 онд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ноо удахгүй болох эрдэс баялаг болон холбогдох асуудлаар тусад нь гурван талт уулзалт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ыг урьсан нь амжилттай болов.⁹⁷

Дээрх Хамтарсан мэдэгдлийн дагуу АНУ, Монгол, БНСУ гурван талын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асуудлаарх анхны яриа хэлэлцээ 2023 оны 6 дугаар сард Улаанбаатарт болов. УУХҮ-ийн сайд Ж.Ганбаатар гурван талт яриа хэлэлцээн оролцож буй АНУ-ын Төрийн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ын орлогч Хосе В.Фернандес, БНСУ-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оёрдугаар дэд сайд Ий До-хун нарыг хүлээн авч уулзах үеэр Монгол Улсын хэмжээнд ашигт малтмал хайх, ашиглахыг хориглосон, хязгаарласан талбай нийт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75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цаашид Монгол Улс өөрийн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хэтийн төлөвийг судалж, дэлхийн хэмжээнд нийлүүлэлт дутмаг ашигт малтмалыг олборлох, нэмүү өртөг шингэсэ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двэрлэхийг зорьж байгаа тухай мэдээлсэн юм. Уулзалтаар уул уурхай, хүнд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татах,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салбарын хөгжлийг шинэ шатанд гаргах зорилгын хүрээнд чухал ашигт малтмалыг онцлон хэлэлцэв. Чухал ашигт малтмалыг олборлох чиглэлээр АНУ, БНСУ-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байна. Мөн “Монгол Улс дэлхийн чухал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нөхцөл байдал” сэдвээр илтгэл тавьж Монгол Улсын талаас эрчим хүчний чиглэлээр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байнг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албар комисс байгуулах, газрын тос, байгалийн хийн хайгуулын чиглэлээ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алаар ярилцаж, салбарын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г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чадавхж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холбогдох мэргэжилтэнг Монгол Улсад ажиллуулах хүсэлтэй байгааг уламжилсан юм.⁹⁸

⁹⁶ Монгол Улс, БНСУ, АНУ-ын гурван талт анхдугаар уулзалт болов. 2023.05.31 <https://mfa.gov.mn/73961>

⁹⁷ Joint Press Release on the Launch of the Mongolia-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Trilateral Meeting. May 30, 2023 MFA, Ulaanbaatar, Mongolia <https://mn.usembassy.gov/pr-060523/>

⁹⁸ Inaugural U.S.-Mongolia-ROK Critical Minerals Dialogue Held in Ulaanbaatar. Media Note. June 27, 2023 <https://mn.usembassy.gov/pr-062723-2/>

2023 оны 11 дүгээр сард Монгол Улс, БНСУ ховор металл, бусад чухал ашигт малтмал нийлүүлэх чиглэлээ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г байгуулав. Хоёр тал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үзүүлэх хөгжлийн албан ёсны тусламжийн хүрээнд ховор металлын салбарт түншлэх хамтарсан төв байгуулах төслийг эхлүүлсэн байна. “Энэхүү төсөл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вьд ховор металлуудаа нэмүү өртөг шингэсэн бүтээгдэхүүн болгон хувиргах, Солонгосын талд дотоодын нийлүүлэлтийн сүлжээгээ бэхжүүлэх боломжийг бүрдүүлнэ гэдэгт найдаж байна” гэж Худалдаа, аж үйлдвэр, эрчим хүчний бодлогын асуудал эрхэлсэн дэд сайд Ий Хо-хён (Lee Ho-hyeon) Улаанбаатарт болсон ёслолын үеэр мэдэгджээ.⁹⁹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Л.Оюун-Эрдэнийн 2023 оны 2 дугаар сард БНСУ-д хийсэн албан ёсны айлчлалын үеэр Ховор металл нийлүүлэх сүлжээн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лын Санамж бичгийг хоёр тал байгуулсан б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үрээнд Монгол Улсад ховор металлы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г байгуулсан нь хоёр улсы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чухал хэсэг гэж үзэж байна.¹⁰⁰

Солонгос иргэд Монголд, монгол иргэд БНСУ-д өөр өөрийн орны төлбөрийн апп ашиглан төлбөр тооцоо хийх боломжтой болов. Олон улсын финтек “Send.MN ББСБ” ХХК, төлбөр тооцооны QRau үйлчилгээ эрхлэгч “ККТТ” ХХК болон БНСУ-ын “GLN” гэсэн гурван компани хамтран солонгос иргэд Монголд, монгол иргэд БНСУ-д өөр өөрийн орны төлбөрийн аппликэйшнээр төлбөр тооцоо хийх үйлчилгээг нээж, өнөөдөр гурван тал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аталгаажуулж гарын үсэг зурлаа. Монгол улсад жилд дунджаар 100 гаруй мянган солонгос иргэ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орилгоор ирж, нэг тэрбум гаруй долларын орлого оруулдаг. Сурч хөдөлмөрлөх, эмчлүүлэх боло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орилгоор жилд 120 мянган монголчууд БНСУ руу аялж байгаа юм.¹⁰¹

Монгол Улсад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н хатуу болон зөөлөн дээд бүтэц, ложистикийг улам сайжруулах, 5G технологид шилжих үйл явц хэдийн эхлэв.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e-mongolia portal үйлчилгээг олон нийтэд хүртээмжтэй болгох чиглэлд үлэмж амжилт гаргалаа. Үүнд: Лавлагаа, тодорхойлолт, Бичиг баримт захиалга, Нийтлэг хэрэглээ, Газар,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ө, Эрүүл мэнд, Зөвшөөрөл, тодорхойлолт, дүгнэлт акт, Бүртгэл, шилжилт хөдөлгөө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батлан хамгаалах,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ал, Нийслэл, аймаг, Яам тамгын газар гэсэн иж бүрэн чиглэлийг хамарч байгаа нь дэлхийд дээгүүр үзүүлэлт болов.

Монгол Улсад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 ү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аас үйлдвэрлэлийн (industry) салбар руу шилжиж байна. Энэ нь 4G-гээс 5G, 6G рүү шилжинэ. Жишээн нь уул уурхай, тээвэр, ложистик, жолоочгүй машин, ухаалаг хот зэрэгт шилжинэ. Тэгэхлээр суурь бүтэц буюу дээд бүтцийг бүрдүүлэх явдал маш чухал болж байна.

Эцэст нь, Төр засаг хувийн хэвшлийн энтрепренёр чадавхийг үнэлэх, инноваци,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йн хөгжлийг тууштай дэмжих явдал чухал билээ. Тиймээс энэ чиглэлд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салбар дахь дижитал салбар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улам гүнзгийрүүлэх явдал болно.

⁹⁹ Korea, Mongolia launch cooperation committee for rare metals supply. 2023-11-20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11/113_363533.html

¹⁰⁰ “South Korea-Mongolia launch rare metals cooperation amid geopolitical risks” November 21, 2023

<https://koreapro.org/2023/11/south-korea-mongolia-launch-rare-metals-cooperation-amid-geopolitical-risks/>

¹⁰¹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д төлбөр тооцоог хэмнэлттэй, хурдан хийх боломж бүрдлээ. 2024-04-01

<https://news.mn/r/2711639/>

НОМ ЗҮЙ

1.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УБ., 2010
2. “Алсын хараа-205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УБ., 2020.05.13
3. Шинэ сэргэлтийн бодлого.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21 оны 106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1 дүгээр хавсралт.
4. Виртуал хөрөнгий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эгчий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УБ., 2021.12.17
5. Кибе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УБ., 2021.12.17
6.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УБ., 2021.12.17
7. Хүний хувийн мэдээлэл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УБ., 2021.12.17
8. Нийтийн мэдээллийн ил тод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УБ., 2021.12.17
9. Д.Уламбаяр.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н парадигм: хөгжлийн шинэ чиг хандлага»- “*Pax Mongolica*” Vol.1 2016 №1 pp. 43-56
10. Д.Уламбаяр. “Аз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загварын татах хүч”-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 дахь зөөлөн хүчний бодлого ба Монгол Улс: Судалгаа, дүн шинжилгээ. УБ., 2021, 502-519 дэх тал
11. Д.Уламбаяр. “Санхүүгийн салбарын дижитал шилжилт”-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аг. ШУА, ОУСХ, УБ., 2023, 166-192 дахь тал
12. Д.Уламбаяр. “Цахим худалдааны салбарын хөгжлийн чиг хандлага”- 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аг. ШУА, ОУСХ, УБ., 2023, 193-223 дахь тал
13. Д.Уламбаяр. “Монгол Улсын дижитал шилжилтийн чиг хандлага”-Дижитал эдийн засаг. ШУА, ОУСХ, УБ., 2023, 224-252 дахь тал
14. Цахим алт 2.0: Биткойн, криптовалюта, блокчейн ба Монгол. Шинэчилсэн хэвлэл. УБ., 2021
15. T.W.Kang. Is Korea the next Japa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Strategy, and Tactics of America’s Next Competitor. Free Pres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N.Y.: 1989
16. *e-World: Towards Digitization*. Ang Byong-yub speech. “The Korea Times” 2017.11.09
17. White Paper. StorePay Coin. SPC. Блокчейнд суурилсан финтекийн шийдэл. УБ., 2021
18. Монголбанк. <https://www.mongolbank.mn/documents/>
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Klaus Schwab. 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20.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The NRI 2019 Countries. <https://networkreadinessindex.org/2019/nri-2019-countries/>
21. China’s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Issued Plan by State Council. China’s Strengths Creates Innovation Miracle. <https://www.newamerica.org/cybersecurity-initiative/digichina/blog/full-translation-chinas-new-generation-artificial-intelligence-development-plan-2017/>
22. Russian “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period until 2030”. Moscow 11 October, 2019 <https://tass.com/economy/1082644>
23.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October 2020 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_2020.pdf
24. Annex B: APEC Framework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Digital Era.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7/2017_aelm/Annex-B
25.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The NRI 2019 Countries. <https://networkreadinessindex.org/2019/nri-2019-countries/>

Changes of Korea's policy for foreign workers in manufacturing sector

БНСУ-ы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 дахь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бодлогын өөрчлөлт

G.Munkhnasan(Ph.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unnsa@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policies and changes regarding foreign workers in Korea's manufacturing sector. As Korea's total population declines, labor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ccordingly, several changes will appear in policies related to foreign workers, and foreign employment policies are also expected to improve. First, the main goals of the Korean government's foreign manpower policy can be summarized as reducing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and reducing non-professional manpower. In addition, in order to meet labor market demands in the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ectors, a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employ foreigners with a high level of Korean language skills, the ability to adapt to Korean culture and social life, and professional skills in Korea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o enable them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in the future. Korean support short- and long-term flexible policies to supply manufacturing manpower, and support is provided to overseas Koreans, foreign students,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with specific manufacturing skills.

1.Өмнөх үг

БНСУ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өгжлийн байгууллага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ын орнуудын дунд төрөлт хамгийн бага байгаа хүн амын бүтэц нь “хөгширч” буй улс юм. БНСУ-ын хүн амын төрөлт маш бага байгаагаас шалтгаалан дэлхийд эхний 10-т багтдаг үйлдвэрлэгч-экспортлогч ор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ын ирээдүй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лын бэрхшээл нь улам бүр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болон гарч ирээд байна. Тиймээс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ажиллуулах тухай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одлогод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ихээхэн өөрчлөлт орж байна.

Энэхүү өгүүллийн зорилго нь БНСУ-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 дахь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талаарх бодлого, түүний өөрчлөлтийг судлахад оршиж байна.

Өмнөх судалгааны тухайд БНСУ-ын хувьд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тай холбоотой судалгаа маш олон байдаг.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бодлогыг илүү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гож,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г зөвхөн мэргэжлийн бус салбарт ажилл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оруулж ирэх бус өндөр боловсролтой цагаач иргэд, гадаадын оюутнуудыг цаашид БНСУ-д оршин суух, амьдрах нөхцөлөөр хангах, өөрийн улсын иргэн болгоход ихээхэн анхаарч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Чуи Бён Гю, И Жунь Ён¹⁰² (최병규, 이준영) нар судалгаандаа (2023)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талаарх бодлогыг өндөр хөгжилтэй орны статустай нийцсэн загварт шилжүүлэх,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урт хугацаанд оршин суух загварыг санал болгожээ. И Гю Юун (이규웅) ба бусад¹⁰³ судлаачдын (2020) судалгаандаа гадаад ажилчдыг татахад нээлттэй байдал чухал бөгөөд ажлын визийг цагаачлалын байнгын визтэй холбоотой болгохыг санал болгосон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ад энэ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ховор байгаа бөгөөд Л.Долгормаа (2009)¹⁰⁴ БНСУ-ын гадаадын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бодлогын талаар судалж монгол улсын хөдөлмөрийн бодлоготой уялдуулах тухай өгүүлэл бичиж байжээ. Харин А.Солонго (2011)¹⁰⁵, Ц.Болормаа (2019), Б.Мөнхжаргал (2022) нар судалгаандаа БНСУ-д ажил эрхлэхээр шилжиж буй монгол ажиллагсадын нөхцөл байдлыг судалж БНСУ-ын бодлогыг холбон тайлбарласан байна.

Энэхүү өгүүлэлдээ баримт бичгийн судалгааны арга болон тоон мэдээллийг боловсруулах аргыг ашиглаж чанарын болон тоон судалгааг хийсэн юм. БНСУ-ын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бодлогото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БНСУ-ын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 Аж үйлдвэр хүний нөөцийн газар, Хууль эрх зүйн яамны мэдээлэл, баримт бичгүүд, мэргэжлийн судлаачдын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эл, БНСУ дахь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интэй холбоотой статистикуудыг ашигласан.

Энэхүү өгүүлэл нь 5 хэсгээс бүрд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өмнөх үгийн дараах хоёрдугаар хэсэгт БНСУ-ын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бодлого, тогтолцоог судлан үзлээ. Гуравдугаар хэсэгт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бодлогод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гарч байгаа өөрчлөлтүүдийг судлан үзэж, дөрөвдүгээр хэсэгт БНСУ дахь монгол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талаар судаллаа. Сүүлийн тавдугаар бүлэгт дүгнэлтээ тусгасан болно.

2. БНСУ-ын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бодлого, тогтолцоо

БНСУ нь 1980-аад оноос эхлэн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олын асуудлаа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улд гадаад ажилчдыг хүлээн авч эхэлсэн бөгөөд 1991 он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дадлагажигчийн тогтолцоог бий болгож,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шилжилт хөдөлгөөн эрчимтэй болс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хүчин хомсдох болсон шалтгаан нь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 дахь ажлын нөхцөл нь 3Д (3D:Difficult, Dirty, Dangerous) буюу хүнд, бохир, аюултай орчин байдаг учраас солонгосчууд өөрсдөө үйлдвэрт ажиллахаас зайлсхийдэг болсон юм. Мөн БНСУ-д нэг хүнд ногдох ДНБ нь 2024 онд 34,653 ам доллар байгаа бөгөөд дэлхийн нийт улс орнуудаас 32-р жагсаж байна. Амьжиргааны түвшин нь сайжирч, өрхийн орлого нэмэгдсэн нь солонгосын иргэд ялангуяа залуучуу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мэргэжлийн бус хүнд ажил хийх сонирхолгүй болоход бас нөлөөлж байна.

Мөн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БНСУ-д төрөлт эрс багасч, хүн ам нь “хөгширч”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дутагдал ороод байна. БНСУ нь сүүлийн 16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төрөлтийг бууруулах арга хэмжээнд

¹⁰² 최병규, 이준영. 2023. 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이민정책학보』 제 6 권 제 1 호(2023.6): 153-173

¹⁰³ 이규웅, 최홍엽, 주수인. 2020. 외국인력 정책 과제-개방과 규제. 한국 노동연구원.

¹⁰⁴ Л.Долгормаа. 2009. БНСУ-ын гадаадаас авах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талаарх бодлого ба түүний чиг хандлага.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сэтгүүл. 2009/No2

¹⁰⁵ А.Солонго. 2011. Гадаадад ажил эрхлэхийн төлөөх шилжилт хөдөлгөөн, хүн ам зүйн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Монголын хүн ам зүй сэтгүүл. Дугаар (367) 20.

280 их наяд вон зарцуулсан ч хүн ам нь нэмэгдэхгүй¹⁰⁶ байгаа бөгөөд 2024 оны 3 сарын байдлаар улс даяар 157 бага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суралцагч байхгүй байсан байна¹⁰⁷. Ялангуяа хөдөөгийн бүс нутгийн ажлын байрууд нь ажиллах хүчнээр дутагдаж, газар тариалан, загас агнуур, үйлдвэрүүд зогсох аюул нүүрлэж байна.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д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 авч ажиллуулдаг 5 төрлийн бодлого хэрэгжиж байна.

1)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х тогтолцоо (Ерөнхий)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х тогтолцоо нь “Гадаадын ажилчин ажиллуулах тухай хууль”-ийн дагуу дотоо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ээр хангагда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үүд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д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г хууль ёсны дагуу ажиллуула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дог тогтолцоо юм. Энэхүү тогтолцоог 2003 онд “Гадаадын ажилчин ажиллуулах тухай хууль”-ийн дагуу баталж, 2004 оны 8 дугаар сараас мөрдөж эхэлсэн бөгөөд одоо ч мөрдөгдөж байна. Энэ тогтолцооны дагуу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эрхлэлт (Е-9), эсвэл ажил эрхлэхээр зорчих (Н-2) визээр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г ажиллуулдаг.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х тогтолцооны дагуу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ийн удирдлага, хамгаалалттай холбоотой гол асуудлыг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улд Ерөнхий сайдын дэргэд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бодлогын хороо” байгуулан ажилладаг. Энэ хороо нь жил бүр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 тус бүрийн хүний нөөцийн хангамжийн байдалтай уялдуулан, ажиллуула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өрөл, хүний тоог нийтэд нь буюу улирал тус бүр, үйлдвэрийн төрөл тус бүрээр квот тогтоож, холбогдох асуудлыг хянан шийдвэрлэдэг.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нийт 16 улс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ч байна¹⁰⁸.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аас гадна зарим онцлог салбарыг дурдвал Барилгын салбарт Тайланд, Вьетнам, Камбож, Мьянмар, Шри-Ланка, Хятад улс, Хөдөө аж ахуй, мал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т Балба, Вьетнам, Тайланд, Камбож, Мьянмар, Хятад улс, Загас агнуурын салбарт Индонез, Вьетнам, Зүүн Тимор, Шри Ланка, Хятад улс,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т Монгол, Узбекистан, Хятад улсыг оруулахаар тогтсон байна¹⁰⁹.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х тогтолцооны дагуу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эрхлэхээр (Е-9) орж ирсэн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гсдыг харвал 2014-2019 онд тогтмол хэмжээгээр орж ирж байсан байна. 2020 онд ковид-19-өөс шалтгаалан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гсдын тоо орж ирэх тоо буурсан боловч 2021 оноос эхлэн эрчтэй нэмэгдэ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2022 онд өмнөх оноос 8 дахин нэмэгдсэн бол, 2023 онд 100 мянга гара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 орж иржээ. Энэ нь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хүчин маш их дутагдалтай,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эрэгцээ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г харуулж байна.

Хүснэгт 1. Е-9 визээр орж ирсэ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тоо, салбараар

¹⁰⁶ 최병규, 이준영. 2023. 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이민정책학보』 제 6 권 제 1 호(2023.6)

¹⁰⁷ 초등학교 157곳, 1학년 입학생 없다·저출생 쇼크' 점점 현실로. 2024.02.26.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1E3FF7C>

¹⁰⁸ 2004 онд Индонез, Вьетнам, Тайланд, Филиппин, Шри Ланка, Монгол гэсэн 6 улс байсан бөгөөд 2006 онд Узбекистан, Пакистан, Хятад, Камбож, 2007 онд Бангладеш, Балба, Мьянмар, Киргизстан, Зүүн Тимор, 2015 онд Лаос нэмэгдэн нийт 16 улс байдаг.

¹⁰⁹ 조영희 외. 202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Салбар	НИЙТ	Үйлдвэр	Барилгын үйлдвэрлэл	ХАА үйлдвэрлэл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	Загасны үйлдвэрлэл
2014	51,556	40,874	2,299	6,047	91	2,245
2015	51,019	40,223	2,228	5,949	71	2,548
2016	59,822	47,425	2,593	7,018	68	2,718
2017	50,837	39,415	1,846	6,855	100	2,621
2018	53,855	43,695	1,405	5,820	90	2,845
2019	51,365	40,208	1,651	5,887	99	3,520
2020	6,688	4,806	207	1,388	1	286
2021	10,501	7,455	595	1,841	18	592
2022	88,012	68,350	1,657	11,664	125	6,216
2023	100,148	79,108	2,323	11,979	265	6,473

Эх сурвалж: БНСУ-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порталыг ашиглан зохиогч боловсруулав.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27_N001

2023 оны эцсийн байдлаар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 дахь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салбараар нь харвал хамгийн их нь үйлдвэрт 79% байна. Үүний дараа хөдөө аж аху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12%, загас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6.5%, барилг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2.3% нь ажил эрхэлж байна.

2)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огтолцоо

2002 онд нэвтрүүлсэ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ийн энэ тогтолцоо нь Хятад болон хуучин ЗХУ-д хамаарч байсан улсууд болон бусад гадаад улсад амьдардаг гадаад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нүүдэд 3 жил хууль ёсны дагуу ажилла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дог тогтолцоо юм. Энэ тогтолцоо нь зөвхөн гадаад улсын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нүүдэд хамаарах бөгөөд бусад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үйлчилдэггүй.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огтолцоо нь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ад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дог ерөнхий тогтолцоотой харьцуулахад хүсэлт гаргах, хилээр нэвтрүүлэх, цагаачлах, ажилд авах зэрэг үйл явцыг нь ихээхэн хөнгөвчилдөг онцлогтой. Гадаадын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нүүд нь ихэвчлэн үндсэн хэл солонгос хэл байдаг бөгөөд ёс заншил, соёлын хувьд адилхан байдаг учраас ажиллах хүчнээр авахад ихээхэн давуу талтай байдаг байна.

2023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ын эцс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д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гадаадын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тоо 848,724 болж, нийт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дын 33,8%-ийг (нийт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эзэлж байна.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тусгай зөвшөөрөл авсан гадаад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чуудыг улсын харьяалаар нь харвал хятад иргэншилтэй 77.3% (6561420), америк иргэншилтэй 5.8% (48837), Узбекистан иргэншилтэй 5.1% (43320)-ийг эзэлж байна¹¹⁰. Гадаад иргэншил солонгосчууд 4 хэлбэрээр оршин суудаг бөгөөд гадаад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 иргэн (F-4), ажил эрхлэхээр зорчих (H-2), байнгын оршин суух (F-5), дагалдан (F-1) гэсэн виз авдаг.

3)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 хийх тогтолцоо

¹¹⁰ 2023.1231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https://www.ekw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1>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 хийх тогтолцоо нь нэг жилээс дээш хугацаагаар тогтмол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эд хүндрэлтэй байдаг хөдөө аж ахуй, загасны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ын улирлын шинж чанарыг харгалзан 2015 оноос эхлэн нэвтрүүлсэн тогтолцоо юм. Энэхүү тогтолцоо нь 2 хэлбэртэй байдаг бөгөөд 3 сары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С-4 виз) болон 5 сар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Е-8 виз) зөвшөөрөл олгодог. 2019 оноос эхлэн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тодорхой шаардлага хангасан¹¹¹,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д оролцох хүсэлтэ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г энэ тогтолцоонд бас хамруулж байна.

Энэ тогтолцооны үр дүнг харвал 2015-2021 онд нийт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чдын тоо 8391 байсан нь хөдөө орон нутгий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олыг шийдвэрлэхэд огт хангалтгүй байсан байна¹¹². Өөрөөр хэлбэл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 хийх тогтолцоо нь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эрэлтийг цаг тухайд нь хангах асуудлыг шийдвэрлэж чадаагүй юм. Тиймээс Хууль зүйн яамнаас 2021 оны нэгдүгээр сараас эхлэн зарим нэг хөнгөвчлөх арга хэмжээг авч нэг фермд 12 хүртэл хүнийг үргэлжлүүлэн ажиллуулах, заавал нэг сараас дээш хугацаагаар биш долоо хоногоос дээш ажиллуулж болох зэргээр өөрчилсөн юм.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чдыг зөвшөөрч байгаа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 нь ① байгууламжийн цэцэрлэгжүүлэлт ба тусгай тариалалт ② мөөг ③ жимсний мод ④ хүн орхоодой ба ерөнхий хүнсний ногоо ⑤ суулгац тариалалт ⑥ бусад цэцэрлэгжүүлэлт ⑦ бусад хүнсний үр тариа ⑧ тариалангийн талбай зэрэг юм. Загас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увьд ① далайн ургамал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лэх, тариалах ② загас хясаа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лэх гэсэн салбарууд ордог.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хүч илгээх улс орнуудад ямар нэгэн хязгаарлалт байхгүй ч дийлэнх нь Филиппин, Вьетнам зэрэг Зүүн Өмнөд Азийн орнуудаас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 хийх ажилчдыг авч байна. 2022 оны долдугаар сарын эцсийн байдлаар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6152 ажилчин ажиллаж байсан бөгөөд сүүлийн хагаст 5452 ажилчин шинээр орж байжээ. Хууль зүйн яамнаас орон нутаг дахь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д 2022 онд 19,718, 2023 онд 40,647 гадаад ажилчин авч болохыг зөвшөөрсөн¹¹³ байна. Энэ нь БНСУ-ы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хүчин ихээхэн хомсдож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эрэгцээ огцом өсч байгааг харуулж байна.

4) Загас агнуурын үйлдвэрлэлд гадаадын ажилчин авах тогтолцоо

Загас агнуурын үйлдвэрлэлд гадаадын ажилчин авах тогтолцоо нь 1996 оноос хэрэгжиж эхэлсэн бөгөөд нилээд өөрчлөлт, сорилуудтай тулгарч иржээ. Загас агнуурын салбар нь бусад салбартай харьцуулахад амьдрах нөхцөл таагүй, ажлын байрны орчин муу, орлогын түвшин бага байдгаас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н хэрэгцээ өндөртэй салбар юм. Учир нь загас агнуур эрхэлдэг тосгодын хүн ам нь 2013-2020 онд 54.7% буурсан, загас агнуурын ажлын орчин нь 4D буюу (4D: Difficult, Dirty, Dangerous, Distant) хүнд, бохир, аюултай, алс хол гэсэн маш хүнд нөхцөл байдаг. 2021 оны байдлаар далайн эргийн загас агнуурын хөлөг онгоцны нийт ажилчдын 65.9% (8916) нь гадаадын ажилчид байжээ¹¹⁴.

¹¹¹ Тодорхой нөхцлийг хангасан F-1, C-3-1, H-2, D-2, D-4, D-1, D-10, G-1 визтэй гадаад улсын иргэдэд хамаарна.

¹¹² 조영희 외. 202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¹¹³ 법무부. 보도자료. 2023.12.28. 계절근로자이탈률전년대비16로감소

¹¹⁴ 조영희 외. 202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2022 оны эцс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ын загас агнуурын үйлдвэрлэлд ажиллаж буй нийт далайчдын тоо 60,148, үүнээс гадаадын иргэн 28281 хүн буюу 47%-ийг эзэлж байна.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гсдын тоо өмнөх оноос 850 хүнээр нэмэгдсэн байна.

Загас агнуурын үйлдвэрлэлд ажиллах (E-8 виз) нь 5 сарын хугацаатай байсан бөгөөд 2023 оноос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лийн 5 сарын хугацааг 8 сар болгон сунгасан байна¹¹⁵.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 хийж буй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н оргон зайлж, хууль бусаар амьдрах байдал 2023 оны 11 сарын байдлаар 1,6% болон 6 дахин буурсан нь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гишүү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гэр бүлийн гишүүдийг гадаадаас урьж ажиллуулсан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5) Мэргэшсэ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авах тогтолцоо

БНСУ-ий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үндэсний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аа бэхжүүлэхийн тулд тусгай болон нарийн мэргэжлийн мэдлэг, технологи эзэмшсэн ур чадвар бүхий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ийг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үзсэн салбарууддаа оруулан ирж, эдийн зас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ахыг нь зөвшөөрч байна. Үүний тулд тусга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эрхлэх E-7 төрлийн визийг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он хүчин, хагас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он хүчин, ерөнхий ур чадвартай ажиллах хүч, чадварлаг ажиллах хүч гэж ангилж олго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2017 оноос эхлэн үндсэн үйлдвэрүүд, хөдөө аж ахуй, ойн аж ахуй, мал аж ахуй, загасны аж ахуйн мэргэшсэн ажилчдын чадавхыг оноогоор тооцох ажилла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ж байна. Ялангуяа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олд орсон цутгамал, хэв, гагнуур зэрэг мэргэжлүүд үндсэн том үйлдвэрүүд болон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үүдийг чадварлаг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г хангах зорилготой юм. Энэ тогтолцоонд ХАА, хүнд,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 барилгын салбар хамрах бөгөөд жилд дунджаар 2000 хүний квоттой байдаг.

Мэргэшсэ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авах энэ тогтолцоо (E-7-4) нь БНСУ-д 5-аас дээш жил ажилласан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E-9), ажил эрхлэхээр зорчих (H-2), загас агнуурын аж ахуйд ажиллах (E-10) статустай иргэдийг хамруулж жилийн орлого, ур чадварын түвшин,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на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мэдлэг, ажилласан хугацаа гэх мэтийг тооцоолон оноо өгөх замаар дүгнэдэг тогтолцоо юм. Анхны оршин суух хугацаа нь 3 жил бөгөөд шаардлага ханг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оршин суух хугацааг сунгах боломжтой тул байнгын оршин суух боломжтой гэж үзэж болно.

3.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бодлогод гарч буй өөрчлөлтүүд

Цагаачлалын болон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статистикаас харвал 2023 оны 12 сарын эцс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ж бу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тоо 2,5 саяыг давсан бөгөөд сүүлийн 10 орчим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дын тоо 112 хувиар өссөн байна.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дын тоо нэмэгдэхийн хэрээр ур чадвар муутай цагаачдын тоо нэмэгдсээр байна гэж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үзэж байна. БНСУ-ын нийгэмд ур чадвар муутай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тоо хурдацтай нэмэгдсэнээр цагаач ажилчидтай холбоотой нийгмийн асуудал зөвхөн цөөнхийн асуудлаар зогсохгүй нийгмийн ноцтой асуудал болон гарч ирж байна.

БНСУ-ын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шаардлага жил бүр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цагаач иргэд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өргөтгөх бодлогод өөрчлөлтүүд гарч байна. Эдгээр өөрчлөлтүүдийг харвал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 гадаад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нүүдэд тулгуурласан бодлогод ихээхэн анхаарал тавьж байна. Энэ нь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 соёлын

¹¹⁵ 법무부. 보도자료. 2023.12.28. 계절근로자이탈률전년대비16로감소

мэдлэг дээр тулгуурлан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д дасан зохицох боломжтой, мэргэжлийн мэдлэг ур чадвартай ажиллагсдыг татан авахад чиглэж байна гэж дүгнэж болно.

Бүс нутгийг тэнцвэртэй байлгах Two Track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о. Энэ бодлогыг БНСУ-ын Хууль зүйн яам,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аас хамтран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Энэ бодлого нь төрөлт буурч өндөр наслалт нэмэгдэх, хотод төвлөрөх зэргээс шалтгаалж хөдөө орон нутгийн хүн ам багасч хөгжил нь саарч байгаагийн эсрэг авч байгаа арга хэмжээ юм. Энэ бодлого нь хоёр хэлбэрээр хэрэгжи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нэгдүгээрт орон нутагт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гаа шилдэг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г суурьшуулах бодлого, хоёрдугаарт гадаадын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нүүдийг гэр бүлийнх нь хамт хөдөө орон нутагт суурьшуулах бодлого юм¹¹⁶. Бодлогын хэрэгжилт нь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аас санал болгосо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оршин суух эрхээ байнга оршин суух (F-2) эрх болгон өөрчлө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х бөгөөд гадаадаас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оюутнууд, гадаад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чууд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юм.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 хийх тогтолцоонд гарсан өөрчлөлт.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2023 оноос эхлэн хөдөө орон нутгий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олыг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улд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тогтолцоог илүү нээлттэй байдлаар сайжруулахаар төлөвлөөд байна. Загас агнуурын үйлдвэрлэлд зөвшөөрөгдс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өргөтгөж далайн ургамлын аж ахуйг оруулах, хясаа түүх, цэвэрлэх, боловсруулах, савлах салбаруудад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чдыг оруулахаар шийдвэрлэсэн. Гэрээгээр оруулсан ажилчдын насны шалгуурыг 30-аас 55 нас байсныг 25-50 нас болгон өөрчилжээ.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чдыг зөвшөөрөлгүй оргон явахаа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зорилгоор хийгдэж байсан буцаан олголтыг барьцаалах, хөрөнгө барьцаалах тогтолцоог халахаар шийдвэрлэсэн.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нэг аж ахуйн нэгж дээд тал нь 9 хүн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бөгөөд, шилдэг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 5 хүртэл хүнийг нэмэлтээр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жээ. 2023 оноос эхлэн хөдөө аж ахуй, загас агнуурын чиглэлээр ажиллаж байсан туршлагагүй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чдыг ажилд авахыг зөвшөөрсөн байна. Мөн БНСУ-ын иргэдтэй гэрлэсэн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гэр бүлийнхнийг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д урихад дэмжлэг үзүүлж байна.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гэрлэлтийн цагаач иргэний статусаар амьдарч байгаа 142.042 гадаадын иргэн байна¹¹⁷. Энэ нь хууль бус ажилчдыг багасгахад чухал үр нөлөөтэй байх болно гэж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д эцэг, эхээ урих тогтолцоо. Хөдөө орон нутагт байршилтай магадлан итгэмжлэгдсэн их сургуульд сурч буй оюутнуудын эцэг, эхчүүдийг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д урих туршилт эхлээд байна. 2023 оны эцс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д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гадаадын оюутны тоо нийт 152.094 хүн байна¹¹⁸.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гадаад оюутны тоо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2022 онд 167,000, 2023 онд 182,000 гадаад оюутан шинээр ирсэн нь бөгөөд 2023 онд өмнөх оноос 9,1% өссөн байна.

Энэ бодлогыг туршилтаар хэрэгжүүлэх хугацаа нь 2024.2.26 ~ 12.31 хүртэл бөгөөд C-4 (90 хоног) эсвэл E-8 (5 сар + 3 сар) гэсэн оршин суух эрх өгөх гэж байна¹¹⁹. Энэ бодлогод хамрагдаж эцэг, эхээ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д урих гадаад оюутан нь D-2 статусаар хөдөө орон нутгийн

¹¹⁶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지방자치정책.

¹¹⁷ БНСУ-ын хууль зүйн яам,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ын газар.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체류외국인)

¹¹⁸ БНСУ-ын хууль зүйн яам,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ын газар.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체류외국인)

¹¹⁹ 법무부. 2024. 봄철 농번기 농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магадлан итгэмжлэгдсэн их сургуульд 1 жилээс дээш хугацаагаар суралцсан, оршин суух хугацаа нь дор хаяж 2 семестр үлдсэн, БНСУ-ын дотоодын хууль тогтоомжийг дагаж ямар нэгэн зөрчил гаргаагүй, эцэг, эх 55 нас хүрээгүй, эрүүл мэнд болон гэмт хэргийн асуудалгүй иргэн байх шаардлагыг тавьж байна.

Гадаадын оюутнуудыг дэмжиж, хойшид БНСУ-ын иргэн болгох бодлого. БНСУ-д хэлний сургалтанд ирсэн оюутнууд нь дараагийн шатны үндсэн сургалт болон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сургалтыг дүүргэсний дараа ажил хайх (D-10) зорилготой 2 жилийн хугацаатай оршин суу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дог. Энэ хугацаанд ажлын байраа олж гэрээ хийвэл гэр бүл, хүүхдээ авчирч хамт амьдрах, гэр бүлийн хүн нь ажил хийх боломжтой болсон. Ажлын байран дээр тогтвортой ажиллаж, ялангуяа хөдөө орон нутгийн ажиллах хүчин хомсдолтой үйлдвэрүүдэд ажилл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тодорхой нөхцлийн дагуу байнга оршин суух эрх олгох, улмаар БНСУ-ын иргэншил авах боломжийг нээж өгч байна¹²⁰.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т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г ажиллуулах бодлого. 2023 оны сүүлээс эхлэн “Хүргэлт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т мэргэжлийн бус (E-9), айлчлан ажиллах (H-2) визтэй гэрээт ажилчдыг ажиллуулахаар шийдвэрлэсэн. Хүргэлтийн үйлчилгээ гэдэгт зөвхөн нисэх онгоцны буудлын ачих буулгах үйлчилгээ ор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зөвшөөрөгдсөн ажлын төрөл салбараас өөр ажил эрхлэх тохиолдолд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цуцлагдана гэжээ.

Мөн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лах хүчний (E-9) шинээр ирэх гэрээт иргэдийг зочид буудал, амралтын газар,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т ажиллуулахаар шийдвэрлээд байна. Үүнд БНСУ-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 тухайлбал зочид буудал, амралтын газар,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ийн цэвэрлэгээ үйлчилгээ, туслах ажилтнаар Сөүл, Бүсань, Ганвонь, Жэжү хотууд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бүс нутагт ажиллуулна. Зөвхө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ата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эрээтэй компанид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ийн цэвэрлэгээ, үйлчилгээний ажилд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ээр гадаад улсын иргэнийг авч ажиллуулна. Энэхүү журам нь 2024 оны 4 дүгээр сараас хэрэгжиж байгаа бөгөөд E-9 визээр ажиллах эмэгтэй ажилчдын квот нэмэгдэх давуу тал бий болж байна.

БНСУ-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 тэр дундаа зочид буудал, хоолны газр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 нь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ихээр хөгжи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ажиллах нөхцөл нь хүнд, ажлын цаг урт байдаг тул дотоодын ажиллах хүчин ихээхэн дутагдалтай байгаа юм.

Хойшид гэрийн үйлчлэгч, асрамжийн газрын асрагч, хүргэлтийн бусад салбарт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г ажиллуулах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бэлтгэж байна.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ж бу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г цөөлөх бодлого.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даг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асуудал нь БНСУ-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зах зээл дээрх зөрчилдөөнтэй асуудал юм. 2023 оны эцс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д 423,667 гадаадын иргэн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ж байна¹²¹.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х асуудал нь хүний эрх зөрчигдөх, гэмт хэрэг үйлдэгдэх, нийгмийн хэв журмыг зөрчих, хууль бус үйл ажиллагааг дэмжих зэргээр нийгмийн сөрөг үйлдлүүд гарахад ихээр нөлөөлж байна. Хууль зүйн сайд Хан Дун Хүн “Манай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одлого бол хууль

¹²⁰ 국제행정법률 기관 안내 자료. 2023

¹²¹ БНСУ-ын хууль зүйн яам,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ын газар. 2023 оны 12 сарын статистик

ёсоор оршин суухыг уян хатан замаар өргөжүүлж,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хыг хатуу хориглож, цаашид оршин суух дүрэм журмыг баримтлуулахын төлөө бүхнийг хийнэ” гэж хэлжээ¹²².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ж бу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чиглэсэн арга хэмжээ нилээд эрчимтэй явагда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Өршөөлийн хууль буюу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сайн дураар нутаг буцах хөтөлбөртэй зэрэгцэн Хууль бус оршин суугч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албадан гаргах арга хэмжээг Хууль зүйн яам болон холбогдох 5 байгууллага¹²³ хамтран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Дотоодын иргэдийг ажилл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ажлын байранд гадаад иргэдийг ажиллуулж буй компаниу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 гадаад иргэдийг байнга давтан ажиллуулдаг бизнес эрхлэгчид, зугаа цэнгээний газарт ажилладаг гадаад иргэд, хууль бус иргэдийг ажилд зуучилдаг брокерийн компани, хууль бусаар хилээр нэвтэрсэн болон гэмт хэрэгт холбогдсон зэрэг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хатуу арга хэмжээ авч байна. Энэ нь тус улсад хууль ёсны дагуу оршин суух дүрэм журмын зөрчлийн эсрэг хатуу арга хэмжээ авч хууль ёсны, ур чадвартай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д гадаад ажилчдыг зөвшөөрлийн дагуу ажиллуулах зэргээр гадаад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ууль ёсоор хөдөлмөрлөх тогтолцоог хэвийн болгох зорилготой юм.

4.БНСУ дахь монгол ажиллах хүч

БНСУ нь гадаадад байгаа монголчуудын тоогоор нэгдүгээрт ордог улс бөгөөд манай хоёр улсын иргэд нь зүс царай төстэй, түүх, соёлоороо холбоотой билээ. Монголчуудын хувьд БНСУ нь очиж сурч, амьдарч, ажиллахыг хүсдэг улсын нэг юм.

2023 оны 12 сарын сүүл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нийт 54846 хүн байгаа бөгөөд нийт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6.4%-ийг эзэлж байна. Үүнээс БНСУ-ын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тогтолцооны дагуу ирж ажиллаж буй нийт 4621 хүн байгаагаас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ажил эрхэлсэн 30 (С-4),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ажил эрхэлсэн 359 (Е-8),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буюу гэрээгээр ирж ажилласан 4232 (Е-9) хүн байна (Хүснэгт 2-оос харна уу).

Хүснэгт 2. БНСУ дахь монгол иргэд, 2023 оны эцэс

Хэмжих нэгж: Хүн

	Бүгд	эрэгтэй	эмэгтэй
Нийт	54846	25173	29673
В1 (визээс чөлөөлөгдсөн)	258	148	110
В2 (жуулчин)	569	286	283
С1 (түр зорчих сурвалжлагч)	6	4	2
С3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зорчих)	20232	9448	10784
С4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ажил эрхлэлт)	30	20	10
Д1 (соёл урлаг)	3	2	1
Д2 (гадаадын оюутан)	7950	2688	5262
Д3 (технологийн сургалт)	21	17	4
Д4 (ерөнхий сургалт)	6345	2870	3475

¹²² БНСУ дахь Хөдөлмөр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л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төв.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 гадаад иргэдтэй тэмцэх 3 дахь шат эхэлж байгааг мэдэгдлээ. <https://seoulcenter.mlsp.gov.mn/6310.html>

¹²³ Хууль зүйн яам, Цагдаагийн газ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 Зам тээврийн яам, Далайн эргийн хамгаалалтын цагдаагийн газар зэрэг байгууллагууд.

D6 (шашин)	33	26	7
D7 (томилолт)	15	9	6
D8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127	70	57
D9 (худалдааны менежмент)	184	50	134
D10 (ажил хайх)	1404	379	1025
E1 (профессор)	10	6	4
E3 (судалгаа)	50	17	33
E6 (урлаг)	128	87	41
E7 (тусгай үйл ажиллагаа)	447	260	187
E8 (улирлын ажил эрхлэлт)	359	143	216
E9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4232	3507	725
F1 (гэр бүлээ дагалдах)	1497	612	885
F2 (оршин суух)	1219	468	751
F3 (гэр бүл)	3989	2263	1726
F4 (гадаад дахь солонгос иргэн)	1		1
F5 (байнгын оршин суух)	766	138	628
F6 (гэрлэсэн цагаач иргэн)	2019	209	1810
G1 (бусад)	1920	952	968
Бусад	1032	494	538

Эх сурвалж: БНСУ-ын хууль зүйн яам,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ын газар.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체류외국인)-ийг ашиглан судлаач боловсруулав.

Дээрх хүснэгтээс харахад өндөр чадвартай боловсон хүчин болох профессороор 10 хүн, судалгаагаар 50 хүн, урлагийн чиглэлээр 128 хүн ажиллаж байна .

БНСУ-д суралцах монгол оюутны тоо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байнга нэмэгдэж 7950 оюутан болсон бөгөөд хэлний бэлтгэл болон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түвшинд суралцаж (D-2) байна. Эдгээр оюутнууд нь тодорхой нөхцөл ханг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ажиллах зөвшөөрөлтэй бөгөөд өөрсдийн хэлний чадвараас шалтгаалан төрөл бүрийн ажил эрхэлж байгаа болно. Ажил хайх эрхтэй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1404 (D-10) хүн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дгээр иргэд нь БНСУ-д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сургалтыг төгсөөд БНСУ-д ажил хайж байгаа иргэд юм.

БНСУ-ын иргэдтэй гэрлэсэн цагаач иргэн (F-6) 2019 хүн, байнгын оршин сууж (F-5) байгаа 1219 хүн байгаа нь мөн ажил эрхлэх боломжтой байдаг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үвшин, мэргэжлийн чадвараасаа хамааран янз бүрийн түвшний ажил эрхэлж байна. Үүнд төр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дунд шатны удирдах ажилтан, компанийн мэргэшсэн ажилтан ч байна.

Мө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зорчихоор (C-3) БНСУ-д 1 сар болон 3 сарын хугацаагаар зорчиж байгаа иргэдийн ихэнх нь тухайн хугацаанд түр ажил хийж мөнгө олдог билээ. 2023 оны байдлаар 20232 хү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БНСУ-д оршин суусан байна.

БНСУ-д ажиллаж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монгол иргэдээс хууль бусаар буюу оршин суух визгүй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тоо 2021 оны байдлаар 17,969 хүн байна¹²⁴. Энэ нь БНСУ дах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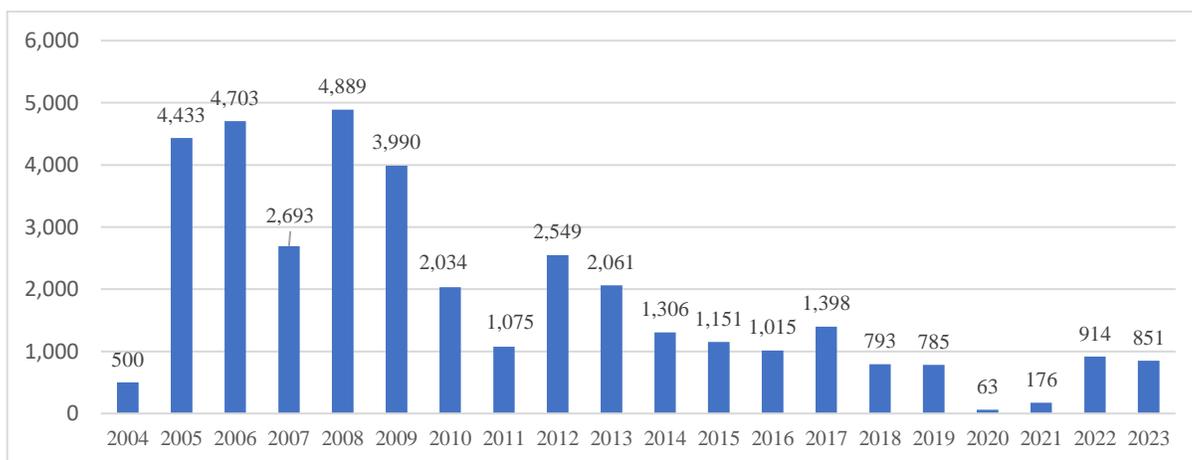
¹²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36

хууль бусаар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4.1%-ийг эзэлж байсан бөгөөд эдгээр иргэд нь голдуу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эрхэлдэг.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 нь БНСУ-ы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х тогтолцоо хэрэгжиж эхэлсэн 2004 оноос одоог хүртэл жилд тодорхой квотын дагуу ирж ажиллаж байсан. Энэ тогтолцооны дагуу БНСУ-д төрөл бүрийн үйлдвэр, аж ахуйн нэгжүүдэд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хөдөлмөр эрхэлсэн монгол иргэд 37379 хүн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нь БНСУ-д ажиллахаар ирсэн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хээ хөдөлмөр,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лын асуудалд илүү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ах үүднээс 2011 оноос эхлэн Хөдөлмөр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л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төвийг БНСУ-д байгуулан ажиллуулж байна.

Хүснэгт 3.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олгох тогтолцооны дагуу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Е-9) эрхэлж байсан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тоо, 2004-2023

Хэмжих нэгж: хүн



Эх сурвалж: БНСУ-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порталыг ашиглан зохиогч боловсруулав.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27_N001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эрхлэхээр ирсэн монгол ажилчид 2005, 2006, 2008, 2009 онуудад хамгийн их буюу жилд 3990-4889 хүн ирж байжээ. 2010 оноос хойш монгол ажилчдын тоо жил ирэх тусам буурсан бөгөөд 2018 оноос хойш жилд 1000 хүрэхгүй хүн хамрагдаж байна. Сүүлийн жилүүдийг харвал 2022 онд 914, 2023 онд 851 хүн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 эрхлэхээр иржээ (Хүснэгт 3-аас харна уу).

Энэ бүхнээс дүгнэн үзвэл 2023 оны 12 сарын сүүл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ийн гадаад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зах зээлийн 3-5%-ийг монгол ажилчид эзэлж байна гэж үзэж болно. Энэ нь БНСУ-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зах зээл дээр тийм өндөр тоо биш боловч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салбар дах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оёр улсын нийгэм соёлд тодорхой нөлөө үзүүлж байгаа нь дамжиггүй юм.

БНСУ-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монгол ажиллагсдаас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т, тухайлбал өрх гэрт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ий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оруулж байдаг давуу талтай. Гэвч хүн ам багатай, ажиллах хүчин дутагдалт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агт ил далд олон нөлөө үзүүлж байна гэж дүгнэж болно. Ковид-19 цар тахлын дараа инфляци хурдацтай өсч, цалин тэр хэмжээгээр нэмэгдэхгүй байгаагаас

монголд ажил хийх сонирхол буурч, өндөр хөгжилтэй гадаадын улсад хууль ёсоор болон хууль бусаар амьдрахыг хүсэх иргэдийн тоо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нь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Эндээс хийх гол дүгнэлт бол залуу, чадварлах ажиллах хүчээ гадаад руу алдаж байгаа явдал юм.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ажиллаж буй монгол иргэд эх орондоо эргэн ирэхэд нь тэдний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ийг дэмжих чиглэлээр хамтран төсөл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болсон нь сайшаалтай юм. Уг төслийг 2024-2025 онд БНСУ-ын буцалтгүй тусламжаар хэрэгжүүлэх юм. Төслийн хүрээнд Монгол Улсын томоохо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г оролцуулсан Хөдөлмөрийн яармаг, өдөрлөгийг БНСУ-д 2024 оны 3 дугаар сар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аар төлөвлөжээ¹²⁵.

Мөн монгол улсын хүн ам зүйн хувьд анхаарал татах нийгмийн асуудлууд үүсч байна. Хүн амын дундаж наслалт 2022 онд дундаж наслалт 71.3 байгаасаас эрэгтэйчүүд 67.3, эмэгтэйчүүд 76.7 насалж байна. Эрэгтэйчүүдийн нас баралт эрт, гадаад руу гарч буй ажиллах хүчинд эрэгтэй ажилчдын эрэлт өндөр зэрэг байгаа зэрэг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хүн амын нөхөн үржихүйн хийгээд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асуудлыг үндэсний түвшинд улам хурцаар тавигдахад хүргэж байна гэж мэргэжлийн судлаачид үзэж байна¹²⁶. Улмаар БНСУ-д ажиллахаар гарсан хүмүүсийн гэр бүлтэй холбоотой асуудлууд тухайлбал гэр бүл салалт, үр хүүхдээ өсгөх асуудал, өрх толгойлсо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асуудал, эрэгтэйчүүдийн эрүүл мэнд-өвчлөлийн асуудал зэрэг нийгмийн асуудлууд үүссэн бөгөөд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 нарийн судалгаа одоогоор ховор байна.

4. Дүгнэлт

БНСУ-ын хүн амын өсөлт нь хойшид буурах хандлагатай,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хүчин дутагдалдалтай байгаа бөгөөд ирээдүйд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эрэлт өндөр байна.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авах бодлогод өөрчлөлтүүд ор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гарч байгаа бодлогын гол зорилго нь хууль бус иргэдийг цөөлөх,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багасгахад чиглэж байна гэж дүгнэж болно. Тухалбай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ндөр боловсролтой,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 болон нийгмийн амьдралд дасан зохицох чадавхтай, мэргэжлийн ур чадварта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г БНСУ-д удаан хугацаанд ажиллуулж аж үйлдвэр болон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салбар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зах зээлийн эрэлтээ хангах, улмаар иргэнээ болгож авах бодлогууд явагдаж байна.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хангахад чиглэсэн урт боло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уян хатан бодлогуудыг хэрэгжүүлж гадаад иргэншилтэй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эн, гадаадын оюутнууд, солонгос иргэдтэй гэрлэсэн гадаадын цагаач иргэ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одорхой салбарын ур чадварыг эзэмшсэн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г дэмжи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нь БНСУ руу ажиллах хүчнээ экспортолдог орны хувьд ажиллах хүчээ гаргах боломж нь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хэдий ч тэдгээр ажиллах хүчийг эргэж татахад гол анхаарлаа ханд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 Ялангуяа БНСУ-д их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оюутнууд, мэргэшсэн ажилчидаа эргэн татах, тэднийг эх оронд нь ирэхэд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бодлогыг бодитой, өргөн хүрээнд хи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нь зайлшгүй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БНСУ-д ажиллаж, сураад ирсэн иргэдийг эх орондоо ажиллах ажлын байрыг гаргаж өгөх, бизнес эрхлэхэд нь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зээл олгох, байрны зээлийн нөхцөлийг хөнгөвчлөх зэрэг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ав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¹²⁵ БНСУ-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т монгол ажилчид ажиллах шинэ боломж бүрджээ.

olnodo.com/mn/post/32929?fbclid=IwAR2Ha-C2l_8hVOE18ers8ZmQRl6a8mSNURuZy2ga0K-xvETMUNC4Iv0bBAc

¹²⁶ А.Солонго. 2011. Гадаадад ажил эрхлэхийн төлөөх шилжилт хөдөлгөөн: Хүн ам зүйн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НОМ ЗҮЙ

Монгол хэл дээр

Болормаа Ц. 2019. Монгол Улс: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гадаад шилжилт хөдөлгөөн. Монголын хүн амын сэтгүүл, Дугаар (499) 29, 2019, х 9-18

Долгормаа Л. 2009. БНСУ-ын гадаадаас авах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талаарх бодлого ба түүний чиг хандлага.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сэтгүүл. 2009/№2

Солонго А. 2011. Гадаадад ажил эрхлэхийн төлөөх шилжилт хөдөлгөөн, хүн ам зүйн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Монголын хүн ам зүй сэтгүүл. Дугаар (367) 20.

БНСУ дахь Хөдөлмөр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л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төв.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 гадаад иргэдтэй тэмцэх 3 дахь шат эхэлж байгааг мэдэгдлээ.

[Хайлт 2024.03.1] <https://seoulcenter.mlsp.gov.mn/6310.htm>

БНСУ-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т монгол ажилчид ажиллах шинэ боломж бүрджээ.

[Хайлт 2024.03.11] https://olnodo.com/mn/post/32929?fbclid=IwAR2Ha-C2l_8hVOE18ers8ZmQRl6a8mSNUruZy2ga0K-xvETMUNC4Iv0bBAc

Гадаад хэл дээр

Munkhjargal B. 2022. Situation of Mongolian Legal and Illeg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Дугаар (564) 32, 2022,*

국제행정법률 기관 안내 자료. 2023

법무부. БНСУ-ын хууль зүйн яам,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ын газар.(국적, 지역 및 체류 자격 별 장단기 체류 외국인)

법무부. 2024. 봄철 농번기 농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 보도자료. 2023.12.28. 계절근로자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법무부. 통계 월보 2023.12. БНСУ-ын хууль зүйн яам,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ын газар. 2023 оны 12 сарын статистик

이규용, 최홍엽, 주수인. 2020. 외국인력 정책 과제-개방과 규제. 한국 노동연구원.

조영희 외. 202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최병규, 이준영. 2023. 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 이민정책 학보』 제 6 권 제 1 호(2023.6): 153-17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지방자치정책.

법무부.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1231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1>

한국통계청. БНСУ-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газар. Статистикийн портал.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27_N001

Explor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Low-Carbon Development Efficiency in Livestock Industry: A Comparative Analysis of Mongolia and Inner Mongolia

Bao Wen Rong(Ph.D Candidate)
(Inner Mongolia Teacher's University)
wenrong@mul.edu.mn

Abstract

Livestock husbandry is one of the pillars of Mongolia's economy as well as one of the basic industries in Inner Mongolia. It is related to food security, social stability,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y regions.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development of animal husbandry in Mongolia and the Inner Mongolia region of China, focusing on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animal husbandry and so on. Using the super-efficient SBM model, we assess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livestock industry in the two regions and discus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fficiency level and these input and output factors. Input indicators were selected as the number of herders, pasture area per herdsman, the amount invested in agriculture, and water utilization for animal husbandry; desired output indicators were livestock number and gross livestock output and non-desired output indicators were selected as disaster losses an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Efficiency levels, redundancies, and deficiencies were measured for each year from 2013-2022 using DEA-Solver software.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 efficiency levels of the two national regions, and there are significant input redundancies and output deficiencies. In addition, the data shows the factor relationship between inputs and outputs.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and eco-efficiency of livestock farming in the two country regions and to address the above issues,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s affecting livestock farming, optimize resource allocation, strengthen disaster prevention and mitigation, and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inputs and outpu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ivestock production, to promote sustainable livestock farming practices.

Keywords: Input and Output, Efficiency Analysis, Sustainable Development

1. Introduction

Livestock husbandry, as a primary industry, has been serving as an important economic base for Mongolia and the Inner Mongolia region. Livestock not only provides food and livelihood for local people but also has a great impact on the stability of the society, food security, and ecological

balance of the country. In 2022, Mongolia's GDP agricultural and livestock GDP score at current prices by production method was 7003 billion MNT, of which livestock production accounts for 87% of total agricultural output (NSO, 2022), accounting for 13.1% of GDP in 2022. As an important national production bas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ner Mongolia ranked first in the country in the production of mutton, beef, and milk, contributing about 1/5 of the country's mutton, 1/10 of its beef, and 1/5 of its milk (NSO, 2023).

Theref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and useful to study the animal husbandry industry in Mongolia and the Inner Mongolian Region as well a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industry.

2.Literature Review

Research in animal husbandry has traditionally centered on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factors like modern technology, labor, and natural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climate, water sources, and predatory carnivores on the livestock industry. For instance, Bello et al. (2023) introduced "smart animal husbandry" which involves the application of modern technology in cattle, goat, and pig-rearing processes, including daily animal testing. Their work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implementing smart animal husbandry practices [1]. In a related study, Zhang and Zhang (2022) investigate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animal husbandry in pastoral areas within the context of the grassland ecological compensation policy. Their findings indicat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s implementation and factors such as education, contributing to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animal husbandry production and grassland ecology in pastoral regions. However, they also identified a negative impact stemming from the level of government supervision and the family dependency ratio [2].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on livestock health is a critical aspect of animal husbandry. Munkhjargal et al. (2014)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d season and livestock well-being, noting the detrimental impact of this season on livestock. The rapid weight loss and increased mortality rates observed during the cold season result from insufficient time for livestock adaptation, ultimately affecting herders' overall output [3]. Additionally, the interaction between predatory predators, such as snow leopards and wolves, and livestock in specific regions is a subject of research interest. Mijiddorj et al. (2018) sought to asses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livestock and economic losses due to predatory predators in South Gobi, Mongolia. Their study highlighted that the number of livestock owned by households and the frequency of shifting camp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xtent of livestock losses attributed to snow leopards and wolves [4]. Furthermore, Wang and Tan (2022) employed a system dynamics approach to analyze the livestock economy. Their work focused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xplored various measurement methods, including the Production Function Metho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Exponential Method. Subsequently, they identified the decision-making unit and processed the input-output data to gain insights into the livestock economy [5].

These studies have contributed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ivestock sector and its various aspects in Mongolia and Inner Mongolia, and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livestock production efficiency in Mongolia. However, most of the current analyses of Mongolia's and Inner Mongolia's livestock sectors have been conducted individually, with very few comparisons between the two regions in question, and there is an even greater lack of more intuitive research on the efficiency of their livestock production, with virtually no analysis of the relevant literature. These can be considered as gaps and areas for further research.

3. Materials and Methods

Mongolia and Inner Mongolia share a similar geographic location, pastoralist lifestyle, and production methods. Due to developmental reasons, Mongolia has been formed to continue the traditional nomadic economy with traditional feeding methods, while Inner Mongolia is more of a captive form of animal husbandr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Mongolia and Inner Mongolia are chosen as the study are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ductivity level of animal husbandry in the two regions.

3.1 Super-efficient SBM Model

Based on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ection provided an overview of the research design and described the relevant research methods and the practical steps taken to conduct the study. To ensure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 valid, reliable, and ethical manner, a research design was defined, relevant research methods were outlined 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was detailed. As it is a national level, most of the data receipts were based on government statistics, repo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levant academic studies and literature to ensure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In the assessment of livestock production efficiency in Mongolia,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measure DEA, the super-efficient SBM model under the slack improvement measure proposed by Tone Kaoru in 2001 was chosen. For the SBM efficient decision unit, we consider the super-efficient SBM model with global non-desired output, i.e., the non-radial non-angle-based SBM model.

Assume that there are n decision units with m types of factors used, producing s_1 desired outputs and s_2 non-desired outputs. Vectors x , y^g and y^b represent actual inputs, desired outputs, and non-desired outputs respectively (Song et al., 2023).

The set of production possibilities (PP) can be defined as:

$$P = \{(x, y^g, y^b) \mid x \geq X\lambda, y^g \leq Y^g\lambda, y^b \geq Y^b\lambda, \sum_{i=1}^n \lambda = 1, \lambda \geq 0\}$$

Where: $X\lambda$ is the virtual effective decision-making unit, which is also the optimal reference frontier in efficiency evaluation, with which we compare the inputs of the evaluated unit to analyze the level of efficiency. There will always be input redundancy in the actual process. The same is true for non-desired output. In contrast, the desired output, relative to the reference frontier $Y^g\lambda$, always appears in practice to be insufficient and requires an increase in desired output. λ represents the weights of the observations. The sum of the weights is 1 if the production technology is variable returns to scale; if the sum of the weights is not 1, the production technology is constant returns to

scale. Each column represents a DMU, for example x_{ik} denotes the i th input variable of the k th DMU. On this basis, the SBM model considering the non-desired output is:

For the k th DMU,

$$\text{Minimize } \rho^* = \frac{1 + \frac{1}{m} \sum_{i=1}^m \frac{s_i^-}{x_{ik}}}{1 - \frac{1}{s_1 + s_2} \left(\sum_{r=1}^{s_1} \frac{s_r^g}{y_{rk}^g} + \sum_{r=1}^{s_2} \frac{s_r^b}{y_{rk}^b} \right)}; \quad (1)$$

$$\text{s. t. } \begin{cases} x_k \geq X\lambda + s^-, y_k^g \leq Y^g\lambda - S^g, y_k^b \geq Y^b\lambda + s^b \\ s^- \geq 0, s^g \geq 0, s^b \geq 0, \lambda \geq 0 \end{cases}$$

Where: ρ^* is the objective function i.e., efficiency score, and when $\rho^* < 1$, DMU is invalid, and the input or output is unreasonable; When $\rho^* \geq 1$, DMU achieves DEA efficiency. s^- , s^g and s^b representing input slack variables, desired output slack variables, and non-desired output slack variables, respectively. If and only if $\rho^* \geq 1$, it means that the decision unit is efficient and on the production frontier, otherwise it means that the decision unit is inefficient.

3.2 Selection of Efficiency Indicators

In the selection of input indicators, land, capital, and labor are the most basic input factors of production in the economic sense. Combined with the fact that Mongolia and Inner Mongolia have an economic system in which animal husbandry is the primary source of livelihood, herders play a central role in animal husbandry, influencing the productive capacity and decision-making in animal husbandry. In the selection of labor indicators, the number of herders was mainly used as a labor indicator. In this paper, we choose the indicator "per capita grazing area of herder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land resource utilization. This was because the area of grazing land is an indicator of the scale of livestock production and operation, and both its size and quality affect the results of livestock production. In this paper, the livestock capital input was used as a key indicator for evaluating the capital efficiency and investment effect of the livestock industry. Due to the limited search capacity, only the number of agricultural inputs was selected as a capital indicator. Water was a significant input resource for livestock production. Therefore, water resourc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resource efficiency, cost-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In this paper, water use indicators of the livestock industry were selected. As for the indicators of desired output, livestock production and quantity are crucial. This is because they represent the core output of the livestock sector and are the main indicators for evaluating economic efficiency. These indicators are key to assessing producer productivity. Among the non-desired output indicators, we have selected two factors related to the adverse consequences of the livestock sector's interactio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i.e., disaster losse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ese indicators reflected the vulnerability,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of the livestock sector.

The various input-output indicators and data in Mongolia

Table 1.

Dimension layer	Input				Non-desired output		Desired output	
Year	Herdsmen (person)	The amount invested in agriculture (1M.MNT)	Pasture area per herdsman (ha)	Water utilization for animal husbandry (1M.m3)	Damages caused by disasters (1B. MNT)	GHG emissions (Mton co2eq/yr)	Livestock number (sheep unit. 1K. Heads)	Gross livestock output (1M. MNT)
2013	285,691	54,001.10	0.39	177.98	142.90	23.16	67,265.78	2,937.63
2014	293,620	106,935.20	0.38	175.80	123.70	24.40	77,515.91	3,468.42
2015	297,828	144,908.50	0.37	173.63	377.00	23.70	84,131.40	3,728.71
2016	311,373	85,712.40	0.35	171.50	217.02	27.51	92,265.53	3,882.73
2017	303,590	95,520.20	0.36	169.39	367.89	30.70	99,401.94	4,101.72
2018	288,700	124,628.40	0.38	167.31	258.49	32.31	99,789.81	4,814.44
2019	285,482	114,754.80	0.39	165.25	263.78	34.38	106,749.46	5,675.86
2020	298,789	67,788.40	0.37	165.86	881.52	31.72	102,437.55	6,333.00
2021	305,430	68,038.20	0.36	159.38	161.10	30.46	104,809.05	7,234.08
2022	305,079	126,366.60	0.36	159.14	173.17	30.77	112,521.55	8,967.74

Source: The original data from the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orld Bank, et al in this paper relates to 2013-2022.

For GHG emission indicators, the authors found only sector-wide data for Mongolia, and we calculated the level of GHG emissions from livestock based on the proportion of livestock GHG emissions of 49% of the total as indicated by Kimura et al. (2022). For water use, we only obtained raw data for 2019-2022. We first calculated the rate of change for these years, deduced the average rate of change, and then extrapolated the data for 2013-2018.

The various input-output indicators and data in Inner Mongolia

Table 2.

Dimension layer	Input				Non-desired output		Desired output	
Year	Herdsmen (person)	The amount invested in agriculture (1M.MNT)	Pasture area per herdsman (ha)	Water utilization for animal husbandry (1M.m3)	Damages caused by disasters (1B. MNT)	GHG emissions (Mton co2eq/yr)	Livestock number (sheep unit. 1K. Heads)	Gross livestock output (1M. MNT)
2013	869,100	17,702,703.00	57.06	1,783.00	1.06	6.54	69,937.32	30,009,472.00
2014	957,000	14,847,866.16	53.03	1,837.51	17.92	7.25	90,723.10	35,443,962.90
2015	976,400	25,613,466.80	50.75	1,872.91	10.65	7.23	95,250.59	36,240,976.20

2016	976,600	30,127,158.41	50.71	1,859.69	6.88	7.08	95,352.61	38,906,597.60
2017	993,300	29,171,420.49	49.84	1,845.26	0.00	10.04	96,635.83	43,360,869.60
2018	1,009,600	33,753,137.93	53.86	1,874.92	33.79	1.47	93,597.53	48,327,867.70
2019	1,015,200	33,780,458.30	53.36	1,865.30	9.00	1.41	94,003.47	53,698,329.00
2020	1,036,636	35,577,304.14	53.48	1,870.11	1.84	1.48	97,389.44	65,750,623.80
2021	1,042,386	36,294,224.27	84.42	1,836.71	0.05	1.30	108,395.81	77,801,917.20
2022	1,064,396	42,815,099.94	50.77	1,916.20	0.02	1.22	106,120.86	54,167,165.18

Source: The original data from the Inner Mongolia Statistical Bulletin, National Statistical Yearbook, and Inner Mongolia yearbooks, et al in this paper relates to 2013-2022.

It should be noted that among the indicators, the indicator for pastoral output in 2022, pasture area per herder, is missing for 2014 and 2020. The number of herders in Inner Mongolia is only queried for 2019, missing data for the three years 2020-2022. For greenhouse effect emissions data, data for 2013 and 2022 are missing. The authors first derived the average rate of change based on the data already available for the respective indicators and then extrapolated the data for the missing years.

Looking at the raw data for the two country regions, there are large gaps. Firstly, analyzing the input indicators, the data for Inner Mongolia is often several times more than that of Mongolia. This represents more relevant inputs and larger costs for Inner Mongolia. The corresponding output indicators present a more complex picture. A general logical analysis would suggest that Inner Mongolia's inputs are higher and its corresponding outputs should also be higher than those of Mongolia. However, from the data, first of all, the expected output, the number of livestock is closer to that of Mongolia and even less than that of Mongolia in some years. The difference in the output score of the output score is larger, which is due to the large gap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and regions, and the price is different. In the case of beef, for example, the price of beef in China ranges from US\$7.4 to US\$10.4 per kilogram, while beef in Mongolia is cheaper by US\$4.6 to US\$5.35 per kilogram. Regarding non-expected output, Inner Mongolia has less data than Mongolia. This is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usually has mor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detect problems and limit environmental pollution at a certain level. Mongolia has not done a very good job of preventing and minimizing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nd natural disasters. In a comprehensive analysis, Inner Mongolia has a relatively serious input-output irrationality. On the one hand, this causes waste of inputs and insufficient outputs; on the other hand, it brings about an increase in the negative effects of animal husbandry, where capital and resources are diverted away from this sector and invested in other sectors, which affect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nimal husbandry industry. Corresponding data from Mongolia show that there is a situation of low inputs and relatively insufficient outputs.

4.Results

In this section, the efficiency scores of livestock indicators and their redundancies and deficiencies were measured and analyzed using DEA-Solver pro 5.0 software.



Figure1. Production efficiency score for livestock husbandry in Mongolia and Inner Mongolia

Source: calculated by DEA software

From the data provide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livestock efficiency between Mongolia and Inner Mongolia. In most years, Inner Mongolia h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livestock efficiency. In terms of the trend of the efficiency level, Inner Mongolia's changes are more volatile, while Mongolia's are more moderate, with an overall increasing trend. Analyzing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onnection, influenced by international economic,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 changes in the efficiency score of livestock production in the two countries and regions also show a certain degree of interconnection. For example, the efficiency scores of both country regions were relatively low in 2013. This is because both regions were heavily dependent on resource development at that time, and both faced situations of resourc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acts as well as threats to traditional herders' lifestyles. In particular, Inner Mongolia was affected by national policies in 2013, when a series of grassland protec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resulting in the livelihoods of herders being affected and output being relatively low. During the pandemic, the traditional animal husbandry industry has been relatively less affected and the state has emphasized the primary industry, which concerns the livelihood of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both regions have relatively high-efficiency scores over the three years.

Concrete analysis is as follows: Livestock efficiency in Mongolia showed an upward trend between 2013 and 2015. This is due to Mongolia's emphasis on advancing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at the expense of livestock development, resulting in an efficiency score of only 0.38 in 2013. In the following years, 2014-2015, it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sector and increased investment, which resulted in a certain increase in the level of efficiency. By 2016, the efficiency score had dropped by 10 percent. From 2016 to 2020, production efficiency continued to rise, especially in 2019, with a growth rate of 38 percent.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this was due to large capital and energy inputs in that year, which highlighted inefficiencies in decision-making units. From 2019 onward, the efficiency score reached the efficient level straight away and remained high for the following three years, especially in 2020, when it reached its highest level at 1.28. This i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good input-output model in the previous years, which achieved significant economies of scale, i.e., generating relatively large outputs with fewer inputs.

The efficiency of the livestock sector in Inner Mongolia increased substantially between 2013 and 2014, from 0.19 to 1.31.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nner Mongolia's economy is largely dependent on the coal, energy, and agriculture sectors, so policies and events related to these se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ner Mongolia's economy. Specifically, Inner Mongolia was also facing conflicts between resource exploitation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the livelihood of herders. To address this issue, Inner Mongolia implemented a series of grassland protection measures in 2013, which resulted in herders' livelihoods being affected and output being relatively low. In 2014, environmental policies were implemented and herders adapted and adjusted accordingly, resulting in a relative increase in output. In addition, the livestock breeds have been improved and the input of agricultural machinery has been increased. At the end of the year, the total power of agricultural and animal husbandry machinery in the region was 36.326 million kilowatts, an increase of 5.9%; the comprehensive mechanization level reached 79.8% (NSO,2014). So, in 2014, the efficiency level reached a maximum score of 1.31. In the following years, the efficiency of animal husbandry in Inner Mongolia shows a fluctuating trend, but the overall level is relatively high. In 2019 the efficiency of animal husbandry in Inner Mongolia declined, and then in 2020 it increased again, and after that, it tends to be stable. This is due to Inner Mongolia's increased focus on economic restructuring, resulting in a reduction in the emphasis on traditional animal husbandry. This, coupled with stricter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and increased demands on herders, has resulted in increased indirect costs of animal husbandry. The efficiency score was also affected by the high repair costs and loss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he next step required a deeper examination of whether there is any input redundancy or insufficient output in the various input-output indicators. In the presence of a high score of efficiency, we also needed to perform a slack improvement measure of inputs and outputs. This is because only if the efficiency score is ≥ 1 and the slack improvement score is 0, is it considered that strong efficiency is achieved. If the efficiency score is high, and there is a situation where the slack variable is not equal to 0, it is regarded as weakly efficient and requires slack improvement. This paper was based on the data measured by DEA to realize that, as the table shows:

The slack movement in each indicator in Mongolia

Table 3.

Year	Input				Non-desired output		Desired output	
	Herdsmen (person)	The amount invested in agriculture (1M.MNT)	Pasture area per herdsman (ha)	Water use for animal husbandry (1M.m3)	Damages caused by disasters (1B. MNT)	GHG Emissions (Mton CO2eq/yr)	Livestock Number (Sheep unit. 1K. Heads)	Gross Livestock Output (1M. MNT)
	Excess	Excess	Excess	Excess	Excess	Excess	Shortage	Shortage
	S-(1)	S-(2)	S-(3)	S-(4)	S-(5)	S-(6)	S+(1)	S+(2)
2013	46,877.94	0.00	0.09	45.09	550.01	2.07	14,098.49	2,072.23
2014	0.00	40,319.53	0.02	12.80	742.57	6.77	23,149.49	2,755.03
2015	0.00	77,338.13	0.01	8.30	501.68	7.91	17,976.67	2,583.93
2016	22,451.39	20,162.69	0.00	11.11	635.39	3.16	6,789.06	2,241.13
2017	7,424.23	28,326.95	0.00	4.98	505.89	0.74	2,136.26	2,175.68
2018	0.00	38,797.07	0.01	4.29	357.96	0.00	2,798.41	1,152.15
2019	15,199.90	0.00	0.00	0.00	0.00	2.52	0.00	0.00
2020	309.21	0.00	0.00	0.00	715.11	1.87	0.00	0.00
2021	0.00	0.00	0.00	2.71	0.00	0.00	4,285.11	960.63
2022	0.00	0.00	0.00	0.22	0.00	0.31	7,834.51	1,754.56

Source: calculated by DEA software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redundancy or shortfall issues in the given data, we can look at the Excess (S-) and Shortage (S+) scores for each year and each input/output variable. Excess (S-): represented an excess of inputs or non-desired outputs, which indicated inefficiency or overutilization of resources. Shortage (S+): represented a shortage of desired outputs, which indicated inefficiency or a failure to meet production targets.

Data analysis revealed that a certain amount of increase or decrease in inputs and outputs was required for each year in Mongolia. From 2013 to 2017, there was a noticeable lack of overall effectiveness, with the presented indicators exhibiting significant redundancies and deficiencies. However, starting in 2018, individual data showed improvements, with only a few areas requiring adjustments.

Taking 2013 as an example, upon close examination, it becomes evident that except for the investment indicator, the year 2013 was particularly problematic. Regarding the labor force, there was an excess of 46877.94 Herdsmen, indicating low efficiency.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efficiency could be enhanced by redirecting the labor force through policy guidance

or promoting alternative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excess of 45.09 (1M.m3) in livestock water requirements suggests either underutilization or overinvestment in water resources. Concerning outputs, there were deficiencies in both livestock numbers and livestock outputs, necessitating an increase of 14,098.49 sheep units (1k. heads) and 2,072.23 (1M.MNT), respectively. Greenhouse gas emissions, representing undesirable outputs, need to be reduced by 2.07 (Mton CO₂eq/yr), indicating potential environmental challenges.

When analyzing each indicator individually, the first to consider is the labor indicator. It reveals redundancy in labor investment during 2016-2017 and 2019-2020, indicating a wasteful use of labor resources. As for investments in agriculture, particularly during the period from 2014 to 2018, there are substantial fluctuations in redundancy, suggesting inefficiency in investment allocation and the need for a more rational approach. In the case of pasture area (ha) per herdsman, a favorable situation is observed. This is attributable to Mongolia's nomadic economy, where the allocated pasture area per herdsman is extensive and well-suited to the traditional nomadic way of life. However, when it comes to water resource utilization, except for 2019-2020,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utilization, underscoring the need for improved efficiency and a more rational allocation of resources.

Concerning the output indicators, starting with the desired output indicator, both indicators also show insufficient output in other years, in addition to reaching effective levels in 2019-2020.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umber of output shortfalls showed a decreasing trend over time, which indicates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vestment in the livestock sector increases and encourages the rearing of livestock,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output of pastoralists. The other is non-desired output. The redundancy of both indicators is more prominent, although both are 0 in 2021, but still indicate disaster impacts, and potential disaster vulnerability, and highlight the potential environmental problems in Mongolia.

The slack movement in each indicator in Inner Mongolia

Table 4.

Year	Input				Non-desired output		Desired output	
	Herdsman (person)	The amount invested in agriculture (1M.MNT)	Pasture area per herdsman (ha)	Water use for animal husbandry (1M.m3)	Damages caused by disasters (1B. MNT)	GHG Emissions (Mton CO ₂ eq/yr)	Livestock Number (Sheep unit. 1K. Heads)	Gross Livestock Output (1M. MNT)
	Excess	Excess	Excess	Excess	Excess	Excess	Shortage	Shortage
	S-(1)	S-(2)	S-(3)	S-(4)	S-(5)	S-(6)	S+(1)	S+(2)
2013	0	4,104,386.42	8.91	114.67	12,439.57	2,248,031.04	15.31	0
2014	0	12,644,732.66	0	0	0	0	0	2.1

2015	0	0	0	0	1,857.29	0	0	0
2016	0	2,910,440.69	0	6.62	0	0	1.70	0
2017	0	0	2.02	46.17	0	4,085,715.12	0	2.81
2018	0	0	0	2.40	0	0	21.76	0
2019	0	949,397.66	0	2.54	2,644.83	0	0	3.21
2020	0	0	0	0	0	11,958,371.04	0	0
2021	0	0	0	43.77	10,466.18	11,686,591.05	0	0
2022	0	0	2.23	0	5,999.45	0	0	0

Source: calculated by DEA software

In contrast, Inner Mongolia is in a better position in terms of input redundancy and output deficiencies. Except for 2013, which has a lower efficiency value and requires a larger adjustment, relatively few factors need to be adjusted in the other yea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umber of herders in all years shows a clearing out. This is due to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herders in Inner Mongolia, which has a large population base of 24,011,700 people in the region, of which only 4.43 percent are herders (NSO, 2022). Water resource problems are also more prominent. On the one hand, Inner Mongolia has a large investment in water resources, but on the other hand, the utilization rate of water resources is not high. This is one of the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of Inner Mongolia needs to solve urgently. Also, when considering disaster losses, there may be incomplete data for Inner Mongolia due to statistical errors in the two countries and regions. On the basis of the limited data, the software also measured the situation where the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and damage control needs to be strengthened. Environmental issues remain one of the main concerns and considerations for Inner Mongolia. Concerning desired outputs, Inner Mongolia's desired outputs based on current inputs are relatively favorable, with only a few years in which there were shortfalls in output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re is a tendency to increase the number of years with shortfalls, which is a cause for concern.

5. Conclusions

In our comparative analyses, we found significant efficiency differences between the livestock sector in Mongolia and Inner Mongolia. Some production units in Inner Mongolia show higher efficiency, mainly in terms of gaps in total inputs and outputs. In Mongolia, some production units are relatively less efficient, especially in terms of labor utilization and technology level. This difference may be due to differences in resource allocation, technology levels, and management practices. Inner Mongolia may benefit from more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more efficient management practices, while Mongolia may suffer from limited resources and a relatively low level of technology. We should note that our model relies on available data and assumptions

and may be affected by data incompleteness and uncertainty. Furthermore, our comparisons are based only on the indicators we have selected and may not comprehensively cover all aspects of the livestock sector. In addition, through our analyses, we learned that land area, capital inputs, and water resources, to name a few, have a large impact on the livestock sector. In contrast, the efficiency and redundancy levels of unintended outputs suggest that grassland ecosystem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livestock development. As Yang et al. suggested in 2019, grassland ecosystem conservation and livestock development should be synergized. These differences in efficiency change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on livestock husbandry, furth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ll aspects of efficiency levels.

In conclusion, the analysis of the given data shows that both Mongolia and Inner Mongolia suffer from inefficiencies in livestock production, over-investment, and potential environmental problems.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of underproduction.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optimize resource allocation, strengthen disaster prevention and mitigation, maintain a balance between inputs and outputs, and improve livestock production efficiency.

6. References

Bello, R. W., A. S. A. Mohamed and Talib (2023). A comprehensive review of smart animal husbandry: Its data, applications, techniq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81. 68–98.

Zhang, X. L. and X. Zhang (2022).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Herdsmen Animal Husbandry in Pastoral Areas: Regional Differences and Driving Factors. Sustainability.

Munkhjargal, E. M., Shinoda and Nandintsetseg, B. (2023). Effects of cold-season climate hazards on livestock health and mortality in Mongolia.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Mar. 2023.

Mijiddorj, N. J., Alexander, and Samelius, G. (2018). Livestock depredation by large carnivores in the South Gobi, Mongolia. Wildlife Research, 45.

Wang, L., and Tan, H. (2022). Economic Analysis of Animal Husbandry Based on System Dynamics.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Tone, K.A. (2002). A slacks-based measure of super-efficiency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Song, Q., LI, C.Q., and CHEN, J.Y. (2023). Spatio-temporal evolu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carbon emission efficiency in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 at the city scale. Journal of Nanjing Forestry University (Natural Sciences Edition).

Kimura, S., Sedik, D., and Ayurzana, E. (2022). Strengthening Cooperative Institutions to Support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in Mongolia. ADB BRIEFS.

NSO. (2022). NumberofHerdsmen.https://1212.mn/en/statistic/statcate/48171307/table-view/DT_NSO_1001_022V1.

NSO. (2022). Investment.https://1212.mn/en/statistic/statcate/573075/table-view/DT_NSO_0901_002V1.

NSO. (2019,2022).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9,2022.

- NSO. (2022). Environmental - Economic Accounting System Account of Agriculture. https://downloads.1212.mn/K3Uwq--uIh5_qHby12c8DUstEuZWR-R-iy2mVjqP.pdf.
- NSO. (2023). Physical Flow Accounts for Water. https://1212.mn/mn/statistic/statcate/573086/table-view/DT_NSO_2023_001V1.
- Batmankh, D. (2014). Mongolia's water resources, use, water consumption. <https://www.mongolianminingjournal.com/a/54418>.
- NSO. (2022). Disasters and Damages. https://1212.mn/en/statistic/statcate/573072/table-view/DT_NSO_2400_012V1.
- KNOEMA. (2022). Mongolia - GHG Emissions - All Sector - Total. <https://public.knoema.com/umilfef/global-ghgandco2emissions?location=1001300&indicator=1000030§or=1000000&substance=1000000&frequency=A,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837871/adb-brief-226-strengthening-support-sustainable-livestock-mongolia.pdf>.
- NSO. (2022). Number of Livestock. https://1212.mn/en/statistic/statcate/66905905/table-view/DT_NSO_0100_001T21.
- NSO. (2022). Gross Livestock Output. https://1212.mn/en/statistic/statcate/573054/table-view/DT_NSO_1001_001V1.
- Yang, W. F. (2020). Application of Computer Network Technology in Animal Husbandry Development.
- NSO. (2014-2023). Inner Mongolia Statistical Yearbook.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14-2023). China Statistical Yearbook. <https://www.stats.gov.cn/sj/ndsj/2022/indexch.htm>.
-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atistical Bulletin. (2017). http://tj.nmg.gov.cn/tjyw/tjgb/202102/t20210209_886015.html.
- Shan et al. (2018) China CO2 emission accounts 1997-2015. Scientific Data. <https://www.nature.com/articles/sdata2017201>.
- Shan et al. (2020). China CO2 emission accounts 2016-2017. Scientific Data.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7-020-0393-y>.
- Guan et al. (2021). Assessment to China's recent emission pattern shifts. Earth's Future. <https://agupub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29/2021EF002241>.
- Shan et al. (2016). New provincial CO2 emission inventories in China based on apparent energy consumption data and updated emission factors. Applied Energy.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261916303932>.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Mongolia and South Korea: Opportunities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 эдийн засгийг төрөлжүүлэх боломж

L.Oyuntsetseg(Ph.D)
(Ikh Zasag International University)

ottobb9192@gmail.com

B.Erdenechimeg(Ph.D)
(National Defence University of Mongolia)

borerdenechimeg@gmail.com

O.Bayartsetseg(Ph.D Candidate)
(Mongolian TAX Administration)
bayartsetseg.olonbayar@yahoo.com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1990, relations and cooperation have been expanding in many fields such as society, economy, foreign trade, science, education, culture, environment, and tourism.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which our country has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Mongolia's export product space network, having a few colored hubs located primarily in the periphery, illustrates that the exports of processed goods are scarcely developed, and the export diversification is poor.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export product space network demonstrates a high level of diversification with all kinds of colored dots (products) located towards the center (processed).

It is necessary to sum up the changes in the economy of Mongolia, the achievements and successe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conomic cooperation, to further improve them, an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Түлхүүр үг: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эдийн засгийг төрөлжүүлэх

ОРШИЛ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Ардын Их Хурлын Тэргүүлэгчдээ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х тухай” 1990 оны 64 дүгээр зарлигийг соёрхон баталснаар манай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сон түүхтэй. (Ломбо & Хаш-Эрдэнэ, 2020)¹²⁷

¹²⁷ Ломбо, Ж., Хаш-Эрдэнэ, Л. (2020).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УБ., ГХЯ.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ISBN: 978-9919-23-484-3., 43.66 х.х;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соноос хойш улс төр,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аг,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эрүүл мэнд, шинжлэх ухаан, боловсрол, соёл, байгаль, хүрээлэн буй орчи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зэрэг олон салбар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эрчимтэй хөгжин, өргөжиж тэлж байна.

Бидний энэхүү илтгэлийн зорилго нь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иж бүрэ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г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хоёр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эдийн засгийг төрөлжүүлэх боломж, арга замыг тодорхойлоход оршин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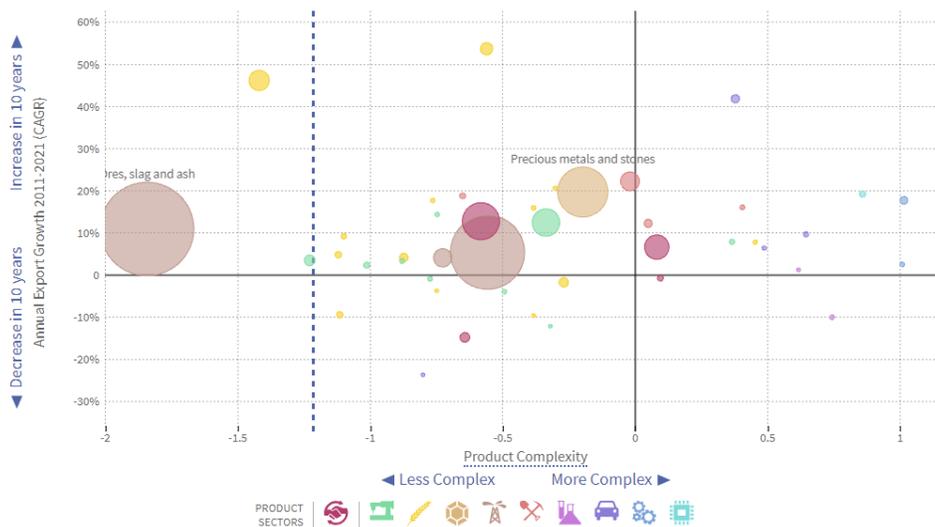
Дээрх зорилгоо хэрэ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дараах зорилтуудыг дэвшүүлсэн. Үүнд:

Зорилт 1: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иж бүрэ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г хөгжүүлэх

Зорилт 2: Хоёр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эдийн засгийг төрөлжүүлэх арга замыг тодорхойлох.

I.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Далайд гарцгүй, хөгжиж бу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вьд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нь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 хэрэглээг зах зээл, үйлдвэрлэгчтэй холбох замаар эдийн засгийг бүхэлд нь хөдөлгөж буй чухал салбар юм.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бүтэц нь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нэлээд өөрчлөгдөж, өндөр хөгжилтэй орнууд болон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орнууд руу чиглэн, 2022 онд нийт 164 улстай худалдаа хийж,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нийт бараа эргэлт 21.2 тэрбум америк доллар, үүнээс экспорт 12.5 тэрбум америк доллар, импорт 8.7 тэрбум америк долларт хүрчээ. Нийт бараа эргэлтийн хэмжээ өмнөх оноос 5.2 (32.1%) тэрбум америк доллароор, үүнээс экспорт 3.3 (35.7%) тэрбум америк доллароор, импорт 1.9 (27.2%) тэрбум америк доллароор тус тус өссөн байна. (ҮСХ, 2023)¹²⁸ 2021 оны байдлаар манай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цогц байдлын индекс (Economic Complexity Index - ECI) 1.22 байна (Зураг 1). (Harvard, 2024)¹²⁹



Эх сурвалж: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Зураг 1.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динамик загвар,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орон зайгаар 2011-2021

¹²⁸ ҮСХ. (2023).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салбарын танилцуулга-2022. www.1212.mn;

¹²⁹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2024). <https://atlas.cid.harvard.edu/countries/121/growth-dynamics>

Монгол Улс, БНСУ газар зүйн байрлалын хувьд нэг бүс нутагт оршдог, улс төрийн системийн хувьд ардчилсан засаглал, зах зээлийн тогтолцооны хувьд чөлөөт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агтай, аль аль нь хөрш зэргэлдээ их гүрнүүдийн стратегийн ашиг сонирхлын тэнцвэрийг хадгалж, жийргэвч улсын үүрэг гүйцэтгэж байх геополитикийн эмзэг орчинд оршдог.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цэрэг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бодит аюул занал, түүхийн болон газар нутгийн аливаа маргаан, гажуудал, шашны болон соёлын үл ойлголцол зэрэг уламжлалт болон уламжлалт бус тогтворгүй байд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асуудал байхгүй. Тиймээс хоёр тал бие биенээ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 эрх ашигт аюул занал учруулах улс гэж үздэггүй. Эдгээр нийтлэг талууд, ижил төстэй байдал нь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итгэлцлийг бий болгож,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ад нь эергээр нөлөөлж ирсэн. Үүнээс гадна бас хоёр улсы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гадаад бодлогод нөлөөлөх ижил төстэй, нийтлэг хэд хэдэн хүчин зүйл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Нэгдүгээрт, аль аль нь их гүрнүүдийн хүрээлэл дунд оршиж байна, хоёрт, тийм болохоор хүрээлэн байгаа их гүрнүүдийн нөлөөлөл, стратегийн шууд болон дам ашиг сонирхлын объект болж байдаг, гуравт, гадаад бодлого нь тэдгээр их гүрнүүдээс хамаарал ихтэй, тэр хамаарал нь нэг орноор зогсохгүй хэд хэдэн орны эрх ашгийн солбилцол болдог, дөрөвт, ийм нөхцөлд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хаа таатай гадаад орчинг бүрдүүлж, олон улсын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т өөрийн гэсэн орон зай, байр сууриа эзэлж, бататгах адилхан зорилт тавигдаж байна. Хүрээлэл дунд байгаа энэ байдал нь нэг талаар эерэг, нөгөө талаар сөрөг үр дагавартай. Аливаа улсуудын харилцааг өргөжүүлэн хөгжүүлэхэд харилцан ашигта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голлох байр суурийг эзэлдэг. (Үржин & Эрдэнэчимэг, 2023)¹³⁰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нь 1985 оноос эхэлсэн гэж үзэж болох бөгөөд 1991 он хүртэл маш бага хэмжээний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манай улс экспортолж байсан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1990 оны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х тухай Протокол”, 1991, 1999, 2006, 2011 оны дээд түвшний айлчлалын үеэр байгуулсан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мтарсан мэдэгдэл”, 1999 оны “XXI зууны харилцан бие биеэ нөхсө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2006 оны “Сайн хөршийн, найрамдал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үншлэл”, 2011 оны “Иж бүрэн түншлэл”-ийн зарчим, 2021 онд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г хөгжүүлэх тухай хамтарсан тунхаглал”-д тулгуурлан тууштай хөгжиж байна. (ГХЯ, 2024)¹³¹ Ийнхүү олон удаагий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айлчлал, улс төр-дипломатын аргаар манай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жилээс жилд өсөн нэмэгдэж байна.

Улмаар 2016 оны 7 сард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ноо “АСЕМ-ын 20 жил: Уялдаа холбоотой байж ирээдүйн төлөө түншлэх нь” сэдвийн доо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Ази-Европын дээд түвшний 11 дүгээр уулзалтын үеэр (АСЕМ, 2016)¹³² хоёр улс “Иж бүрэ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хөгжүүлэх тухай санамж бичиг” байгуулж,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гэрээ”-ний дагуу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г эхлүүлсэнээр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¹³⁰ Үржин, О., Эрдэнэчимэг, Б. (2023).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ба “Гуравдагч хөрш”-ийн бодлого.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 болзошгүй хэгийн төлөв., -УБ., БХЭШХ., “Удам соёл” ХХК., ISBN: 978-9919-9955-7-7., 21.1 х.х., т.251-281;

¹³¹ ГХЯ. (2021).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г хөгжүүлэх тухай хамтарсан тунхаглал.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яамны цахим сайт. 2021.09.10: <https://mfa.gov.mn/63590>;

¹³² Монгол Улсаас НҮБ-ын дэргэд суугаа Байнгын төлөөлөгчийн газар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ын цахим хуудас. (2016). <https://www.un.int/mongolia/news/асем-ын-дээд-түвшний-11-дүгээр-уулзалт-асем-ын-20-жил-уялдаа-холбоотой-байж-ирээдүйн-төлөө-2016.07.17>;

салбарт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цар хүрээ өссөн зэрэг томоохон амжилтанд хүрсэн гэж дүгнэж болно (Хүснэгт 1). (Ким Хун Жин, 2020)¹³³

Хүснэгт 1. Монгол Улсын БНСУ-тай хийсэ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сая.ам.долл. (ҮСХ, 2024)¹³⁴

Үзүүлэлт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Нийт бараа эргэлт	2,241	6,109	8,467	12,887	13,747	12,858	16,087	21,243
Экспорт	65.09	30.52	30.52	21.20	27.82	21.42	223.30	277.42
Импорт	63.72	181.78	258.70	262.37	266.97	235.77	308.75	424.65
Худалдааны тэнцэл, нийт	-113	-292	872	1,137	1,492	2,295	2,396	3,834

Тайлбар: 2005 суурь он гэж авч үзлээ.

Эх сурвалж: www.1212.mn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ноос гаргасан судалгаагаар БНСУ-аас оруулсан импортын хэмжээ 2013 онд хамгийн оргилдоо буюу 507.36 сая ам.долл.-т хүрч, аажмаар бага зэргийн бууруулалттай байгаад 2018 оноос өсөж байгаа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тэй уялдан эрэлт хэрэгцээ, тухайлбал, хүн амын орлого,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түүхий эд, хувь хүний хэрэгцээ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ж үзэж болно. 2022 оны байдлаар БНСУ-ын импортын хэмжээ манай улсын нийт импортын 6%-ийг эзэлж байна. (ГХ, 2022)¹³⁵

Түүнчлэн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оруулж буй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нь импортын хэрэгцээ үүсгэсэн байх талтай. (ГШХО, 2024)¹³⁶

Монгол Улсын экспортын хувьд 2005 оноос хойш нэлээд хэлбэлзэлтэй бөгөөд 2016 онд хамгийн бага буюу 8.47 сая ам.долл.-ы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БНСУ-д экспортолсон байна. Харин экспорт 2018 оноос хойш өсөж, 2023 оны 12 сарын байдлаар Монгол Улсаас гаргаж буй нийт барааны эргэлтийн 1.1 хувь, манай улс үйлдвэрлэж буй барааныхаа 2 хувийг БНСУ-д экспортолдог бол гадаадаас импортолдог барааны 4.5 хувийг БНСУ-аас авч байгаа (МОНЦАМЭ, 2023)¹³⁷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 засгаас авч хэрэгжүүлж буй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үр дү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¹³³ Ким Хун Жин. (2020). БНСУ-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ололт амжил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чиг хандлага. -УБ., ГХЯ.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ISBN: 978-9919-23-484-3., 43.66 х.х., т.340-357;

¹³⁴ ҮСХ. (2024). Статистикий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сан. ИМПОРТ, улсаар, жилээр., ЭКСПОРТ, улсаар, жилээр.,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НИЙТ ЭРГЭЛТ, ЭКСПОРТ, ИМПОРТ, ТЭНЦЭЛ, сараар (өссөн дүн), жилээр., <https://www2.1212.mn/>

¹³⁵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Импортын бүтэц, орноор, дүнд эзлэх хувь. (2024). ҮСХ. Статистикий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сан. https://www2.1212.mn/stat.aspx?LIST_ID=976_L14

¹³⁶ ГШХО. (2024). ҮСХ. Статистикий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сан. Монгол Улсад орсон гадаад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орох урсгал,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 улсаар., https://www2.1212.mn/tables.aspx?tbl_id=DT_NSO_1500_004V4&COUNTRY_select_all=1&COUNTRYSingleSelect=&YearQ_select_all=0&YearQSingleSelect=&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

¹³⁷ МОНЦАМЭ. (2023). БНСУ, ОХУ-та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аар болжээ. <https://montsame.mn/mn/read/333438>

Хоёр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2013 онд оргилдоо хүрсэнээс хойш нэлээд хэлбэлзэлтэй байгаа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саарч, төгрөгийн ханш бууран, гадаад валютын нөөц багассанаас валютын хөрвөх чадвар буурсан, мөн Япон Улста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гэрээ байгуулсанаар эрэлт хэрэгцээний шилжилт үүссэн зэрэг шалтгаантай гэж доктор Ким Хун Жин тодорхойлжээ. Бид БНСУ-ын экспорт, импортын 2016-2020 онуудын хэлбэлзэл /өсөлт, бууралт/ (Statista, 2024)¹³⁸, мөн 2020 оноос дэлхий нийтийг хамарсан цар тахлаас үүдэлтэ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ямралаас шалтгаалсан байна.

Тамрамд дурдахад, 2023 оны 12 сарын байдлаар манай улсын 51 мянган иргэн амьдарч байгаагаас 37.7 мянга нь хөдөлмөр эрхэлдэг. Харин БНСУ-ын 1816 иргэн манай улсад ажиллаж байна.

БНСУ-тай хийсэн манай улсын нийт худалдааны эргэлт 1990-2022 онны хооронд 100 дахин нэмэгдсэн хэдий ч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талуу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үсэн хүлээсэн түвшинд хүрээгүй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ад 1994 оноос эхэлсэн БНСУ-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өсөж, буурсан хэдий ч 2006 онд анх удаа нэг жилийн байдлаар 10,0 сая ам.дол.-аар давжээ (Хүснэгт 2). (Ким Хун Жин, 2020)¹³⁹

Хүснэгт 2.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Үзүүлэлт		1994-2010	2011-2022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нийт эргэлт (сая ам.долл.)		1724.52	148,258.80
БНСУ	Экспорт (сая ам.долл.)	1543.36	734.51
	Импорт (сая ам.долл.)	181.16	3837.18
БНСУ-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эмжээ (сая ам.долл.)		205.71	405.42
Шинээр бүртгүүлсэ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 (аж ахуйн нэгжиний тоо)		333	283

Эх сурвалж: О.Үржин, Б.Эрдэнэчимэг.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ба “Туравдагч хөрш”-ийн бодлого; www.1212.mn

Судалгаанаас харахад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ох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зэрэг нь тасралтгүй өсөж байгаа хэдий ч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нэмэгдүүлэхийн тул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философи” буюу амлалтаа биелүүлэх, итгэлцэл төрүүлэх, харилцан ашигтай байх, урт хугацааны стратеги (урт хугацаанд тогтвортой байх) гэсэн үндсэн дөрвөн зарчмыг мөрдөж ажил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Энхболд, 2020)¹⁴⁰

¹³⁸ Value of South Korea's imports from ASEAN countries from from 2012 to 2022(in billion U.S. dollars) (2024).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58705/south-korea-import-value-from-asean-countries/>

¹³⁹ Ким Хун Жин. (2020). БНСУ-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ололт амжил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чиг хандлага. -УБ., ГХЯ.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ISBN: 978-9919-23-484-3., 43.66 х.х., т.340-357;

¹⁴⁰ Энхболд, И. (2020). Зүүн хойд Ази дахь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ны зураглал. -УБ., ГХЯ.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ISBN: 978-9919-23-484-3., 43.66 х.х., т.358-364;

II. Хоёр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эдийн засгийг төрөлжүүлэх арга замыг тодорхойлох арга зам, боломж

Эрх зүйн орчин: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ын 3.1.1.5-д ““Гуравдагч хөрш”-ийн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өндөр хөгжилтэй ардчилсан улсуудтай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соёл, хүмүүнлэгийн салбарт хоёр болон олон тал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нэ.”; 3.2.5.1-д “Цөөн зах зээл, цөөн нэр төрл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экспорт, импортоос хэт хамааралтай үндэсни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эмзэг байдлыг бууруулна”, 3.2.5.4-т “Бүс нутгийн болон олон улсын интеграцид нэгдэх,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асуудлыг эдийн зас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хөгжлийн шаардлагыг харгалзан, судалгаа, тооцоонд тулгуурлан шат дараатай, сонголттойгоор хэрэгжүүлнэ.” (МУҮАБҮБ, 2010)¹⁴¹,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ын 14.2-т “АНУ, Япон, Европын холбоо, Энэтхэг, БНСУ, Турк зэрэг өрнө, дорнын улс, холбоотой “гуравдагч хөрш”-ийн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н хөгжүүлэх” (МУГБҮБ, 2011)¹⁴² гэж тус тус тодорхойлсон.

“Гурван тулгуурт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д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идэвхтэй оролцон найдвартай түнш орон болж,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бодлогоор үндэсни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тогтвортой өсөлтийг хангах, худалдааны тэргүүлэгч орнууд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асуудлыг эрчимжүүлэх,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дэмжих,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 төрөлжсөн мэргэжл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ар гүйцэтгүүлэх замаар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үнэгүйдлээс сэргийлэх арга хэмжээг авах зэрэг үйл ажиллагааг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заасан байна. (ГТХБ, 2018)¹⁴³

“Алсын хараа 205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ын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аг, худалдааны интеграцад нэгдэж, худалдааг хөнгөвчилнө” зорилт 4.4-ийн хүрээнд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аг, худалдааны интеграцад нэгдэх, худалдааг хөнгөвчлөх замаар урт хугацаанд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 бүхий цөөхөн салбарт эдийн засгаа төрөлжүүлэн хөгжүүлэх экспортын боломж, зах зээлээ тэлэх бодлого явуулна” гэж тодорхойлсон. (МУЗГ, 2020)¹⁴⁴

Дээрх дурдсан бодлогын баримт бичгүүдийн үндсэн хэсэг боло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д хүнс, хөдөө аж ахуй, хөнг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эх, тэр дундаа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ы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тэргүүлэх салбар болгон хөгжүүлэх, хариуцлагатай уул уурхайг хөгжүүлэх, томоохон ордууды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эргэлтэд оруулах, үндэсний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онцлог бүхий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г хөгжүүлэ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г дэмжих дэд бүтцийг хөгжүүлэх, болон бүтээлч, аж үйлдвэрлэл болон мэдээлэл,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ыг дэмжин хөгжүүлэх талаар голлон заасан байна.

¹⁴¹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2010). Эрх зүйн мэдээлл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0 оны 48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08070&showType=1>

¹⁴²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2011). Эрх зүйн мэдээлл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1 оны 10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03362&showType=1>;

¹⁴³ Гурван тулгуурт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2018). Эрх зүйн мэдээлл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8 оны 42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08322&showType=1>;

¹⁴⁴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2020). Алсын хараа 205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20 оны 52 дугаар тогтоол., 316 хуудас;

- ихэнх тарифын бус хязгаарлалтууд нь Дэлхийн худалдааны байгууллагаар хянагдах боломжгүй, олон улсын гэрээ хэлцлүүдээр зохицуулагддаггүй учир зарим орнууд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гол хэрэгсэл болгож, чөлөөтэй ашиглаж байна.
- тарифын бус хязгаарлалт шууд барааны үнийг нэмэгдүүлдэггүй учир хэрэглэгчдэд татварын дарамт учруулдаггү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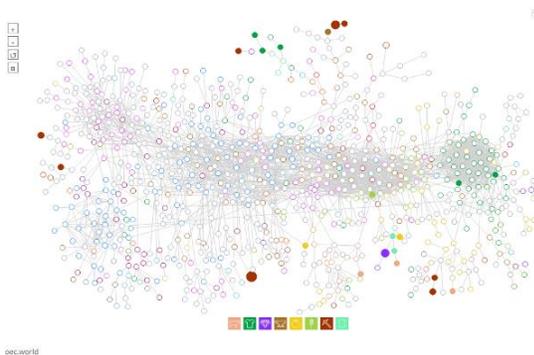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төвлөрлийн индекс: С.Hidalgo, R.Hausmann нар олон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2006-2008 оны тоон мэдээллийг ашиглан хоёр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мэдлэгийн ялгаатай байдлыг хэмжин хоорондын хамаарлыг шинжилж,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орон зай** (Product Space) хэмээх ойлголтыг бий болгож, улмаар 2009 он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цогц байдалд тулгуурлас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мөн олон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тоон мэдээллийг ашигл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цогц байдлын индекс (Economic Complexity Index - ECI)-ийг тооцох аргыг тус тус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орон зайн шинжилгээ: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орон зайн дүрслэлд харуулж буй зангилаа цэгүүд нь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цэгийн хэмжээ нь дэлхийн худалдаанд эзлэх хувийг илтгэх бөгөөд байршиж буй бүтээгдэхүүнүүдийн зай ойр байх тусам тухайн бүтээгдэхүүнүүдийг нэг улс үйлдвэрлэдэг байх магадлал өндөртэй гэсэн үг¹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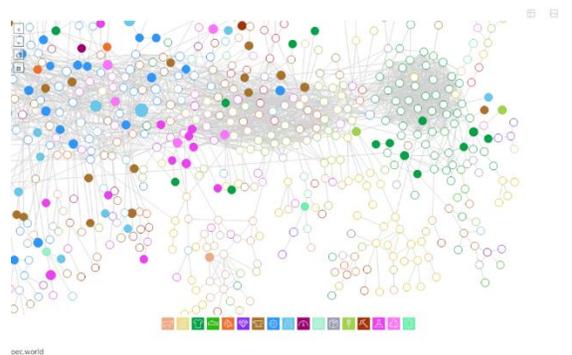
Бүтээгдэхүүн тус бүрийн PCI болон дундаж холбоос (Average Connectedness) нь шугаман хамааралтай байх бөгөөд энэ нь алив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илүү боловсруулах тусам бусад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үйлдвэрлэх боломжийг нэмэгдүүлдэг.

Монгол Улсын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төрөлжилт маш сийрэг бөгөөд зангилааны цэгүүд нь төвөөс алслагдсан буюу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үтээгдэхүүн тун бага хэмжээгээр экспортолж байна (Зураг 4.а).

БНСУ-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төрөлжилт өндөр байгаа бөгөөд зангилааны цэгүүд нь төв хэсэг рүү төвлөрсөн буюу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их хэмжээгээр экспортолж байна. Тус улсын экспортын голлох бүтээгдэхүүнүүд нь маши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цахилгаан хэрэгсэл болон хөнгөн, химийн үйлдвэрлэл эзэлж байна (Зураг 4.б)¹⁴⁸



а. Монгол Улсын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орон зай



б. БНСУ-ын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орон зай

¹⁴⁷ Харвард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Олон улсын хөгжлийн төв,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Harvard University (2020).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ttp://www.atlas.cid.harvard.edu>. Nov. 11, 2020. <https://atlas.cid.harvard.edu/>

¹⁴⁸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OEC). (2022). <https://oec.world/en/>

Эх сурвалж: <https://oec.world/en/>

Зураг 4.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орон зай, 2022 оны байдлаар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р ашгийг дээшлүүлэхийн тулд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хараат байдлын зэргэмжийг Херфиндаль-Хершманы индекс (ННН)-ээр тодорхойлж (Хүснэгт 4).

Хүснэгт 4. Херфиндаль-Хершманы индекс

Хараат байдал Дотоод эх үүсвэрээр нийт хэрэгцээний 0-33 хүртэлх хувийг хангах		Заримдаг хараат байдал Дотоод эх үүсвэрээр нийт хэрэгцээний 33-66 хүртэлх хувийг хангах		Хамааралтай байдал Дотоод эх үүсвэрээр нийт хэрэгцээний 66-аас дээш хувийг хангах	
ННН Хараат байдал		ННН Хараат байдал		ННН Хараат байдал	
0-0.11	хагас хараат	0-0.44	бага зэргийн хараат	0-0.77	хагас хараат
0.11-0.22	үлэмж хараам	0.44-0.55	хагас хараат	0.77-0.88	үлэмж хараам
0.22-оос дээш	бүрэн хараат	0.55-0.66	үлэмж хараат	0.88-аас дээш	бүрэн хараат
		0.66-аас дээш	бүрэн хараат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д оролцогчдын хувийн жингийн квадратуудын нийлбэрийг олох замаар Херфиндаль-Хершманы индексийг тооцоолж, Монгол Улсын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зарим барааны хараат байдлын зэргэмжийг тооцооллоо (Хүснэгт 5).

Хүснэгт 5. Монгол Улсын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зарим импортын барааны хараат байдлын зэргэмж

№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	Хараат байдал	Хэмжээ, нэгж	ННН индекс	Хараат байдлын зэргэмж	Тайлбар (Импортод эзлэх хувь)
1	Цахилгаан эрчим хүч	Дотоод эх үүсвэрээс 66-аас их хувь	1,420,229.1 мян.квт	0.6649	Хараат бус	-
2	Наргил самар, бразил самар	Дотоод эх үүсвэрээс 33-аас бага хувь	2,446,728.2 кг	0.1837	Үлэмж хараат	ОХУ, Вьетнам, Энэтхэг тус бүр 20-оос дээш хувьтай
3	Шахмал ногоон цай		1,681,692.9 кг	0.5201	Бүрэн хараат	БНХАУ 60%, Гүрж 39.9%
4	Цагаан будаа		26,564,241.8 кг	0.3524	Бүрэн хараат	Вьетнам, ОХУ тус бүр 40%-тай
5	Элсэн чихэр		50,039,029.7 кг	0.2469	Бүрэн хараат	Тайланд 34.9%, Энэтхэг 28%
6	Автобензин. Октаны хэмжээ 90-ээс дээш (биодизель хольцгүй)		332,074,103.0 кг	0.9551	Бүрэн хараат	ОХУ 97.7%
7	Дизель түлш (зуны)		327,963,154.2 кг	0.9220		ОХУ 95.9%
8	Онгоцны түлш	24,775,627.0 кг	1.0	ОХУ 100%		
9	Түлшний мазут	2,588,539.0 кг	1.0		ОХУ 100%	
10	Нэхмэлийн мяндас бэлдэх, ээрэх, ороох машин	Дотоод эх үүсвэрээс 33-аас бага хувь	166 ш	0.7320	Бүрэн хараат	БНХАУ 84.6%
11	Сүлжмэлийн машин		189 ш	1.9382		БНХАУ 96.8%
12	Арьс ширэн түүхий эд бэлтгэх, гутал хийх, засварлах машин		209 ш	0.9716		БНХАУ 98.56%
13	Эрдэс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шигших, ялгах,		35,004 ш	0.7111		БНХАУ 83.72%

	угаах, бутлах, нунтаглах машины эд анги				
14	Трактор	877 ш	0.9047		БНХАУ 95.0 хувь
15	Нийтийн тээврийн моторт хэрэгсэл	965 ш	0.5349	Бүрэн хараат	Импортод БНСУ 71.0%

Хүснэгт 5-аас харахад Монгол Улсын импортын зарим бүтээгдэхүүн дотоод эх үүсвэрээс 33-аас доош хувьтай байгаа бөгөөд 13 нь “бүрэн хараат”, харин цахилгаан эрчим хүч хараат бус байна. Импортод нэг улсын эзлэх хувь өндөр,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ээр хэрэгцээгээ ханга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 нь хараат байдалд орох үндсэн нөхцөл болж байна.

Улс орнууд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х, олон улсын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н бүс нутгийн интеграцад нэгдэх зэргээр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 хөнгөвчлөх, хамгаалах үйл ажиллагааг явуулж байна.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 дэмжих, хөнгөвчлөх чиглэлээр: Монгол Улс Дэлхийн худалдааны байгууллагын Худалдааг хөнгөвчлөх хэлэлцээрт 2017 онд нэгдэн орсон нь далайд гарцгүй, худалдааны өртөг, ялангуяа дамжин өнгөрөх тээврийн зардал өндөртэй улс орнуудын хувьд хил, гаалийн үйлчилгээг сайжруулах, дамжин өнгөрөх барааг түргэн шуурхай нэвтрүүлэх, т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 үл ялгаварлах зарчмыг баримтлах, чөлөөтэй дамжин өнгөрөх зарчмыг дэмжих, худалдааны зардлыг бууруулахад өндөр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Монгол Улс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хил дамнасан цаасгүй худалдааг хөнгөвчлөх ерөнхий хэлэлцээрт нэгдэн орох ажлыг эхлүүлээд байна. Дэлхийн худалдааны байгууллагын Худалдааг хөнгөвчлөх хэлэлцээр болон энэхүү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хил дамнасан цаасгүй худалдааг хөнгөвчлөх ерөнхий хэлэлцээрийг хамтад нь хэрэгжүүлснээр Монгол Улсад худалдааны зардал 30 хувиар буурна гэж тооцож байгаа.

Судалгаагаар Монгол Улс НҮБ-ын гишүүн 193 улсын дотор экспортын барааны төвлөрлийн индексээр 55, импортын барааны төвлөрлийн индексээр 33, экспортын зах зээлийн төвлөрлийн үзүүлэлтээр 9, импортын зах зээлийн төвлөрлийн үзүүлэлтээр 29 дүгээр байрт тус тус жагссан нь Монгол Улс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гол түнш улсууд, мөн гол нэр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ээс хараат байдалд байгааг харуул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1994 онд Дэлхийн худалдааны байгууллагын гишүүн болсноор бусад 164 гишүүн улстай тэгш эрхтэй худалдаа хийх, гадаад зах зээлд хөнгөлөлттэй буюу үндэсний нэн тааламжтай болон үндэсний нөхцөл эдлэх, олон талт худалдааны тогтолцоонд хамтын шийдвэр гаргах үйл явцад оролцох боломж бүрдсэн. Монгол Улс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бодлогодоо худалдааны олон талт хэлэлцээрээр хүлээсэн үүргийнхээ хүрээнд үл ялгаварлах, олон улсын худалдааг либералчлах, хөгжил болон өрсөлдөөнийг дэмжих зарчмыг баримталж байна. Дэлхийн худалдааны байгууллагын олон талт худалдааны эрх зүйн орчин нь нэг талаас гишүүн улсад хатуу үүрэг хүлээлгэх боловч үндэсний хэмжээнд зах зээлээ хамгаалах,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ээ дэмжих,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ад нэн тулгамдс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хүн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хангах, төлбөрийн тэнцлийн хэт алдагдлыг бууруула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дог.

Шинээр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Алсын хараа 205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хүрээнд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БНСУ-та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ийг судлах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г явуулсан. Монгол Улс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т 2020 онд нэгдсэн. Ийнхүү уг хэлэлцээрийн

7 дахь гишүүн болсон нь манай улсад анхны бүс нутгийн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олсон бөгөөд 2021 оны нэгдүгээр сарын 1-ний өдрөөс хэрэгжиж эхлээд байна. Энэ хэлэлцээрийн хүрээнд БНХАУ, Энэтхэг, БНСУ зэрэг зургаан улстай нийт 10677 нэр төрлийн бараанд 5-100 хувийн тарифын хөнгөлөлт эдлэнэ. Тухайлбал, БНХАУ-ын нүүрсний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 2 дахин буурсан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экспортлогчдод томоохон боломж олгосон.

Ташрамд дурдахад өнгөрсөн 25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бодлогын чиг үүрэг хариуцсан бүтэц зургаан удаагийн өөрчлөлтөд орсон нь бодлогын залгамж чанар, уялдаа холбоо, хүний нөөцийн мэргэшсэн байдалд таагүй нөлөө үзүүлсэн. Түүнчлэн дотоодын зах зээл,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амгаалж, хөгж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тарифын болон тарифын бус зохицуулалтыг оновчтой хэрэгжүүлэх,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үнэмлэхүй болон харьцангуй давуу тал дээр тулгуурласан экспорт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экспортлогч ААН-г хөгжүүлэх бүтэц, санхүүжилтийн механизмыг бий болгох, мөн гадаад зах зээлд таатай нөхцөл, орчныг бүрдүүлэх чиглэлээр нэгдсэн уялдаатай, оновчтой зохицуулалтыг хи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ДҮГНЭЛТ

1. Монгол Улсад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эх эрх зүйн орчи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бодлогын үндэс бүрдсэн хэдий ч бодлогын зохицуулалт, хэрэгжүүлэх тогтолцоог хангах асуудлуудад анхаарлаа ханд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2. Алсын хараа 2050”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боловсруула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хөтөлбөрүүддээ Монголын байгалийн баялаг, хямд ажиллах хүчийг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технологийн хөгжилтэй хослуулсан хөдөө аж ахуй, уул уурхай,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өслүүдийг хоёр та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үрээнд дэмжих, хэрэгжүүлэх, цаашлаад Монголыг шинэ технологи бүхий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бүс, Зүүн Өмнөд Азийн орнуудын Евроази руу гара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шиц цэг болгон хөгжүүлбэл зүйтэй байна.

3.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амгаалж хөгжүүлэх, экспорты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өртгийг нэмэгдүүлэхэд чиглэсэн тарифыг бий болгох, шинээр үйлдвэр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уй аж үйлдвэр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экспортлох таатай нөхцөлүүдийг урьдчилан бүрдүүлэх, үүний тулд БНСУ-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бүс байгуулах асуудалд онцгойлон анхаар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Ном зүй

Harvard. (2024, 3 02). Retrieved from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ttps://atlas.cid.harvard.edu/countries/121/growth-dynamics>

2. Statista. (2024, 03 10). Value of South Korea's imports from ASEAN countries from from 2012 to 2022(in billion U.S. dollars). Retrieved from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58705/south-korea-import-value-from-asean-countries/>

3. UNCTAD. (2019). Key Statistics and Trends in Trade Policy 2019 - Retaliatory Tariff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23 Mar 2020. ISBN 978-92-1-112973-1: UNCTAD/DITC/TAB/2019/9.

4. АСЕМ. (2016, 07 16). АСЕМ-ЫН ДЭЭД ТҮВШНИЙ 11 ДҮГЭЭР УУЛЗАЛТ “АСЕМ-ЫН 20 ЖИЛ: УЯЛДАА ХОЛБООТОЙ БАЙЖ ИРЭЭДҮЙН ТӨЛӨӨ ТҮНШЛЭХ НЬ”. Retrieved from Монгол Улсаас НҮБ-ын дэргэд суугаа Байнгын төлөөлөгчийн газар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ын

цахим хуудас. (2016).: <https://www.un.int/mongolia/news/асем-ын-дээд-түвшний-11-дүгээр-уулзалт-“асем-ын-20-жил-уялдаа-холбоотой-байж-ирэ>

5. ГТХБ. (2018, 02 06).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8 оны 42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Гурван тулгуурт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Retrieved from Эрх зүйн мэдээлл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08322&showType=1>
6. ГХ. (2022, 12 31).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Импортын бүтэц, орноор, дүнд эзлэх хувь. Retrieved from ҮСХ. Статистикий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сан.: https://www2.1212.mn/stat.aspx?LIST_ID=976_L14
7. ГХЯ. (2024, 03 10).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г хөгжүүлэх тухай хамтарсан тунхаглал. Retrieved from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яам: <https://mfa.gov.mn/63590>
8. ГШХО. (2024, 3 02). Монгол Улсад орсон гадаад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орох урсгал,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 улсаар. Retrieved from ҮСХ. Статистикий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сан.: https://www2.1212.mn/tables.aspx?tbl_id=DT_NSO_1500_004V4&COUNTRY_select_all=1&COUNTRYSingleSelect=&YearQ_select_all=0&YearQSingleSelect=&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
9. Ким Хун Жин. (2020). БНСУ-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ололт амжилт,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чиг хандлага. In Ж. Ломбо, & Л. Хаш-Эрдэнэ,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pp. 340-357). Улаанбаатар, ГХЯ.: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ISBN: 978-9919-23-484-368 43.66 х.х.
10. Ломбо, Ж., & Хаш-Эрдэнэ, Л. (2020).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Улаанбаатар: ГХЯ.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ISBN: 978-9919-23-484-3., 43.66 х.х.;
11. МОНЦАМЭ. (2023, 12 13). БНСУ, ОХУ-та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аар болжээ. Retrieved from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мэдээллийн агентлаг: <https://montsame.mn/mn/read/333438>
12. МУГБҮБ. (2011, 02 10).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1 оны 10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Retrieved from Эрх зүйн мэдээлл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03362&showType=1>
13. МУЗГ. (2020). Алсын хараа-205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ЗГХЭГ.
14. МУҮАБҮБ. (2010).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0 оны 48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Retrieved from Эрх зүйн мэдээлл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08070&showType=1>
15. Үржин, О., & Эрдэнэчимэг, Б. (2023).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 болзошгүй хэтийн төлөв. In О. Үржин, & Б. Эрдэнэчимэг,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ба “Туравдагч хөрш”-ийн бодлого (pp. 251-281). Улаанбаатар., БХЭШХ: “Удам соёл” ХХК., ISBN: 978-9919-9955-7-7., 21.1 х.х.
16. ҮСХ. (2023).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салбарын танилцуулга-2022.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www.1212.mn.
17. ҮСХ. (2024, 03 02). Статистикий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н сан. Retrieved from 1212.mn: https://www2.1212.mn/tables.aspx?tbl_id=DT_NSO_1400_010V3&IMPORT_Country_select_all=0&IMPORT_CountrySingleSelect=_12102_1&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 https://www2.1212.mn/tables.aspx?tbl_id=DT_NSO_1400_006V3&COUNTRY_select_all=0&

Энхболд, И. (2020). Зүүн хойд Ази дахь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ны зураглал. In Ж. Ломбо, & Л. Хаш-Эрдэнэ,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pp. 358-364). Улаанбаатар., ГХЯ: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ISBN: 978-9919-23-484-368 43.66 х.х.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on housing purchase in Mongolia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хүн ам зүй-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чин зүйл нөлөөлөх нь

U.Enkhtuyagerel(M.A)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enkhtuyagerel.u@ulaanbaatar.edu.mn

Хураангуй: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шийдвэр гаргалтад хүн ам зүй-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чин зүйлсийн нөлөөлл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нь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Хүн ам зүйн үндсэн хүчин зүйл болох нас, өрх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гэр бүлийн байдал,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нь орон сууцны эрэлтийн төлөв, хандлагыг тодорхойлдог нь тохиромжтой байршил, боломжийн үнэ зэрэг зохих үзүүлэлт болдог. Орон сууцны хүртээмж нь орон сууцанд амьдрах хүсэл, эрмэлзэл, худалдан авах бололцоо бүхий худалдан авагчийн зарим сегментийн анхаарлыг татах боломжтой юм.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гаар хүн ам зүйн хүчин зүйлийн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хүүхдийн тоо, хүүхдийн насны бүлэглэл, сууцны насжилт, гэрлэлтийн байдал, ам бүлийн тоо болон өрхийн зарлага, мөнгөн орлого зэрэг хүчин зүйлүүдээр судаллаа.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орлого, зарлага нь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бүрд ялгаатай нөлөө үзүүлж байгаа нь судалгаагаар нотлогдсон байна.

Түлхүүр үг: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хүүхдийн нас, хүүхдийн тоо, өрхийн орлого, зарлага

Оршил:

Орон сууцны зах зээлийн хөгжил нь улс орны санхүүгийн зах зээ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илд өндөр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даг. Орон сууцны хангамж, чанар болон түүний санхүүжилт нь тухайн улсын хөгжлийн түвшинг илэрхийлдэг хүчин зүйл бөгөөд дэлхийн нийтийн хөгжлийн чиг хандлагыг даган энэхүү салбарын хөгжил ч мөн шинэчлэгдэн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ж хөгжсөөр ирлээ.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эрэглэгчийн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г хангасан, ард иргэдийнхээ аюулгүй амьдрах нөхцөл бололцоог сайжруулах үүднээс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Алсын хараа -2050” боловсруулж хүний хэрэгцээнд нийцсэн чанартай, тохилог орон сууцны хангамж хүртээмж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үе гэж үзээд өрх, гэр бүлийн эрэлтэд нийцтэй,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дварт тохирсон, чанартай тохилог орон сууцаар хангах гэж зорилго тавьсан.

Орон сууц нь удаан хугацааны туршид ашиглах хүний амьдралы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анхдагч хэрэгцээ төдийгүй,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амьдралын түүхэн үеүдэд тухайн нийгмийн эрэлт, шаардлагын дагуу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ж хөгжсөөр иржээ.

Санх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нь орон сууцны зах зээлд нөлөөлж байна. Хувь хүн болон нийгмийн хязгаарлалтын үндсэн дээр хэрэглэгчийн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г

хангахуйц орон сууцыг зах зээлд нийлүүлэх нь хэрэглэгч, худалдан авагчийн амьжиргааг дээшлүүлэх төдийгүй, хот суурин газрын бохирдлыг багасгах, цаг уурын дулааралд эергээр нөлөөлөх зэрэг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аг, байгаль орчны онцгой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юм.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үндэслэл, зорилго, арга зүй:

Орон сууцны зах зээлийн дүр зургийг гаргахын тулд хамгийн чухал нөлөө үзүүлэх хүн ам, орон сууцны нийлүүлэлт, эрэлт, түүнчлэн гэр бүлийн орлого,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орон сууцны зардлы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явдал юм.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 Хэрэглэгч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шийдвэрт хүн ам зүй-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чин зүйлийн нөлөөллийг судлан тодорхойлоход оршино.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т:

- Хэрэглэгчийн худалдан авах шийдвэр гаргах онол арга зүйн хүрээний асуудлыг тодорхойлох
- Орон сууцанд амьдарч буй хэрэглэгч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үе шатыг хэрэглэгчийн зан төлөвийн онол арга зүй болон хүн ам зүйн судалгаанд тулгуурлан боловсруулах
- Орон сууцны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үзүүлэ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чин зүйлийн нөлөөллийг судлан тайлбарлах

Судалгааны мэдээллийг регресс болон корреляцийн шинжилгээ /стандарт/, олон хүчин зүйлийн корреляцийн шинжилгээгээр хийлээ. 2017-2023 оны Монгол банкны ипотекийн зээлийн судалгааны задаргаа мэдээллийг ашиглан дүн шинжилгээ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ны Кэйзер (KMO)=0.86 утгатай байгаа нь түүвэр хангалттай болохыг, Кронбах альфа (Cronbach's alpha)=0.89 утгатай байгаа нь асуултууд найдвартай болохыг тус тус илэрхийлж байна. Ач холбогдлын түвшин 0,05; 0.01 буюу 95 болон 99 хувийн магадлалтайгаар E Views-12 программ дээр үнэлж гаргав.

Судлагдсан байдал:

Эрдэмтэн Wheaton (1990), Cronin (1982), Koklic болон Vida (2001), Rashid (2012), Hood (1999) нар орон сууцны зах зээлийг хүн ам зүйн хүчин зүйлтэй холбон судалгаа хийжээ. Эрдэмтэн Wheaton (1990) судалгаандаа орон сууцны хүн ам зүйн томоохон өөрчлөлтүүдийг судла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ыг өрхийн санхүү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тайлбарлажээ.

Эрдэмтэн Wheaton 1990, Rashidi 2012, Rossi 1955, Galvez болон Kleit нар 2011 онд “өрхийн хүн ам зүйн хүчин зүйлийн өөрчлөлт нь орон сууцны худалдан авах шийдвэр, сонголтод гол нөлөөлөгч хүчин зүйлс гэж үзээд өрх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асуудалд хүйс, нас, гэр бүлийн байдал, мэргэжил, гэрийн эз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ам бүлийн тоо, өрхийн бүтэц, өрхийн орлого, зарлагын түвшин, орон сууцны зах зээлийн тухай мэдлэг, орон сууцны харьяалагдах бүс орно” гэж үзсэн байна. (Adude, 2014)

Эрдэмтэн Mateja Kos Koklic болон Irena Vida нар нь “Strategic Household Purchase Consumer House Buying Behavior” өгүүлэлдээ хэрэглэгч өөрийн туршлага, хувийн байдал, орчны хүчин зүйл, мэдрэмж, ухамсарт хүчин зүйл, эрэлт, хэрэгцээ зэрэг зорилгодоо үндэслэж шийдвэр гаргадаг гэж үзжээ. (Koklic & Vida, 2009)

Эрдэмтэн Sabagh (1969), Ritchey (1976), Priemus (1984), Musterd (1989), Smid болон Priemus (1994), Mulder (1986) нар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гэр бүлийн байдал, орлого,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нийгэм-хүн ам зүйн хүчин зүйлийг үндэслэн орон сууцны эрэлт хэрэгцээг урьдчилан таамаглах боломжтой гэдгийг нотолжээ. Дээрх хандлагын хүрээнд эрдэмтэн Росси (1955) орон сууцны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загварыг боловсруулжээ. Энэ загвар нь айл өрх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д өөрчлөлт орох буюу цөм гэр бүл үүсэх¹⁴⁹ өргөтгөх¹⁵⁰, буурах¹⁵¹, татан буулгах¹⁵² үе шатуудад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өөр өөр байна гэж үзжээ. (Danko, March 1993, pp. 580–94) Тэрээр хэрэглэгч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чилгээнд хандах хандлага нь гэр бүлийн мөчлөгөөс ихээхэн хамаарах бөгөөд зан төлөвт хүчтэй нөлөө үзүүлдэг. Өрхийн ам бүлийн тоо, бүтцийн өөрчлөлт нь орон сууцны сонголт, хэрэгцээнд үндэслэдэг гэжээ. Гэр бүлийн унтлагын өрөөний тоо, орон сууцны чанар гэр бүлийн хэрэгцээг хангах боловч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шинэ үе шат руу шилжих шилжилтэд үл нийцэлд хүргэж болох юм гэдгийг гарган иржээ.

Эрдэмтэн Del L. Hawkins David L. Mothersbaugh нар “Хэрэглэгчийн зан төлөв” номдоо эрдэмтэн Wilkes-ийн “A New Full-Nest Classification Approach” бүтээлээс иш татсан байдаг. Тус бүтээлд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г нарийвчлан судалж, залуу гэр бүл, дунд насны гэр бүл, ахмад насны гэр бүл гэж 3 бүлэгт хуваан авч үзээд дотор нь 11 ангилжээ. (Wilkes & Lee, January 2002)

Судлаач Mossel болон Valk нар (2008)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гчдыг дээд зэргийн чанараар хангах,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лгах, худалдан авсны дараах үйлчилгээний чанар, орон сууцны нөхцөлийг сайжруулах, худалдан авах сэтгэл ханамжийн түвшин шалгах боломжтой гэж үзжээ.

Эрдэмтэн Valerle Kupke (2008)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хүүхдийн тоо, гэрлэлт, шинээр ажилд орох, тушаал дэвших, нас, өрхийн орлого зэрэг нөлөөлдөг гэж үзжээ.

Clark (2003) Ажил эрхлэлтийн байдлаас шалтгаалан өрхийн эзэмшиж байгаа орон сууц, сууцны чанар, үнэ, нөхцөлөөр нь ялгаатай байдаг гэдгийг нотолсон байна. Эдгээр бүтээлүүд нь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ыг хэрэглэгчийн хүн ам зүйн хүчин зүйлтэй холбон судлах нь чухал гэдгийг нотолж байна.

Н А Morrow-Jones –ийн бүтээлд АНУ-ын орон сууцны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орон сууц эзэмшлийн хэв маягийн ойлголтыг судалж, залуу насны хүмүүс эхлээд түрээсийн байранд амьдарч байгаад дараа нь өөрийн эзэмшлийн орон гэртэй болдог талаар дүгнэжээ. 1974-1983 оны АНУ-ын орон сууцны судалгааны мэдээлэлд нас, орон сууцны шилжилт хөдөлгөөн, орон сууцны эдэлгээ гэх мэт олон нөхцөлөөр судалсан байна. Орон сууцыг түрээслэх,

¹⁴⁹ Хамтын амьдрал/ гэрлэлт

¹⁵⁰ Хүүхэд төрөх

¹⁵¹ Хүүхэд эцэг, эхээс өрх тусгаарлах

¹⁵² Эхнэр/ нөхөр хэн нэгэн нас барах

худалдан авахад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хүчин зүйлс,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йдал онцгой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юм. (Morrow-Jones, 23 January 1987) Эрдэмтэн Omagwa job Ombongi /2014/ “Demographics, housing search, asymmetric information and housing decisions amongst apartment households in nairobi county, kenya” нэг сэдэвт судалгааны ажилдаа орон сууц сонгох боло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хүн ам зүйн үзүүлэлтүүдээс хөрш сонгох, орон сууцны байшингийн байршил сонголт, орчны нөхцөл байд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гаргаж аливаа орон сууцны шийдвэр нь статистикийн хувьд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нөлөө үзүүлж болно гэж дүгнэжээ (Ombongi, 2014)

Монголын эрдэмтэн Д.Ган-Очир (2007) онд орон сууцны үнэнд нөлөөлдөг хүчин зүйлсийн үнэлгээнд хэрэглэгчийн орон сууцны байршил, ая тухтай байдал, барилгын төлөв байдал буюу үүнд барилгын чанар, барьсан компанийн нэр хүнд нь гэх мэт хүчин зүйлс нөлөөлж байна гэж дүгнэсэн байна. Тэрээр хэрэглэгч эхлээд өөрийн орлого болон нөөц бололцоондоо тулгуурлан орон сууцыг худалдан авдаг гэж үзжээ.(Ган-Очир, 2007 он) Эдгээр судлаачдын бүтээлийг үзэхэд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хувь хүний хүчин зүйл чухал нөлөөтэй бөгөөд түүнийг судлах нь зайлшгүй чухал гэдгийг нотолж байна.

Хүснэгт.1

Эрдэмтэд хүн ам зүйн хүчин зүйлийг судалсан байдал

Судлаач эрдэмтэд	Нөлөөлөх хүчин зүйлс, үзүүлэлтээр	Судалгааны тайлбар
Эрдэмтэн Wheaton 1990, Rashidi 2012, Rossi 1955, Galvez болон Kleit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Хүйс • Нас • Гэр бүлийн байдал • Мэргэжил • Гэрийн эз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 Ам бүлийн тоо • Өрхийн бүтэц, • Өрхийн орлого, зарлагын түвшин • Орон сууцны зах зээлийн тухай мэдлэг • Орон сууцны харьяалагдах бүс 	Өрхийн хүн ам зүйн хүчин зүйлийн өөрчлөлт нь орон сууцны худалдан авах шийдвэр, сонголтод гол нөлөө үзүүлэгч мөн гэж үзжээ.
Эрдэмтэн Sabagh (1969), Ritchey (1976), Priemus (1984), Musterd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 Гэр бүлийн байдал • Орлого •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 Нийгэм-хүн ам зүйн шинж чанар 	Орон сууцны эрэлт хэрэгцээг урьдчилан таамаглах явдал юм гэж эрдэмтэд үзжээ.
Peter H. Rossi and Elandor We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Эзэмшлийн төрөл • Орон сууцны төрөл • Нас • Хүүхдийн насны бүлэг • Боловсрол •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 Хадгаламж • Зээл • Сууцны насжилт, • Чөлөөт цагаа хэрхэн өнгөрөөдөг зэрэг үзүүлэлтээр судалжээ. 	Росси (1955) онд орон сууцны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загварыг боловсруулжээ
John Doling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Нас •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өөр ахмад насны гэр бүлүүдийн тэтгэврийн тогтолцоог сайжр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г нотолсо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Өмчлөлийн хэлбэр, • Төрөлтийн хувь хэмжээ, • Тэтгэврийн насыг хамааруулж үзжээ. 	байна. Ахмад насны хувийн орон сууцанд амьдардаг гэр бүлийг хямд орон сууцанд шилжин амьдрах боломжийг судлах, хямд үнэтэй орон сууцанд амьдардаг ахмад насны гэр бүлийг түрээсийн орон сууцаар хангах боломжийг судалсан байна.
Omagwa job Ombongi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Өрхийн зарлага • Эзэмшлийн төрөл •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 Боловсрол • Ам бүлийн тоо • Гэрлэлтийн байдал • Орон сууцны зах зээлийн туршлага • Мэргэжил 	Судалгааны хүн ам зүйн үзүүлэлтүүд нь хөрш сонгох, байршил сонгох, орчны нөхцөл байдалтай холбогдуулан орон сууцны худалдан авах шийдвэр гаргалт нь статистикийн хувьд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нөлөө үзүүлж байгааг нотлон харуулжээ.
Clara H. Mulder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Хүн амын тоо • Өрхийн тоо 	Хүн амын тоо,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ын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н уялдааг судалж, хүн амын тоо, өрхийн тоо нь орон сууцны эрэлт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тойг нотолжээ.

Эх үүсвэр: Судлаачийн боловсруулснаа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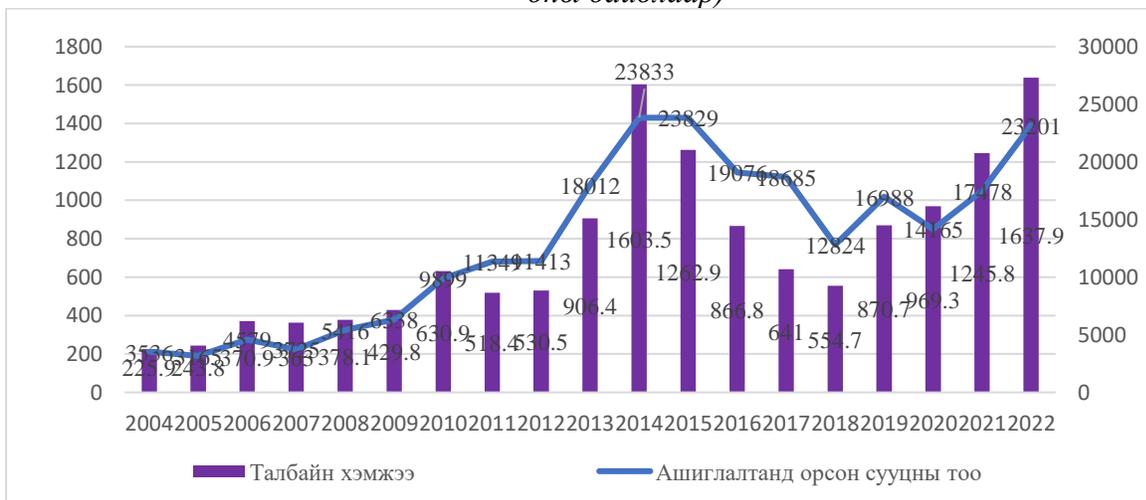
Эрдэмтэн Philip Kotler худалдан авагчийн шийдвэрт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ийн үе шат, нас, хувь хүний онцлог шинж чанар, ажил мэргэжил бол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хувь хүний өөр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зэрэг нь чухал нөлөө үзүүлдэг гэж дүгнэжээ. (Philip Kotler, 2012)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

Монгол улсын барилгын салбарт оруулж буй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жилээс жилд өсөн нэмэгдэж, түүн дотор орон сууцны барилг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нэлээд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Орон сууцны зах зээлийн хөгжил нь улс орны санхүүгийн зах зээ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илд өндөр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даг бөгөөд орон сууцны хангамж, чанар болон түүний санхүүжилт нь тухайн улсын хөгжлийн түвшин илэрхийлдэг чухал хүчин зүйлийн нэг нь байдаг ба дэлхийн нийтийн хөгжлийн хандлагыг даган энэхүү салбарын хөгжил мөн шинэчлэгдэн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ж хөгжсөөр байна.

Зураг.1

Орон сууцны барилга, сууцны тоогоор, ашиглалтад оруулсан талбай мян. м.кв (2004-2022 оны байдлаар)



Эх үүсвэр: МУҮСХ 2004-2022 оны эмхэтгэл

2013 оны 2-р улирлаас орон сууцны санхүүжилтийн тогтвортой тогтолцоог бий болгох зорилгоор Монгол банк болон Барилга, хот байгуулалтын яам хамтран найман хувийн хүүтэй ипотекийн зээлийг арилжааны банкнуудаар дамжуулан олгож эхэлсэн. Хөтөлбөрийн үр дүнд бага дунд орлоготой иргэдэд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боломж нэмэгджээ.

2004 оноос 2022 оны хооронд 247511 өрхийн орон сууц ашиглалтад орж, 14250,3 мян. м² талбай ашиглалтад оржээ. 2014, 2015 онуудад орон сууц хамгийн их буюу жилд 23800 гаруй орон сууц баригдаж хотын өнгө үзэмжийг чимж байсан байна.

2023 оны эцсийн байдлаар ипотекийн 114814 зээлдэгчийн 7.643.8 тэрбум төгрөг байгаа бөгөөд өмнөх оны мөн үеэс 17.8 хувиар өссөн үзүүлэлттэй байна.

Хүснэгт 2

Өрхийн орлогоос хамаарсан сууцны талбайн ангила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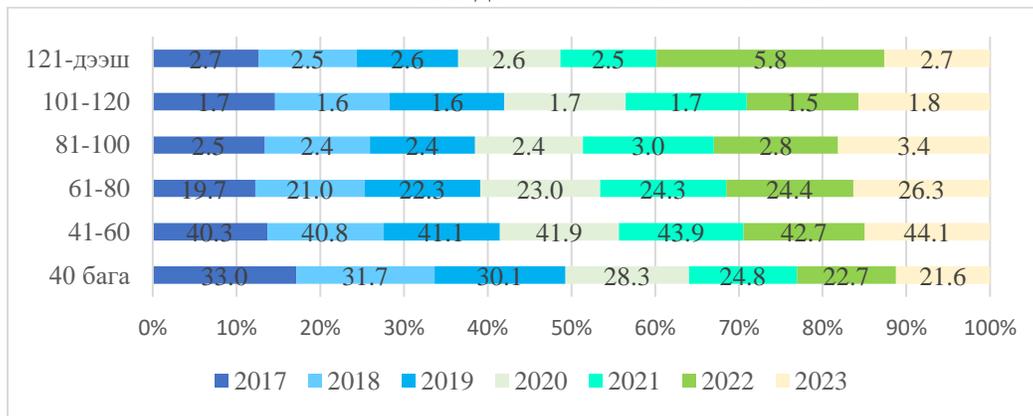
Өрхийн орлогын ангилал	Сууцны талбайн хэмжээ (м ²), өрөөний тоо					
	1	2	3	4	5	6
Өндөр орлоготой				88	96	120-оос дээш
Дунд орлоготой	40	50	60	70	87	
Энгийн орлоготой	30	36	44			

Эх үүсвэр: ЗТБХБСайдын 2010 оны 12-р сарын 23-ны 418 тоот тушаал

Тус судалгааг судлаач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ыг 40 м² бага талбайтай, 41-60 м² талбайтай, 61-80м², 81-100м², 101-120м², 120-оос дээш м² талбайтай орон сууцанд амьдардаг гэж 6 сегментээр хуваан авч үзлээ.

Зураг.2

Нийт зээлдэгчийн талбайн хэмжээ



Эх үүсвэр: <https://stat.mongolbank.mn/finance>

2017 оны байдлаар 40м² бага талбайтай орон сууц 33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сан бол 2018 онд өмнөх оны мөн үеэс 1.3 пункт, 2019 онд 1.6 пункт, 2020 онд 1.8 пункт, 2021 онд 3.5 пункт, 2022 онд 2.1 пункт, 2023 онд 1.1 пунктээр өмнөх оны мөн үеэсээ буурсан үзүүлэлттэй байгаа нь ипотекийн зээлдэгч нар нь 40-өөс дээш метр квадрат талбайтай орон сууцанд орж байна гэж үзэж болох юм. 41-60 м² талбайтай орон сууцанд 2023 онд 44.1 хувийг эзлэж байгаа нь 2017оны үетэй харьцуулахад 3,8 пунктээр өссөн үзүүлэлттэй байна. 2023 онд 61-80 м² талбайтай орон сууцанд нийт зээлдэгчийн 26.3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гаа бол 81-120 м² талбайтай орон сууцанд нийт зээлдэгчийн 7.9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Эх үүсвэр: МУҮСХ 2004-2022 оны эмхэтгэл

2004 онд орон сууцны нэг өрхөд ноогдох дундаж хэмжээ 63.9 м.кв талбай ногдож байсан бол арван жилийн дараа буюу 2014 онд нэг өрхөд ноогдох талбайн хэмжээ 67.3 м.кв буюу 2004 оны мөн үетэй харьцуулахад 3.4 м. кв талбайгаар өссөн үзүүлэлттэй байна. 2022 онд нэг өрхөд ноогдох дундаж хэмжээ 70.6 м.кв талбай ноогдож өмнөх 2014 оны мөн үеэс 6.7 м.кв талбайгаар өсжээ. 2019 оноос оноос нэг өрхөд ноогдох талбайн хэмжээ нэмэгдсэн байна. 2021 онд нэг өрхөд ноогдох талбайн хэмжээ 71,5м² болсон боловч 2022 онд 0,9 м² талбайгаар буурчээ. Монгол улсад амьдралын түвшин, амьдралын чанарын асуудал чухлаар тавигд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гааг харуулж байна.

Эрдэмтэд хүн ам зүй-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чин зүйл нь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шийдвэр, сонголтод нөлөөлөгч гол хүчин зүйл гэж үзжээ. Эрдэмтдийн судалгаагаар хамгийн их давтамжтайгаар нас, ам бүлийн тоо, ажил эрхлэлт, сууцны насжилт, мөнгөн орлого, ам бүлийн тоо зэрэг хүчин зүйлүүдийг хамааруулан судалж байна.

2024 оны 2 сарын байдлаар ипотекийн зээл авсан 115627 өрх. зээлдэгчийн нийт 7813,4 тэрбум төгрөг байгаа нь өмнөх оны үеэс 18,8 хувиар өссөн. Нийт зээлдэгчийн 18-25 нас 1.37 хувь, 26-35 нас 34.17 хувь, 36-45 нас 42.03 хувь, 45-55 нас 18.37 хувь, 56-65 нас 3.79 хувь, 66-дээш нас 0,27 хувийг тус тус эзэлж байна. Өмнөх оны мөн үетэй харьцуулахад 18-25 насны зээлдэгч 0.22, 26-35 нас 087, 36-45 нас 0,09 пунктээр өссөн бол , 45-55 нас 0.78, 56-65 нас 0,65, 65-аас дээш нас 0.02 пунктээр буурчээ. Энэ судалгаанаас харахад 45-аас дээш насныханд орон сууцны ипотекийн зээл гарах нь багассан байна гэж үзэж болох юм.

Өрхийн орлого нь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нөлөөлнө гэж үзэж шугаман регрессийн загвараар бодоход дараах үр дүн гарлаа.

Хүснэгт.3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өрхийн орлогын нөлөөлөл

А. Y-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In- орлого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3.52074	0.105913	127.6588	0.0000

IN	5.79E-07	3.94E-08	14.72354	0.0000
R-squared	0.904080	Mean dependent var	15.07793	
Adjusted R-squared	0.899909	S.D. dependent var	0.089500	
S.E. of regression	0.028315	Akaike info criterion	-4.214219	
Sum squared resid	0.018440	Schwarz criterion	-4.116709	
Log likelihood	54.67773	Hannan-Quinn criter.	-4.187174	
F-statistic	216.7827	Durbin-Watson stat	1.032664	
Prob(F-statistic)	0.000000			

Үнэлэгдсэн регрессийн тэгшитгэл

Estimation Command:

=====
LS Y C IN

Estimation Equation:

=====
Y = C(1) + C(2)*IN

Substituted Coefficients:

=====
Y = 13.520740856 + 5.79413731398e-07*IN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двар нь орлоготой хамааралтай гэдгийг шалган үзээд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орлогын нөлөөлөх нөлөө 89 хувьтай байгаа нь төлөөлөх чадвар өндөр байна. Судлаач энэ тэгшитгэлийг тайлбарлавал орлого 1 хувиар өсөхөд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5.79 пунктээр өснө гэсэн үр дүнг илтгэж байна.

Хүснэгт.4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өрхийн тэргүүний настай хамааралтай

В. у-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age- нас, age1= 18-25, age2= 26-35, age3- 36-45, age4=46-55, age5=56-65, age6= 66 дээш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3.24584	0.306038	43.28167	0.0000
AGE1	-7.33E-05	5.39E-05	-1.361256	0.1894
AGE2	2.55E-05	5.12E-06	4.992104	0.0001
AGE3	4.85E-05	1.83E-05	2.648957	0.0158
AGE4	-6.87E-05	5.95E-05	-1.153340	0.2631
AGE5	8.98E-05	5.23E-05	1.718873	0.1019
AGE6	0.000154	4.27E-05	3.601884	0.0019
R-squared	0.969955	Mean dependent var	14.79985	
Adjusted R-squared	0.960467	S.D. dependent var	0.055018	
S.E. of regression	0.010939	Akaike info criterion	-5.968138	
Sum squared resid	0.002274	Schwarz criterion	-5.629420	
Log likelihood	84.58580	Hannan-Quinn criter.	-5.870599	
F-statistic	102.2316	Durbin-Watson stat	1.325535	
Prob(F-statistic)	0.000000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двар нь өрхийн тэргүүний настай хамааралтай гэдгийг шалган үзэхэд өрхийн тэргүүний насны нөлөө 96 хувьтай байгаа нь төлөөлөх чадвар өндөр байна. Судлаач энэ тэгшитгэлийг тайлбарлавал орлого 1 хувиар өсөхөд 26-35 насны өрхийн тэргүүнтэй гэр бүл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2.55 пункт, 36-45 насны өрхийн тэргүүнтэй гэр бүл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4.85 пункт, 56-65 насны өрхийн тэргүүнтэй гэр бүл

8.98 пунктээр нэмэгдэх боломжтой байна. Харин 18-25 насны өрхийн тэргүүнтэй гэр бүл 7.33 пунктээр буурахаар бодолтоос харагдаж байна.

Хүснэгт.5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ажил эрхлэлт хамааралтай

C. у-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W- ажил эрхлэлт, W1= цалин хөлстэй, W2= Ажил олгогч, W3- Хувиараа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 W4=Нөхөрлөл хоршоонд, W5=мал аж ахуй эрхлэгч, W6= Бусад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3.09243	0.204190	64.11883	0.0000
W1	1.41E-05	1.11E-05	1.271600	0.2197
W2	-6.80E-05	8.37E-05	-0.812056	0.4274
W3	0.000109	5.52E-05	1.978898	0.0633
W4	0.000145	0.000526	0.275887	0.7858
W5	-0.000505	0.003597	-0.140487	0.8898
W6	-0.000109	9.76E-05	-1.114628	0.2797
R-squared	0.973905	Mean dependent var		14.80271
Adjusted R-squared	0.965207	S.D. dependent var		0.054139
S.E. of regression	0.010098	Akaike info criterion		-6.121379
Sum squared resid	0.001836	Schwarz criterion		-5.780094
Log likelihood	83.51724	Hannan-Quinn criter.		-6.026721
F-statistic	111.9656	Durbin-Watson stat		1.651211
Prob(F-statistic)	0.000000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двар нь ажил эрхлэлтэй хамааралтай гэдгийг шалган үзэхэд ямар ажил эрхэлж байгаагаас шалтгаалж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даг гэсэн нөлөө 96 хувьтай байгаа нь төлөөлөх чадвар өндөр байна. Судлаач энэ тэгшитгэлийг тайлбарлавал орлого 1 хувиар өсөхөд цалин хөлсөөр ажилладаг ажиллагч нь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1.4 пунктээр өсөх боломжтой байна. Харин ажил олгогч нь орлого 1 хувиар нэмэгдэхэд 6.8 пунктээр буурах үзүүлэлт гарсан нь ажил олгогчид байр худалдан авах хэрэгцээ байхгүй, орлого өсөх тусам дараагийн хэрэгцээ бизнесээ өргөтгөх тал руугаа явах нь тооцооллоос харагдаж байна. Хувиараа хөдөлмөр,эрхлэгч болон нөхөрлөл хоршоонд ажилладаг хүмүүст орлого нэмэгдсэн ч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боломжгүй хэвээр байна.

Хүснэгт.6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ам бүлийн тооны хамаарал

D. у-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F- ам бүлийн тоо, F1= ганц бие, F2= 2-3 ам бүлтэй, F3- 4-5 ам бүлтэй, F4=6 гаас дээш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4.15784	0.182911	77.40307	0.0000
F1	6.21E-06	5.52E-06	1.126364	0.2733
F2	-1.44E-05	6.06E-06	-2.378841	0.0274
F3	3.25E-05	1.35E-05	2.413560	0.0255
F4	-5.82E-06	7.74E-05	-0.075176	0.9408

R-squared	0.986971	Mean dependent var	14.80271
Adjusted R-squared	0.984365	S.D. dependent var	0.054139
S.E. of regression	0.006769	Akaike info criterion	-6.975954
Sum squared resid	0.000916	Schwarz criterion	-6.732179
Log likelihood	92.19943	Hannan-Quinn criter.	-6.908342
F-statistic	378.7664	Durbin-Watson stat	2.111408
Prob(F-statistic)	0.000000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двар нь өрхийн ам бүлийн тоотой хамааралтай гэдгийг шалган үзэхэд ямар ам бүлийн тооноос шалтгаалж өрх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нөлөө 98 хувьтай байгаа нь төлөөлөх чадвар өндөр байна. Судлаач энэ тэгшитгэлийг тайлбарлавал ганц бие өрхийн орлого 1 хувиар өсөхөд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6,2 пункт, 4-5 ам бүлтэй өрх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двар нь 3,2 пунктээр өсөх боломжтой байна. Харин 2-3 ам бүлтэй өрхийн хувьд орлого 1 хувиар нэмэгдэхэд 1.44 пункт, зургаан ам бүлээс дээш гишүүнтэй өрх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5.82 пунктээр буурах үзүүлэлт гарсан.

Дүгнэлт

Хэрэглэгчийн зан төлөвийн онол, арга зүй, судлаачдын бүтээл, монгол банкны ипотекийн зээлийн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д тулгуурлан дараах дүгнэлт хийж байна. Үүнд:

1. Гадаадын эрдэмтэд судалгаагаар хамгийн их давтамжтайгаар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ын мөчлөг, хүүхдийн тоо, хүүхдийн насны бүлэглэл, сууцны насжилт, хэрэглээ, мөнгөн орлого, гэрлэлтийн байдал, ам бүлийн тоо зэрэг хүчин зүйлүүдийг хэрэглэгч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нөлөөлөл нь өндөр байгааг судалгаагаар баталсан байдаг.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д судлаач Монгол улсын хэрэглэгч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хүн ам зүй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лөөллийг өрхийн орлого, ам бүлийн тоо, ажил эрхлэлт, настай холбон судаллаа.
2. Судалгааны дүнгээс үзэхэд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нас, ам бүлийн тоо, ажил эрхлэлт, орлогын хүчин зүйлүүд нөлөөлж байна. Нөлөөлөх хүчин зүйл нь ялгаатай бөгөөд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ад орлого, нас, ажил эрхлэлт, ам бүлийн тоо хүчтэй нөлөөтэй байгаа нь судалгаанаас харагдаж байна.
3.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двар нь орлоготой хамаарлын нөлөөлөх чадвар өндөр байна. Орлого 1 хувиар өсөхөд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лт 5.79 пунктээр өсөх боломжтой байна.

Гэр бүлийн орон сууц худалдан авах боломжийг хүн ам зүйн хүчин зүйлийн нас, ажил эрхлэлт, ам бүлийн тоогоор судлах боломжтойг судалгаагаар нотоллоо.

Ном зүй

1.

Adude, O. O. (2014). The influence of Demographics on Owner-Occupied Housing Decisions; A Case of Apartment Households in Nairobi County, Kenya. http://www.scienpress.com/upload/BEJ/Vol%204_1_2.pdf.

2. Danko, C. M. (March 1993, pp. 580–94). A Conceptual and Empirical Comparison of Alternative Household Life Cycle Models .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 Danko, C. M. (March 1993). A Conceptual and Empirical Comparison of Alternative Household Life Cycle Mode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42.
4. Koklic, M. K., & Vida, I. (2009). A Strategic Household Purchase Consumer House Buying Behavior. http://www.fm-kp.si/zalozba/ISSN/1581-6311/7_075-096.pdf.
5. Morrow-Jones, H. A. (23 January 1987). ‘The housing life-cycle and transition from renting to owning a home in the United States; multistate analysis.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465.8932&rep=rep1&type=pdf>.
6. Ombongi, O. j. (2014). Demographics, housing search, asymmetric information and housing decisions amongst apartment households in nairobi county, Kenya. http://erepository.uonbi.ac.ke/bitstream/handle/11295/77983/Omagwa_Demographics,%20housing%20search,%.
7. Philip Kotler, K. L. (2012). Marketing management. Northwestern: 14 ed. page 434.
8. Wilkes, L.-C.-4., & Lee, a. C. (January 2002). A New Full-Nest Classification Approach. Psychology & Marketing.
9. байдал, М. г. (2010 он 28 тал). Өнөөгийн гэр бүлийн бүтэц, хэв маяг. Улаанбаатар.
10. Ган-Очир, Д. (2007 он). Хедоник регрессийг ашиглан орон сууцны үнэнд нөлөөлөгч хүчин зүйлсийг илэрүүлэх нь: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н жишээн дээр
11. ЗТБХБСайдын. (2010 оны 12-р сарын 23-ны). 418 тоот тушаал.
12.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ал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 Ф. с. (2010 он). Монгол гэр бүлийн харилц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 Улаанбаатар.
13. Хөтөлбөр, З. г. (2050).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мөрийн хөтөлбөр.
14. Монгол банкны статистик 2017-2024

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tourists on the tourism industry of Mongolia

БНСУ-ын жуулчдын Монгол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т үзүүлж буй нөлөө

B.Munguntuul, A.Munkh-Erdene(M.A)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Summary

Based on secondary data such as the number, structure and growth of international and South Korean tourists who traveled to Mongolia from 2013 to 2023, the forecast of the number of tourists coming to Mongolia until 2033 was made using the statistical time series analysis (ARIMA) model. predicted the tourism market demand and attempted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Mongolia's tourism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uture prospects of Mongolia's tourism industry policy, international tourists' appreciation and attitude towards our country, management of tourism organizations and other factors remain current.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if the policy, planning and conditions of our country's tourism sector continue, we will be able to receive 2.517.340 tourists a year by 2033.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research data,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research work such as forecasting the number of tourists in South Korea by each region, determining the perspective, and further calculating the economic benefits and impacts.

Түлхүүр үг: *ARIMA загвар, динамик шинжилгээ, зах зээлийн эрэлт,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нөлөөлөл*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үндэслэл

1990-ээд онд Монгол Улс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агт шилжсэнээ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эрчимжиж, төр засгийн зүгээс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г хөгжүүлэх талаар тодорхой бодлого баримталж ирсэн. Хэдийгээр “Монгол Улсын Мянганы хөгжлийн зорилтод суурилсан үндэсний хөгжлийн цогц бодлого” болон бодлогын бусад баримт бичгүүдэ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г эрчимтэй хөгжүүлж, эдийн засгийн тэргүүлэх салбарын нэг болгоно¹⁵³ хэмээн заасан байдаг ч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 зам нь тодорхойгүй, үр дүнд суурилсан хянах механизм бүрдээгүй, тус салбарт төсөвлөсө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бага зэрэг шийдвэрлэх олон асуудлууд байсаар байна. Дэлхий нийтийг хамарсан цар тахлын дараагаас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т дахин сэргэлт явагдаж, 2022, 2023 оуудад цар тахлын өмнөх үеийн хэмжээнд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хүрч байна. 2023 онд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жуулчдад зориулсан тусгай төлөвлөгөө гаргаж, нийт 69 арга хэмжээ батлуулж, үүнээс 23

¹⁵³ Монгол Улсын Улсын Их Хурал. *Монгол Улсын мянганы хөгжлийн зорилтод суурилсан үндэсний хөгжлийн цогц бодлого*. 2008.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08 оны 12 дугаа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хөтөлбөрийг дэмжиж ажилласан байна. Тэр дундаа БНХАУ, БНСУ, ОХУ, Япон улсын жуулчдад чиглэсэн тусгайлсан хөтөлбөр гаргаж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х зүйн орчныг бүрдүүлэх, Монгол улсыг дэлхийд таниулах гадаад сурталчилгаа, маркетингийн цогц арга хэмжээг хэрэгжүүлсэнээр манай орныг сонирхох жуулчдын тоо, хэрэглэгчдийн хандалт нэмэгдэж байна.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зорилго, зорилтууд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зорилго нь Монгол Улсад 2033 он хүртэл аялах БНСУ-ын жуулчдын тоог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загвар /Time series analysis/ буюу ARIMA загвараар тооцо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ах зээлийн эрэлт, эдийн засагт оруулах нөлөөг таамаглах явдал юм. Энэхүү зорилгодоо хүрэхийн тулд дараах зорилтуудыг дэвшүүлэн тавьж шийдвэрлэнэ. Үүнд:

1. Олон улсын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ад 2013-2023 онуудад аялса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бүтэц, өсөлт зэргийг хоёрдогч мэдээлэл ашиглан судлаж, дүн шинжилгээ хийх
2. Монгол Улсад 2013-2023 онуудад аялсан жуулчдын мэдээллийг ашиглан,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шинжилгээ буюу ARIMA загвараар 2025 он хүртлэх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прогнозыг хийж,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х,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д тулгуурлан дүгнэлт санал боловсруулах зэрэг болно.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арга зүй

Уг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г үндсэн хоёр хэсэгтэйгээр, дараах судалгааны аргуудыг ашиглан хийж гүйцэтгэсэн. Үүнд:

1. Олон улсы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бүтэц, өсөлтийн судалгаа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ад 2013-2023 онуудад аялса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бүтэц, өсөлтийн динамик шинжилгээг хоёрдогч мэдээллийг нэгтгэн дүгнэх, задлан шинжлэх, таамаглах, бүлэглэх, харьцуулах (Жадамба.Ж Чимэдлхам.Ц, 2011) зэрэг нийгм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ргуудыг ашиглан гүйцэтгэсэн.
2. Монгол улсад 2033 он хүртэл жуулчлах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прогнозыг “өнгөрсөнд ажиглагдсан зүй тогтол ирээдүйд мөн ажиглагдана” гэсэн таамаглалд үндэслэ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шинжилгээ”-ний арга буюу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загварыг ашиглан тооцоолж,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ах зээлийн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ж, дүн шинжилгээ хийсэн.

Оршил

Солонгос жуулчдын онцлог

БНСУ-ын жуулчдын бусад улсын жуулчдаас ялгарах хэд хэдэн онцлог шинж чанар байдаг. Эдгээр нийтлэг шинж чанаруудаас дурдвал:

- *Бүлгээр аялах сонирхол:*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гэр бүл, найз нөхөд эсвэл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аялалын бүлгүүдтэйгээ хамт бүлгээр аялахыг илүүд үздэг. Бүлгийн аялал нь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эв нэгдэл, нийгмийн соёлын үнэт зүйлстэй нийцдэг учраас бүлгээр аялахыг илүүд үздэг.

- *Багцтай аялалыг илүүд үздэг:* Солонгосын олон жуулчи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агентлагуудаас санал болгодог багц аялалыг сонгодог бөгөөд үүнд ихэвчлэн унаа, байр, хоол, хөтөчтэй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багтдаг. Багцалсан аялал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алдартай газруудад, ялангуяа анх удаа аялж буй хүмүүст ая тухтай, боломжийн үнээр хүрэ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дог.
- *Худалдааны сонирхол:* Дэлгүүр хэсэх нь Солонго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чухал хэсэг бөгөөд олон солонгос жуулчид алдартай худалдааны дүүрэг, татваргүй дэлгүүр, тансаг дэлгүүрүүдээр дэлгүүр хэсэх боломжийг эрэлхийлдэг.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аялах үедээ загварын эд зүйлс, гоо сайхны бараа, цахилгаан бараа, бэлэг дурсгалын зүйл худалдан авах дуртай гэдгээрээ алдартай.
- *Хоолны эрэл хайгуул:*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аялах явцдаа нутгийн хоол, хоолны туршлага судлах дуртай байдаг. Хоолны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нь Солонгосын аялагчдын дунд өсөн нэмэгдэж буй чиг хандлага болж, жинхэнэ нутгийн хоол, гудамжны хоолны худалдаачид, хоолны соёлыг шимтэн үздэг.
- *Аялалын төлөвлөлтөд технологи ашигладаг:*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ерөнхийдөө технологийн мэдлэгтэй байдаг бөгөөд аялал төлөвлөх, навигаци хийх,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 тогтоох, аяллын туршлагаа хуваалцахдаа дижитал технологи, гар утасны аппликейшн дээр тулгуурладаг. Тэд ухаалаг гар утас, сошиал медиа платформ, аялалын аппликейшн ашиглан очих газраа судалж, байр захиалж, аяллаа бодит цаг хугацаанд нь баримтжуулдаг.
- *Соёлын туршлага солилцох:*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түүхэн дурсгалт газрууд, музей, урлагийн галерей, уламжлалт үзүүлбэр зэрэг соёлын туршлага, өвийн үзмэрүүдийг үнэлдэг. Тэд ихэвчлэн очсон газруудынхаа түүх, урлаг, уламжлалыг сонирхож, соёлтой танилцах боломжийг идэвхтэй эрэлхийлдэг.
-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эрхэмлэдэг:*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аялалаа төлөвлөхдөө, ялангуяа танил бус эсвэл гадаад орнуудад зочлохдоо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эрхэмлэдэг. Тэд гэмт хэргийн гаралт бага, найдвартай тээврийн систем,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дэд бүтэц сайн хөгжсөн газруудыг илүү үнэлдэг.
- *Гэр бүлд чиглэсэн:*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дунд гэр бүлийн аялал түгээмэл бөгөөд эцэг эх, хүүхдүүд, гэр бүлийн гишүүдийг хамарсан аялал байдаг. Хүүхэд эсвэл өндөр настай хамаатан садантайгаа аялахдаа гэр бүлд ээлтэй газрууд, байр, үйл ажиллагаануудыг тэд илүүд үздэг.
- *Гэрэл зураг ба селфи:*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гэрэл зураг, селфи ашиглан аялсан дурсамжаа үлдээх дуртай. Тэд Instagram, Facebook, KakaoTalk зэрэг олон нийтийн мэдээллийн хэрэгслээр дамжуулан өөрийн туршлагаа баримтжуулж, дижитал бэлэг дурсгалын зүйлс бүтээж, бусдыг аялах сэдэл төрүүлэх мэдээлэл түгээдэг.

Эдгээр шинж чанаруудыг ойлгох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оролцогч талууд болон жуулчдад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чилгээ, маркетингийн стратегиа солонгос жуулчдын хэрэгцээ, сонирхолд нийцүүлэн тохируулахад тусалж, улмаар тэдний аяллын ерөнхий туршлага, сэтгэл ханамжийг нэмэгдүүлнэ.

Монгол Улса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 тасралтгүй хөгжиж, олон улсын зах зээлд санал болгож буй бүтээгдэхүүнээ сурталчлахын хэрээр ирэх жилүүдэд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тоо улам бүр нэмэгдэх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на. Түүнчлэн БНСУ, Монгол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шууд нислэгтэй, визийн хөнгөлөлттэй нөхцөлтэй болсон нь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ад илүү хүртээмжтэй, ая тухтай аял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сон.

Үндсэн хэсэг

Олон улсын авто замын болон төмө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хөгжил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1930-аад оноос Европын улс орнуудад жуулчлах хүмүүсийн тоо нэмэгдсэнээ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тухайн үеийн нийгмийн онцгой үйл явдал болж байгааг судлаачид анзаарч эхэлжээ. Энэ үеэс уг үйл явцыг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зүгээс тайлбарлах оролдлогууд хийгдэж эхэлсэн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судлал (tourismlogy) үүсэх эхлэлийг тавьжээ. (*Dann, Nash, Pearce, 1988*).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бол бусад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албаруудтай харьцуулбал харьцангуй залуу шинжлэх ухаан гэж үздэг¹⁵⁴. Энэ утгаараа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судлалын үндсэ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ууд нь одоог болтол судлагдаж, судалгааны түвшинд олон ажлууд хийгдсээр байна. 1970-аад оноос нийгм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асуудлуудыг илүү өргөн хүрээг хамран системтэйгээр судлах болсон байна. (*Dann, G, Nash, D, Pearce, P, 1988*)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х чанарын болон тоон олон аргууд байдаг. Гэхдээ ямар аргыг ашиглаж байгаагаас үл хамаара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н таамаглалын хэрэгцээтэй байдал нь бодит жуулчдын урсгалын хэмжээнээс хамаарч тодорхойлогддог. *Frechtling, D. C* (1996)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х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 таван хэв маяг байдаг гэж үзсэн.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энгийн бус арга буюу нэг хувьсагчтай таамаглалын арга нь хувьсагч дутмаг байдаг учир богино болон дунд хугацааны таамаглалд хамгийн тохиромжтой байдаг. Нэг хувьсагчаар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х үндсэн аргуудад Holt-Winters, ARIMA, SARIMA загварууд, олон хувьсагчаар таамаглах аргад VAR, GMM, ARCH GARCH гэх мэт загваруудыг ашигладаг.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н таамаглалын талаарх дэлгэрэнгүй судалгааг *Song, H and Li, G* нар танилцуулж байсан бөгөөд 2000 оноос хойш хэвлэгдсэ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н загвар болон таамаглалын талаарх нийт 121 дотоодын болон олон улсын судалгааны ажлуудыг нэгтгэн дүгнэлт хийсэн юм. Нийт судалгааны 72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н загварыг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аргыг ашиглан тодорхойлсон байсан бөгөөд 30-аас дээш тооны судалгаа нь эконометрикс болон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аргыг нэгтгэ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н загварыг тодорхойлжээ. Ихэнх судалгаанууд улиралын чанартай чиг хандлагууд болон хэв маягуудад онцгой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сан бөгөөд эдгээр чиг хандлагууд дээр тулгуурлан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ирээдүйн үнэ цэнийг урьдчилан тооцоолохыг зорьсон. *Burger, S. J. S* (2001) зарим судлаачдын хамтаа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бүтцийн загваруудыг тодорхойлоход мэдээлэл хомс судлаачдад зориулж, таамаглалын загварыг тодорхойлох заавар зөвлөмжийг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өгөөд үүнд регрессийн арга, генетик регрессийн арга, naive method, moving average, ARIMA гэх мэт загваруудыг дурьджээ. *Diviskera* (2003) нь хэрэглэгчийн сонголт хийх онол дээр тулгуурлан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н

¹⁵⁴ Навчаа, Т (2009),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судла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загварыг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өгөөд энэ нь жуулчдын сонголт олон янз (preference) байдаг гэдгийг онцлон тодорхойлсон. *Baldigara (2013)* нь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х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таван хэв маягийг харьцуулан судалсан байдаг.¹⁵⁵ Харин гадаадын жуулчдын тухайн улсад үзүүлэх нөлөөг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эм, байгаль орчны янз бүрийн үзүүлэлтүүдийг ашиглан тооцдог. Гадаадын жуулчдын нөлөөллийг хэмжихэд ашигладаг зарим нийтлэг арга, хэмжүүрүүдэд: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лөөлөл: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лөөллийн үнэлгээ нь гадаадын жуулчдын улс орны эдийн засагт оруулах хувь нэмрийг тоон байдлаар тодорхойлох зорилготой.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ол үзүүлэлтүүд нь:

-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ардал: Гадаадын жуулчдын орон нутаг, хоол, унаа, худалдаа, үзвэр үйлчилгээ боло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бусад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зарцуулсан нийт зардал.
- Дотоодын нийт бүтээгдэхүүн (ДНБ)-д оруулах хувь нэмэ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улсын ДНБ-д оруулах шууд, шууд бус оруулсан хувь нэмэр. Шууд хувь нэмэр нь жуулчдын зарцуулалтыг багтаадаг бол шууд бус хувь нэмэр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салбаруу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усад салбаруудад үзүүлэх үр нөлөөг илэрхийлдэг.
- Ажил эрхлэлтийг бий болгох: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аас шууд болон шууд бус байдлаар бий болгосон ажлын байрны тоо, үүнд зочид буудал, зоогийн газар, тээвэр, тур оператор, жижиглэнгийн худалдааны дэлгүүр боло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бусад салбарт бий болсон ажлын байрны тоо.
- Татварын орлого: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 (НӨАТ), борлуулалтын албан татвар, зочид буудлын татвар, нисэх онгоцны буудлын хураамж болон жуулчи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бизнес эрхлэгчдэд ногдуулах бусад татвар хураамж зэрэг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үйл ажиллагаанаас бүрдсэн татварын орлого болно.

Олон улсы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динамик шинжилгээ, цаашдын чиг хандлага

Өдгөө зах зээлийн хүрээгээрээ дэлхийд тэргүүлэгч үйлдвэрлэлийн нэгд зүй ёсоор тооцогдож буй¹⁵⁶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т, дэлхийн 7 хүн тутмын нэг хэрэглэгч нь болж, тэдгээрт үйлчлэхээр 11 хүн тутмын нэг нь ажиллаж, 560 гаруй сая хүнийг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ж, нийт худалдаа эргэлтийн 12 хувийг дангаараа бий болгож, дотоодын нийт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11 хувийг бүрдүүлж байна.¹⁵⁷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сүүлийн 50 жилд 30 дахин өссөн бөгөөд өнгөрсөн жилд 1,186 тэрбум хүн жуулчилж, 2022 оноос 4,6% өссөн дүнтэй байна. Одоогоор дэлхийн хэмжээн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д 653 тэрбум ам доллар зарцуулж байгаа ба 2025 он гэхэд өдөрт 5 тэрбум ам доллар зарцуулж, дэлхийн дотоодын нийт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12 хувийг тус салбар бүрдүүлэх төлөвтэй байна.

¹⁵⁵ Julian Condratov, Pavel Stancu. (2012). The using of ARIMA models for forecasting the supply and demand indicators from tourism sector. *The USV annals of Economic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12., Issue 2(16)*

¹⁵⁶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6"

¹⁵⁷ UNWTO, Tourism Highlight 2022

ДАЖБ-аас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цаашдын чиг хандлагад нийгэм,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хүрээлэн буй орчин, техник технологийн хүчин зүйлсийн нөлөөлөх нөлөөллийг тооцон, олон улсы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өсөлтийг 2030 он хүртэл бүс нутаг тус бүрээр гаргаса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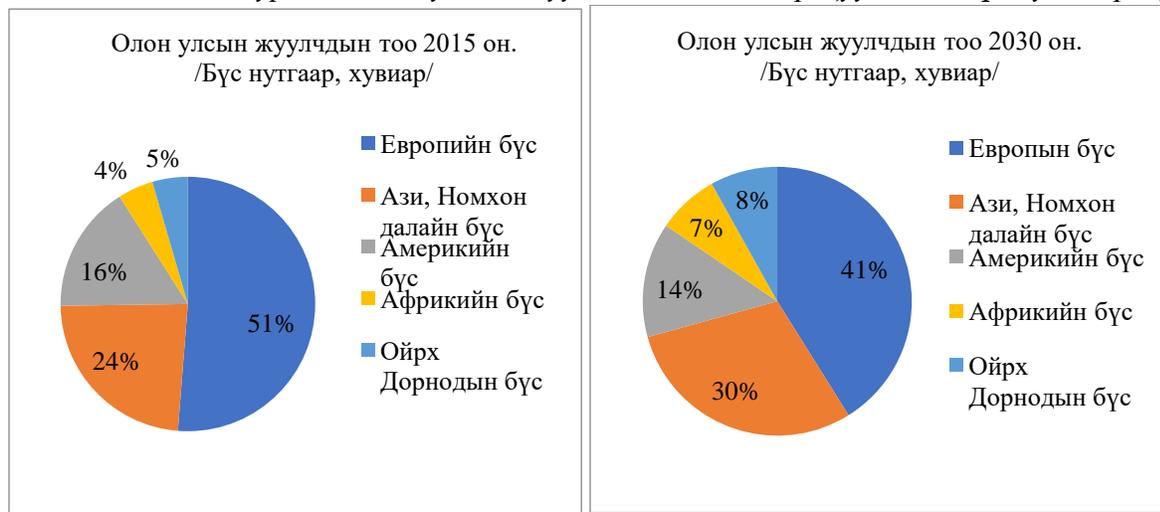
Хүснэгт 1. Олон улсы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2030 он хүртэлх таамаглал

Бүс нутаг	Жуулчдын тоо (сая жуулчин)					Жилийн дундаж өсөлт(%)				
	Бодит тоо		Таамаглал			Бодит тоо		Таамаглал		
	1980	1995	2010	2020	2030	1980-1995	1995-2010	2010-2020	2020-2030	
Дэлхий	277	528	940	1360	1809	4.4	3.9	3.3	3.8	2.9
Хөгжингүй орнууд	194	334	498	643	772	3.7	2.7	2.2	2.6	1.8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	83	193	442	717	1037	5.8	5.7	4.4	4.9	3.8
ДАЖБ-ын ангилалаар										
Африк	7.2	18.9	50.3	85	134	6.7	6.7	5	5.4	4.6
Америк	62.3	109	149.7	199	248	3.8	2.1	2.6	2.9	2.2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	22.8	82	204	355	535	8.9	6.3	4.9	.7	4.2
Европ	177.3	304.1	475.3	620	744	3.7	3	2.3	2.7	1.8
Ойрхи Дорнод	7.1	13.7	60.9	101	149	4.5	10.5	4.6	5.2	4

Эх сурвалж: UNWTO, Tourism Highlights 2018 edition.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бүс нутгийн 2030 он хүртэлх зах зээлд эзлэх хувийн таамаглалыг 2015 онтой харьцуулан харуулбал дараах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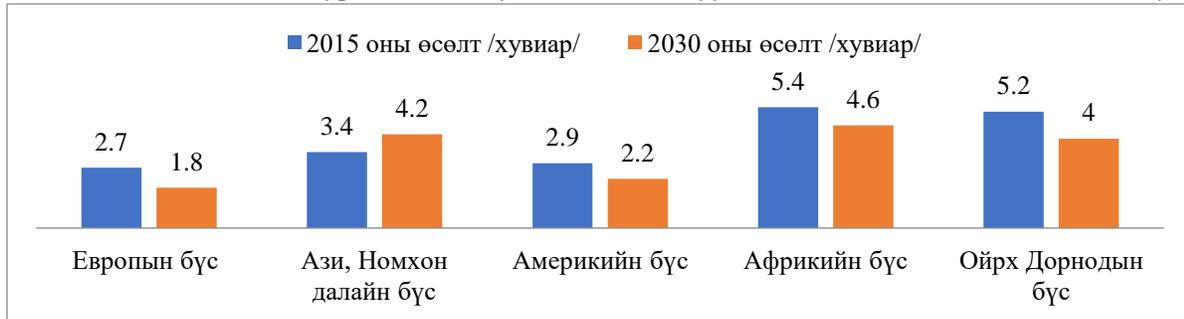
Зураг 1. Олон улсы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харьцуулалт /Бүс нутгаар, хувиар/



Эх сурвалж: UNWTO, Tourism Highlights 2016 edition.

Дээрх судалгаанаас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чиг хандлага буюу жуулчдын эрэлт хэрхэн өөрчлөгдөж байгааг харж болно. Өөрөөр хэлбэл, Европын бүс нутаг зорин ирэх жуулчдын тоогоор тэргүүлсэн хэвээр байх боловч 2020-2030 оны хугацаанд жилийн дундаж өсөлт нь 1.8% болж буурах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на. Харин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 нутгийг зорих жуулчдын тооны өсөлт болон жилийн дундаж өсөлтийн хувь 4.2% болж, зах зээлд эзлэх хувь 30% болохоор байна. Энэ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үүн Азийн дэд бүс нутагт хамаарах манай улсын хувьд тааламжтай нөхцөл болох юм.

Зураг 2.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өсөлт /2015, 2030 он, хувиар/



Эх сурвалж: UNWTO, *Tourism Highlights 2016 edition*.

ДАЖБ-ын гаргасан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2022” судалгаанаас үзвэл 2030 онд Зүүн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 нутгийн жуулчны тооны өсөлт, дэлхийн дунджаас 2 дахин их байна.

Түүнчлэн дэлхий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хөгжилд гарч буй томоохон өөрчлөлтүүд, нийгмийн дэвшил, иргэдийн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ийн өөрчлөлт зэргээс шалтгаалан, жуулчдын хэрэгцээ, хандлагад өөрчлөлт гарч, уламжлалт зах зээлээс алслагдсан, тусгай сонирхолын зах зээл буюу нээгдээгүй газар оронд очих гэсэн хүсэл, хэрэгцээ нь манай орныг зорих жуулчдын тоонд эерэгээр нөлөөлөх боломжтой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ад аялса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динамик шинжилгээ

Монгол улс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агт шилжсэн цаг үеэс эхлэн манай улсыг сонирхох гадаадын жуулчдын тоо нэмэгдэж, тус салбарын статистик тоон мэдээллийг бүртгэж эхлэх болсон.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ноос 2010 онд батлан гаргаса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татистик тооцох аргачлал”-ын дагуу Хил Хамгаалах Ерөнхий газраас амралт, сувилал, танин мэдэхүйн зорилгоор болон шашин шүтлэг, ажил хэргийн шугамаар хил нэвтрэн орж бу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г жуулчин гэсэн ангилалд бүртгэж тоог нэгтгэн гаргадаг.

2023 оны 12-р байдла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хилээр 651231 гадаадын иргэн нэвтэрсэнээс 594013 иргэ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орилгоор ирж, тэдгээрийг жуулчин гэсэн ангилалд бүртгэсэн байна.¹⁵⁸

Зураг 3. Монгол Улсад ирсэн жуулчдын тоо /2013-2023 оноор, мянган хүнээ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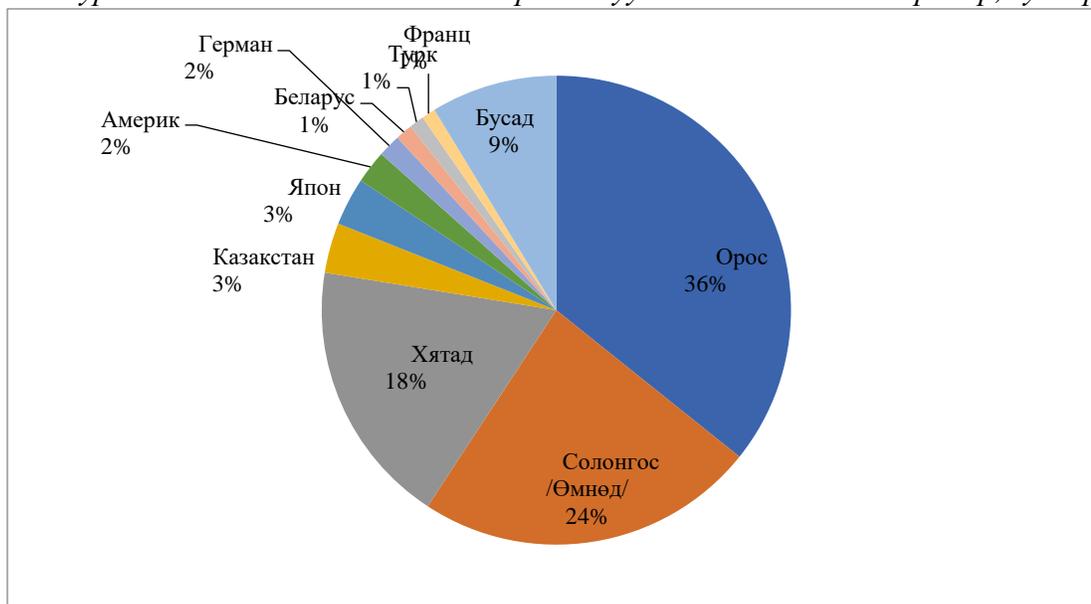
¹⁵⁸ <http://1212.mn/statHtml/statHtml.do>



Эх сурвалж: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Монгол улсад ирж байгаа жуулчдын жагсаалтын эхний байранд Азиас ирж байгаа жуулчдын тоо орж байгаа боловч, амралтын зориулалт бүхий аялал жуулчлалаас орж байгаа орлогын хувьд хамгийн чухал зах зээл нь Европ байна. Европын орнуудаас /тухайлбал Герман, Франц, Англи, Нидерланд, Итали, Швед/ ирж байгаа жуулчид нийт жуулчдийн зургаа орчим хувийг эзлэж, Хойд Америкийн /АНУ, Канад/ жуулчид гурав орчим хувийг, Австралиас ирж байгаа жуулчид нэг хувийг эзлэж байна.

Зураг 4. 2023 онд Монгол Улсад ирсэн жуулчдын тоо /Голлох орноор, хувиар/



Эх сурвалж: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Сүүлийн 10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Монголд ирэх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тоо тогтмол нэмэгдэж, жилийн дундаж өсөлт 10 орчим хувьтай байна. БНСУ-ын жуулчдын Монголд ирэх тоо жил ирэх тусам тасралтгүй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нь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иргэдий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өрөл бүрийн газруудаар аялах сонирхол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г харуул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сонирхлыг татахад хэд хэдэн хүчин зүйл нөлөөлж байна. Үүнд:

- Түүх соёлын их өв: Монгол улс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ад өвөрмөц соёл, түүхийн туршлагыг санал болгодог. Нүүдэлчдийн баялаг өв уламжлал, буддын шашны сүм

хийдүүд, уламжлалт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нь соёлын жинхэнэ туршлага олж авахыг эрэлхийлж буй солонгос жуулчдад их нийцдэг.

- *Адал явдалт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Монголын өргөн уудам, онгон дагшин байгалийн үзэсгэлэнт газрууд, тэр дундаа говь, тал хээр, уулс, нүүдэлчдийн суурьшлын бүсүүд нь адал явдал эрэлхийлэгч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г татдаг. Морь унах, тэмээгээр зугаалах, явган аялал хийх, кемп хийх зэрэг үйл ажиллагаа нь адал явдал хайж буй хүмүүсийн сонирхлыг татдаг.
- *Нүүдэлчдийн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уламжлалт гар урлал:*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Монголын нүүдэлчин ахуй соёл, уламжлалт гар урлал, гар урлалын бүтээгдэхүүнүүдийг сонирхдог. Тэд нүүдэлчин айлд зочлох, тэдний ахуй амьдралтай нь танилцах, ноолууран бүтээгдэхүүн, эсгий эдлэл зэрэг гар урлалын бүтээгдэхүүн худалдан авах зэрэг нь түгээмэл байдаг.
- *Түүхэн дурсгалт газрууд, археологийн олдворууд:*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 дурсгалт газрууд, археологийн олдворууд, тэр дундаа эртний хотууд, оршуулгын газар, хадны сүг зураг зэрэг нь түүх, археологи сонирхдог Солонгос жуулчдыг татдаг.
-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 наадам:*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 уламжлалт баяр наадамд оролцох нь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ад Монголын соёлыг шимтэн үзэ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дог. Баяр наадам, цагаан сар, бүргэдийн баяр зэрэг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оос ирсэн жуулчдын сонирхолыг ихээхэн татдаг.
- *Зэрлэг амьтан ба байгаль хамгаалах:* Монгол орны олон янзын экосистем нь зэрлэг ан амьтдыг хамгаалах, байгалийн гэрэл зураг авах сонирхолтой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г Монгол Улсын тусгай хамгаалалттай газар нутаг, байгалийн дархан цаазат газруудаар аялах сонирхолыг нэмэгдүүлдэг.
- *Гэрэл зураг, зураг авалтын боломжууд:* Монголын үзэсгэлэнт газар нутаг, нүүдэлчдийн соёл, байгалийн өвөрмөц онцлог нь гэрэл зураг, зураг авалтад маш сайхан боломжийг олгодог. Гэрэл зураг, кино урлаг сонирхдог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ид Монголын байгалийн сайхныг гэрэл зургийн хальснаа буулгахыг зорьдог.

Ерөнхийдөө Монголын байгалийн үзэсгэлэнт газар, түүх соёлын өв, нүүдлийн соёл, Монголчуудын зан заншил, ахуй соёлын элементүүд нь адал явдалт, өвөрмөц, мартагдашгүй аялалыг эрэлхийлдэг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сонирхлыг татахуйц газар болгож байна.

Зураг 5. Монгол Улсад ирсэн БНСУ-ын жуулчдын тоо /2013-2023 оноор, мянган хүнээр/



Монголыг зорин ирэх жуулчдын тоог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загвар /Time series analysis/ буюу ARIMA загвараар тооцож,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х нь

Монгол улсад 2013-2023 оны хооронд аялсан жуулчдын мэдээллийг ашиглан 2033 он хүртлэх ирээдүйн прогнозыг хийхдээ “Өнгөрсөнд ажиглагдсан зүй тогтол, ирээдүйд мөн ажиглагдана” гэсэн таамаглал дээр үндэслэн, статистикийн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шинжилгээний арга буюу /Time series analysis/ ARIMA загварыг ашиглалаа. Уг аргыг ашиглан гарах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прогноз нь 2013-2023 он хүртлэх Монгол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бодлого, олон улсын жуулчдын манай улсыг үнэлэх үнэлэмж болон хандлага,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эрхэлж буй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менежмент болон бусад хүчин зүйлс одоогийн хэвээр байх тохиолдол дахь ирээдүйн төлөв гэсэн үг юм.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Авторегрессийн ба шилжих дунджийн интегралчлагдсан процесс/ загварыг судлаач *G.M.Jenkins, G.P.Box* нар 1978 онд “Time series analysis” буюу “Хугацааны цувааны шинжилгээ: Прогноз ба хяналт” гэсэн бүтээлдээ анх нийтэлсэнээс хэрэглэх болсон бөгөөд энэ арга нь хугацааны цувааны магадлалт буюу стохастик шинжид тулгуурладаг арга юм. (Singh, 2013)

Уг загварыг цуваа стационар буюу тогтвортой шинжтэй үед хэрэглэдэг бөгөөд ялгаварт операторуудын тусламжтайгаар хугацааны стационар биш цувааг стационар цуваанд шилжүүлдэг.

Манай улсад 2013-2023 оны хооронд дэлхийн 96 орноос давхардсан тоогоор 8303530 жуулчин ирсэн бөгөөд эдгээр жуулчдыг бүс нутаг болон нийт жуулчдад эзлэх хувийн жинг харгалзан дараах бүлэгт хуваан динамик шинжилгээг хийв.

Хүснэгт 2. Жуулчдын тооны тодорхойлогч статистикууд

Улс	Судалгаанд ашиглах нэр	Программын нэр
БНХАУ	БНХАУ	RG1
ОХУ	ОХУ	RG2
БНСУ	БНСУ	RG3
Япон	Япон	RG4
АНУ, Австрали, Шинэ Зеланд	АНУ, Австрали	RG5
Европын бүс нутгийн улсууд	Европ	RG6
Бусад	Бусад	RG7
Дээрх бүх орнууд	Нийт	TOTAL

Дээрх 8 голлох орноор жуулчдын тооны тодорхойлогч статистикуудыг (Julian Condratov, Pavel Stancui, 2012) авч үзвэл дараах байдалтай тодорхойлогдож байна.

Хүснэгт 3. Жуулчдын тооны тодорхойлогч статистикууд

Статистик	RG1 БНХАУ	RG2 ОХУ	RG3 БНСУ	RG4 Япон	RG5 АНУ, Австрали	RG6 Европ	RG7 Бусад	TOTAL
Дундаж	126807.19	67918.00	24418.24	12969.43	12874.81	35610.19	7357.95	287955.81
Медиан	139283.00	66415.00	26602.00	12952.00	10316.00	37604.00	6564.00	298482.00
Хамгийн их утга	243468.00	121547.00	45476.00	18282.00	23.882.00	81671.00	18026.00	475917.00

Хамгийн бага утга	30478.00	8502.00	911.00	5725.00	4604.00	8996.00	3085.00	70217.00
Стандарт хазайлт	68829.53	30505.47	18112.30	3438.62	6439.01	22875.98	3475.38	142882.43
Тэгш хэмийн коэф	-0.01	-0.23	-0.06	-0.17	0.30	0.54	1.54	-0.10
Шовойлтын коэф	1.52	2.66	1.25	2.38	1.56	2.22	5.45	1.45
Jarque-Bera-ийн стаг утга	1.91	0.28	2.70	0.43	2.13	1.57	13.56	2.14
Jarque-Bera-ийн магадлалт утга	0.39	0.87	0.26	0.81	0.34	0.46	0.00	0.34

Эх үүсвэр: Судлаачийн тооцоо

Жуулчдын тооны статистикийг тооцсон дараа дээрх 8 хугацаан цувааг тогтвортой (стационар) эсэхийг шинжилнэ. Цуваа тогтвортой эсэхийг ADF (Augmented Dickey Fuller test) тестээр шинжилнэ.

Хүснэгт 4. ADF тестийн магадлалын утга

Хугацаан цуваа	Түвшин, тогтмол гишүүн	Түвшин, тогтмол гишүүн	Нэгдүгээр эрэмбийн ялгавар эрэмбийн гишүүнтэй тогтмол
RG1	0.6052	0.7263	0.0017**
RG2	0.5714	0.0273**	-
RG3	0.8473	0.9000	0.0592*
RG4	0.2061	0.0356**	-
RG5	0.5247	0.9652	0.0315**
RG6	0.9951	0.0299**	-
RG7	0.1596	0.0544*	-
TOTAL	0.7362	0.7453	0.0031**

Эх үүсвэр: Судлаачийн тооцоо

Энд *-90%-ийн итгэх түвшинд цуваа тогтвортой, **-95%-ийн итгэх түвшинд тогтвортой хэмээн ойлгоно. Цувааны тогтвортой эсэхийг шинжилсэн ADF тестийн үр дүнгээс харвал, RG5 буюу АНУ болон Австрали, RG1 буюу БНХАУ, RG2 буюу БНСУ, TOTAL буюу нийт гэсэн цувааны хувьд ялгавар авах замаар тогтвортой болж байгаа учраас эдгээр цувааг хугацаан цуваагаар загварчлахад хоцролтын утга нөлөөлөх боломжгүй. Мөн эдгээр цувааны хувьд автокорреляци байхгүй байна. Иймээс эдгээрийн хувьд хугацаанаас хамаарсан тренд байх боломжтой.

Үлдсэн 4 цувааны хувьд түвшин дээрээ тогтвортой трендтэй байгаа учраас тренд болон хоцролтын утгуудаас хамааран загварчл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Дээрх шинжилгээнд үндэслэн цуваа тус бүрийг тохирох тэгшитгэлээр загварчилж, үлдэгдлийн болон прогнозын графикийг гаргаж болох боловч,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д нийцүүлэн TOTAL буюу нийт жуулчдын гэсэн цувааг загварчлая.

TOTAL буюу нийт жуулчдын цувааны хувьд тогтвортой биш бөгөөд ач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автокоррелиаци буюу хамаарал ажиглагдаагүй тул дараах шугаман трендтэй тэгшитгэл хамгийн сайн тайлбарлах чадвартай байна.

$$total_t = 73262.24 + 21469.26t + \varepsilon_t$$

Хүснэгт 5. Цувааны үнэлэгдсэн тэгшитгэл

	Коэффициент	Стандарт алдаа	t-статистик	Магадлалын утга
<i>Const</i>	73263.24	22333.10	3.28	0.0039
<i>T</i>	21469.26	1910.37	11.24	0.0000
<i>R</i> ²	0.86			24.68

Эх үүсвэр: Судлаачийн тооцоо

Эндээс TOTAL цувааны буюу нийт жуулчдын тоог 2033 он хүртэл тооцоолбол дараах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Хүснэгт 6. TOTAL цувааны үнэлэгдсэн тэгшитгэлийн үр дүн

Хугацаа	Жуулчдын тоо
2024	723.841
2025	812.477
2026	911.214
2027	1.012.345
2028	1.321.466
2029	1.577.256
2030	1.789.544
2031	1.980.203
2032	2.374.111
2033	2.517.340

Эх үүсвэр: Судлаачийн тооцоо

Дээрх тооцооллоор 2033 он гэхэд манай улс жилд 2.517.340 жуулчин хүлээн авах төлөв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одоогийн байгаа байдлаас 4 дахин их жуулчин хүлээн авах тооцоолол нь "...2025 он гэхэд жуулчдын тоог 2 саяд хүргэнэ" гэсэ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г хөгжүүлэх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ийн зорилт хэрэгжих боломжгүйг харуулж байна.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ах зээлийн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хдаа боломжит зах зээл (potencial market) буюу манай улсын аялалы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чилгээг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двар бүхий жуулчдын тоогоор авч үзсэн. 2019 онд "Монгол Банк",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Үндэсний Төв"-тэй хамтран хийсэн "Монгол Улсад аялаж буй гадаадын жуулчдын зардлын түүвэр судалгаа"-аас үзэхэд, нийт жуулчдын 79 хувь захиалгат багц жуулчлалаар, 21 хувь нь хувиараа буюу бие даан аялдаг байна. Мөн жуулчид аялалын нийт зардлынхаа 74 хувийг бэлэн мөнгөөр, 26 хувийг төлбөрийн картаар гүйцэтгэдэг ажээ. Жуулчдын хувьд ирсэн улс орноосоо хамаарч зардлууд нь харилцан ялгаатай байгаа бөгөөд дунджаар 7-10 хоногт 2174 ам. доллар зарцуулж байгаа нь мөн судалгааны дүнгээр тодорхойлогджээ.

Монгол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орлогыг хоёр үндсэн аргачлалаар тооцдог. Нэгдүгээр аргачлал болох хуучнаар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газар"-ын аргачлал. Уг аргачлалаа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орлогыг тооцохдоо улсын бүртгэлд бүртгэлтэй холбогдох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тайлан тооцоогоо тогтмол ирүүлдэг тур оператор, тур агентын нэмэгдэл өртгөөр тодорхойлдог. Гэвч энэхүү аргачлал нь бодит байдлаас нилээд зөрүүтэй тооцоолдог тул Дэд бүтцийн сайдын 2002 оны 2 дугаар сарын 25-ны өдрийн 55 тоот

тушаалын хавсралтаар баталса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орлого тооцоолох аргачлал"-аар тооцоолж байна.

Энэхүү аргачлалаар тооцохдоо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т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хийж буй жуулчдын тоог аялалд зарцуулсан дундаж хугацаа, хоногт зарцуулсан мөнгөний дундаж хэмжээний үржвэрийн нийлбэр дүнгээр тооцдог байна.

Дээрх аргачлалаар 2025 он хүртлэх жуулчдаас олох орлогыг тооцвол:

Хүснэгт 7. 2025 он хүртлэх жуулчдаас олох орлого/ ам доллар/

Хугацаа	Жуулчдын тоо	Жуулчдаас олох орлого
2024	723.841	1,573,630.33
2025	812.477	1,766,325.00
2026	911.214	1,980,979.24
2027	1.012.345	2,200,838.03
2028	1.321.466	2,872,867.08
2029	1.577.256	3,428,954.54
2030	1.789.544	3,890,468.66
2031	1.980.203	4,304,961.32
2032	2.374.111	5,161,317.31
2033	2.517.340	5,472,618.90

Дээрх аргачлалаар тооцсон тус салбарын орлого харьцангуй нэмэгдсэн тооцоо гэж үзэж болох талтай. Учир нь уг тооцоонд ашигладаг жуулчдын тоо нь Хил Хамгаалах Ерөнхий Газарт бүртгэгдсэ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нийт тоо байдаг тул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бус чиглэлээр ирсэн иргэдийн зарцуулсан мөнгө давхар тооцогдох магадлалтай. Түүнчлэ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статистик, үүн дотроо бодит жуулчдын тоо, аялал жуулчлалаас олох орлого, ДНБ-д эзлэх хувь зэргийг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лон салбарын эх сурвалжуудад янз бүрээр зөрүүтэй тусгасан байдаг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аас эдийн засагт оруулж буй бодит хувь нэмрийг зөв тооцоолох,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х, зардал өгөөжийг тооцоолох,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лөөллийг зөв тооцоход хүндрэлтэй, тооцсон ч бодит байдлаас зөрүүтэй мэдээлэл гарах магадлалтай байна. Үүний тулд бодит жуулчдын тоог нэмэгдүүлэх, "Бадарчин жуулчин" буюу хувиараа аялах жуулчдын тоог хязгаарлах,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10 багц үзүүлэлтийг тооцдог олон улсын бүртгэлийн системийг /TSA буюу Tourism Satellite Account бүртгэл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нэвтрүүлэх зайлшгүй шаардлагатай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Дүгнэлт, санал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ажлаар олон улсын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ад 2013-2023 онуудад аялса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бүтэц, жуулчлах шалтгаан, өсөлтийн харьцаа зэргийг судлан, дүн шинжилгээ хийж, хугацаан цувааны шинжилгээ буюу ARIMA загвараар 2025 он хүртлэх жуулчдын тооны прогнозыг гаргаж,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ах зээлийн эрэлтийг таамаглалаа.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гээр дараах үндсэн дүгнэлт гарсан. Үүнд:

- Олон улсын хэмжээнд хүн амын өсөлт,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ын жуулчлах боломжтой дундаж давхрагын хүн амын өсөлт, техник технологийн хөгжлийн хурдац, визийн нөхцөл шаардлагуудын уян хатан байдал зэргээс олон хүчин зүйлсээс шалтгаалж жуулчдын тоо өсөх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хыг ДАЖБ болон бусад холбогдох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судалгаа харуулж байна. Ялангуяа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 нутгийн жуулчдын тооны өсөлт дэлхийн дунджаас 2 дахин их байна гэсэн таамаглал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усгай сонирхолын зорин очих газарт хамаарах манай улсын хувьд таатай боломж гэдэг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

-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ооны өсөлтийн прогнозоор 2030 он гэхэд БНХАУ хүлээн авах, илгээх жуулчны тоогоор дэлхийд тэргүүлж, 2050 он гэхэд БНСУ хоёрдугаар байранд орох төлөвтэй байгааг харгалзан газар нутгийн хувьд дөт, шууд нислэгтэй, зах зээлд нь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гээр танигдсан зэрэг давуу талаа ашиглах, тэдгээр зах зээлийн жуулчдыг татах бодлого баримтлах зэрэг болно.
- Монгол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бодлого, олон улсын жуулчдын манай улсыг үнэлэх үнэлэмж болон хандлага,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эрхэлж буй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менежмент болон бусад хүчин зүйлс одоогийн хэвээр байх тохиолдолд 2033 гэхэд 2517.340 жуулчин ирэх тооцоо гарсан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т заасан 2025 он гэхэд жуулчдын тоог 2 саяд хүргэнэ гэх зорилт биелэх боломжгүйг харуулж байна.

Монголд ирэх Солонгос жуулчдын тоог нэмэгдүүлэхийн тулд зорилтот маркетингийн стратеги хэрэгжүүлэх,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дэд бүтцийг сайжруулах, солонгос жуулчдын сонирхлыг татахуйц өвөрмөц туршлага бий болгох нь чухал юм. Үүнд:

-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кампанит ажил: Монголыг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газар гэж таниулах зорилгоор Өмнөд Солонгост зорилтот маркетингийн кампанит ажил эхлүүлэх. Дижитал маркетингийн сувгууд, сошиал медиа платформуу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нөлөөлөгчдийг ашиглан Монголын өвөрмөц газрууд, соёлын туршлага, адал явдалт боломжуудыг солонгос аялагчдад харуулах.
-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 Монгол,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эх, бие биенийхээ соёлыг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х, сонирхоход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Монголын язгуур урлаг, хөгжим, хоол, ахуй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ийг харуулсан соёлын арга хэмжээ, наадам, үзэсгэлэн, солилцооны хөтөлбөрүүд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багц: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сонирхол, сонирхолд нийцсэн тусгай аялалын багцуудыг боловсруулах. Монгол орны байгалийн үзэсгэлэнт газар, нүүдэлчдийн өв уламжлал, өвөрмөц соёлын уламжлалыг харуулсан адал явдалт аялал, соёлтой танилцах, эко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наачлага, гэрэл зургийн үзэсгэлэнг санал болгох.
- Агаарын холболт: Шууд нислэг, нэмэлт чиглэл,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нислэгийн тийзийг санал болгох замаар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оёрын агаарын харилцааг нэмэгдүүлэхийн тулд агаарын тээврийн компаниуд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 Зочлох үйлчилгээ: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хэрэгцээ, хүсэл сонирхолд нийцүүлэн зочлох үйлчилгээ, байрыг сайжруулах.
- Дижитал маркетинг: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өлөвлөлтийн явцад солонгос жуулчдад чиглэсэн хайлтын системийг оновчтой болгох (SEO), (PPC)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

агуулгын маркетинг зэрэг дижитал маркетингийн стратегийг ашиглах,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г татахын тулд Монголын онгон дагшин байгаль, нүүдэлчин соёл иргэншил, замаас хол давсан туршлага гэх мэт өвөрмөц борлуулалтын цэгүүдийг онцлон тэмдэглэх.

-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зохих арга хэмжээг хэрэгжүүлэх, яаралтай тусламжий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эх,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аялах зөвлөмж, мэдээллийг түгээх замаар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хангах. Солонгос аялагчдын дунд итгэлцэл, итгэлцлийг бий болгох нь давтан зочлох, амнаас ам дамжих эерэг мэдээллийг түгээхэд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 Тогтвортой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уршлага: Монгол орны байга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ойч үедээ хадгалж үлдэхийн тулд тогтвортой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уршлага, хариуцлагатай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наачлагыг онцлох. Солонгосын жуулчдын үнэт зүйл, ашиг сонирхолд нийцсэн байгальд ээлтэй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олон нийтэд түшиглэсэ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өсөл, байгаль хамгаалах хүчин чармайлтыг сурталчлах.

Эдгээр стратеги, санаачилгыг хэрэгжүүлснээр Монгол Улсад ирэх Солонгос жуулчдын тоог үр дүнтэй нэмэгдүүлж, улмаа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ах зээлээ төрөлжүүлж,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ийг нэмэгдүүлж, Монгол,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нэмэгд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юм.

Ашигласан материал

- Галиймаа.Н. 2013. *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Жиком пресс ХХК.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 Philip Kotler, John T.Bowen & James C. Makens. 2011.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5th edition. Prentice hall. Pearson education.
- The Mongolian Tourism Association & The Competitiveness Initiative. (2022). *International tourism survey*. Ulaanbaatar.
- БОАЖЯ, Дэлхийн банк., 2010. Байгаль орчи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н стандартуудын эмхэ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 Гансүх.Д, Гантөмөр.Д, Цэрэн.Г, Милингтон.К, Орсоо.О, Ватмоуг.В & Вингстен.Ж. 2012. *Монгол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ач холбогдол*. Хэлэлцүүлгийн баримт бичиг. Зүүн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 нутгий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департамент. Дэлхийн банк. Вашингтон хот.
- ДЭЗФ. (2019). *Дэлхийн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ын илтгэлүүд*.
- Монгол Улсын Улсын Их Хурал. 2023.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2015.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г хөгжүүлэх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5 оны 324 дүгээр тогтоолын хавсралт.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2010.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татистик тооцох аргачлал*. ҮСХ-ны даргын 2008 оны 01 дүгээр сарын 18-ны өдрийн 01/9 тоот тушаалын хавсралт.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 Монгол Улс. 2019.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г өргөжүүлэ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цаашидын хөгжлийг хангахын тулд байгалийн болон соёлын өв хөрөнгийн менежментийг бэхжүүлэх.*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 Монгол банк.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үндэсний төв. 2019. *Монгол Улсад аялж буй гадаадын жуулчдын зардлын түүвэр судалгаа.*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